

2026 미국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15
가. 정부 현황	15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6
3. 주요 이슈 Pick	23
가. (통상) 관세發 새로운 글로벌 무역질서 형성	23
나. (경제) 끈적이는 물가, 노동시장 둔화와 금리 인하	34
다. (정치) '26년 중간선거	38
라. (사회) 보수화되는 이민·노동정책	40
마. (산업) AI 중심 첨단기술 및 산업 인프라 확장	43
바. (문화) 웰니스 트렌드, 라이프스타일로 확대	46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48
가. 시장 특징	49
나. 무역	55
다. 산업	79
라. 투자	80
2. 유망 산업	89
가. 반도체	89
나. 인공지능(AI)·IT	92
다. 기계	96
라. 자동차·부품	99
마. 에너지·전력	105
바. 한류 콘텐츠	109
사. 화장품 등 소비재	112
아. 제약·바이오	115
자. 조선	120
3. 협력 기회	124
가. 통상·G2G	124
나. 프로젝트	129
다. 공급망(자원 개발)	138
라. 기타	141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146
2. 진출전략	14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187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195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199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201

I .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15
3. 주요 이슈 Pick	23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총괄) '25년 하반기 미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둔화, '26년에는 완만한 성장 전망

- (현상 유지) '25년 미국 경제는 1.4~2.0%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 '26년에는 2% 수준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5년 하반기 미국 경제는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및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며 성장세 둔화 예상
 - * '25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연율 약 2.3~2.8% 범위 내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연준(연방준비제도)의 2% 목표치를 상회(BLS, '25년 7월)
 - '26년 경제는 트럼프 감세안(BBB)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 및 세금 감면 등 단기적 부양으로 경제 성장률이 2%에 도달 전망(Tax Foundation, '25년 7월)
 - 연준은 '25년 10월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3.75~4.00%로 인하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12월 1일부로 중단, 12월 금리결정만 남겨놓은 상황

□ (호재 요인) 소비 호조가 경기 둔화를 완충하는 호재로 작용

- 소비지출 증가, 2분기 수입 급감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에 따라 '25년 2분기 실질 경제성장을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
 - * 2분기 수출(-1.8%, 투자(-15.6%)는 감소 대비 수입이 대폭 감소(-30.3%)하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했으며,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695억 달러 증가(BEA, '25년 7월)
 - '25년 9월 기준 실업률 전월 대비 0.1%p 상승한 4.4%, 월별 임금 상승률도 8월 기준 비농업 부분 전월 대비 0.3% 상승
 - * (소비자물가) '25년 1월 2.9% → '25년 6월 2.4%
 - * (근원물가) '25년 1월 3.2% → '25년 6월 2.8%(BLS, '25년 7월)
- 관세 수입으로 인한 정부 재정 확대, '26년 발효 예정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One Big, Beautiful Bill)'의 감세 조항이 기업 투자를 촉진 기대(컨퍼런스 보드, '25년 8월)
 -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5년부터 '35년 미국의 관세 수익으로 연방 재정 적자를 약 2조 5,000억 달러 감소, 이자 비용 절감 포함, 총 2조 8,000억 달러 재정개선 효과가 발생예측
- 한편, OECD는 '25년 9월 발표한 경제 중간전망에서 미국의 '25년 성장률 전망을 6월 전망 1.6%에서 1.8%로 상향, '26년 성장률 전망은 1.5%로 유지

- 9월 CPI 상승률은 예상치 3.1% 대비 하회한 3.0%, 높아진 기업의 마진율로 관세부담의 50~70%만 소비자에게 전가,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 중(WSJ)
 - 관세의 물가상승 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약 0.5~0.6%p 정도로 평가, 근원 PCE 인플레이션이 2.8%라면, 관세를 제외할 경우 2.3~2.4%(파월 연준 의장)

□ (부진 요인) 고율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증가, 노동시장 둔화

- GDP 성장률은 2/4분기 중 3.8%로 반등하였지만 투자 감소가 부분적으로 이를 상쇄, 생산이익은 2분기에 68억 달러 증가했지만 이는 이전에 공개된 추정치 대비 587억 달러 하향 조정
- 고율 관세정책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부담 가중과 소비심리 위축
 -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및 고율 관세정책은 소비와 투자, 수출입 활동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단기적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 초래
 - 고율 관세로 인한 원자재·중간재 수입 비용과 생활필수품·소비재 가격 상승이 기업 수익성 악화와 가계에 부담 초래해,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 * 고율 관세로 인해 의류·섬유 17%, 식품 2.8%의 가격 상승, 단기 소비자 물가 1.8% 상승, 평균 가구당 연간 약 2,400달러의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Budget Lab, '25년 7월)
 - 연준의 긴축통화 정책* 장기화는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 부문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경제성장률과 고용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 미국 연준은 '25년 기준금리를 4.25~4.50%로 4차례 연속 동결, 9월 0.25% 인하(4.00~4.25%), 10월 0.25% 인하(3.75~4.00%)
- 컨퍼런스 보드 10월 발표 소비자신뢰지수(CCI, Consumer Confidence Index)는 9월 95.6 대비 1.3포인트 하락, 94.3 기록
 - * 현재 경기상황 판단 지수(Present Situation Index) : ('25년 7월) 132.8 → ('25년 8월) 131.2 → ('25년 10월) 129.3
 - * 미래 경기상황 판단 지수(Expectations Index) : ('25년 7월) 76.0 → ('25년 8월) 74.8 → ('25년 10월) 71.5
- ISM 제조업지수는 9월 49.1, 10월 48.7로 기준치(50) 하회, 경기위축 국면 시사
 - 신규 주문 감소와 수출 둔화가 영향을 미쳤으며, 고금리와 글로벌 수요 둔화가 제조업 심리를 압박
-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LEI)는 8월에 0.5% 하락, 98.4('16년=100 기준) 기록
 - LEI는 '25년 2~8월까지 6개월 동안 2.8% 하락했는데, 이는 직전 6개월('24년 8월~'25년 2월) 동안 기록된 0.9% 감소보다 더 빠른 하락 속도
 - 제조업 신규 주문 및 소비자 기대 지표 부진, 노동시장 동향 악화와 고율 관세 영향 지속, '25년 상반기 성장 둔화 및 '26년 상반기 성장 제약

- 10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종료 후,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전망 및 리스크에 대한 참석자 간 견해 차이가 커 향후 정책 경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12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는 미리 정해진 결론(Foregone Conclusion)이 아니라고 답변

□ (주요 지표)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별 전망과 정책 변수별 영향

- (경제성장률) '25년 미국 경제는 1.4~2.0% 범위 내 경제성장률 기록 예상
 - '25년 미국 경제는 성장 둔화 속에서도 2분기 견조한 소비와 수입 급감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했으나 하반기 둔화 전망
 - * '25년 1분기 미국 경제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0.5% 위축되었으나 2분기에는 수입의 대폭 감소 및 소비 지출 증가에 기인해 2분기 GDP 연율 3.8% 증가하며 반등(BEA, '25년 9월)
 - 고율 관세와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동시에 내수 및 수출 부문에 부담을 주어 성장 둔화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존재
 - '26년에는 관세·투자비용 공제·연방 지출 확대에 힘입어 2.2%로 반등하나, '27~'28년에는 성장률이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관세 영향으로 '25년 3.1%까지 상승하나, '26년 2.4%, '27~'28년 2.0%로 하락하며 연준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
 - 연방기준금리는 '25년 4.0%에서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28년 3.3%에 도달하며, 10년물 국채금리도 동기간 4.3%에서 3.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별 '25~'26년 경제성장률(GDP) 전망

구분	IMF (25년 10월)	OECD (25년 9월)	콘퍼런스 보드 (25년 9월)	FRB (25년 9월)	CBO (25년 9월)	WB (25년 8월)
2025년	2.0%	1.8%	1.6%	1.6%	1.4%	1.9%
2026년	2.1%	1.5%	1.3%	1.8%	2.2%	2.0%
1인당 명목 GDP(달러)	-	65,561	64,454	-	-	77,860

자료: IMF(국제통화기금, '25년 10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5년 9월), Conference Board('25년 9월),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25년 9월), WB(세계은행, '25년 8월), CBO(미국 의회예산국, '25년 9월)

- (IMF) '25년 성장을 전망은 10월 기준 2.0%로 4월 기준 전망보다 +0.2%p 상향, '26년 성장을 2.1%, 4월 전망 대비 +0.4%p 상향
 - * 4월 발표보다 관세율이 낮게 유지되었고, 금융여건 완화(금리 인하 전망 포함)
 - * 다만, 민간수요 둔화(예상보다 빠른 소비 위축)와 이민 약세가 일부 상쇄 요인
 - *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효과로 기업 투자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경기 부양

'25년 8월 FOMC 대비 9월 FOMC 경제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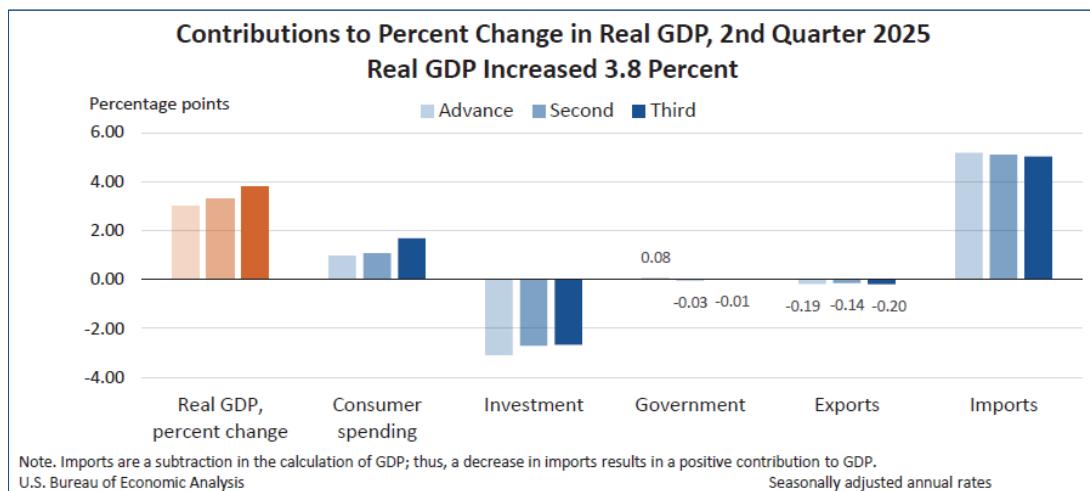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기 전망
GDP	1.4 → 1.6↑	1.6 → 1.8↑	1.8 → 1.9↑	1.8	1.8 → 1.8
실업률	4.5 → 4.5	4.5 → 4.4↓	4.4 → 4.3↓	4.2	4.2 → 4.2
PCE	3.0 → 3.0	2.4 → 2.6↑	2.1 → 2.1	2.0	2.0 → 2.0
Core PCE	3.1 → 3.1	2.4 → 2.6↑	2.1 → 2.1	2.0	- → -
정책금리	3.9 → 3.6↓	3.6 → 3.4↓	3.4 → 3.1↓	3.1	3.0 → 3.0

자료: 한국은행, FED(연방준비제도) 재인용, Median Projection 기준

- (FRB(연방준비제도)) 경제성장률은 '25~'27년 상향 조정*, 실업률은 '26~'27년 하향 조정, 물가는 PCE, Core PCE 모두 '26년 상향 조정, 정책금리는 '25~'27년 하향 조정
 - * 2분기 GDP 상향 조정(3.0% → 3.3%), 소비지표(개인지출, 소매판매 등) 개선세 등이 고려되고 일부 AI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능성에 반영되었을 것(Barclays, TD 등)
- (CBO(미국 의회예산국)) '25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1월)했으나, 9월에는 이를 1.4%로 하향 조정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GDP 성장률은 '24년 2.8%, '25년 1.8%, '26년 1.5%로 둔화 전망
 - * 이러한 둔화는 높은 관세율의 영향(특히 미국 수입관세의 상승), 무역·투자 불확실성 확대, 수입수요의 선제적 견인(Front-loading)이 앞으로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 기인
- (고용) '25년 9월 기준 4.4%(미국 노동부),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9월 6일 주 26만 3,000건에서 9월 20일 주 21만 8,000건으로 감소
 - 세제 감면과 근로 유인 강화가 고용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나, 이민정책 강화에 따른 노동력 제약으로 단기 개선 후 중기적 불안정 국면에 진입 평가
 - 9월 기준, 전체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11만 9,000명 증가, 예상치 5만 명 상회
- (투자) '25~'26년 민간투자는 정책적 지원으로 확대되나, '27년 이후에는 재정 부담과 금리 여건으로 제약이 심화될 전망
 - 총요소생산성(TFP)은 연구개발·인프라 투자 확대로 개선되나, 노동력 제약으로 잠재성장을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민간투자) 경기 침체 우려와 관세정책 변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투자 및 생산 활동은 점차 회복세를 나타냄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전략적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 내 AI·에너지·첨단산업* 인프라 경쟁력 강화 추진
 - * 제조업 투자는 첨단산업인 AI·반도체에 집중(50.9%)되어 있으며, 자동차·철강 부문은 50% 고율 관세로 인해 10% 투자 축소 예상(연준, '25년 7월)

- 연준은 10월 FOMC 후, AI와 관련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AI 관련 투자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평가
- (산업생산) 글로벌 공급망 조정과 기업 비용 상승으로 생산 활동 위축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업 비용 상승에 따른 압력으로 산업생산은 둔화세에 진입, '26년 회복 속도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EIU, '25년 8월)
 - * '25년 2분기 산업생산 0.5% 증가, 제조업 생산(자동차·철강 중심)은 관세로 1.3% 감소(연준, '25년 8월)
 -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는 안정적 내수 수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병존하나, 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수요가 전체 산업생산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전망
 - BEA(미국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5년 2분기(Real 기준)에 산업 전체의 실질 총 산출액은 전분기 대비 3.8 % 증가, 서비스 소비(운송, 금융·보험 서비스), 자동차 판매(신차·중고 트럭)가 증가에 기여

〈미국 2025년 2분기 GDP 성장률〉



자료: BEA(미국 경제분석국)

- (교역) 관세 인상으로 '25년 실질 수입 -3.7%, 수출 -5.0% 감소가 예상되며, '26~'28년에는 수입이 연평균 -0.2%, 수출은 +2.3%로 점진적 회복세
 - (WTO(세계무역기구)) AI 관련 상품 수요와 조기 수입 증가로 '25년 세계 무역 성장을 2.4%로 상향했으나, 관세 영향으로 '26년에는 0.5%로 하락 전망
- (재정)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의하면 26년 수입은 17.8%, 지출은 23.3% 증가, 재정적자는 GDP 대비 5.5% 예상, '25년의 6.2% 대비 축소

〈'25~'35년 예산과 경제 전망〉

The Budget Outlook, by Fiscal Year									
	Average, 1975–2024	Percentage of GDP				Billions of dollars			
		Actual, 2024	2025	2026	2035	Actual, 2024	2025	2026	2035
Revenues	17.3	17.1	17.1	17.8	18.3	4,918	5,163	5,580	8,031
Individual income taxes	8.0	8.4	8.7	9.5	10.0	2,426	2,621	2,968	4,413
Payroll taxes	6.0	5.9	5.8	5.9	5.9	1,709	1,759	1,840	2,605
Corporate income taxes	1.8	1.8	1.7	1.6	1.2	530	524	495	517
Other	1.5	0.9	0.9	0.9	1.1	253	259	277	496
Outlays	21.1	23.7	23.3	23.3	24.4	6,826	7,028	7,294	10,730
Mandatory	11.1	14.3	14.0	14.0	15.1	4,130	4,228	4,386	6,626
Social Security	4.4	5.0	5.2	5.3	6.0	1,454	1,572	1,664	2,624
Major health care programs	3.5	5.8	5.8	5.8	6.7	1,669	1,754	1,832	2,949
Medicare	2.1	3.2	3.1	3.2	4.0	910	942	1,000	1,753
Medicaid, CHIP, and marketplace subsidies	1.3	2.6	2.7	2.7	2.7	759	812	831	1,196
Other mandatory	3.2	3.5	3.0	2.8	2.4	1,006	902	891	1,053
Discretionary	7.9	6.3	6.1	6.1	5.3	1,815	1,848	1,897	2,322
Defense	4.2	3.0	2.9	2.8	2.4	855	859	866	1,053
Nondefense	3.7	3.3	3.3	3.3	2.9	960	989	1,031	1,268
Net interest	2.1	3.1	3.2	3.2	4.1	881	952	1,010	1,783
Total deficit (-)	-3.8	-6.6	-6.2	-5.5	-6.1	-1,907	-1,865	-1,713	-2,699
Primary deficit (-)	-1.7	-3.6	-3.0	-2.2	-2.1	-1,026	-913	-703	-916
Debt held by the public at the end of each period	49.7	97.8	99.9	101.7	118.5	28,199	30,103	31,883	52,056

See Appendix B.

자료: CBO(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 2025 to 2035)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명	329	331	332	334	337	340	342	342
명목 GDP	십억 달러	21,540	21,354	23,681	26,007	27,721	29,185	30,507	31,820
1인당 명목 GDP	달러	65,561	64,454	71,307	77,860	82,304	85,812	89,105	92,880
실질 성장률	%	2.6	-2.2	6.1	2.5	2.9	2.8	2.0	2.1
실업률	%	3.7	8.1	5.4	3.6	3.6	4.0	4.4	4.1
소비자물가 상승률	%	2.4	1.8	1.3	4.7	8.0	4.1	2.7	2.7
재정수지(GDP 대비)	%	-5.8	-14.1	-11.4	-3.7	-7.8	-8.0	-7.4	-
총 수출	백만 달러	2,554,094	2,172,846	2,584,068	3,058,445	3,092,536	3,232,524	2,251,707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81,147	69,693	86,500	96,876	91,927	93,930	45,052	-
총 수입	백만 달러	3,113,364	2,818,888	3,421,342	3,982,174	3,866,741	4,136,057	2,965,302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89,210	86,562	132,205	132,205	132,520	148,589	85,802	-
무역수지	백만 달러	-559,270	-646,042	-837,274	-923,729	-774,205	-903,533	-713,595	-
경상수지	백만 달러	-441,963	-593,438	-858,632	-993,134	-928,002	-1,185,301	-251,312	-115,00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	1	1	1	1	1	1	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18	2,269	2,395	2,971	2,732	3,037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425	959	3,861	3,308	2,897	2,847	N/A	N/A

자료: '25년 총 수출입 및 对한 수출입은 8월 누적액 기준(U.S. Department of Commerce), 경상수지는 '25년 2분기 기준(U.S. Department of Commerce), '26년 전망(IMF)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상황)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5년 2분기(4~6월)에 3.8% 증가
 - 1분기 실질 GDP는 0.6% 감소(수정치)한 것으로 확정
 - 실질 GDP 증가의 주요 요인은 수입 감소(GDP 산정에서 차감 요인)와 소비자출 증가, 그러나 투자와 수출 감소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
- (노동) '25년 9월 기준, 고용사정은 취업자 수가 11만 9,000명 증가, 4월 이후 거의 변화 없는 흐름이며, 실업률도 0.1%p 상승, 4.4%(BLS(미국 노동통계국))
 - 시간당 평균임금 전월 대비 0.2% 상승, 최근 12개월 대비 3.8% 상승
- (소비) 인플레이션 및 관세 리스크 확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 미국 소비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지수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
 - * 미시간대 '25년 소비자 심리지수 71.7(1월), 64.7(2월), 57.0(3월), 52.2(4월), 52.2(5월), 60.7(6월), 61.7(7월), 58.2(8월), 55.1(9월), 53.6(10월)
 -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을 우려, 재량 지출(여행, 외식 등)은 축소, 필수 내구재, 특히 자동차 구매 의향은 증가 추세(컨퍼런스 보드, '25년 8월)
 - '25년 하반기 소비자 신뢰지수 7월 이후 하락 추세(컨퍼런스 보드)
 - * 7월 98.7, 8월 97.4, 9월 94.2, 10월 94.6
 - '25년 8월 기준, 명목 개인소비지출 PCE는 전월 대비 0.4% 증가, 음식·에너지를 제외한 Core PCE 전년 동기 대비 연간 상승률은 2.9%(BEA)
- (주택시장) 8월 신규주택 판매는 연율 환산 80만 채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7월 대비 20.5% 증가한 수치(Census.gov)
 - 이러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판매 인센티브 덕분에 매수자들이 시장으로 다시 유입된 결과
 - 최근 9월 중순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약 6.26%로 하락(Freddie Mac)
- (물가) '25년 9월 미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 식품은 3.1%, 에너지는 2.8% 상승(BLS)
- (기대인플레이션) '25년 9월 중 기대인플레이션은 단기(1년, 4.8%)는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장기(5년, 3.9%)는 전월 대비 상승(미시간대, Surveys of Consumers)

구성항목별 CPI 상승(전월 대비, 계절 조정)

(단위: %)

	전월 대비 계절 조정 변경									전년 대비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25년 7월	'25년 8월	'25년 9월			
모든 항목	-0.1	0.2	0.1	0.3	0.2	0.4	0.3			3.0
식품	0.4	-0.1	0.3	0.3	0	0.5	0.2			3.1
- 가정식품	0.5	-0.4	0.3	0.3	-0.1	0.6	0.3			2.7
- 외식 ¹⁾	0.4	0.4	0.3	0.4	0.3	0.3	0.1			3.7
에너지	-2.4	0.7	-1	0.9	-1.1	0.7	1.5			2.8
에너지원자재	-6.1	-0.2	-2.4	1	-1.9	1.7	3.8			-0.4
휘발유(모든 유형)	-6.3	-0.1	-2.6	1	-2.2	1.9	4.1			-0.5
연료	-4.2	-1.3	0.9	1.3	1.8	-0.3	0.6			4.1
에너지서비스	1.6	1.5	0.4	0.9	-0.3	-0.2	-0.7			6.4
전기	0.9	0.8	0.9	1	-0.1	0.2	-0.5			5.1
유저리티(배관)가스서비스	3.6	3.7	-1	0.5	-0.9	-1.6	-1.2			11.7
모든 항목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항목	0.1	0.2	0.1	0.2	0.3	0.3	0.2			3.0
원자재에서 식량 및 에너지 원자재를 제외	-0.1	0.1	0	0.2	0.2	0.3	0.2			1.5
새로운 차량	0.1	0	-0.3	-0.3	0	0.3	0.2			0.8
중고차 및 트럭	-0.7	-0.5	-0.5	-0.7	0.5	1	-0.4			5.1
의복	0.4	-0.2	-0.4	0.4	0.1	0.5	0.7			-0.1
의료상품(1)	-1.1	0.4	0.6	0.1	0.1	-0.3	-0.1			0.7
에너지 저사용서비스	0.1	0.3	0.2	0.3	0.4	0.3	0.2			3.5
주거시설(Shelter)	0.2	0.3	0.3	0.2	0.2	0.4	0.2			3.6
교통서비스	-1.4	0.1	-0.2	0.2	0.8	1	0.3			2.5
의료서비스	0.5	0.5	0.2	0.6	0.8	-0.1	0.3			3.9

주: 1) 계절 조정 미반영

자료: BLS(미국 노동통계국)

- (금리) 9월 연방기금금리 25bp 인하(4.25~4.50% → 4.00~4.25%, Miran 이사 50bp 인하 소수 의견), 10월에 2차 인하(4.00~4.25% → 3.75~4.00%)
 - 10월 FOMC는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리스크 간 균형의 변화를 감안,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25bp 인하하여 3.75~4.00%로 결정
 - 아울러 대차대조표 축소를 12월 1일자로 중단하기로 결정

〈9월 연방기금목표금리 인하〉



자료: WSJ, FRB(미국 연방준비제도)

〈10월 연방기금목표금리 인하〉



자료: WSJ, FRB

- (환율) 연준의 금리 인하, 주요국 통화 강세 등으로 연초 대비 약세
 - * '25년 달러인덱스(월말) : 1월 108.4 → 2월 107.6 → 3월 104.2 → 4월 99.5 → 5월 99.3 → 6월 96.9
→ 7월 100.0 → 8월 97.8 → 9월 97.87 → 10월 99.8
- (대외 교역) '25년 8월 기준 미국의 수출은 2조 2,517억 달러, 수입은 2조 9,65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7,135억 달러

미국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수출	2,584,068	3,058,445	3,092,536	3,232,524	2,251,707
수입	3,421,342	3,982,174	3,866,741	4,136,057	2,965,302
무역수지	-837,274	-923,729	-774,205	-903,533	-713,595

자료: BEA

- (투자 유치) '24년 말 기준,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잔액은 3,321억 달러 증가하여 5조 7,077억 달러
 - 증가분은 주로 유럽으로부터의 투자 잔액이 2,047억 달러 증가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중 영국이 529억 달러, 독일이 397억 달러 증가한 것이 반영되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분야 자회사들의 증가 폭이 가장 커짐

미국 내 FDI 잔액(원가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전체 국가 합계	아시아·태평양	한국
2024년	5,707,721	1,081,842	92,050
2023년	5,375,582	997,712	79,452
2022년	5,124,179	935,073	65,286
2021년	5,066,419	924,552	66,141
2020년	4,613,481	884,928	60,548
2019년	4,398,763	872,020	55,606
2018년	4,179,984	748,061	57,998
2017년	3,952,314	721,264	55,568
2016년	3,561,808	620,189	42,426
2015년	3,354,907	579,708	39,784

자료: BEA

- (투자 진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잔액(누적 투자 규모)은 '24년 말 기준 2,063억 달러 증가하여 약 6조 8,326억 달러를 기록
 - 주로 유럽, 특히 룩셈부르크와 독일에서의 884억 달러 증가가 주도
 - 산업별로는 제조업 자회사가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이 증가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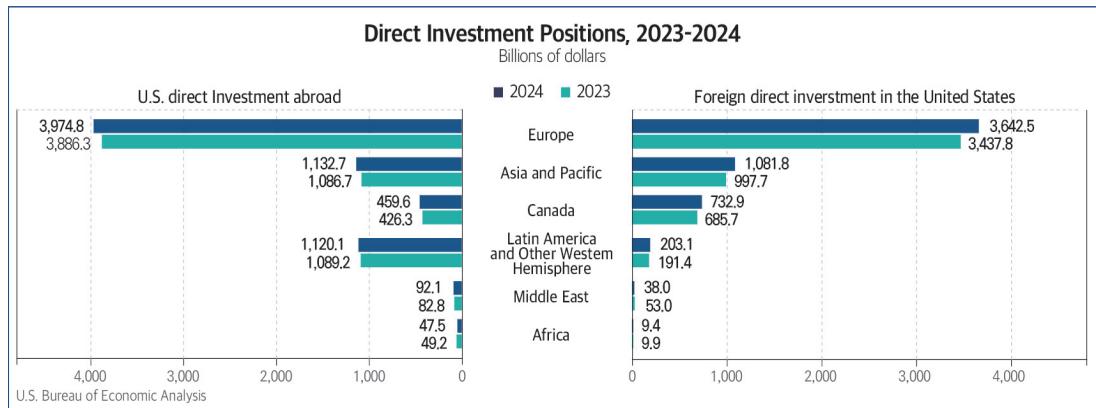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잔액(원가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전체 국가 합계	아시아·태평양	한국
2024년	6,826,786	1,132,698	36,387
2023년	6,620,475	1,086,692	34,355
2022년	6,244,702	971,894	29,726
2021년	6,229,992	985,690	38,181
2020년	6,063,288	940,473	37,550
2019년	5,836,983	922,502	37,992
2018년	5,792,290	879,968	37,282
2017년	6,097,690	938,668	40,237
2016년	5,518,644	867,916	39,278
2015년	5,289,071	847,102	38,608

자료: BEA

〈미국의 투자유치, 투자진출 동향〉



자료: BEA

2. 정치(정책) 환경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로 경제 불확실성 확대
- 미국-중국 간 공급망 디커플링 등 경제안보 기조 강화
- 현지 취업비자 H-1B 비자 발급요건 강화 등

가. 정부 현황

□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역대 최다 행정명령 시행

- 제45대 대통령에 이어 이례적으로 비연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를 전개

※ 주요정책기조

- 보호무역 강화 :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 리쇼어링·해외직접투자(FDI) 유도
- 화석연료 개발·수출 확대, 파리협약 탈퇴 →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 전망
-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촉진
- 이민 규제 강화, 첨단산업 고급인재 비자 발급요건 강화

자료: KOTRA

- '25년 1월 대통령 취임 아래, 수백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 각서, 포고문을 잇달아 발효하며, 입법 절차를 우회하고 권한을 행정부로 집중
 - 특히, 행정명령(E.O. 14215, 2월 18일)으로, 독립기관에 중앙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법 해석 권한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위임하는 등 중앙집권적 체제 강화

□ (입법부) 의회 다수당 공화당이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통치 기반으로 작용

- '24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며 의회 권력 장악
 - 약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및 지출 법안이 공화당의 일방적 지지 속에 통과되는 등,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적극 뒷받침
- 다가오는 '26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 구도가 변동될 가능성성이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

□ (사법부)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우호적 기류

- 현직 대법관 9명 중 6명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사로, 보수 성향의 압도적 우세 유지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대법관 3인 지명
 - 트럼프 1기 정부에 이어 2기에도 대법관과 연방판사에 대한 대통령 지명권을 적극 활용해 장기적 보수 사법부 체제 구축을 진행 중
- 최근 대법원은 다수 판결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임
 - 이민·안보, 공무원 감축, 독립기관장 해임 등 중대 사안에서 정부정책 인정
- 상호관세에 대한 심리가 연방대법원에서 개시(11월 5일), 대통령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권한이 관세부과까지 포함되는지, 의회의 무역입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관세)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 통한 제조업 육성 및 경제안보 강화

- (상호관세) 183개국에 대해 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
 - EU 포함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차등 상호관세율 확정
 - (상호관세) 183개국 대상 발표('25년 4월 1일), 68개국 및 EU 대상 상호관세율 발표('25년 8월 1일부)

미국 USTR(무역대표부) 산식		미국 USTR 상호관세 산식 설명
$\Delta\tau_i^* = \frac{\text{수출}^i - \text{수입}^i}{\text{관세의 무역탄력성} \times \text{관세의 가격전가도} \times \text{수입}^i}$ <p style="text-align: center;">(* 4로 가정) (* 0.25로 가정)</p> <p style="text-align: center;">$4 \times 0.25 = "1"$</p> $\Delta\tau_i^* = \frac{\text{수출}^i - \text{수입}^i}{\text{수입}^i}$ <p style="text-align: center;">→ 미국의 i국에 대한 순수출/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x(-\Delta\tau_i^*/2 \times 100, 10)$ * $\Delta\tau_i^*$: i국 대상 미국의 -순수출, 즉 순수입인 무역 적자 의미 = “무역수지 적자 $\times 1/2$”과 “10%” 중 큰 값을 상호관세율로 적용한다는 의미 * 만약 미국이 흑자면, 상호관세는 0+기본 10% 상호관세 → 무역 적자 규모와 상호관세율 비례 	

자료: USTR(미국 무역대표부)

- (품목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50% 품목관세 부과, 반도체 및 의약품 부과 예고

□ (자동차) 미국 상무부, 232조 적용 자동차 부품 관세 품목 확대 절차 착수

- (개요)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 추가 절차를 위한 임시 최종 규칙 발표(9월 16일)에 자동차 부품을 신규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수립하도록 규정
 - 이번 임시 최종 규칙은 해당 관세 목록 확대를 위한 절차 개시를 목적
- (상세 절차) 미국 상무부, 업계 의견 수렴 후 60일 내 신규 관세 대상 확정예정
 - (의견 접수) 산업안보국(BIS)은 매년 1·4·7·10월 총 4차례에 걸쳐 미국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 첫 번째 접수는 10월 1일부터 시작해 14일간 진행

□ (철강·알루미늄) 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접수

- (개요)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요청 접수 공고
 - 산업안보국(BIS)은 232조 철강·알루미늄 50% 부과 대상 파생상품 목록 추가를 위한 신청 진행 ('2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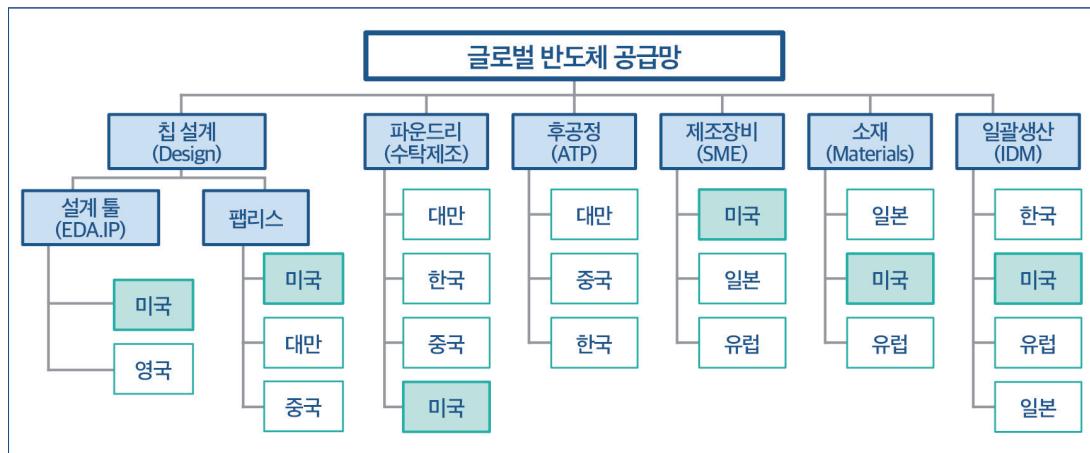
□ (제조업)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제조업 육성 정책

-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역량 강화 적극 추진
 -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와 국가안보 목적 품목별 관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미국 제조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
- (지분투자) 반도체,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분 확보
 - 미국 반도체 제조사 인텔(Intel)에 정부가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분 10% 확보
 - * △ US Steel 정부 지분(골든 쇼어) 확보, △ MP Materials 희토류 지분 취득, △ 엔비디아·AMD 對중국 매출의 15% 징수 등 전략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직접 개입 확대

□ (공급망)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이어 엔비디아 H20 등 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파급 영향에 대한 관심 고조

- 미국은 '22년부터 14nm 이하 반도체 공정을 규제 및 엔비디아 H800 등 중국 우회용 반도체 수출도 차단, 對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유출 견제
 - '25년 8월에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칩 판매 허가를 조건으로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공유하는(Revenue-share) 계약을 체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2년)

□ (수출통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 중국법인과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 발표 ('25년 8월)

* 미국 상무부가 VEU 지위를 승인한 외국 사업장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장비 등 특정 품목을 개별 허가 없이 반입 가능(허가가 면제되는 품목의 종류는 기업별 상이)

- VEU 지위 철회 기업은 120일 유예 후 '25년 12월 31일' 발효,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위해 건별로 미국 상무부 수출허가 필요

□ (에너지) 전통 에너지 산업 르네상스 추진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환경 규제를 유예함과 동시에, 석유·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대통령 권한을 전면적으로 활용
 - 공공 토지 내 석유·가스 채굴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원자력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본격 시행
 - 에너지 안보 확보, 기술 선도 지위 유지, 초당적 지지 기반 확보 위해 국제 협력 강화와 세액공제·재정 지원, 법·규제 개선 통해 원자력 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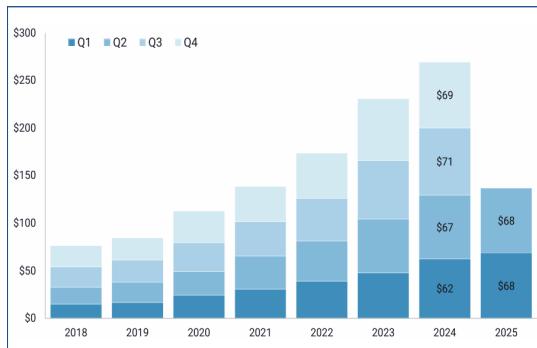
*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100GW에서 '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고, 규제 허가 절차(NRC licensing) 가속화, 실험 및 파일럿 원자로 건설 촉진, 원자력 연료 재처리·재활용, 핵연료 공급망 강화 추진(미국 연방에너지부, '25년 6월)

-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업 승인 취소 및 세액공제 축소 등 청정 산업 규제 및 지원 삭감
 - Wind & Renewable Energy 제약·조정 : 해상 및 일부 육상 풍력 프로젝트의 리스 및 허가를 일시 중단 또는 철회(Sidley, '25년 1월)

-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 본격화 : 전기차 세액공제(1대당 최대 7,500달러) 폐지('25년 9월) 등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성장 전망을 크게 낮추며, '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이전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WSJ, '25년 10월)
-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등 정책 변화로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25~'30년 재생 에너지 설비 증가 전망, 전년 대비 약 50% 하향 조정(IEA, '25년 10월)
- (투자) '25년 2분기 미국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는 총 68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
 - 이는 전체 민간 고정투자의 4.8%에 해당하며, 3분기 연속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청정 투자 기반이 일정 부분 유지
 - 부문별로는 소매와 에너지 부문이 비교적 견조세를 보였으며, 특히 전력 부문 회복과 소비자 수요 중심의 소매 투자가 전체 투자 감소폭 완화

〈분기별 청정 투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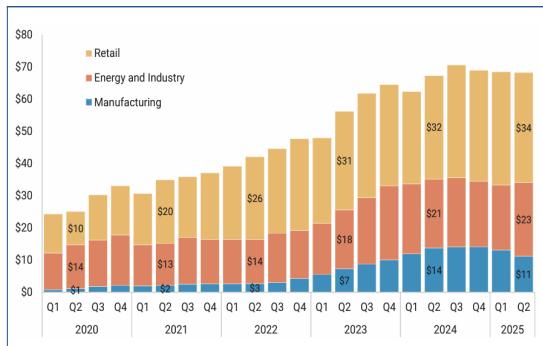
(단위: '24년 기준, 십억 달러)



자료: 로дум 그룹, 청정 투자 모니터(Clean Investment Monitor)

〈부문별 청정 투자 동향〉

(단위: '24년 기준,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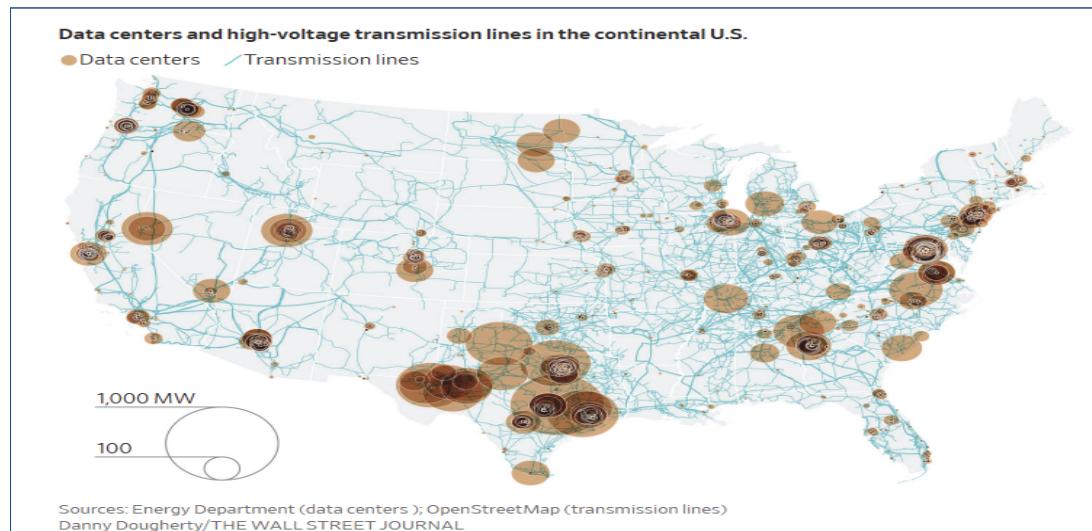
자료: 청정 투자 모니터,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전력망 안정성·내구성 확보 명령, DOE(미국 에너지부)가 발전소 퇴출·폐쇄 계획 조정(Georgetown Climate Center, '25년 7월)
- 비용 절감 및 규제 완화, 47개 규제를 '비용 부담'으로 보고 삭제 또는 수정
 - 'Zero-Based Regulation to Unleash American Energy' 명칭 아래 규제 간소화 추진(미국 연방에너지부, '25년 5월)
- 기술·안보 연계
 - AI 데이터센터·군사시설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 지시와 국방부(DoD) 및 미국 에너지부 간 협력하여 폐쇄 원자로 재가동, 마이크로리액터 프로젝트 추진(미국 연방에너지부, '25년 6월)

□ (인공지능) AI 산업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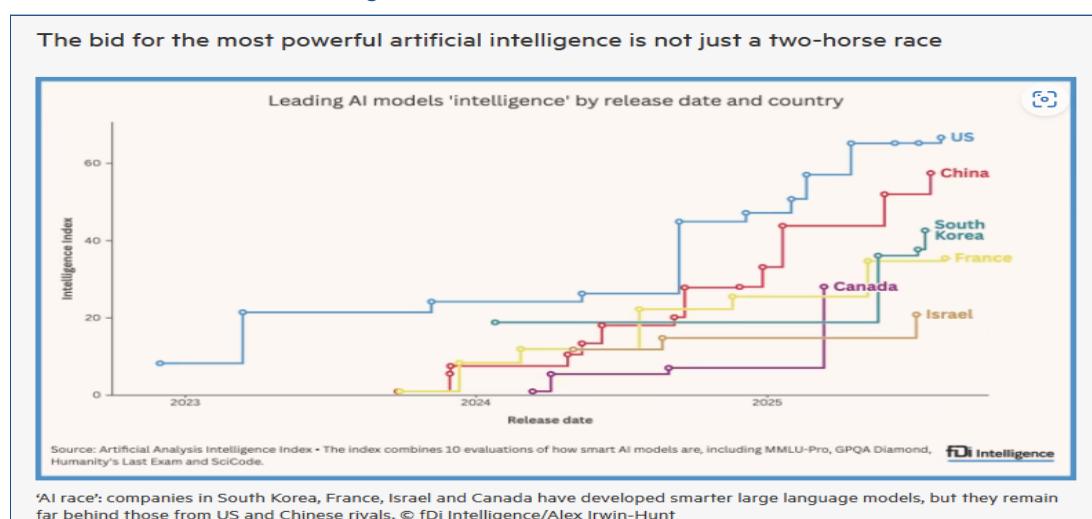
- 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장 및 전력계통 강화를 위해 ‘America’s AI Action Plan’ 및 관련 행정명령 발표(‘25년 7월)
 - 연방정부가 AI 인프라(특히 AI 데이터센터), 송전선 등의 구축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화

〈데이터 센터 및 고전압 송전망 분포현황〉



자료: WSJ

〈Leading AI 모델 지능 현황 : 출시일과 국가별 비교〉



자료: fdiintelligence

□ (원자력) 2050 원자력 에너지 3배 확대 달성 로드맵 발표('24년 11월 12일)

- 미국은 지난 COP28에서 다른 24개 국가와 함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총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선언
 - 자국의 원자력 발전 총량 3배 확대는 서약국의 의무가 아니라, 미국의 청정경제 확대와 더불어 평화로운 원자력 에너지의 국제적인 확산을 선도
 - COP29에서 6개 국가*가 '2050 원자력 에너지 3배 선언'에 추가로 동참
 - *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케냐, 코소보, 나이지리아, 튜르키예
- '50년까지 200GW의 신규 원자력 발전용량 확보 위해 신규 원자로 건설, 기존 원전 출력 증강, 폐쇄된 원전 재가동 등 추진
 - '35년까지 35GW를 증설하고, '40년까지 연간 15GW의 증설을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 산업역량 (공급망 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

'50년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3배 로드맵 주요 실행 과제

연번	실행 과제	주요 내용
1	신규 대형 원전(기가와트급)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제공, 파이낸싱 지원, 프로젝트 지원, 수요자 매칭, 인허가 단축, 국제 협력 등
2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낸싱·연구개발 지원, 군·연방 부지 설치 검토, 연료 확보, 신규 규제 프레임워크 등
3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MMR)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규제 프레임워크, 연료 확보, 프로젝트 관리, 군·연방부지 설치 검토
4	운영 연장, 출력 증강, 폐쇄원전 재가동 등 기존 운영 원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운전 허가 검토 협의, 설계 수명 연장 연구, 출력 증강·재가동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출력 증강 기술 개발, 재가동 원전에 대한 재정지원 등
5	인허가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절차 효율화, AI 등 신기술 활용, 인력 충원, 신규 인허가 프레임워크 도입 등
6	인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개발을 위한 에너지부 보조금, 노조와의 협력
7	기자재 공급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기업 세액공제, 북미 공급망 협력, 신규 공급망 기업 인센티브 제공, 일반 등급 부품 활용 확대 등
8	핵연료 공급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내 우라늄 역량 농축 확대, 삼포로5 국제 공조, 재정지원, 폐우라늄광산 정화 등
9	사용 후 핵연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저장시설 설치, 장기 저장 위한 기준 마련, 지속 가능한 핵연료 주기 연구개발 등

자료: 백악관

□ (규제 철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산업 잠재력 제고

-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정책을 폐지,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적 경쟁력과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규제 완화 단행
-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직접 투자 및 생산 확대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정책 기조 전망
 - '22년 제정 Chips Act에 따라, '25년 기준 CHIPS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미 약 337억 달러(직접 보조금+대출 형태 포함)의 자금이 할당됨
- 클린카(전기차, 청정 차량) 관련 규제 완화. 전기차 50% 목표 및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 폐기, EV 충전소 설치를 위한 연방기금 지원 중단
 - '25년 7월 1일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나 습식 배터리 등의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이 금지되는 규제가 시행

3. 주요 이슈 Pick

가. (통상) 관세發 새로운 글로벌 무역질서 형성

□ (상호관세) 던베리 체제 선언, 상호관세 부과 → ‘트럼프 라운드’ 양자 무역협상 전개

-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 도입 발표(‘25년 4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기본 관세와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57개국을 대상으로, IEEPA에 근거해 기본관세에 더해 추가적으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25년 4월 2일)
 -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두고 주요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상호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이 과정에서 상호관세 부과의 유예와 기한 연장, 협상을 통한 일부 국가와의 상호관세율이 조정

※ 상호관세 현황

- 대상 국가 : 모든 국가
- 적용 시점: 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
- 근거법 :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 주요국 관세율 : 한국(15%), EU, 일본(15%), 베트남(20%) 등
- 적용
 - 부속서 I에 협상 완료 혹은 진행 중인 69개 주체별 관세율 명시
 - * 협상 이후에도 관세율이 수정될 수 있음.
 - 부속서 I 내 명기되지 않은 기타 국가에는 10% 관세 부과
 - 유럽연합/일본/한국은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 범위에 따라 상호관세 적용 상이
 - 중국은 본 포고문의 적용을 받지 않음

구분	EU·일본	그 외 국가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 < 15%	= 15% * 최대 15%를 넘지 않음 (최혜국대우 관세/한-미 FTA 관세+상호관세)	최혜국대우 관세 + 상호관세 = 최종 관세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 > 15%	= 최혜국대우 관세(상호관세 無)	

- 적용 예외 사항
 - 232조 품목 관세 대상(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등)
 - USMCA 협정 준수 품목(캐나다, 멕시코)
 - 수입품 가치의 최소 20%가 미국산인 경우, 미국산은 관세 예외
 - 부속서 II에 명시된 품목 : 반도체 소재,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
 - 50 USC 1702(b)* 해당 품목 : 정보 출판물, 인도적 목적의 식량 등

*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하에서 대통령이 외환·자금/이체, 수출입 거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문의 예외항목을 명시

자료: KOTRA

- (상호관세 대법원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 첫 심리 진행('25년 11월 5일)
 - 앞서 1심 국제무역법원('25년 5월)과 2심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8월)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
 - 트럼프 정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미국 경제와 안보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에 대통령 비상권 발동과 관세 정당성 주장
 - 반면 소송을 제기한 대리인은 관세는 곧 세금이며, 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돼 있다고 반박

※ 주요쟁점

- IEEPA 관세 법적 근거 및 권한 해석
 -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의회의 통상·조세 권한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
 - IEEPA는 금융·외환·투자 통제 중심의 제재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며,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해석상 이견 존재
- 국가 비상사태 요건 충족
 - 무역적자·산업경쟁력 저하가 IEEPA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타당성 논쟁
 - * △ 특이·비범한 위협, △ 해외 기원, △ 비상사태 선포, △ 그 위협 대응 목적
 - 행정부는 무역적자 확대 및 제조업 기반 약화를 비상 위협으로 주장했지만, 다수 전문가는 무역적자가 국내 저축·투자 구조 등 내생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
- 삼권분립 및 중대질문* 원칙 적용
 - 입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의 정책 재량 행사를 제한하는 대법원 원칙
 - IEEPA를 구조적 무역정책·상호관세 수단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의회의 통상·조세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 쟁점화
- 경제적 사실 및 제조업 영향 검증
 - 제조업 약화·공급망 위험 주장 대비 실제 산업 생산·수출·부가가치 지표 검증 및 관세의 기업 비용·투자 영향 논쟁

자료: KOTRA

- (향후 전망) 판결 시기는 미정(통상 3~6개월 소요)으로, 최종 판단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 및 글로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위헌 판결 시, 행정부는 기존 관세 철회·환급 절차를 이행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등 기준 법률 수단으로의 전환 예상
 - * 무역법 제338조, 제122조 등 기존 무역법 조항을 통해 제한적 관세 부과는 가능하나 IEEPA와 같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는 불가능
- 합헌 시, 행정부의 IEEPA 관세 권한 해석이 정례화될 경우, 향후 대외 협상에서 비상경제권 활용 확대 및 동맹국 대상 관세 활용 증가 가능

트럼프 행정부 주요 대안

법률	관세부과 근거	관세율 제한
무역법 제338조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	최대 50%
무역법 제122조	국제수지 불균형	최대 15%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 위협	없음
무역법 제201조	국내 산업 피해	50% 인상(1년 후 단계별 축소)
무역법 제301조	무역협정 위반 또는 미국 기업 차별	없음

자료: KOTRA

□ (품목관세) 제조업 부흥과 미국 내 일자리 증가, 공급망의 경제안보 강화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품목관세 부과

- (근거) 무역확장법 232조 섹터별 관세 시행 및 추가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알루미늄·철강 등 특정 품목에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등 다른 품목에 추가적인 232조 조치 발표 예고
 - 의약품의 경우 100% 품목관세 부과를 '25년 10월 1일부로 예고했으나, 시행 시기 연기

주요 품목관세 부과 현황('25.11월 5일 기준)

구분	품목	관세율
품목별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25%(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외는 상호관세 15%)
	구리	50%(구리 성분가치에 대해서만 과세, 구리광석 가공이 덜 된 형태는 무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일본, EU 15%, 영국 10%, 기타 25%
	중대형 트럭·버스	25%·10%
	반도체 및 의약품	-

자료: 미국정부 관보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4월 3일부로 전 세계 자동차 수입에 232조 관세 25% 적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5월 3일부로 발효
 - 단, 한국·EU·일본산 자동차에 관세율 15% 적용에 합의
 - 미국 상무부, 자동차 부품 25% 관세대상 추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9월 16일), 2주간(~10월 14일) 업계 의견 접수 후 최종 발표 예정
- (중·대형 트럭 및 버스) 중·대형 트럭 및 버스 신규 관세 발표와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 프로그램 연장
 - 백악관은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 수입품에 25%, 버스에 10%의 국가안보(무역확장법 제232조) 기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10월 17일)
 -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입부품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 관세 상쇄 프로그램(Offset Program)'을 '30년까지 연장하고 상쇄율 3.75% 유지 발표

자동차 부품과 중·대형 트럭 주요 적용 및 상쇄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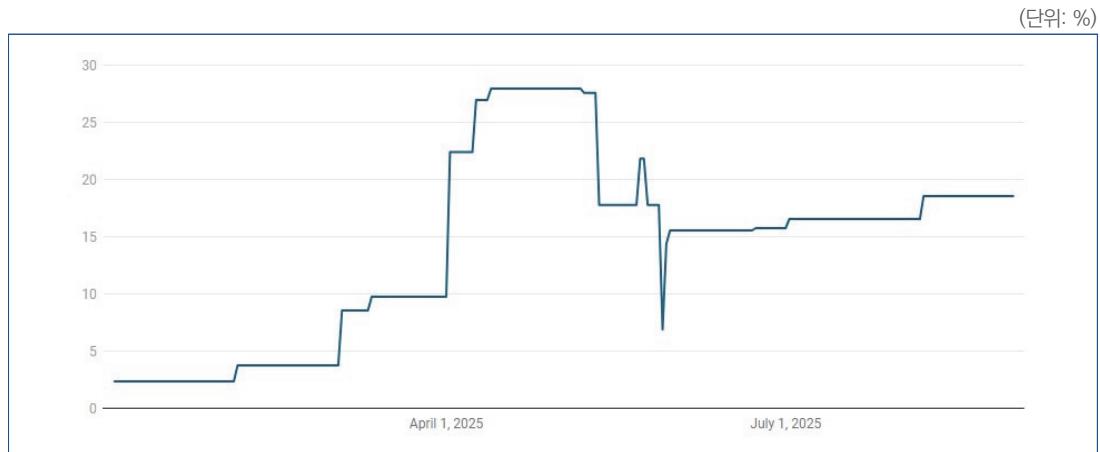
구분	주요 대상	관세율	상쇄율	적용 시기	비고
중·대형 트럭	Class 3~8 트럭 수입	25%	3.75% (생산기반 상쇄)	2025.11.1. ~ 2030.10.31	USMCA 역내산은 미국산 함량 제외한 비(非)미국산 가치에만 관세 적용
버스	학교·도시·관광·장거리용 운행 버스(모터코치)	10%	해당 없음	2025.11.1. 시행	232 조사 대상 외 관련 산업까지 확대 적용
트럭 부품	트럭 조립용 부품 (USMCA 역내산 포함)	최대 25%	3.75%(트럭 제조사 상쇄 가능)	절차 확정 전 유예	향후 비(非)미국산 가치 산정 절차 마련 예정
엔진 부품	트럭 엔진 및 자동차 엔진 제조사	최대 25%	3.75%	2025.11.1. ~ 2030.10.31	신규 상쇄 프로그램, 조립 생산액 기준 산정
철강·알루미늄	차량 생산용 소재 (USMCA 대상)	최대 50%	감면 없음. (25%까지 관세 인하 가능)	즉시	캐나다·멕시코에서 제련된 경우 감면 적용
자동차 부품	승용차용 수입 부품	최대 25%	3.75%	2025.4.2. ~ 2030.4.30	기존 프로그램 3년 연장 및 상쇄율 유지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 및 연방 관보, 현지 로펌 자료 종합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율 25%를 50%로 인상(6월 4일부)
 - 非함량가치에는 상호관세 부과.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
관세 적용 파생상품 대폭 확대
 - 미국 상무부, 업계 의견 3차 접수(~9월 29일)
 - * 미국 상무부는 2차 접수 검토 결과에 따라 총 407개 품목을 추가한 바 있음('25년 8월)
 - 상무부 BIS는 9월 15~29일 관세 대상 품목 추가 요청 접수를 개시하고, 관보를 통해 접수된 총 95건의 요청서를 공개함
 - 접수 후 2주간 공개 의견을 청취(10월 21일 종료)하고, 현재 60일간 심의진행 중
 - 접수된 95건 요청서에서 총 688개 품목이 추가 관세 대상으로 제안, 검토 중
 - 모든 요청 품목이 관세 대상으로 확정 시, 미국이 연간 약 2,800억 달러 규모('24년 기준)로 수입하는
파생제품이 추가로 관세 대상이 될 전망
 - 해당 제품의 수입가 중 철강·알루미늄(금속) 함유 가치 부분에는 232조 관세 50%가 부과되고,
잔여 비금속 가치 부분에는 종전 상호관세율이 적용
 -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기, 드론 등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검토 중
-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부과 예고. 의약품의 경우 SNS를 통해 10월 1일부 부과 예고되었으나,
11월 20일 현재까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

- (소액 소포) 면세 대상이었던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폐지
 - 그간,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 또는 복잡한 통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De Minimis(최저치 면세)' 규정 시행
 - 그러나 '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발 소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De Minimis 면세를 폐지하여, 800달러 이하라도 관세 부과
 - 이어서 '25년 8월 29일부로 모든 국가 대상의 De Minimis 면세를 중단하는 행정명령 발효. 즉, 어느 나라에서 보낸 소포든지 저가 물품도 부과대상
 - 새 규정에는 국제 우편 배송 물품에 적용되는 단일세율(Flat Rate Duty) 또는 종가세(Ad Valorem)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도입
- (평균 유효 관세율)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 소액 소포의 무관세 종료 등은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을 크게 끌어올림
 - * 8월 31일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은 18.61%('25년 8월 6일까지 미국 정책 반영 기준, The Budget Lab, '25년 8월)

〈2025년 1월~8월 미국의 평균실효관세율 변동〉



자료: The Budget Lab at Yale

□ (공급망 변화) 상호관세 부과 이전, China+1 공급망 상황

- 중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
 - 아세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거점이자 수출시장
 - 아세안 5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5개국 중 베트남이 60%이며, 베트남의 경우 반도체가 24% 차지, 중간재 위주 수출 구조(한국은행)
 - 중국의 생산비용 증가, 미국-중국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아세안의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 증가 중

아세안 국가 대상 FDI 유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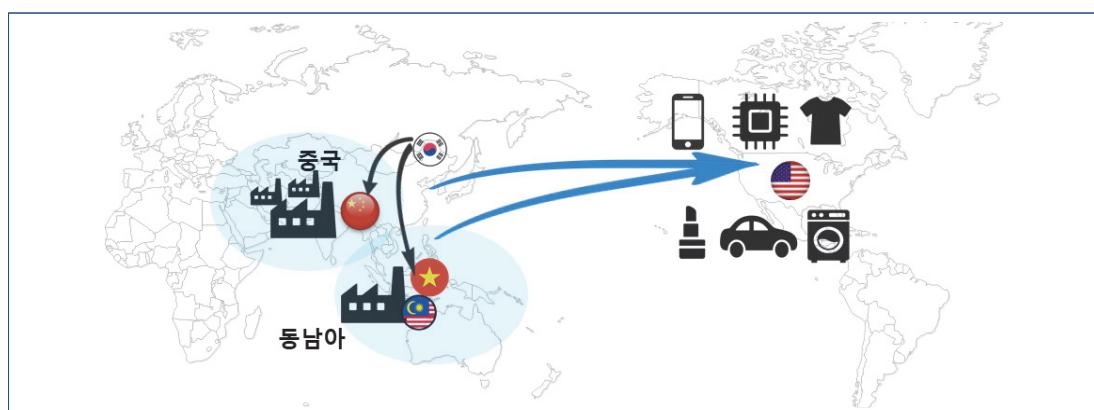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17,721.01	212,236.32	230,786.26	208,340.30	225,956.59
한국	6,670.27	10,429.88	15,135.73	3,725.11	7,579.51
중국	7,182.60	17,313.92	15,641.57	17,341.00	19,321.25
EU	10,532.04	28,768.28	28,794.56	19,658.92	20,015.53
미국	20,077.17	32,028.86	24,785.16	84,420.77	42,126.70

자료: Aseanstats

- 아세안 5개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중간재 비중이 높은 편
 - * '22년 아세안5 전체 수입에서 한국·중국·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이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상당부분이 중간재(국별 총 수입 중 중간재 비중 : 중국 66.6%, 한국 89.0%, 일본 75.9%)(한국은행)
- 아세안 국가들은 글로벌 제조업 분화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미국 등으로 최종재를 수출하거나 중국 등 인접국으로 다시 중간재를 수출하는 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 중
 - * '22년 아세안5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17.1%), 중국(15.7%), EU(10.4%) 등이며 미국과 EU로의 수출은 최종재가 절반 이상(국별 총 수출 중 최종재 비중 : 미국 64.3%, EU 51.4%)을 차지, 对중국 수출은 중간재 비중(70.5%)이 높음(한국은행)
 - * '23년 우리의 对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83.7%이며, 최종재 비중은 14.6%(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출 중 역내 수요 충족 외 역외로 최종 귀착되는 경우 미국이 11%, 중국 9%로 높은 비중 차지
 - * '22년을 기준으로 우리의 对아세안5 중간재 수출 중 약 절반은 아세안5 국가들의 소비와 투자로 인해 유발된 생산직접경로, 나머지 절반은 역외 국가 수요에 의해 아세안5 지역에서 생산공정을 거쳐 수출간접경로로 귀착(한국은행)

〈China+1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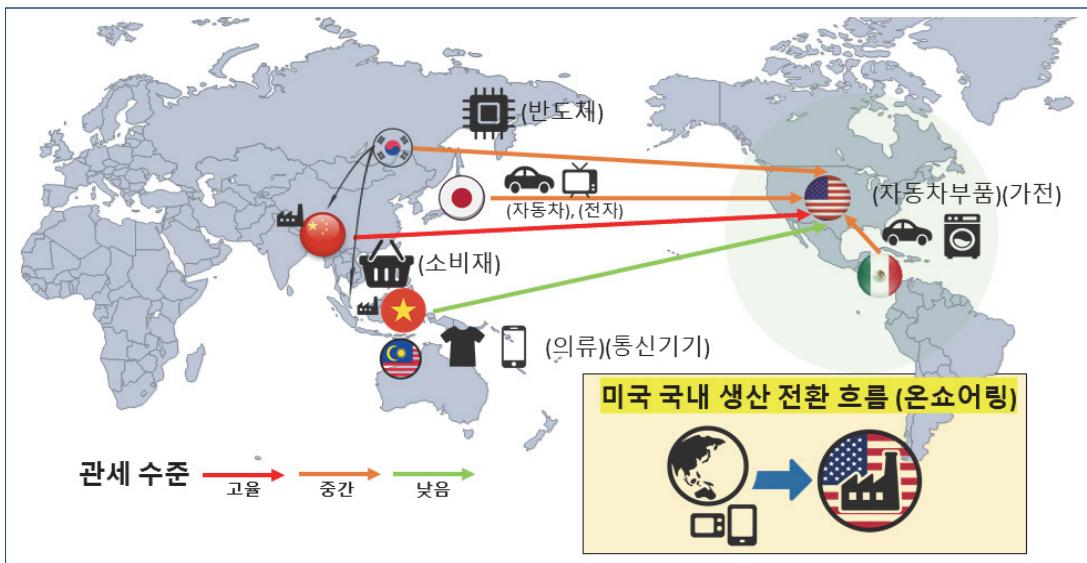


자료: KOTRA

□ 지정학적 역학에 따른 북미 공급망 재편, 미국의 내향적 통상 기조 강화

- 글로벌 트랜지션 리포트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조달 확대할 의사를 40%로 밝혔으며, 프렌드쇼어링, 듀얼소싱 등 공급망 이중구축 선호
 - * 설문조사 'The Impact of Geopolitical Events on Trade and Supply-chain Strategies' 프렌드쇼어링 40%, 듀얼소싱 32%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對미 수출 공급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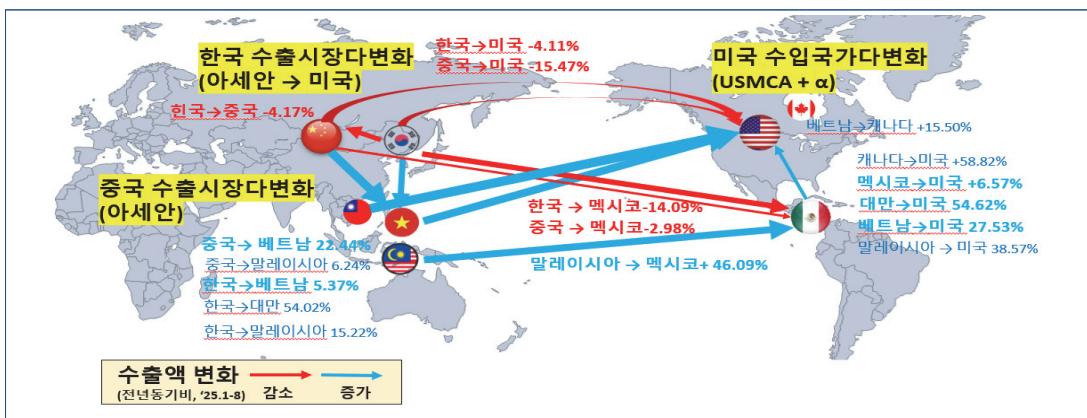


자료: KOTRA

□ 관세영향, 미국의 중국 의존도 축소 및 무역 경로 다변화 풍선효과 발생

- 한국은 對미·對중 수출 감소 → 대만, 아세안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한국 對미 수출 4.1% 감소, 對중 수출 4.2% 감소, 베트남으로 수출 5.4% 증가, 대만으로 수출 54.0% 증가,
 - 중국의 對미 수출은 15.5% 감소, 중국의 베트남 수출 22.4% 증가
 - 아세안은 對미국, 對멕시코 수출 증가했는데, 베트남의 對미 수출 27.5% 증가, 말레이시아의 對멕시코 수출 46.1% 증가, 말레이시아의 對미 수출 38.6% 증가했으며, 대만의 對미 수출 54.6%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반도체 수출 증가에 기인
- 미국은 對중 수입 감소 → 아세안, 멕시코로 수입시장 다변화, 멕시코의 對미 수출 6.6% 증가

〈전년 동기 대비 국가별 교역 현황 변화('25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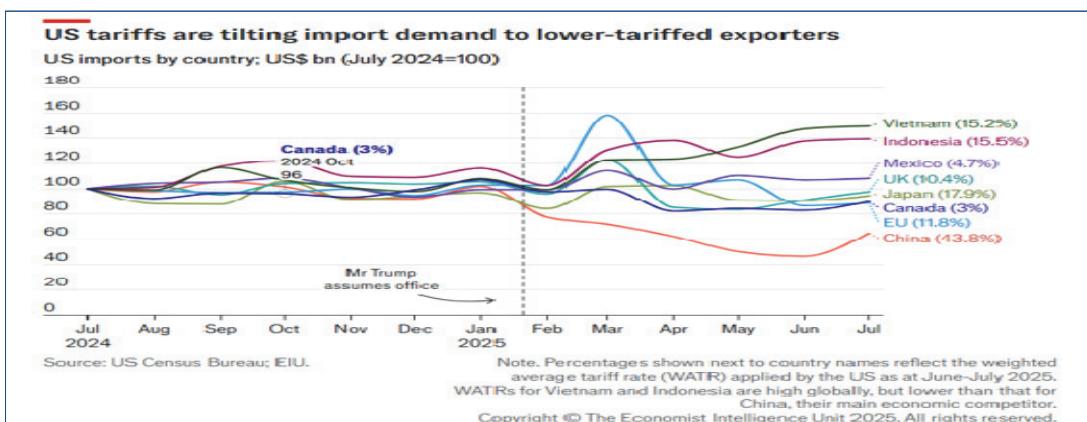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 KOTRA 재가공

□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기회요인

- (미국 기업의 수입선 다각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축소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 등에서 수입을 확대 중
 - 미국, 글로벌 유통망과 제조 기업 등 공급선 다각화 추진
 - * 31%의 기업은 새로운 규제 영향 완화를 위해 공급망 전략을 조정할 계획, 아울러 32%의 기업들이 듀얼소싱 확대 의사, 46%의 기업이 시장 다각화(Trade in Transition 2025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변화〉



자료: EIU

- (상대적 시장 경쟁력) 상호관세율 15%와 한미 FTA 효과 유지
 -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감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25년 9월 对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소폭 감소, 102억 4,000만 달러 수출 달성,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및 시장 접근력 유지

〈국가별 미국시장 접근력(Market Access, '25년 9월말 기준)〉

RELATIVE TRUMP TARIFF ADVANTAGE +2.4%					
Trade-weighted average tariff difference vs. competitors selling the same products to the US. Positive = better access.					
TOP PRODUCTS BY 2024 TRADE VALUE					
HS CODE	PRODUCT	TRADE 2024	RATE	ADVANTAGE	REVENUE
8703.23.01	Motor vehicles to transport persons, w/spark-ign. IC recip. piston engine, w/cyl capacity >1,500cc but <=3,000cc	\$10.1B	28%	+0.8%	\$2.8B
8703.22.01	Motor vehicles to transport persons, w/spark-ign. IC recip. piston engine, w/cyl capacity >1,000cc but <=1,500cc	\$8.7B	28%	-0.0%	\$2.4B
8473.30.11	Printed circuit assemblies, not incorporating a cathode ray tube, of the machines of 8471	\$7.0B	0%	+4.7%	\$0
8703.24.01	Motor vehicles to transport persons, w/spark-ign. IC recip. piston engine, w/cyl capacity >3,000cc	\$6.7B	28%	-2.3%	\$1.8B
8703.40.00	Motor vehicles to transport persons, w/spark-ign. IC recip. piston engine & elec motor incapable of charge by plug to external source	\$6.4B	28%	-2.4%	\$1.8B

자료: Global Trade Alert('25년 9월)

- (USMCA 개정) '26년 7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개정 논의 예정으로 최근 멕시코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서 17개 전략분야 1,463개 품목의 관세율을 10~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25년 9월)함에 따라 USMCA 불확실성 증가
 - USMCA 활용으로 對미 수출 가능, 그러나 원산지 규정 충족 위해 현지화 부담 증가 및 對멕시코 수출 관세 인상 가능성 증가
 - 멕시코 저임금으로 생산비 절감 가능하나, 현지 노동·정치 불안정, USMCA '26년 개정, 멕시코의 非FTA 국가 대상 관세부과 예고* 등 리스크 고려 필요
 - * 멕시코는 비FTA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27년에 결정한다고 발표

※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주요 내용('25년 9월 15일)

- 멕시코 정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서 17개 전략분야 1,463개 품목의 관세율을 10~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
 - (적용품목) 17개 전략분야는 자동차(경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의류, 가전 등이며, 품목 수로는 1,463개(세부 품목은 미공개)
 - (관세율 변화) 1,463개 제품의 현재 평균 관세율은 16.1%인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평균 관세율이 33.8%까지 인상될 전망
 - (적용국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 * 현재 멕시코는 미국·캐나다·EU·EFTA·일본 등 50개국 이상과 FTA 체결, 우리와는 미체결
- 시행 시기 : 연방의회의 정부 예산안 승인 후 수입관세 인상 관련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날부터 30일 이후 발효
 - * 시행기한(효력기한)은 '26.12.31일까지

자료: KOTRA

연번	전략 분야	품목		현 관세(%)	목표 관세(%)
		개수	백분율(%)		
1	자동차 부품	141	9.6	0~35	10~50
2	자동차(경차)	13	0.9	15, 20	50
3	의류	308	21.1	10~35	35, 50
4	플라스틱	79	5.4	0~35	10~35
5	철강	248	17.0	0~50	20~50
6	전자기기	18	1.2	0~35	35
7	장난감	37	2.5	0~15	35
8	섬유	398	27.2	0~35	10~50
9	가구	28	1.9	0~35	35
10	신발	49	3.3	0~35	35
11	가죽 제품	18	1.2	0, 20	35
12	제지·판지	47	3.2	0~35	15~50
13	오토바이	8	0.5	0, 15	35
14	알루미늄	21	1.4	0~50	35
15	트레일러	1	0.1	0	35
16	유리	25	1.7	0~35	35,50
17	비누, 향수, 화장품	24	1.6	10, 15	35,50
비고		1,463	100	평균 16.1%	평균 33.8%

자료: KOTRA

- (APO(아시아구매오피스) 활용) 미국 글로벌 기업들, 중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로부터 소싱 확대
 - 중국의 對미 수출 감소 후, 아세안 국가의 對미 수출 증가,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현지공장에서 미국향 수출 확대 기대
 - 對중 수입에 고관세 부과로 발생하는 수입 대체 수요를 활용, 중국산 동남아 우회수출 단속 강화*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생산제품으로 수입 전환 기대
 - *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해 40% 추가 관세 부과 예고('25년 7월)
-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무역협정, 태국·베트남과 프레임워크 합의(10월 26일)
- 캄보디아·말레이시아와의 본 계약은 투자 심사, 수출통제, 관세우회(회피) 방지 등 제3국(특히 중국)을 의식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

미국의 동남아 4개국 대상 상호관세율 및 주요 합의 내용

국가	상호관세율	협정 체결 현황	비고
말레이시아	40 → 19%	무역협정체결 ('25년 10월 26일)	주요 농·공산품 추가 개방, 미국 투자 700억 달러 약속
캄보디아	35 → 19%	무역협정체결 ('25년 10월 26일)	미국산 관세 완화, 투자·수출통제, 중국 관련 규정 강화
태국	35 → 19%	프레임워크합의 ('25년 10월 26일)	공급망·항공기·수출통제 협력, 추가 협상 예정
베트남	40 → 20%	프레임워크합의 ('25년 10월 26일)	공급망·관세회피·수출통제·시장개방 등 구체안 명시, 추가 협상 예정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종합

-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구매 오피스를 베트남 등으로 이전 결정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소싱 볼륨에 제한을 두는 경우,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때문에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희망하는 사례 등 발생
- 아세안 국가의 평균 상호관세율이 19%로 한국의 15%보다 높은 편이나, 저임금 구조와 미국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고려, 아세안 진출 기업의 북미 수출 적극 추진 필요

〈미국 글로벌 기업의 APO를 통한 구매 프로세스〉



자료: KOTRA

※ 미국, 중국으로부터 아세안으로 수입 전환 추진 사례

- 사례1 : 글로벌 유통 기업 아시아 구매본부 중국 구매 실링(Ceiling)부여, 한국산이나 한국 기술을 보유하고 저렴하게 생산 가능한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으로부터 소싱 희망
- 사례2 : 글로벌 유통 기업 아시아 구매본부 베트남으로 이전, 한국 화장품 소싱 희망
- 사례3 : 기존에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던 미국 바이어, 중국 고율관세로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으로 수입선 전환 희망

자료: KOTRA

나. (경제) 끈적이는 물가, 노동시장 둔화와 금리 인하

□ 물가

- 정책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미국 경제성장 둔화 전망
 - '25년 2분기 미국 경제는 우려와 달리 강력한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 '25년 미국 GDP 성장을(전기비 연율) : (1분기 확정치) -0.5%, (2분기 확정치) 3.8%
 -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과 높은 수준의 금리는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지적
 -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품목관세의 후방 산업(Down Stream) 전가로 자동차 부품, 건설 등 원가상승 및 불확실성의 확산과 경기둔화*는 투자 위축, 고용시장의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 (UBS) 5~7월 미국 실물지표 분석 결과 미국 경제는 안정적이나 경기침체 가능성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침체 확률은 93%로 예측('25년 9월)
 - * (바클레이스)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에 취약한 속도로 둔화되었으며, 티핑포인트 모델에 따르면 향후 8분기 내 미국 경기 위축 가능성은 50% 수준('25년 9월)
- 관세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전이는 예상보다 느린 편이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에 따른 8월 수입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수입자물가지수) '25년 8월 기준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는 변화 없음($\Delta 0\%$). 수입연료 가격은 7월에 2.5% 증가한 후 -0.8% 감소, 비연료 산업용 공급품 및 자재의 수입가격은 7월 0.2% 상승 및 8월에는 1.0% 상승
 - (생산자물가지수) '25년 8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 이는 7월에 0.7% 상승, 6월에 0.1% 상승했던 것 대비 하락 전환, 이는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0.2% 하락한 것에 주로 기인
 - (소비자물가지수) '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
 - 9월 가솔린 지수는 전월 대비 4.1% 상승, 모든 품목의 월별 증가에 가장 큰 영향, 에너지 지수는 8월에 1.5% 상승, 식품 지수는 0.2% 상승
 - 팬테온(Pantheon)의 추정에 따르면, 관세로 인해 기업의 영업마진 확대로 소비자 전가는 50~70%에 그치고 있으며, 유통업체들은 관세 비용의 약 30%를 부담하더라도 여전히 '10년대 평균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 가능
 - 자동차를 보면,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15% 이상의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절 조정된 9월 자동차 평균 가격 3월보다 약 1.1%만 상승
 - 자동차 가격 기(既) 상승 및 제조업체 이익률 제고로, 제조업체들이 관세 비용의 약 80%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그 중 20%만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JP모건)

▣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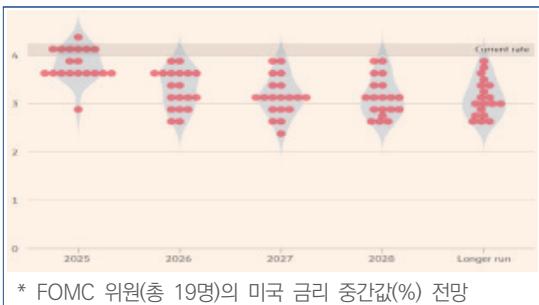
-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5년 2월 트럼프 2기 출범 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0.25%p 인하 발표
 -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하며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금리 인하

〈2000년 이후 연준의 금리 변동〉



자료: Federal Reserve, WSJ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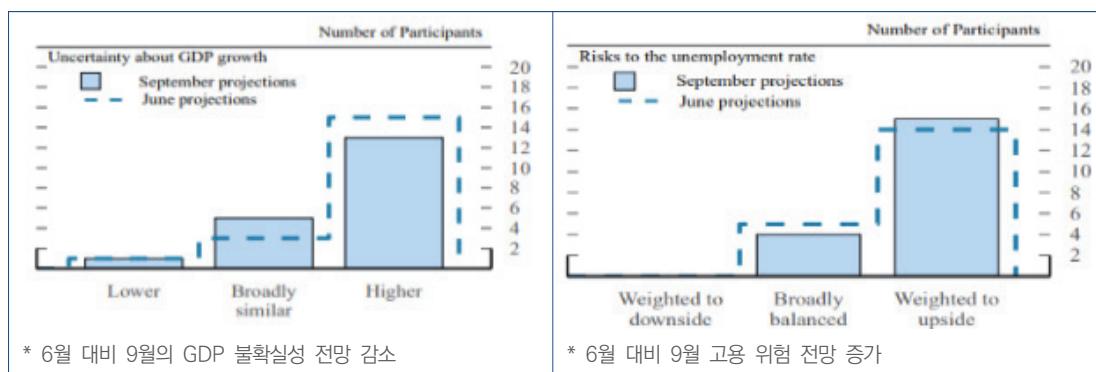
〈미국 FOMC 위원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자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T 인용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점도표가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는 것과 달리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명확히 발언,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 기조 전망
 -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하며, 인플레이션과 고용 간 위험 균형이 변화했다고 설명
 - 이번 점도표에서 '25년과 '26년 경제성장을 전망이 상향 조정된 점을 언급, 이번 금리 인하를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라고 판단
 - 미국 경제 상황 관련 “나쁜 것은 아니며, 경제 기본체력은 견조하다”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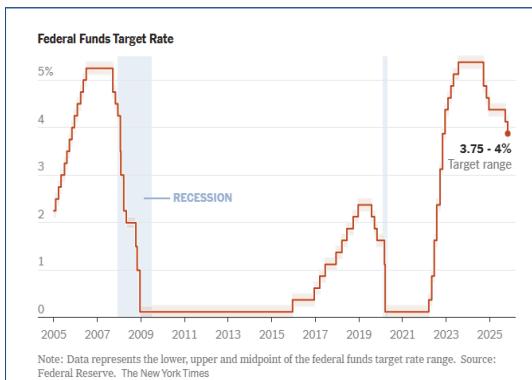
〈FOMC 6월과 9월의 GDP와 고용 불확실성 및 위험 점도표 비교〉



자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Proj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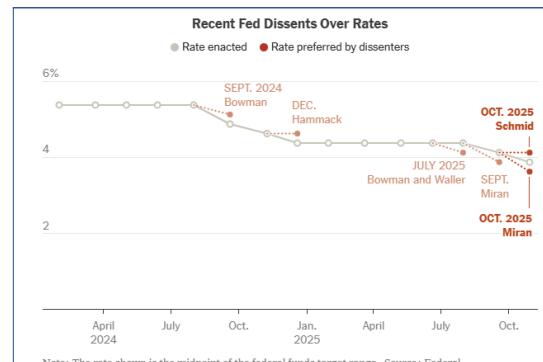
- 10월 FOMC에서는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25bp 인하하여 3.75~4.00%로 유지하기로 결정
 - 아울러 FOMC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12월 1일자로 중단하기로 결정
 - (고용) 고용시장 관련 파월 의장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되었으며 8월까지 실업률은 상승 하였지만 여전히 낮았음. 최근 데이터도 동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가리킴”으로 표현
 - (시장 반응) 시장에서는 정책금리 25bp 인하, 대차대조표 축소 종료 발표 등은 예상에 부합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점과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 등장에 반응
 - * (소수의견) 빅컷(50bp) 인하(Miran 의사) 및 금리 동결(Schmid 의사) 의견이 각각 존재

〈2000년 이후 연준의 금리 변동〉



자료: New York Times

〈미국 FOMC 위원 소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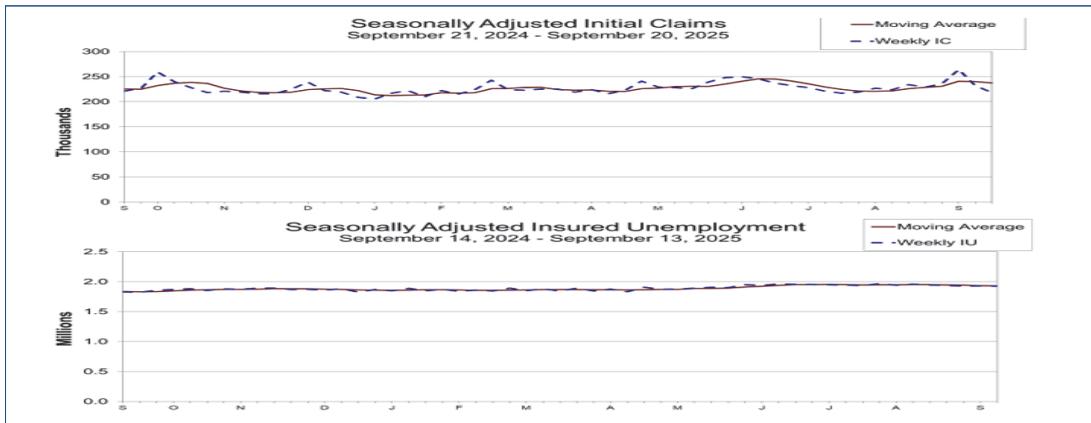


자료: New York Times

□ 고용시장

- 미국 행정부 셧다운 이전 가장 최근 통계치인 9월 20일 종료 주간 기준, 계절 조정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잠정치는 21만 8,000건으로, 전주 수정치(23만 2,000건) 대비 1만 4,000건 감소
 - 9월 13일 종료 주간의 계절 조정 보험수급 실업률은 1.3%로, 전주와 동일
 - 같은 기간 계절 조정 보험수급 실업자 수 잠정치는 192만 6,000명으로, 전주 수정치(192만 8,000명) 대비 2,000명 감소
- '25년 9월 전체 비농업부문 고용은 11만 9,000명 증가하며 소폭 상승, 4월 이후 큰 변화는 없는 상태 (BLS, '25년 11월 20일)

〈계절 조정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자료: 미 노동부 고용훈련청(ETA)

-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7월 62.2% → 8월 62.3% → 9월 62.4%)은 8월에 7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7월 4.3% → 8월 4.3% → 9월 4.4%)은 8월 대비 상승
 - 전월 4.3% 대비 0.1%p 상승, 전년 동기 4.1% 대비 0.3%p 상승
 - 보건의료, 음식·주점업,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고용이 계속 증가했으며, 운송·창고업과 연방정부에서는 고용이 감소
- (선행지표 약화) The Conference Board의 Employment Trends Index(ETI)는 감소 추세
 - 이 지표는 고용 증가 또는 고용 증가 추세 전환 가능성 예측하는 선행지표인데, '25년 8월 기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 고용증가세 둔화 가능
 - * 지수 기준연도 '16년=100, '25년 7월 107.13, 8월 106.41
- (대규모 해고) '25년 10월에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해고 계획이 약 15만 3,0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해당 월로서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
 - 대표적 사례로 Amazon이 약 1만 4,000~3만 명의 기업 내 화이트칼라 직원을 감원할 계획 발표, 이는 AI 등 기술혁신 외에도 과잉 채용 및 팬데믹 수요 정리, 비용절감, 수요 둔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

□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기회요인

-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계 실질소득이 압박을 받게 되어 소비자 수요가 위축 가능
- 고금리·물가 압력 때문에 미국 바이어들이 중저가 제품, 대체 공급선 발굴
 - 한국 중견·중소기업 수출 기회. 또한, 미국과 금리격차 확대 또는 유지 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수출기업은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 확보
- 주택 관련 소비 위축, 가구·가전·건축자재 수요 둔화 예상

다. (정치) '26년 중간선거

□ '24년 대선 이후 이어지는 여론지형 변화

- '24년 대선 이후 이어지는 정치적 후폭풍(제도적 정당성, 지지율, 여론 변화 등) 및 중간선거 준비, 공화당 내부 프로젝트(Project 2025) 등이 언론의 관심사
- 중간선거일 : '26년 11월 3일(화요일) 일반선거일
 - 상원의원 선거 : 전체 100석 중 약 35석(Class 3+특별선거 포함)
 - 하원의원 선거 : 전체 435석 전석

의석수 현황

의회	정당	의석수	비고
상원	공화당	53	
	민주당	45	
	무소속	2	민주당과 연대(Caucus) 종
하원	공화당	219	
	민주당	213	
	공석	3	

자료: 美 상원·하원 공식 웹사이트

하원 및 상원 구성

구분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상원(Senate)	근거
인원	435명, 인구 비례	100명, 주별 2명	헌법 제1조 §2, §3
임기	2년	6년	헌법 제1조 §2, §3
주요 권한	세입법안 기권, 탄핵 소추	조약 비준, 인사 인준, 탄핵 재판	헌법 제1조 §7(세입), §2(탄핵), §3(조약·인사)
성격	민심 반영, 단기적 변화	안정성, 장기적 관점	헌법 및 의회 안내 자료

자료: 美 상원·하원 공식 웹사이트

- 대통령 임기 중간 선거로, 현 대통령·여당의 지지도와 정책 집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이며, 의회(상·하원) 의석수 지형 변화 가능성 존재
 - 민주·공화 양당은 정책 메시지, 당내 리더십, 유권자층 변화 등을 재평가 중이며, 예로 민주당은 사회 이슈에서 경제 이슈 강조로 무게를 이동 조짐
- 선거구 개편 : 최근 동향('20년 센서스 이후)
 - 텍사스·플로리다 : 공화당 유리하게 재획정. 텍사스 하원의석 +5석 가능한 지도안으로 개편
 - 캘리포니아 : 하원의석 +5석 가능한 지도안으로 개편

- 최근 선거동향

- 뉴욕 시장 선거에서 'Five Boroughs Against Trump' 선거 캠페인을 벌인 무소속 후보 조란 맘다니 당선, 최초의 무슬림 및 밀레니얼 세대 뉴욕 시장
-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판버거 당선, 4년 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주지사 교체, 부지사, 주법무장관 등 모두 민주당이 석권
-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주로 대선 후 열리는 주지사 선거인 점에서 전국적 정치 기류의 가능자로 역할 가능하며,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민주당이 승리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 미국은 매년 12개 세부 부문별 예산안을 9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나, 의회 상하원 간 불일치, 의료 및 복지 지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현지시각 11월 12일 임시예산에 합의,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 등 양당 합의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행정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셧다운 기간 중 약 70만 명의 연방공무원 복직과 '26년 1월 30일까지 인원 감축(RIF) 금지, 공무원 임금 소급 지급 추진
의회 및 감사기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원(GAO)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회계연도 '25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CRS·CBO 등 의회운영기관의 회계연도 '26년 예산을 소폭 증액하여 감사 및 입법기능의 연속성 보장
회계연도 '26년 주요 부문 본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건설·재향군인(MilCon-VA) 및 농무부·식품의약국(USDA·FDA) 부문에 회계연도 '26년 전액예산을 반영하여 의료·복지·식품안전·농업 R&D 등 핵심 기능 지속
정부 운영 임시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안보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은 회계연도 '25년 수준에서 45일간('25년 12월 말경) 임시예산을 연장하고, 신규 정책 및 복지보조금 항목은 제외

자료: KOTRA

□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기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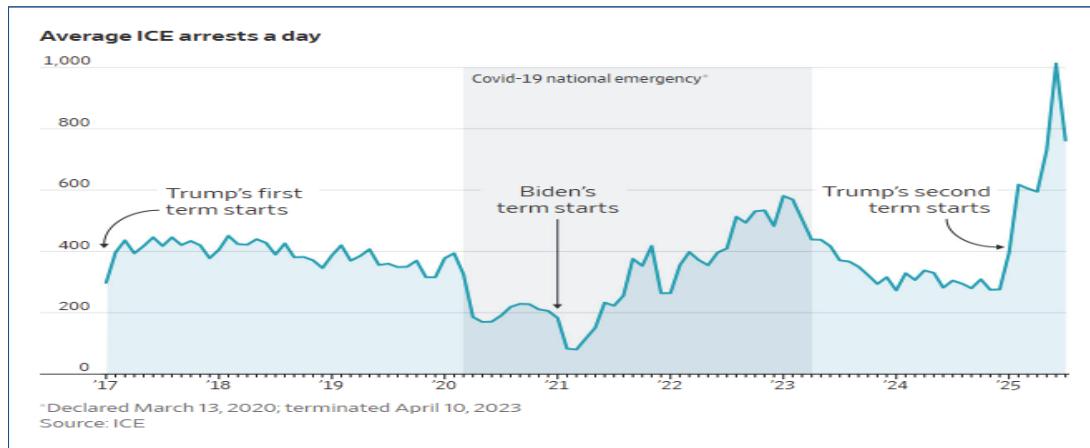
- 워싱턴 D.C.의 한 대형로펌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의회, 행정부 대상 아웃리치 활동을 할 때 기업의 니즈를 미국 국내 이슈화 필요하다고 언급
 - 공장 설립 등 한국 기업의 어떤 이슈를 갖고 제기할 때 이게 왜 미국 내에서 중요한지, 왜 상대방의 정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를 미국 측에 설명 필요
 - 단순히 고위급 전관을 보유한 로펌이나 로비스트라고 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며, 우리 기업의 니즈와 미국의 국내 이슈가 연계한 전략 수립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책 결정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연방의회를 상대로 하는 전통적 로비를 넘어서서 백악관 등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가 중요해짐

라. (사회) 보수화되는 이민·노동정책

□ 이민·국경 및 시민권 우선순위 증대

- 여론 조사에서 이민이 중요 의제로 부상 중이라는 보도가 반복
- ‘불법 이민(Unauthorized Presence)’ 및 입국자 중 ‘Invasion’이란 표현을 사용, 도착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절차 엄격화, 추방 절차 가속화
-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공한 체포 자료(정부의 추방 절차의 첫 단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활동이 급증

〈ICE의 일평균 체포현황〉



자료: WSJ

□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발동

- 미국 연방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 원칙이나, 행정명령 14160호(‘25년 1월)가 시행되면서, 부모가 불법 또는 일시 체류자인 경우에는 USCIS(미국 연방이민국)가 시민권 발급을 일시 보류하거나 거부 가능
 -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등 22개 주는 연방 행정명령이 헌법 제14조 (출생지 시민권 보장)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 ’25년 6월 27일 대법원 판결(*Trump v. CASA, Inc.*) 결과, ‘하급연방법원이 행정명령 전체를 전국 단위로 막는 보편적 가처분(Universal Injunction)을 발부할 수 없다’고 결정, 행정명령이 일부 주에서는 효력이 남고 다른 주에서는 소송 진행 중인 상태로 혼재

〈행정명령 14160호에 대한 소송 제기한 주〉



자료: Newsweek

□ 비자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은 지정된 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비즈니스(B 비자 목적)로 미국을 방문할 때,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여행자가 9 FAM 201.1-4(C)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DHS(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VWP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국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짐

미국 국무부 매뉴얼상 비(非)이민 비자 주요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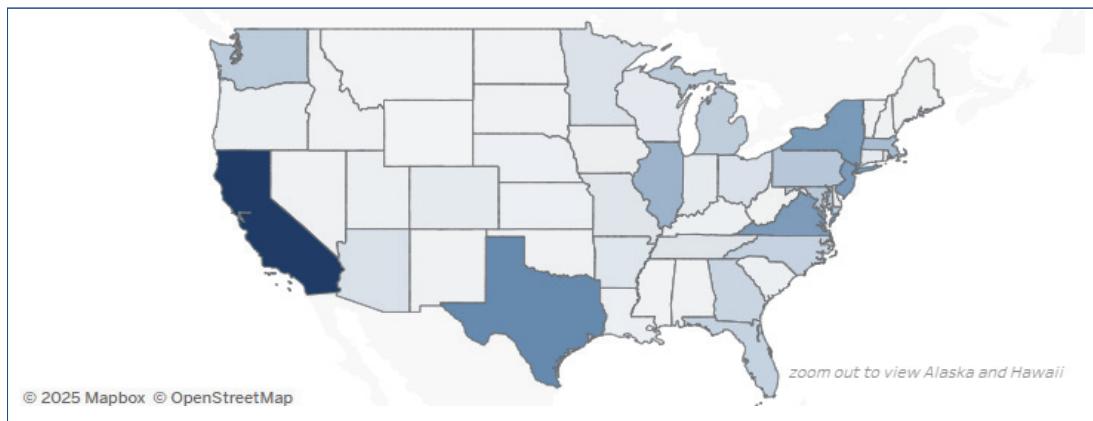
기호	비자 등급	관련 법 조항
B1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INA 101(a)(15)(B).
B2	Temporary Visitor for Pleasure	INA 101(a)(15)(B).
B1/B2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 Pleasure	INA 101(a)(15)(B).
C1	Noncitizen in Transit	INA 101(a)(15)(C).
E1	Treaty Trader, Spouse or Child	INA 101(a)(15)(E)(i).
E2	Treaty Investor, Spouse or Child	INA 101(a)(15)(E)(ii).
F1	Student in an Academic or Language Training Program	INA 101(a)(15)(F)(i).
F2	Spouse or Child of F1	INA 101(a)(15)(F)(ii).
H-1B	Temporary Worker in a Specialty Occupation	INA 101(a)(15)(H)(i)(b).
L1	Intracompany Transferee(Executive, Managerial, and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Continuing Employment)	INA 101(a)(15)(L).
L2	Spouse or Child of L1	INA 101(a)(15)(L).

자료: 미 국무부

□ H-1B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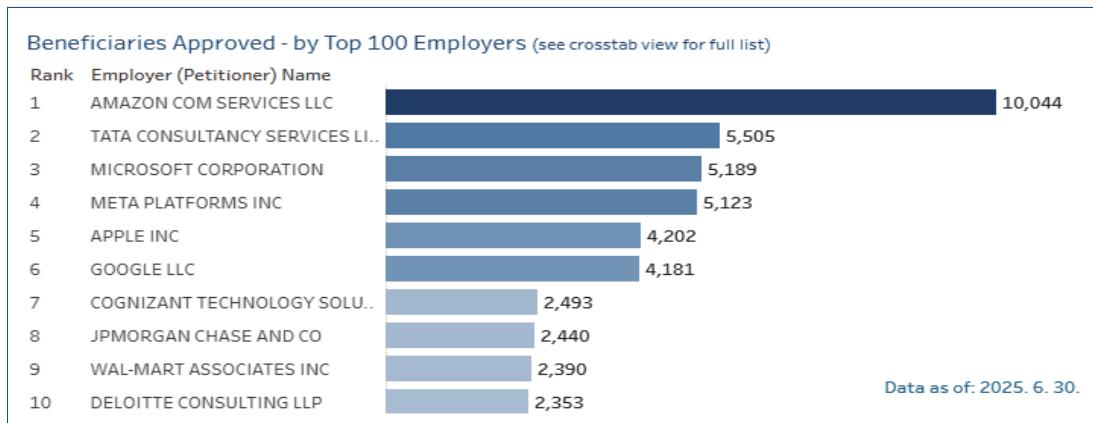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9월 19일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로 기준 대비 100배 증액
 - '25년 9월 21일 12 : 01 EDT 이후 제출되는 신규 H-1B 청원부터 적용

〈H-1B 비자 승인 주별 분포 현황〉



자료: USCIS(미국 연방이민국)

〈H-1B 비자 최다 고용 기업〉



자료: USCIS

□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기회요인

- 프로젝트 지역 및 비용 증가
 - 일정 지연으로 매출 확보 기회 상실, 운영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감소
 - 장기적으로 공정 자동화 제고, 인력 투입 의존도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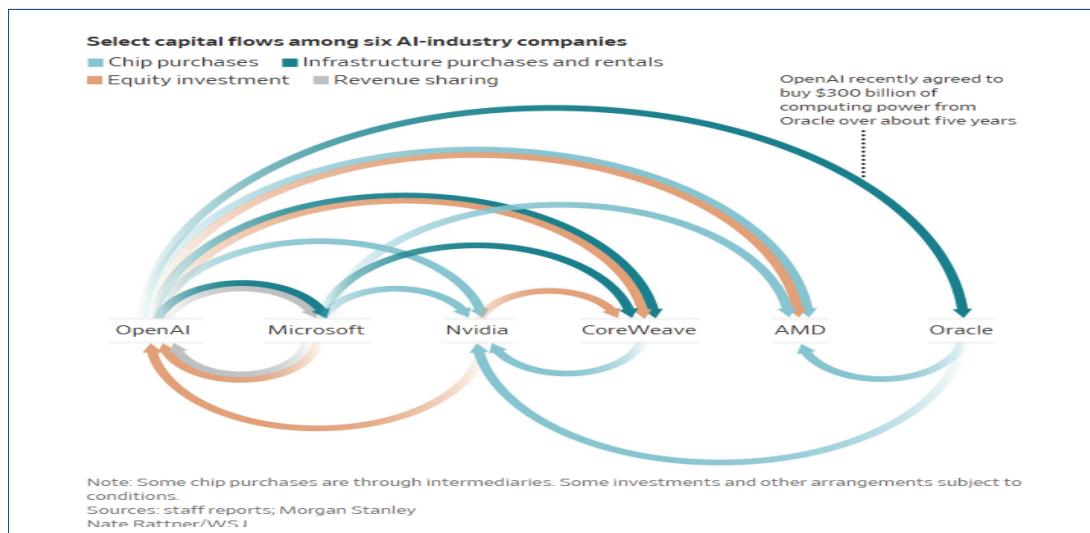
- 진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상하원 선거결과에 따른 공약이행 등 미국 국내이슈와 연계된 아웃리치 전략 수립 필요
- 미국 첨단산업 종사 우수 과학기술 인력 국내 복귀 유도

마. (산업) AI 중심 첨단기술 및 산업 인프라 확장

□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 노력 강화

- 미국 'AI 봄', 정책과 투자를 통한 내재화(Onshoring) 전략 본격화
 - (AI 행동계획) AI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재정지원도 확대(Hunton, '25년 7월)
 - (CHIPS) 미국 상무부, 약 110억 달러의 자금 지원 확충하여 반도체 생산 보조금뿐만 아니라 관련 R&D(연구개발)와 인력 양성 계획 수립(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25년 5월)
 - (민간 투자) '24년 미국의 민간 AI 투자액 1,091억 달러로 중국(93억 달러) 대비 약 12배 규모였으며, 실제 기업의 AI 사용 비율도 급증*해 산업 전반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임(Stanford HAI, '25년 4월)
 - * ('23년) 55% → ('24년) 78%
 - (엔비디아 실적) '25년 3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570억 1,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512억 1,5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

〈AI 선도기업 간 연쇄투자 및 투자방식 다각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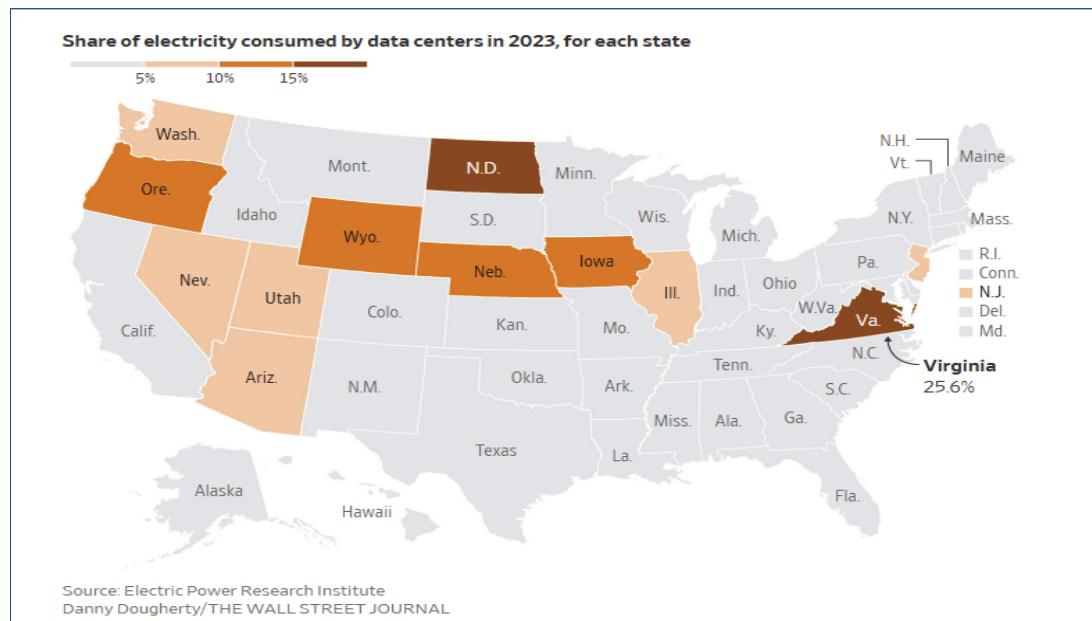


자료: WSJ

□ AI 성장 가속화에 따른 기반 인프라 시장 급성장

- AI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전력·반도체·전송망 등 기반 인프라 수요 급증
 - '25~'26년 북미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액은 4,000억 달러 이상 예상
 - 미국 데이터센터용 인프라 시장(서버 냉각, 전력 시스템 등)은 '25년 기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34년까지 연평균 약 16.4%씩 성장 전망
 - * 특히, 서버 냉각장치(수냉식·하이브리드 냉각), UPS·백업 발전기, 전력 관리 시스템(스마트 그리드·배전반) 등 수요 증가
 - 데이터센터 공실률 또한 사상 최저치인 1.6% 기록하며 수요 증가를 반증
 -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은 전력 수요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며, '24년 말 기준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용량은 6,350MW로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증가
 -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조달·시공),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냉난방 공조 설비) 설계 등 전문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필수

〈미국 지역별 데이터센터 전기소비량('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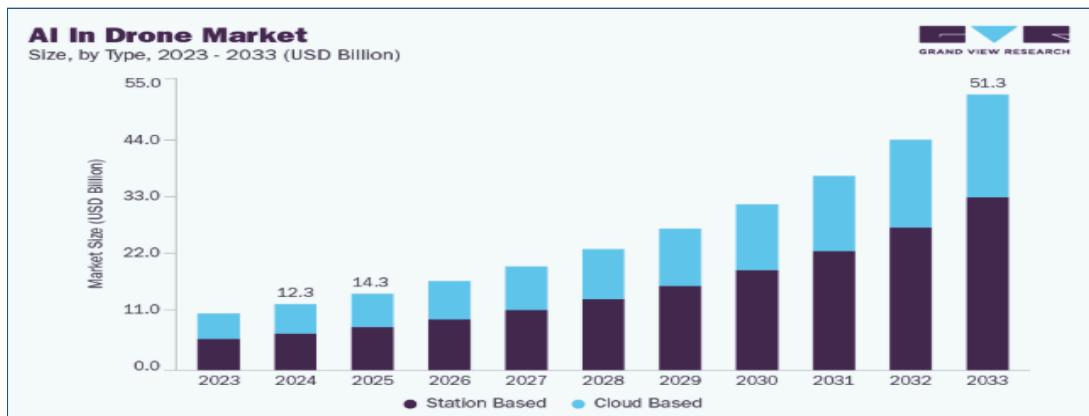


자료: WSJ

□ 전통 산업의 AI 전환 및 신성장 동력 발굴

- AI 확산으로 미국 기업들의 사업 방향 전환
 - 미국의 전통 기계·장비 기업의 데이터센터용 설비 분야로 사업 다각화* 시도
 - * (게이츠 인더스트리얼, 고무벨트) 자동차 냉각 기술 활용해 고밀도 컴퓨팅 환경의 열 부하 관리 솔루션 대응
 - * (허니웰, 산업솔루션)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에서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
- 로보틱스, 드론을 활용한 무인화 솔루션 상용화
 - (성장 전망) 산업·공공 분야에서 정밀 감시, 인프라 점검, 재난 대응, 구조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AI 드론 활용이 확대*되며, '24년 북미 36% 이상의 가장 큰 시장 점유율 보유
 - * 글로벌 AI 드론 시장 규모는 '24년(약 122억 달러)에 연평균 약 17.9%씩 성장해 '33년(약 513억 달러) 전망
 - (제도적 기반) FAA(연방항공청)가 '25년 상용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시계밖 장거리운영)를 정상화하는 규정안(NPRM) 제시하면서 배송·총량·보안 등 대규모 상용화 기반 마련 (Federal Register, '25년 8월)

〈글로벌 AI 드론 시장 규모 전망치〉



자료: Grand View Research

- 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ChatGPT 개발사인 Open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25년 9월)이며, 이는 기록상 VC(벤처캐피탈) 지원 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 투자
 - 두 회사는 엔비디아가 OpenAI의 모델 운영과 학습을 위해 칩을 공급하는 파트너십 합의. OpenAI는 최소 10기가와트(GW) 규모의 용량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이 상용 가동됨에 따라 자금이 단계적으로 집행. 1단계는 '26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

□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기회요인

- 10GW 데이터센터는 원전 10기급 전력 수요, 송·배전 기자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기회
- AI 버블에 대한 우려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전망 병존
-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냉각시스템 수요, 건설·설계·시공·감리 등 EPC 진출

바. (문화) 웰니스 트렌드, 라이프스타일로 확대

□ ‘자기 관리’와 ‘환경적 책임’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라이프스타일로 확대

- (배경) 미국의 웰니스(Wellness) 트렌드 기술 발전, 건강 인식의 변화, 팬데믹 이후의 장기적 영향, 친환경·지속가능성 중심의 소비 가치 확대로 급성장
 - AI, 웨어러블, 유전자·マイ크로바이옴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건강관리가 급성장
 -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맞춤형 식단·운동·수면·정서 관리가 일상화되며 라이프스타일로 확산
 - 코로나 이후 면역력·정신 건강·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웰니스 및 원격진료·심리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
 - 환경오염 인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 확대로 오가닉·친환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의 가치소비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
- (관련 분야·산업) AI, 디지털 헬스케어, 오가닉·클린푸드와 뷰티, 친환경 패키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
 - 스마트 웨어러블·디지털 피트니스·정신 건강 앱 등 맞춤형 솔루션 수요가 늘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코칭으로 기존 건강관리 한계를 극복
 - AI 융합의 뷰티·헬스·피트니스 서비스 분야는 사용자 경험 개선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새로운 기회 창출

□ 우리 기업에 영향

- 웨어러블·디지털 피트니스·정신건강 앱, 지속가능 원료·포장재, 오가닉 식품·뷰티 등에서 높은 성장 기회
- 웰니스 관광, 기능성 식품·뷰티, 친환경 패키징 등 다양한 소비재 분야로 브랜드 확장·협력 가능
- 미국 시장 진출 시 관세·FDA 등 규제 대응 필수, USDA Organic·Non-GMO 인증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현지 신뢰 구축의 핵심
- 미국 관세 정책은 진입장벽으로 현지 유통망 구축과 탄력적인 재고 비축도 필요
- 가격 민감·가성비 중시 : 관세·물류비 전가로 가격저항 커짐. ‘엔트리·팩토리 아웃렛’ 라인, 리퍼브·서브 스크립션, 번들링 확대 검토(Reuters, '25년 9월)
- 윤리·지속가능 조달 : UFLPA(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주 데이터법·ESG 공시 요구가 ‘브랜드 리스크’와 직결. 원산지·노동·환경 검증 가능한 서플라이체인 스토리텔링이 필요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48
2. 유망 산업	89
3. 협력 기회	124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상품(Products)
 - 세계 최대 내수시장 : '24년 소비지출 약 18조 달러, GDP의 약 2/3 차지
 - 다종적 시장 : 고급·프리미엄 vs 가성비·대량소비 시장이 공존
 - 품질·안전 규제 강화 : UL, FDA, CPSC 등 인증 필수
 - 경합도 : 내수 산업 강력(농식품·자동차·철강) vs 수입 의존(전자, 생활재) 품목 구분 뚜렷
- 서비스(Services)
 - GDP의 72.8% 차지 : 금융, 헬스케어, 교육, IT, 물류 등
 - 디지털 서비스 성장 : 클라우드·AI·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장
 - 규제 다양성 : 주(州)별 금융·의료·교육 규제가 상이 → 진입장벽 존재
- 수입(Trade/Imports)
 - 세계 1위 수입국 : '24년 기준 약 4조 1,000억 달러 수입
 - 중국 의존도 축소 : 관세부과 및 공급망 디커플링 → 베트남·멕시코·한국 비중 확대
 - 무역정책 : 301·232 관세, UFLPA, De Minimis 소액관세면제 폐지, USMCA '26년 리뷰
- 기술(Technology)
 - 혁신 선도국 : 실리콘밸리, 보스턴, 오스틴 등 R&D 클러스터
 - 정부 지원 : CHIPS법(반도체), IRA(에너지·EV), DOE 원자력 투자 확대
 - 트렌드 : AI, 빅데이터, EV·배터리, 원자력, 바이오·헬스
- 노동(Labor)
 - 임금 수준 높음 : 평균 시급 36.7달러('25년 9월), 주별 최저임금 7.25~16달러
 - 인력 부족 : 제조·기술 인력 부족 심화, 이민정책 변동성 큰 영향
 - 규제 강화 : NLRB(노사관계), Non-compete 제한, 공동사용자 규칙 논란
- 자본(Capital/Investment)
 - 투자환경 매력적 : 주정부 인센티브(세금감면, 보조금, 토지·전력 지원) 활발
 - 법인 구조 다양 : C-Corp, LLC, JV 등 선택폭 넓음
 - 외국인투자 심사 : CFIUS(안보 관련), 특정 전략산업 제한 가능
- 금융(Finance/Monetary)
 - 기축통화 : 국제 결제 비중 40% 이상, 달러 강세 시 수출기업 부담
 - 금리 수준 : Fed 기준금리 변동이 직접적으로 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
 - 자본시장 발달 : 주식·채권·벤처투자 규모 세계 최대
 - 리스크 : 국가부채·재정적자 확대 → 장기금리·이자비용 상승 가능

가. 시장 특징

□ (내수)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

-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시장 규모
 - '24년 미국 경제 규모는 29조 1,849억 달러로, 전 세계 GDP 26.2% 차지
 - * '24년 전 세계 GDP는 111조 3,264억 달러(WB(세계은행))
 -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5년 2분기 기준 68.2%, 지속적 상승 추세

〈GDP 대비 소비 비중〉



자료: FRED

□ (소비시장) 주요 소비 트렌드

- 디지털 전환 : e-Commerce가 전체 소매판매의 약 15~16% 수준까지 확대, Amazon·Walmart 등 온라인·옴니채널 강화
 - Walmart의 경우 매장 기반 배송(Store-fulfilled Delivery) 확장 및 온라인 주문을 매장에서 처리하는 방식 강화
 - Amazon은 농촌 지역까지 Same·Next-day 배송 투자(40억 달러 이상), 상대적으로 빠른 배송 커버리지 확대
- 고급화·친환경 소비 : 전기차·재생에너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유기농 식품 등 지속가능성 관련 수요 증가
 - 전기차(EV)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5년 1분기 기준 미국 신차 판매 중 EV가 약 7.5%를 차지
 - 미국의 인증 유기농 제품 매출은 '24년에 전년 대비 5.2% 증가해 약 716억 달러 기록
- 인구 구조 변화 : 밀레니얼·Z세대의 구매력 확대, 고령화에 따른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확대
 - 미국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가며 주요 소비 세대로 부상 중인 MZ세대
 - * MZ세대는 밀레니얼세대(Millennials, '81~'96년생)와 Z세대(Gen Z, '97~'12년생)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현재 사회·경제·문화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층을 의미

- MZ세대는 인터넷, 스마트폰, SNS 환경에서 성장해 온라인 쇼핑 및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소비가 활발한 디지털 세대로 미국 소비시장 트렌드를 선도
- 평소에는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특정 분야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양면적 소비가 특징
 - * 미닝아웃(Meaning Out) : 친환경적이거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제품이 비싸더라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 행태
- 연간 의료지출 총액 '23년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이 7.5% 증가, GDP 대비 약 17.6% 수준, 55세 이상 인구비율 전체 31%, 의료비의 56% 차지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진입과 함께 Medicare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 '30년까지 연평균 약 9.7% 증가 예상
- 가격 민감성 :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를 중시하는 경향 강화
 -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9월 조사에서 8월의 58.2 대비 3.1p 하락한 55.1 기록
 -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기의 여러 취약 요인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 여건·노동시장·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조사 등 지수

구분	2024년 9월	2025년 8월	2025년 9월	전월 대비 변화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소비자심리지수	70.1	58.2	55.1	-3.1	-15
현재 경제 상황	63.3	61.7	60.4	-1.3	-2.9
소비자기대지수	74.4	55.9	51.7	-4.2	-22.7

자료: 미시간대(100이 기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인식)

- 다문화 소비 기반과 막대한 수입으로 글로벌 시장 기회 창출
 - 미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용광로(Melting Pot) 사회로, 다양한 성향과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존재하고, 이는 브랜드가 여러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작용
- 미국 신용경제(Credit Economy)는 개인의 신용점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금융·소비 전반에 큰 영향
 - 가계가 신용을 통해 미래 소득을 선지출함으로써 소비 규모를 확대하는 구조
 - 개인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Mortgage),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한도와 승인, 렌트 계약, 휴대폰 개통, 보험료 책정에도 영향
 - 대표적인 신용점수인 FICO는 Fair Isaac Corporation이라는 민간 회사가 '89년 개발한 신용점수 시스템, 미국 대출기관의 90% 이상이 사용 중
 - '24년 기준 미국인 평균 FICO 점수는 717점. 700점 이상이면 양호, 800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
 - * 대표 신용점수 모델 : FICO Score, VantageScore

□ 대규모 개방경제로 전 세계 시장 영향

- (원자재·농산물) 미국은 옥수수, 콩, 원유, 가스 등 주요 상품의 세계 공급자이자 동시에 수입국이어서 글로벌 가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
- (기축통화) 전 세계 무역의 상당 금액이 달러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 동향이 곧 글로벌 금융시장 및 환율에 영향
 -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 달러화 결제 비중 81%, 위안화 7%, 유로화 6%
- (국제 무역 비중) '24년 전 세계 무역 32조 2,000억 달러 대비 미국 무역은 7조 달러로 전 세계 무역 중 약 23% 차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큰 비율
 - * '24년 기준 미국 무역 7조 3,700억 달러, 전 세계 무역 32조 2,000억 달러 = 22.9%

□ 분야별 주요 인증, 세계표준 선도

- (제조)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대표적인 제품 안전 인증기관
 -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거나 판매하려면 UL 인증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분야별 대표 인증 및 적용 대상

산업 분야	필수/대표 인증	주관 기관	적용 대상/설명
전자·전기 제품	UL 인증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감전, 화재 등) 시험 합격 시 부여 • 필수는 아니지만 유통망 입점 필수 수준
	ETL 인증	Intert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대체 안전 인증 • 대형 리테일에서도 인정
	FCC 인증	FCC (연방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기기, 전자파 방출 제품 필수 • 판매 전 반드시 획득해야 함
	CSA 인증	CSA Group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기준이지만 북미에서 병행 요구됨 • 전기 안전 관련 인증
가전·사무기기·건물	Energy Star	EPA & D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 우수 제품 인증 • 정부 조달 및 리테일 판매에 유리
식품·의약·화장품·의료기기	FDA 승인/등록	FDA (미국 식품의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필수 인증 • 등급별 사전 허가 필요
화학·환경 관련 제품	EPA 인증	EPA (환경보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제품, 농약, 배출가스 규제 •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제품 등
자동차·교통	DOT 인증	DOT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타이어, 운송장비의 충돌·안전·내구성 기준 충족 필요
소비자·장난감	CPSC 규제 준수	CPS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소비자 안전성 • 특히 아동용 제품은 CPSIA 기준 필수
산업 장비·기계류	ANSI 인증	ANSI (미국표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기계·안전 장비 표준 • 특정 산업군에서 요구

자료: KOTRA

- (화장품)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 MoCRA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38년 이후 변화가 없던 화장품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2년 12월에 전면 개정함
 - * 병원, 클리닉 등 직접 조제하거나 소규모로 사용하는 화장품은 일부 MoCRA 요건에서 제외됨

화장품 현대화법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시설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모든 시설은 FDA에 의무적으로 등록 • 외국 시설도 미국 내 유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등록 • 기존 시설은 연 1회, 신규는 60일 내 등록(2년 주기로 갱신)
제품 목록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유통할 제품의 이름, 라벨, 성분을 FDA에 보고(성분 변경 시 업데이트 필수) • 신제품은 출시 후 120일 이내 보고
책임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안전성과 규제를 준수하는 책임을 지는 법적 대표자를 지정 • 이상 상황 발생 시 FDA와의 커뮤니케이션하는 주체가 됨
제품 안정성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하는 화장품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보존 관리해야 함
라벨링 규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자 연락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의무화 • 전 성분(INCI명) 기재,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
유해 사례 보고 및 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이상 사례(입원, 사망, 감염 등)에 대해 15일 이내 FDA 보고(보고된 이상 사례는 FDA의 제품 안전성 판단에 사용됨) • 일반적인 부작용도 1년간 기록 보관 필요
회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A는 소비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 회수 명령이 가능함 • 기업의 자발적 회수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명령이 가능함
GMP 규정(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A는 화장품 전용의 GMP(우수 제조관리 기준) 규정 마련 중 • 제품 품질, 위생, 오염 방지 등을 위한 표준 설정 예정

자료: FDA 보도자료 및 KOTRA 재정리

- (통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전자파 적합성 인증(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FCC 인증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전자·통신기기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적합성 평가 제도로, 가전을 포함한 전파를 일으키는 모든 제품이 대상임
 - 미국 내에서 판매·유통·사용되는 전자기기는 전자파 간섭(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및 전자파 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인증 취득 방식은 두 가지로, 제조사 자체 시험·선언 방식(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과 FCC가 인정한 시험기관(TCB,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을 통한 방식이 있음

□ (기술) 글로벌 기술 및 첨단산업 혁신 선도

- 미국은 전 세계 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시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이 잘 형성되어 있음
 -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평가에서 상위권 차지
 -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 유치
 - * '25년 세계 대학 랭킹 상위 100개 대학 중 38개가 미국 소재(Times Higher Education, '25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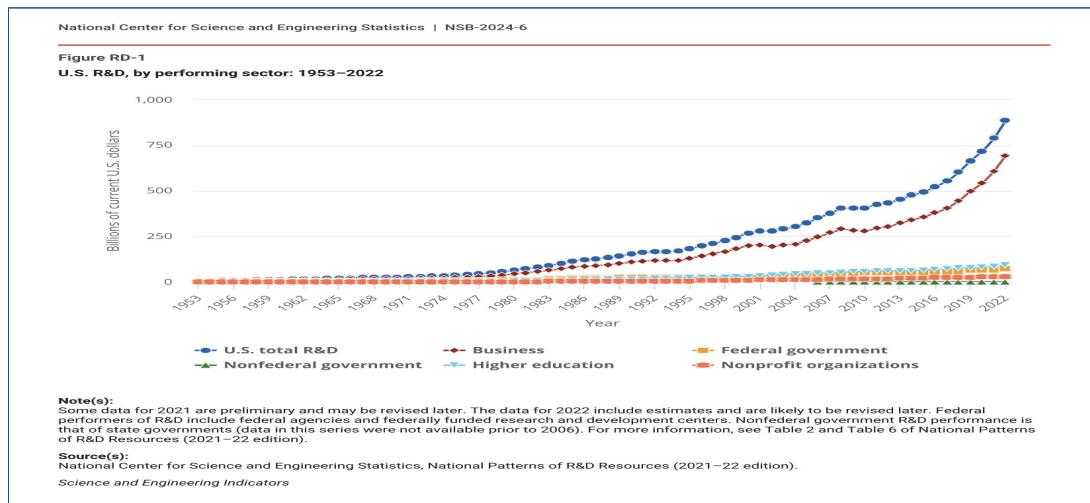
주요 기구 경제 용이성 평가 내 미국-경쟁국 간 순위 비교

구분	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싱가포르
FDI 경쟁력(A.T.Kearney, '25년)	1	2	6	3	15
글로벌 혁신성(코넬대·INSEAD·WIPO, '24년)	3	14	11	5	4
국가 경쟁력(IMD, '25년)	13	11	16	29	2
경제 자유도(헤리티지재단, '25년)	26	14	151	33	1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25년 9월)

- 글로벌 기업의 거점으로 전 세계 자본이 집중되는 시장
 - '25년 포춘 글로벌 500개 기업 가운데 27.6% 이상인 138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며, 상위 10위권 중 6개 기업(월마트·아마존·애플·유나이티드헬스케어·CVS·버크셔해서웨이)이 미국 기업
 - '24년 미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조 7,100억 달러, 전년 대비 6.2% 증가
 - * '25년 FDI 신뢰지수 조사 : 미국은 2.38점을 받아 전년에 이어 1위 기록(A.T 커니)
- 미국은 첨단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시장으로 미국에서 탄생한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
 -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혁신 기업* 가운데 56개가 미국 기업으로, 미국의 혁신 기업은 첨단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
 - * 100대 기업 가운데 포함된 대표적 미국 기업으로는 아마존, 애플, 테슬라, 메타 등이 있음
- (R&D(연구개발)) 미국의 '23년 GDP 대비 R&D 비율은 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 상회, 이스라엘과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스라엘 6.0%, 한국 5.2%)
- 미국의 비율은 중국(2.6%), 프랑스(2.9% 잠정), 영국(2.9%, 잠정, '21년) 등 다른 주요 R&D 수행 국가들의 비율보다 높음

〈'53~'22년 미국 R&D 분야별 지출〉



자료: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노동시장) 첨단산업 최고인재 시장

- (대학) 미국 STEM 직종(STEM Occupations, 과학·기술·공학·수학)에 종사하는 인력은 '24년 약 1,078만 3,700명 수준
 - BLS(미국 노동통계국)의 예측에 따르면 STEM 직종은 '23~'33년 사이에 약 10.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민) 외국인 대상 이민 규제 강화로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유학생·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유지
 - (이민 규제) 트럼프 1.0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치안과 자국민을 위한 보편적 일자리 확충,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재추진, 불법 이민자 추방, 입국 및 비자 발급 강화
- (숙련인력)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33년까지 약 3,800만 개의 일자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적합한 인재 부족으로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성이 있음
- (비자) '25년 9월 19일, 1인당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대폭 증액키로 발표
 - (인재 유입) 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해외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 취업 및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H-1B) 발급 유지 중
 - Amazon, Microsoft, Google, Meta 같은 회사들은 그간 H-1B 신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확대 전망
 - 빅테크(Big Tech)들이 미국 내 대학·교육 프로그램 커버 확대, 혹은 캐나다, 유럽 등 대체 허브 강화 가능성. 일부 기업은 원격 근무(Remote, Hybrid) 활용 확대 예상

회계연도 '24년 H-1B 승인자 출생국별 Top 10

순위	국가	승인자 수	비율
1	인도	283,397	71.00%
2	중국	46,680	11.70%
3	필리핀	5,248	1.30%
4	캐나다	4,222	1.10%
5	한국	3,983	1.00%
6	멕시코	3,333	<1%
7	대만	3,099	<1%
8	파키스탄	3,052	<1%
9	브라질	2,638	<1%
10	나이지리아	2,273	<1%
전체	모든 국가	399,395	100%

자료: USCIS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24년 미국의 교역 규모, 5조 3,281억 달러 기록

- (수출 규모) '25년 8월 기준, 미국 수출 규모는 2조 1,43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 (수입 규모) '25년 8월 기준, 미국 수입 규모는 약 2조 9,65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 (무역수지) '25년 8월 기준, 미국 무역수지는 -7,1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확대

미국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기간	무역수지			수출			수입		
	합계	상품	서비스	합계	상품	서비스	합계	상품	서비스
2023년	-774,205	-1,057,495	283,290	3,092,536	2,047,457	1,045,079	3,866,741	3,104,952	761,789
2024년	-903,532	-1,215,403	311,870	3,232,524	2,079,777	1,152,747	4,136,057	3,295,180	840,877
2024년 8월 누계	-571,085	-778,769	207,684	2,143,316	1,386,367	756,949	2,714,401	2,165,136	549,265
2025년 8월 누계	-713,595	-925,095	211,500	2,251,707	1,447,700	804,007	2,965,302	2,372,795	592,508

자료: BEA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25년 8월 기준, 수출 순위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순이며 한국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미국의 제 8위 수출시장
 -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2,264억 달러, 對중국 수출은 735억 달러
 - 對한국 수출은 '25년 8월 기준 450억 달러

미국의 국별 수출·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무역수지			수출			수입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무역수지(BOP)	-84,249	-117,979	-895,657	180,597	176,357	1,441,541	264,846	294,337	2,337,198
조정	-1,325	-999	-6,342	890	1,122	9,809	2,215	2,122	16,150
센서스 기준	-82,924	-116,980	-889,315	179,707	175,235	1,431,732	262,632	292,215	2,321,048
북미	-18,114	-22,380	-162,642	56,436	55,158	452,053	74,550	77,538	614,695
캐나다	-2,218	-6,004	-34,158	27,186	26,168	225,642	29,404	32,172	259,800
멕시코	-15,896	-16,375	-128,484	29,250	28,991	226,411	45,146	45,366	354,895
유럽	-5,222	-19,135	-209,735	48,306	46,794	389,019	53,529	65,929	598,753
European Union	-6,641	-11,921	-165,795	35,638	35,006	272,530	42,279	46,927	438,325
오스트리아	-829	-1,080	-7,136	383	293	3,602	1,212	1,373	10,738
벨기에	1,096	732	4,885	3,802	2,845	24,076	2,706	2,113	19,191
체코	-289	-472	-2,771	356	313	2,918	645	785	5,689
핀란드	-321	-670	-3,626	256	272	1,878	577	942	5,505
프랑스	-1,011	-881	-10,700	3,643	4,707	33,542	4,654	5,587	44,242
독일	-4,179	-6,274	-48,675	6,967	6,553	54,843	11,146	12,827	103,518
헝가리	-569	-847	-6,133	302	279	2,265	871	1,125	8,398
아일랜드	-2,954	-2,560	-87,767	2,231	1,738	12,287	5,184	4,298	100,054
이탈리아	-1,787	-3,103	-24,426	3,564	4,116	26,760	5,352	7,218	51,186
네덜란드	5,065	4,767	38,490	8,011	7,912	63,828	2,946	3,144	25,338
폴란드	201	-95	-140	1,320	1,075	9,370	1,119	1,170	9,510
스페인	900	606	3,325	2,510	2,425	18,260	1,610	1,819	14,935
스웨덴	-176	-519	-4,653	783	830	6,165	959	1,349	10,818
기타	-1,789	-1,525	-16,468	1,511	1,650	12,736	3,299	3,175	29,203
노르웨이	-36	-284	-1,468	436	213	3,242	472	497	4,710
러시아	-156	-303	-2,671	49	53	386	205	356	3,057
스위스	543	-7,912	-55,203	3,871	2,691	34,594	3,328	10,603	89,797
영국	789	1,064	16,838	5,991	6,650	61,063	5,202	5,586	44,225
기타 유럽	279	221	-1,436	2,322	2,181	17,204	2,043	1,960	18,640

구분	무역수지			수출			수입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Euro Area	-4,895	-9,113	-144,446	32,324	32,026	247,361	37,219	41,138	391,807
한태평양	-39,289	-47,179	-336,226	39,081	39,376	316,465	78,370	86,555	652,691
호주	1,636	-548	997	2,904	2,672	22,249	1,268	3,220	21,251
중국	-16,861	-17,113	-145,441	8,272	9,298	73,581	25,133	26,411	219,023
홍콩	1,548	1,706	18,407	1,923	1,963	22,619	374	257	4,212
인도네시아	-1,920	-2,159	-15,853	897	1,011	7,194	2,817	3,170	23,047
일본	-4,936	-5,584	-44,974	7,059	6,898	54,416	11,994	12,481	99,390
대한민국	-4,427	-5,224	-40,750	5,735	5,892	45,052	10,162	11,115	85,802
말레이시아	-1,605	-2,572	-20,059	2,802	2,515	19,094	4,407	5,086	39,153
필리핀	-921	-635	-4,903	797	768	6,033	1,719	1,403	10,936
싱가포르	1,432	-346	1,415	3,739	3,050	28,017	2,306	3,396	26,602
대만	-13,181	-14,569	-83,976	4,554	4,936	35,248	17,736	19,506	119,224
기타	-55	-135	-1,089	399	374	2,962	454	508	4,050
남·중앙아메리카	5,581	3,484	30,474	18,105	18,158	142,505	12,524	14,673	112,031
아르헨티나	86	272	1,675	844	1,060	6,646	759	789	4,971
브라질	1,682	350	6,575	4,745	4,382	35,682	3,063	4,032	29,107
칠레	301	-312	-884	1,568	1,537	12,834	1,267	1,850	13,719
캄보디아	182	33	711	1,636	1,529	12,801	1,455	1,496	12,090
베네수엘라	126	138	-350	216	168	2,309	90	30	2,659
기타	3,205	3,005	22,747	9,095	9,482	72,233	5,891	6,477	49,486
아프리카	492	-1,169	-4,371	4,107	3,299	27,082	3,614	4,468	31,453
알제리	-253	-133	-957	78	61	691	331	194	1,647
이집트	819	557	4,106	1,075	847	6,080	256	290	1,974
나이지리아	388	206	1,169	830	584	4,751	442	379	3,582
남아프리카공화국	-400	-1,423	-8,144	604	565	4,345	1,004	1,988	12,489
기타	-62	-376	-545	1,519	1,242	11,215	1,581	1,618	11,761
기타 국가	-26,373	-30,686	-206,884	13,672	12,396	104,600	40,045	43,082	311,484
인도	-4,040	-5,765	-44,058	3,849	3,406	29,307	7,889	9,171	73,365
이스라엘	-408	-708	-4,167	1,274	939	9,578	1,682	1,647	13,745
사우디아라비아	259	167	1,986	1,312	1,019	9,239	1,053	851	7,253
태국	-6,085	-6,682	-41,686	1,384	1,432	12,716	7,468	8,113	54,402
베트남	-15,038	-16,636	-112,996	1,413	1,349	9,678	16,451	17,985	122,674
기타	-1,060	-1,063	-5,963	4,441	4,252	34,083	5,501	5,314	40,046
기타 국가	(-)	(-)	(-)	(-)	(-)	(-)	(-)	(-)	(-)
시차 조정	(-)	84	68	(-)	54	8	(-)	-30	-60

자료: BEA

- (상품 수출) 8월 기준 1조 4,47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13억 달러 4.4% 증가

미국 상품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5년 8월	2025년 7월(수정)	월간 변동	2025년 8월 누계	2024년 8월 누계	변동 연간
합계(BOP 기준)	179,019	179,549	-530	1,447,700	1,386,367	61,333
조정	858	1,054	-196	9,874	10,771	-897
합계(센서스 기준)	178,161	178,495	-334	1,437,826	1,375,596	62,230
식품, 사료, 음료	13,839	13,772	68	108,312	108,996	-684
산업재 및 원자재	59,591	60,180	-589	506,828	488,022	18,806
자동차, 부품, 엔진	12,669	13,060	-391	105,426	115,940	-10,514
소비재	21,189	22,735	-1,546	175,635	174,902	733
기타	8,501	8,757	-256	68,703	58,823	9,879

자료: BEA

- (서비스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3.3%인 470억 달러 증가, 분야별로 골고루 확대

미국 서비스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액	유지 보수 및 서비스 (기타)	운송	여행	건설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지식 재산권 사용료 (기타)	통신·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기타 기업 서비스	개인·문화 및 여가 서비스	정부·재화 및 서비스 (기타)
2023년	1,045,079	27,823	97,115	189,891	2,280	24,594	175,288	148,204	78,484	243,402	25,104	32,894
2024년	1,152,747	35,519	102,238	213,779	2,491	28,165	194,509	169,520	90,783	263,873	21,094	30,774
2024년 8월 누계	756,949	23,400	67,525	140,702	1,622	18,233	128,766	110,536	59,623	174,434	14,414	17,693
2025년 8월 누계	804,007	29,267	70,713	142,696	1,635	19,898	136,402	126,561	63,866	180,522	14,882	17,566

자료: BEA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세계 3위 인구 대국이며, 미국은 기축통화 및 신용경제 기반, 구매력 바탕으로 세계 최대 수입국
- '24년 미국이 수입한 상품 규모는 총 3조 6,4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면서 1위 자리를 유지함
- * 한국은 미국의 7위 수입국으로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4.2%

- 미국 인구는 3억 4,01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24년 개인소비지출 규모는 19조 8,254억 달러임 (FRED, '25년 9월)
 - * 개인 소비는 명목 GDP의 67.9%를 차지,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

'24년 전 세계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	국가명
1	미국	33,590	+5.9%
2	중국	25,870	+1.1%
3	독일	14,250	-0.6%
4	영국	8,156	+3.0%
5	일본	7,433	-5.5%
6	프랑스	7,408	-4.7%
7	인도	7,028	+4.3%
8	홍콩	6,989	+6.6%
9	네덜란드	6,354	-3.1%
10	한국	6,321	-1.6%

자료: worldstopexports.com

- (수입국) 미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순이며, 한국은 베트남, 대만,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에 이은 10위

미국의 국가별 수출·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지			수출			수입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무역수지(BOP)	-84,249	-117,979	-895,657	180,597	176,357	1,441,541	264,846	294,337	2,337,198
조정	-1,325	-999	-6,342	890	1,122	9,809	2,215	2,122	16,150
센서스 기준	-82,924	-116,980	-889,315	179,707	175,235	1,431,732	262,632	292,215	2,321,048
북미	-18,114	-22,380	-162,642	56,436	55,158	452,053	74,550	77,538	614,695
캐나다	-2,218	-6,004	-34,158	27,186	26,168	225,642	29,404	32,172	259,800
멕시코	-15,896	-16,375	-128,484	29,250	28,991	226,411	45,146	45,366	354,895
유럽	-5,222	-19,135	-209,735	48,306	46,794	389,019	53,529	65,929	598,753
European Union	-6,641	-11,921	-165,795	35,638	35,006	272,530	42,279	46,927	438,325
오스트리아	-829	-1,080	-7,136	383	293	3,602	1,212	1,373	10,738
벨기에	1,096	732	4,885	3,802	2,845	24,076	2,706	2,113	19,191

구분	수지			수출			수입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체코	-289	-472	-2,771	356	313	2,918	645	785	5,689
핀란드	-321	-670	-3,626	256	272	1,878	577	942	5,505
프랑스	-1,011	-881	-10,700	3,643	4,707	33,542	4,654	5,587	44,242
독일	-4,179	-6,274	-48,675	6,967	6,553	54,843	11,146	12,827	103,518
헝가리	-569	-847	-6,133	302	279	2,265	871	1,125	8,398
아일랜드	-2,954	-2,560	-87,767	2,231	1,738	12,287	5,184	4,298	100,054
이탈리아	-1,787	-3,103	-24,426	3,564	4,116	26,760	5,352	7,218	51,186
네덜란드	5,065	4,767	38,490	8,011	7,912	63,828	2,946	3,144	25,338
폴란드	201	-95	-140	1,320	1,075	9,370	1,119	1,170	9,510
스페인	900	606	3,325	2,510	2,425	18,260	1,610	1,819	14,935
스웨덴	-176	-519	-4,653	783	830	6,165	959	1,349	10,818
기타	-1,789	-1,525	-16,468	1,511	1,650	12,736	3,299	3,175	29,203
노르웨이	-36	-284	-1,468	436	213	3,242	472	497	4,710
러시아	-156	-303	-2,671	49	53	386	205	356	3,057
스위스	543	-7,912	-55,203	3,871	2,691	34,594	3,328	10,603	89,797
영국	789	1,064	16,838	5,991	6,650	61,063	5,202	5,586	44,225
기타 유럽	279	221	-1,436	2,322	2,181	17,204	2,043	1,960	18,640
Euro Area	-4,895	-9,113	-144,446	32,324	32,026	247,361	37,219	41,138	391,807
한태평양	-39,289	-47,179	-336,226	39,081	39,376	316,465	78,370	86,555	652,691
호주	1,636	-548	997	2,904	2,672	22,249	1,268	3,220	21,251
중국	-16,861	-17,113	-145,441	8,272	9,298	73,581	25,133	26,411	219,023
홍콩	1,548	1,706	18,407	1,923	1,963	22,619	374	257	4,212
인도네시아	-1,920	-2,159	-15,853	897	1,011	7,194	2,817	3,170	23,047
일본	-4,936	-5,584	-44,974	7,059	6,898	54,416	11,994	12,481	99,390
대한민국	-4,427	-5,224	-40,750	5,735	5,892	45,052	10,162	11,115	85,802
말레이시아	-1,605	-2,572	-20,059	2,802	2,515	19,094	4,407	5,086	39,153
필리핀	-921	-635	-4,903	797	768	6,033	1,719	1,403	10,936
싱가포르	1,432	-346	1,415	3,739	3,050	28,017	2,306	3,396	26,602
대만	-13,181	-14,569	-83,976	4,554	4,936	35,248	17,736	19,506	119,224
기타	-55	-135	-1,089	399	374	2,962	454	508	4,050
남·중앙아메리카	5,581	3,484	30,474	18,105	18,158	142,505	12,524	14,673	112,031
아르헨티나	86	272	1,675	844	1,060	6,646	759	789	4,971
브라질	1,682	350	6,575	4,745	4,382	35,682	3,063	4,032	29,107
칠레	301	-312	-884	1,568	1,537	12,834	1,267	1,850	13,719
캄보디아	182	33	711	1,636	1,529	12,801	1,455	1,496	12,090
베네수엘라	126	138	-350	216	168	2,309	90	30	2,659

구분	수지			수출			수입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누계
기타	3,205	3,005	22,747	9,095	9,482	72,233	5,891	6,477	49,486
아프리카	492	-1,169	-4,371	4,107	3,299	27,082	3,614	4,468	31,453
알제리	-253	-133	-957	78	61	691	331	194	1,647
이집트	819	557	4,106	1,075	847	6,080	256	290	1,974
나이지리아	388	206	1,169	830	584	4,751	442	379	3,582
남아프리카공화국	-400	-1,423	-8,144	604	565	4,345	1,004	1,988	12,489
기타	-62	-376	-545	1,519	1,242	11,215	1,581	1,618	11,761
기타 국가	-26,373	-30,686	-206,884	13,672	12,396	104,600	40,045	43,082	311,484
인도	-4,040	-5,765	-44,058	3,849	3,406	29,307	7,889	9,171	73,365
이스라엘	-408	-708	-4,167	1,274	939	9,578	1,682	1,647	13,745
사우디아라비아	259	167	1,986	1,312	1,019	9,239	1,053	851	7,253
태국	-6,085	-6,682	-41,686	1,384	1,432	12,716	7,468	8,113	54,402
베트남	-15,038	-16,636	-112,996	1,413	1,349	9,678	16,451	17,985	122,674
기타	-1,060	-1,063	-5,963	4,441	4,252	34,083	5,501	5,314	40,046
기타 국가	(-)	(-)	(-)	(-)	(-)	(-)	(-)	(-)	(-)
시차 조정	(-)	84	68	(-)	54	8	(-)	-30	-60

자료: BEA

- (상품 수입) 전년 동기 대비 207억 달러 증가, 자동차 및 부품 수입 감소

미국 상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5년 8월	2025년 7월	월간 변동	2025년 8월 누계	2024년 8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변동
				2025년 8월 누계	2024년 8월 누계	
합계(BOP)	264,627	283,272	-18,645	2,372,795	2,165,136	207,659
조정	2,123	2,091	32	16,217	19,728	-3,511
합계(센서스)	262,504	281,181	-18,677	2,356,578	2,145,408	211,171
식품, 사료, 음료	16,905	18,501	-1,596	149,066	140,368	8,698
산업재 및 원자재	49,572	60,890	-11,318	513,753	442,711	71,043
자본재(자동차 제외)	92,787	96,188	-3,402	733,735	629,830	103,905
자동차, 부품, 엔진	34,517	33,914	603	291,071	320,651	-29,579
소비재	55,134	58,845	-3,711	569,487	523,754	45,733
기타	13,590	12,844	746	99,465	88,094	11,371

자료: BEA

- (서비스 수입) 전년 동기 대비 432억 달러, 7.9% 증가

미국 서비스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액	유지 보수 및 서비스 (기타)	운송	여행	건설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지식 재산권 사용료 기타)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기타 기업 서비스	개인·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정부 재화 및 서비스 (기타)
2023년	761,789	6,362	144,130	157,580	2,206	73,500	62,941	52,601	66,149	145,736	25,066	25,517
2024년	840,877	7,540	154,749	178,914	2,416	95,134	63,371	54,037	72,634	159,687	26,786	25,609
2024년 8월 누계	549,265	4,589	101,350	116,773	1,427	61,584	41,901	35,399	47,236	104,482	17,493	17,031
2025년 8월 누계	592,508	4,810	105,902	124,552	1,634	66,102	44,771	36,782	54,860	117,460	18,534	17,099

자료: BEA

- 한편, 미국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정책의 영향은 3분기 이후 본격화될 전망

* 품목별 관세 중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부터 부과되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6월 3일부터 50%로 인상 및 8월 18일부로 중장비 등 기계류로 확대됨, 상호관세는 8월 7일부 부과

□ 미국의 분기별 국가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변동

-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수입은 '25년 1분기 대비 '25년 2분기 감소
 - 상호관세 시행 전 1분기 선제적 수입(Front-loading)으로 인한 효과

미국의 국가별(지역)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지역)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2년 연간	2023년 연간	2024년 연간
무역수지									
호주	8,299	8,841	8,629	6,850	-1,770	8,051	27,150	31,902	32,619
벨기에	2,568	1,634	528	1,642	883	1,120	9,350	15,926	6,372
브라질	6,489	7,543	7,836	7,474	7,505	8,988	30,637	22,700	29,343
캐나다	-6,906	-8,316	-9,919	-10,883	-16,196	871	-58,024	-40,313	-36,024
중국	-61,367	-61,932	-69,502	-69,351	-71,218	-34,499	-363,934	-250,812	-262,152
프랑스	-4,315	-5,097	-5,239	-4,647	-7,136	-4,902	-16,028	-14,858	-19,298
독일	-21,258	-22,887	-22,386	-21,200	-23,676	-17,605	-76,819	-86,263	-87,731
홍콩	7,570	5,156	5,553	4,260	4,082	12,852	22,093	24,922	22,539
인도	-11,400	-10,970	-10,106	-13,173	-18,581	-16,820	-43,284	-43,228	-45,649

국가(지역)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2년 연간	2023년 연간	2024년 연간
아일랜드	-4,502	-7,755	-10,232	-10,716	-38,199	-9,054	-14,697	-21,748	-33,205
이스라엘	-1,641	-1,705	-1,949	-1,959	-2,572	-780	-10,464	-8,259	-7,254
이탈리아	-12,075	-13,404	-11,517	-11,768	-14,258	-8,495	-44,746	-47,746	-48,764
일본	-16,494	-15,209	-14,388	-16,650	-17,152	-16,991	-63,884	-62,669	-62,740
대한민국	-13,595	-14,231	-13,700	-13,133	-13,928	-11,466	-35,329	-40,592	-54,659
말레이시아	-5,615	-5,564	-4,528	-7,671	-8,460	-7,428	-34,389	-25,498	-23,377
멕시코	-42,243	-41,760	-45,087	-46,782	-48,077	-46,505	-132,741	-155,380	-175,871
네덜란드	18,428	20,279	17,323	18,837	18,171	21,075	60,571	62,954	74,867
사우디아라비아	2,197	2,265	2,014	3,255	2,880	4,448	-3,066	7,217	9,731
싱가포르	7,818	7,056	6,263	5,975	5,186	8,578	39,026	28,450	27,113
스위스	3,862	302	-1,009	-11,366	-51,897	14,827	-1,524	-1,556	-8,212
대만	-14,791	-16,785	-22,452	-18,925	-25,357	-33,650	-50,542	-46,905	-72,954
영국	4,119	4,281	3,120	5,791	5,914	11,452	22,170	16,835	17,311
베트남	-27,742	-31,066	-30,674	-32,295	-39,074	-45,929	-114,529	-102,844	-121,776
기타	-12,648	-18,670	-16,269	-16,175	-25,213	-21,496	-70,729	-36,440	-63,762
CAFTA-DR	n.a.								
EU	-31,347	-38,758	-40,844	-37,472	-76,614	-24,903	-128,994	-135,400	-148,421
남·중앙 아메리카	16,454	15,693	13,525	13,699	14,143	13,974	104,489	70,972	59,371
수출									
호주	15,018	15,276	15,750	15,262	14,837	15,742	53,047	59,375	61,306
벨기에	10,038	10,369	10,370	9,747	9,756	9,870	41,636	44,651	40,523
브라질	18,989	19,676	19,735	19,956	21,045	21,889	75,244	68,057	78,356
캐나다	111,475	109,093	109,110	110,998	112,989	102,755	437,085	441,403	440,676
중국	50,784	50,080	49,972	48,437	46,847	39,909	198,462	196,376	199,273
프랑스	18,315	17,554	18,265	18,345	19,278	19,869	69,377	71,642	72,479
독일	30,246	30,408	30,513	29,765	31,936	32,238	113,415	119,591	120,932
홍콩	12,435	10,666	10,360	10,535	11,782	17,825	39,310	41,550	43,996
인도	19,814	21,297	21,306	20,961	21,425	22,378	75,580	76,442	83,378
아일랜드	24,101	24,552	25,369	26,147	29,251	29,982	93,024	88,324	100,169
이스라엘	6,203	5,996	6,145	5,874	6,023	6,116	21,298	21,487	24,217
이탈리아	11,194	10,263	11,392	11,556	10,818	14,239	36,308	39,511	44,406
일본	30,772	32,652	33,386	32,617	33,151	33,873	122,808	123,398	129,427
대한민국	23,937	23,662	23,319	23,013	23,824	24,167	96,876	91,927	93,930
말레이시아	6,660	7,636	9,876	7,330	7,552	8,462	21,711	23,134	31,501
멕시코	95,335	96,737	97,220	95,559	99,328	95,816	365,844	370,217	384,851

국가(지역)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2년 연간	2023년 연간	2024년 연간
네덜란드	30,728	33,153	30,441	31,061	32,289	34,813	109,635	116,974	125,382
사우디아라비아	6,413	6,452	5,752	6,153	6,518	7,371	21,994	25,180	24,771
싱가포르	21,828	21,882	21,538	21,158	21,356	21,640	81,265	81,822	86,406
스위스	23,301	21,347	22,766	22,764	23,366	36,485	97,310	84,602	90,177
대만	13,330	14,744	14,451	14,075	15,853	17,431	55,567	52,905	56,600
영국	43,311	43,781	45,019	47,381	49,830	51,214	161,727	167,005	179,492
베트남	3,735	3,502	4,908	4,545	4,015	4,652	13,833	12,967	16,690
기타	170,959	168,522	181,058	183,048	186,950	184,084	656,089	673,996	703,586
CAFTA-DR	n.a.	n.a.	n.a.						
EU	164,934	164,966	168,616	168,231	177,498	184,198	602,625	632,997	666,747
남·중앙 아메리카	90,319	89,883	90,599	92,056	94,693	95,286	363,286	339,457	362,857
수입									
호주	6,719	6,436	7,121	8,411	16,607	7,691	25,896	27,473	28,687
벨기에	7,470	8,735	9,841	8,105	8,873	8,750	32,286	28,726	34,151
브라질	12,501	12,133	11,898	12,482	13,540	12,901	44,607	45,357	49,013
캐나다	118,381	117,409	119,030	121,881	129,185	101,884	495,110	481,716	476,701
중국	112,150	112,012	119,474	117,789	118,065	74,408	562,395	447,188	461,425
프랑스	22,630	22,652	23,504	22,992	26,413	24,771	85,405	86,500	91,777
독일	51,503	53,295	52,899	50,964	55,612	49,843	190,234	205,854	208,663
홍콩	4,865	5,510	4,806	6,275	7,700	4,973	17,217	16,627	21,457
인도	31,214	32,267	31,412	34,134	40,005	39,199	118,863	119,669	129,027
아일랜드	28,603	32,307	35,602	36,863	67,450	39,035	107,720	110,071	133,374
이스라엘	7,844	7,700	8,093	7,833	8,595	6,896	31,762	29,747	31,471
이탈리아	23,269	23,667	22,910	23,323	25,075	22,734	81,054	87,257	93,170
일본	47,265	47,861	47,773	49,268	50,303	50,864	186,692	186,067	192,167
대한민국	37,531	37,893	37,019	36,146	37,752	35,633	132,205	132,520	148,589
말레이시아	12,275	13,200	14,403	15,000	16,011	15,890	56,100	48,632	54,878
멕시코	137,578	138,497	142,307	142,341	147,404	142,321	498,585	525,597	560,723
네덜란드	12,299	12,873	13,118	12,224	14,118	13,737	49,064	54,020	50,515
사우디아라비아	4,216	4,188	3,738	2,898	3,638	2,923	25,059	17,963	15,039
싱가포르	14,010	14,825	15,274	15,183	16,170	13,062	42,239	53,372	59,293
스위스	19,439	21,045	23,775	34,130	75,262	21,658	98,834	86,158	98,389
대만	28,121	31,529	36,903	33,000	41,210	51,081	106,109	99,810	129,554
영국	39,192	39,500	41,899	41,590	43,916	39,762	139,557	150,170	162,181
베트남	31,477	34,568	35,581	36,840	43,089	50,581	128,361	115,811	138,466

국가(지역)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2년 연간	2023년 연간	2024년 연간
기타	183,607	187,192	197,327	199,223	212,163	205,580	726,818	710,436	767,348
CAFTA-DR	n.a.	n.a.	n.a.	n.a.	n.a.	n.a.	n.a.	n.a.	n.a.
EU	196,281	203,725	209,460	205,703	254,111	209,101	731,618	768,397	815,168
남·중앙 아메리카	73,866	74,190	77,073	78,357	80,550	81,312	258,797	268,485	303,486

자료: BEA

□ 품목별 對미 수출 증감

- 자동차(842790, 8701, 8702, 8703, 8704, 8705, 8709(870990 제외), 8710, 8716(871690 제외))
 - 한국 수출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p 하락
 - 멕시코, 일본의 미국 수입시장 내에서 점유율 소폭 상승

자동차 품목 국가별 對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멕시코	487.8	453.7	-34.1	-7.0%	33.8%	35.4%	1.6%p
2	일본	209.6	204.0	-5.6	-2.7%	14.5%	15.9%	1.4%p
3	캐나다	198.8	180.2	-18.6	-9.4%	13.8%	14.1%	0.3%p
4	대한민국	203.8	167.4	-36.4	-17.9%	14.1%	13.1%	-1.0%p
5	독일	139.8	123.9	-15.8	-11.3%	9.7%	9.7%	0.0%p
6	영국	53.3	43.7	-9.6	-18.0%	3.7%	3.4%	-0.3%p
7	슬로바키아	28.9	26.9	-2.0	-7.1%	2.0%	2.1%	0.1%p
8	스웨덴	20.9	13.9	-7.1	-33.7%	1.4%	1.1%	-0.4%p
9	이탈리아	22.8	13.2	-9.6	-42.1%	1.6%	1.0%	-0.5%p
10	중국	16.5	12.9	-3.6	-22.0%	1.1%	1.0%	-0.1%p

자료: Global Trade Atlas

- 자동차 부품(87 : 자동차 제외)
 - 한국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6,000만 달러 감소,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4%p 상승
 - 멕시코, 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중국, 캐나다, 일본은 감소

자동차 부품 국가별 對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멕시코	187.9	181.0	-6.9	-3.7%	37.8%	39.3%	1.6%p
2	캐나다	64.3	56.5	-7.8	-12.1%	12.9%	12.3%	-0.6%p
3	중국	62.6	54.3	-8.3	-13.3%	12.6%	11.8%	-0.8%p
4	일본	42.3	38.4	-3.8	-9.0%	8.5%	8.4%	-0.1%p
5	대한민국	31.6	31.0	-0.6	-2.0%	6.4%	6.7%	0.4%p
6	독일	31.3	21.1	-10.2	-32.5%	6.3%	4.6%	-1.7%p
7	타이완	14.2	15.0	0.7	5.0%	2.9%	3.2%	0.4%p
8	인도	11.6	11.0	-0.5	-4.6%	2.3%	2.4%	0.1%p
9	태국	8.9	11.0	2.0	22.8%	1.8%	2.4%	0.6%p
10	이탈리아	6.7	5.5	-1.2	-18.3%	1.4%	1.2%	-0.2%p

자료: Global Trade Atlas

• 기계류(84)

- 한국 '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억 달러 감소,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3%p 하락
- 멕시코, 태국, 베트남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중국, 캐나다, 일본은 감소

기계류 품목 국가별 對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멕시코	399.5	594.4	194.9	48.8%	19.1%	24.2%	5.1%p
2	타이완	141.8	311.0	169.2	119.4%	6.8%	12.6%	5.9%p
3	중국	335.6	247.0	-88.5	-26.4%	16.0%	10.0%	-6.0%p
4	베트남	102.9	199.6	96.7	94.0%	4.9%	8.1%	3.2%p
5	일본	171.3	161.9	-9.4	-5.5%	8.2%	6.6%	-1.6%p
6	독일	168.0	153.1	-14.9	-8.9%	8.0%	6.2%	-1.8%p
7	캐나다	141.1	143.9	2.8	2.0%	6.7%	5.9%	-0.9%p
8	태국	49.1	81.4	32.2	65.6%	2.3%	3.3%	1.0%p
9	대한민국	87.7	71.7	-16.0	-18.3%	4.2%	2.9%	-1.3%p
10	이탈리아	70.3	66.4	-3.8	-5.5%	3.4%	2.7%	-0.7%p

자료: Global Trade Atlas

- 전기전자(85)

- 한국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7억 4,000만 달러 상승,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3%p 상승
- 멕시코, 중국, 독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 베트남, 일본, 대만은 상승

전기전자 품목 국가별 대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멕시코	308.3	318.9	10.6	3.4%	29.8%	28.0%	-1.8%p
2	중국	185.0	164.0	-21.0	-11.3%	17.9%	14.4%	-3.5%p
3	베트남	63.0	90.7	27.7	44.0%	6.1%	8.0%	1.9%p
4	일본	56.3	66.2	9.9	17.5%	5.4%	5.8%	0.4%p
5	태국	36.7	50.0	13.3	36.2%	3.6%	4.4%	0.8%p
6	독일	44.6	46.8	2.2	4.8%	4.3%	4.1%	-0.2%p
7	타이완	38.4	46.0	7.6	19.7%	3.7%	4.0%	0.3%p
8	대한민국	38.4	45.8	7.4	19.4%	3.7%	4.0%	0.3%p
9	캐나다	41.4	43.0	1.6	3.8%	4.0%	3.8%	-0.2%p
10	말레이시아	22.7	33.6	10.9	48.2%	2.2%	3.0%	0.8%p

자료: Global Trade Atlas

- 석유화학제품(27)

- 한국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000만 달러 증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4% 상승
-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했으나 점유율은 상승, 멕시코, 사우디, 브라질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감소

석유화학제품 국가별 대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캐나다	618.7	582.3	-36.3	-5.9%	49.9%	54.5%	4.6%p
2	멕시코	90.6	60.9	-29.7	-32.8%	7.3%	5.7%	-1.6%p
3	사우디아라비아	60.5	41.7	-18.9	-31.2%	4.9%	3.9%	-1.0%p
4	콜롬비아	39.7	32.3	-7.4	-18.7%	3.2%	3.0%	-0.2%p
5	브라질	42.8	31.5	-11.3	-26.3%	3.5%	3.0%	-0.5%p
6	이라크	36.3	31.1	-5.3	-14.5%	2.9%	2.9%	0.0%p
7	대한민국	27.1	27.4	0.2	0.8%	2.2%	2.6%	0.4%p
8	나이지리아	28.5	23.8	-4.7	-16.4%	2.3%	2.2%	-0.1%p
9	베네수엘라	24.6	23.8	-0.8	-3.2%	2.0%	2.2%	0.2%p
10	가나	29.3	23.7	-5.6	-19.1%	2.4%	2.2%	-0.1%p

자료: Global Trade Atlas

- 의약, 의료용품(30)

- 한국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억 4,000만 달러 증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1%p 하락하고 독일, 스위스, 인도, 프랑스 등 EU 국가 점유율 상승

의료·의료용품 국가별 대미 수입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아일랜드	244.8	258.9	14.0	5.7%	23.7%	21.0%	-2.7%p
2	독일	88.2	127.1	38.9	44.1%	8.5%	10.3%	1.8%p
3	스위스	82.1	123.2	41.1	50.1%	8.0%	10.0%	2.0%p
4	인도	67.3	89.4	22.1	32.9%	6.5%	7.3%	0.7%p
5	싱가포르	83.2	69.7	-13.4	-16.1%	8.1%	5.7%	-2.4%p
6	이탈리아	53.0	69.1	16.2	30.5%	5.1%	5.6%	0.5%p
7	벨기에	60.6	66.5	5.8	9.6%	5.9%	5.4%	-0.5%p
8	프랑스	22.7	58.1	35.4	155.7%	2.2%	4.7%	2.5%p
9	네덜란드	31.1	52.3	21.3	68.4%	3.0%	4.2%	1.2%p
10	일본	33.1	39.1	6.0	18.0%	3.2%	3.2%	0.0%p
11	중국	34.3	34.6	0.3	0.9%	3.3%	2.8%	-0.5%p
12	영국	38.3	30.8	-7.6	-19.8%	3.7%	2.5%	-1.2%p
13	대한민국	24.1	27.5	3.4	14.1%	2.3%	2.2%	-0.1%p
14	덴마크	14.8	24.7	9.9	67.3%	1.4%	2.0%	0.6%p
15	헝가리	15.0	23.8	8.8	58.9%	1.5%	1.9%	0.5%p
16	캐나다	27.6	22.9	-4.7	-17.1%	2.7%	1.9%	-0.8%p
17	스페인	10.9	18.0	7.1	65.1%	1.1%	1.5%	0.4%p
18	슬로바키아	23.1	14.6	-8.5	-36.9%	2.2%	1.2%	-1.1%p
19	이스라엘	8.6	13.7	5.1	58.8%	0.8%	1.1%	0.3%p
20	호주	17.5	13.5	-4.0	-23.0%	1.7%	1.1%	-0.6%p

자료: Global Trade Atlas

- 플라스틱 고무(39~43)

- 한국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5,000만 달러 증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4.8% 유지
- 중국으로부터 수입액 -16.7% 감소, 중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감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의 수출액 및 점유율은 상승

플라스틱 고무 품목 국가별 대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중국	121.2	101.0	-20.2	-16.7%	20.2%	16.7%	-3.5%p
2	캐나다	88.5	82.3	-6.2	-7.0%	14.7%	13.6%	-1.1%p
3	멕시코	65.8	65.9	0.1	0.2%	11.0%	10.9%	-0.1%p
4	베트남	30.5	38.2	7.7	25.4%	5.1%	6.3%	1.2%p
5	태국	32.9	37.7	4.8	14.5%	5.5%	6.2%	0.7%p
6	대한민국	28.8	29.3	0.5	1.9%	4.8%	4.8%	0.0%p
7	일본	25.5	26.1	0.6	2.2%	4.3%	4.3%	0.1%p
8	독일	24.1	25.8	1.7	7.1%	4.0%	4.3%	0.2%p
9	캄보디아	14.1	18.3	4.2	30.1%	2.3%	3.0%	0.7%p
10	타이완	17.4	17.7	0.3	1.6%	2.9%	2.9%	0.0%p

자료: Global Trade Atlas

• 철강, 비철금속(72~80)

- 한국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3%p 하락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13.6% 감소 및 캐나다, 중국, 멕시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감소하였고, 칠레와 인도 점유율은 상승

철강·비철금속 품목 국가별 대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캐나다	157.5	140.3	-17.2	-10.9%	24.1%	20.6%	-3.6%p
2	중국	75.9	65.6	-10.4	-13.6%	11.6%	9.6%	-2.0%p
3	멕시코	72.0	63.6	-8.4	-11.7%	11.0%	9.3%	-1.7%p
4	칠레	23.4	50.2	26.8	114.5%	3.6%	7.4%	3.8%p
5	대한민국	34.4	33.9	-0.5	-1.4%	5.3%	5.0%	-0.3%p
6	독일	25.5	28.3	2.7	10.7%	3.9%	4.1%	0.2%p
7	브라질	29.7	27.3	-2.4	-8.1%	4.6%	4.0%	-0.6%p
8	인도	20.6	26.7	6.2	30.0%	3.2%	3.9%	0.8%p
9	타이완	24.6	24.5	-0.2	-0.6%	3.8%	3.6%	-0.2%p
10	일본	17.7	17.4	-0.4	-2.1%	2.7%	2.5%	-0.2%p

자료: Global Trade Atlas

- 귀금속(71)

-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7억 8,000만 달러,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1%p 상승
- 스위스 수출액 및 점유율 상승, 인도, 캐나다 등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

귀금속 품목 국가별 對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스위스	24.3	484.2	459.8	1889.3%	7.1%	44.4%	37.3%p
2	호주	8.9	93.1	84.2	947.6%	2.6%	8.5%	5.9%p
3	캐나다	31.8	71.5	39.7	124.7%	9.3%	6.6%	-2.7%p
4	남아프리카공화국	33.0	70.7	37.8	114.6%	9.6%	6.5%	-3.1%p
5	인도	59.7	46.3	-13.5	-22.5%	17.4%	4.2%	-13.2%p
6	멕시코	25.3	36.2	10.9	43.0%	7.4%	3.3%	-4.1%p
7	카자흐스탄	0.9	25.4	24.5	2782.1%	0.3%	2.3%	2.1%p
8	홍콩	5.4	22.7	17.4	324.3%	1.6%	2.1%	0.5%p
9	싱가포르	1.8	22.0	20.3	1140.6%	0.5%	2.0%	1.5%p
10	영국	5.0	21.1	16.0	317.9%	1.5%	1.9%	0.5%p
11	독일	7.9	20.6	12.7	159.3%	2.3%	1.9%	-0.4%p
12	프랑스	8.4	16.9	8.5	100.5%	2.5%	1.5%	-0.9%p
13	이스라엘	24.4	15.1	-9.3	-37.9%	7.1%	1.4%	-5.7%p
14	이탈리아	11.6	13.7	2.1	17.7%	3.4%	1.3%	-2.1%p
15	일본	1.3	12.4	11.1	821.9%	0.4%	1.1%	0.7%p
16	대한민국	3.3	11.1	7.8	235.0%	1.0%	1.0%	0.1%p
17	벨기에	11.5	10.0	-1.6	-13.6%	3.4%	0.9%	-2.5%p
18	태국	9.2	9.9	0.7	7.1%	2.7%	0.9%	-1.8%p
19	콜롬비아	9.4	9.2	-0.3	-2.8%	2.8%	0.8%	-1.9%p
20	브라질	2.5	6.5	4.0	155.8%	0.7%	0.6%	-0.1%p

자료: Global Trade Atlas

- 화장품(33)

- 한국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억 2,000만 달러 증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2%p 상승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10.1% 감소, 중국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0.7%p 감소

화장품 품목 국가별 對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프랑스	20.0	19.4	-0.5	-2.7%	25.1%	23.8%	-1.3%p
2	대한민국	8.4	9.6	1.2	13.8%	10.5%	11.7%	1.2%p
3	이탈리아	8.9	9.4	0.5	5.3%	11.2%	11.5%	0.3%p
4	캐나다	8.6	9.1	0.5	6.0%	10.8%	11.1%	0.4%p
5	멕시코	7.2	7.2	0.0	0.1%	9.1%	8.9%	-0.2%p
6	스페인	4.3	4.5	0.2	4.4%	5.4%	5.6%	0.1%p
7	중국	4.8	4.3	-0.5	-10.1%	6.1%	5.3%	-0.7%p
8	UAE	2.3	3.2	0.9	36.7%	2.9%	3.9%	1.0%p
9	영국	2.7	2.1	-0.6	-20.9%	3.4%	2.6%	-0.8%p
10	독일	1.5	1.5	0.0	1.4%	1.8%	1.8%	0.0%p

자료: Global Trade Atlas

• 의료정밀광학기기(90)

- 한국 '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억 달러 감소,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0.4%p 하락
- 중국으로부터 수입액 및 수입점유율 감소, 멕시코와 아일랜드로부터 수입액 및 수입점유율 증가

의료정밀광학기기 품목 국가별 對미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	멕시코	115.3	123.1	7.7	6.7%	19.4%	19.5%	0.2%p
2	독일	66.0	67.8	1.8	2.7%	11.1%	10.8%	-0.3%p
3	중국	55.5	52.2	-3.3	-5.9%	9.3%	8.3%	-1.0%p
4	아일랜드	42.9	49.1	6.2	14.4%	7.2%	7.8%	0.6%p
5	일본	34.5	36.0	1.6	4.5%	5.8%	5.7%	-0.1%p
6	코스타리카	26.3	34.1	7.7	29.3%	4.4%	5.4%	1.0%p
7	캐나다	22.8	24.8	2.0	8.8%	3.8%	3.9%	0.1%p
8	스위스	21.7	23.8	2.1	9.9%	3.6%	3.8%	0.1%p
9	싱가포르	24.6	23.5	-1.1	-4.4%	4.1%	3.7%	-0.4%p
10	말레이시아	19.0	21.2	2.2	11.4%	3.2%	3.4%	0.2%p
11	영국	17.7	16.9	-0.8	-4.5%	3.0%	2.7%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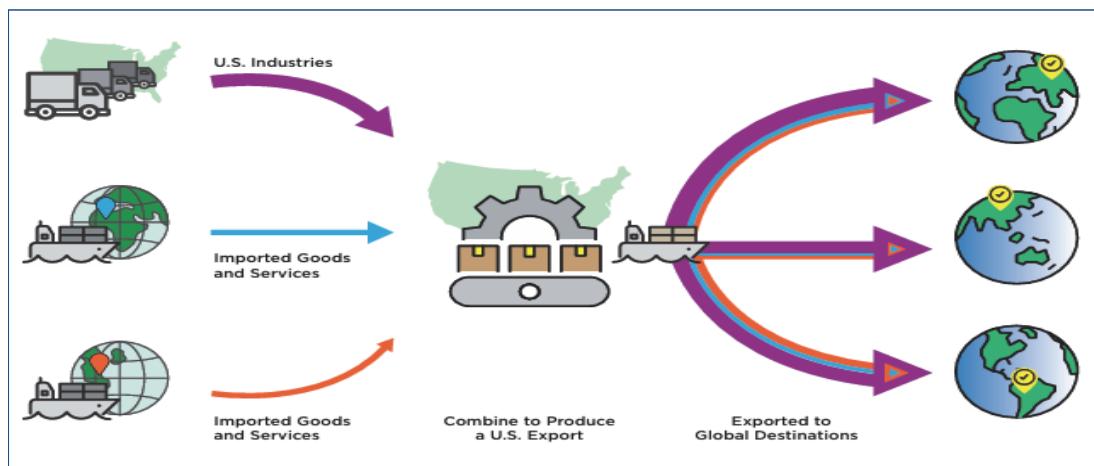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률	2024년 상반기 점유율	2025년 상반기 점유율	점유율 증감
12	프랑스	13.1	14.7	1.6	12.0%	2.2%	2.3%	0.1%p
13	타이완	12.1	13.3	1.3	10.4%	2.0%	2.1%	0.1%p
14	이탈리아	13.3	12.0	-1.4	-10.3%	2.2%	1.9%	-0.3%p
15	덴마크	5.2	11.1	5.9	113.3%	0.9%	1.8%	0.9%p
16	태국	8.1	10.1	2.0	24.9%	1.4%	1.6%	0.2%p
17	이스라엘	10.5	9.7	-0.8	-7.3%	1.8%	1.5%	-0.2%p
18	대한민국	11.1	9.1	-2.0	-17.9%	1.9%	1.5%	-0.4%p
19	도미니카 공화국	8.4	8.9	0.4	5.1%	1.4%	1.4%	0.0%p
20	베트남	7.3	8.9	1.6	22.0%	1.2%	1.4%	0.2%p

자료: Global Trade Atlas

□ 미국의 주요 제조업 공급망 수입·수출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

-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통계는 미국 수출 생산을 뒷받침하는 공급망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전통적인 무역 통계는 미국에서 수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알려주지만, 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망은 국경을 넘어 국내외 생산자의 활동을 모두 포함
 - * 산업(Industry) : 미국 내 71개 산업 분류(NAICS 기반)를 포함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광업, 운송, 금융, 정보통신 등 각 산업이 수출 과정에서 얼마나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
 - * 국가·지역(Region or Country of Origin/Destination) :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및 지역 단위로 구분,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미국 제조업 공급망 수입·수출〉



자료: Global Trade Atlas

- (국가별 원자재 수입) 국가별 수입 부가가치 비중은 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순이며, 이를 활용한 수출 부가가치 창출은 제조업이 대부분임
 - (국가별 비중) EU 23.7%, 캐나다 19.5%, 멕시코 11.0%, 중국 8.9%

미국 산업별 수출품에 내재된 해외 수입요소의 부가가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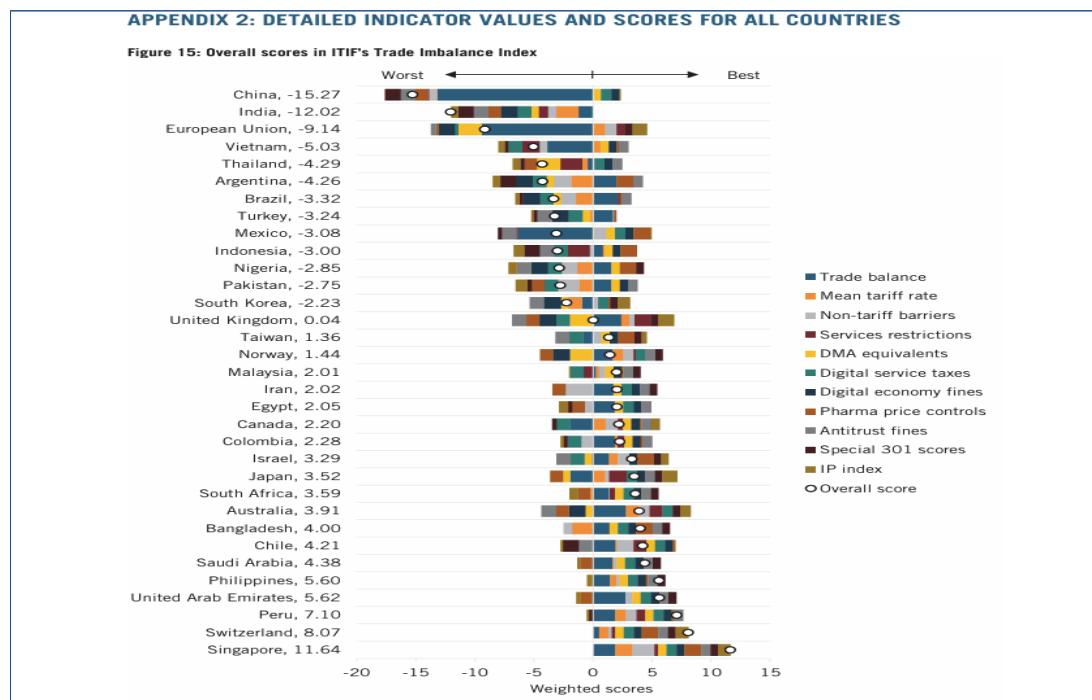
항목	산업	수입								국내 부가 가치	수입 가치 비중	국내 가치 비중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멕시코	기타 아시아· 태평양	기타 세계	합계			
1	모든 산업	53,862	24,574	65,287	13,006	30,439	47,735	40,968	275,877	2,363,691	10.5%	89.5%
2	민간 산업	53,702	24,470	65,076	12,969	30,346	47,565	40,854	274,988	2,349,635	10.5%	89.5%
3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867	823	951	214	377	655	732	4,619	52,587	8.1%	91.9%
8	광업	3,146	1,303	3,287	659	1,258	1,983	1,576	13,212	150,047	8.1%	91.9%
12	공공 서비스업	41	7	24	4	18	15	35	144	3,766	3.7%	96.3%
15	건설업	10	9	12	2	8	12	6	59	617	8.7%	91.3%
24	제조업	41,978	16,676	41,167	8,989	23,783	30,375	27,866	190,838	878,762	17.8%	82.2%
72	도매업	1,157	1,404	3,141	653	927	4,247	1,298	12,8&27	260,783	4.7%	95.3%
84	소매업	-	-	-	-	-	-	-	-	-	-	-
95	운송 및 창고업	2,987	999	3,493	911	1,588	3,325	3,584	16,887	166,091	9.2%	90.8%
106	정보통신업	384	572	1,448	188	260	1,004	391	4,247	99,858	4.1%	95.9%
119	금융·보험·부동산· 임대업	1,455	947	6,220	648	814	2,661	3,244	15,989	291,112	5.2%	94.8%
135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업	830	983	3,713	478	781	2,099	1,327	10,211	277,718	3.5%	96.5%
153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53	57	173	22	51	97	82	535	12,805	4.0%	96.0%
165	예술·엔터테인먼트· 여가, 숙박 및 음식서비스	796	688	1,444	201	480	1,089	712	5,410	132,393	3.9%	96.1%
172	기타 서비스업 (정부 제외)	-	1	1	-	1	1	-	4	90	4.30%	95.70%
177	고철·중고품 및 기타	-	-	-	-	-	-	-	-	22,973	0.0%	100.0%
178	정부	159	103	211	38	93	170	114	888	14,059	5.9%	94.1%
179	연방 정부	37	37	84	18	32	62	32	302	5,180	5.5%	94.5%
184	주 및 지방 정부	123	66	127	20	61	108	82	587	8,145	6.7%	93.3%
	국가별 비중	19.5%	8.9%	23.7%	4.7%	11.0%	17.3%	14.9%	100.0%		100.0%	0.0%

자료: BEA

□ 미국 무역불균형수지 보고서

-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25년 1월)을 통해 상무부에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와 협력하여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
 - 이에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무역 중상주의 및 규범 위반 수준이 높은 국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국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불균형지수(Trade Imbalance Index)’를 개발
- ITIF는 48개국을 대상으로 상품·정보 서비스 무역 수지, 무역 제한 조치, 세금·규정, 지식재산권의 4대 분야 11가지 지표를 평가
 - (상품·정보 서비스 무역 수지) 무역상대국이 对미 흑자를 기록할 때 미국에 미치는 전반적 피해를 측정
 - (무역 제한 조치) 전체 품목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 비관세 무역 장벽(NTB)의 확산 정도 등
- 종합점수는 점수가 음수일수록 미국이 조치 우선순위를 높게 볼 가능성이 큼
 - 한국의 무역 불균형지수 순위는 -2.23으로 전체 48개국 중 13번째로 높은 편
 -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1.1%로 (-) 점수 처리, 부정적인 항목으로 취급
 - 디지털 서비스세(DST)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 항목에서는 긍정적 점수 요소로 처리됨. 한국의 국제 지적재산권지수 점수(84.9점)가 비교적 높게 반영되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임

〈ITIF 무역 불균형지수〉



자료: ITIF(정보기술혁신재단)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발간
 - *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미국 기업이 겪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
- 올해 보고서는 제40차 연례 보고서로, ’24년 한 해 동안 미국 상품·서비스 수출, 외국인직접투자(FDI), 전자상거래 등에 영향을 미친 비관세 장벽들을 14개 항목별로 분류
 - 미국 무역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작성되며, 미국 정부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및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약 400쪽 분량으로 60여 개 교역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 수록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기술장벽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4개 법령 관련 △ 이행 가이드라인 부족, △ 기밀정보 보호 미흡, △ 검사 대상 선정 기준 불투명 등의 문제 지적 • 재활용법상 포장공간비율 산정 방식 불명확. 사전 테스트 및 라벨 의무화 추진으로 제품 출시 지연 우려 • Codex 기준 불인정으로 미국 수출업체에 부담 증가
위생 및 식물위생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농산물 승인 절차가 비효율적이고 중복되어 승인 지연 초래 • 미국산 30개월 미만 유래 제품만 수입 허용 • 일부 가공육 제품(다진 고기, 육포, 소시지 등)은 여전히 수입 금지 • 반추동물 기반 애완동물 사료의 수입 위생 조건 개정 • 미국산 일부 과일 및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가 요청 다수가 보류 중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나, 미국 기업은 지역 제한 및 입찰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 • 한국 국가정보원(NIS)은 별도 국내 보안 평가 제도(SES)로 인해 중복 인증 부담 발생 • 절충교역 제도가 기술 유출 및 시장 접근 저해 요소로 평가
지식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불법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음악의 불법 복제 지속 • 디지털 저작권 보호 체계 미흡으로 미국 측 지속 문제 제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진입 제한 존재
디지털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의 모호한 해석 및 데이터 현지화 요구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 • 클라우드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국내 저장 요구 우려
투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등 전략산업에 외국인 지분 제한 및 사전 승인 요구 • 외국인 투자 심의 절차의 투명성 부족 우려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 정보 부족으로 공정 경쟁 저해 우려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미흡
국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금융 등 일부 산업에서 국영 기업의 존재로 민간 기업에 대한 차별 및 시장 왜곡 가능성 제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시장 접근 제한, 규제 기준의 비일관성, 규제 예측 가능성 부족 등 문제 지속 제기

자료: USTR

□ 우리나라의 對미 교역 동향

- (교역) '24년도 한국-미국 교역 규모 약 2,425억 달러 기록, 전년 대비 6.9% 증가
 - '25년도 8월 누계 기준, 한국-미국 교역 약 1,308억 달러로 집계

미국의 對한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요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對韓 수출(A)	81,147	69,693	86,500	96,876	91,927	93,930	45,052	
對韓 수입(B)	89,210	86,562	132,205	132,205	132,520	148,589	85,802	
총 교역(A+B)	170,357	156,255	218,705	229,081	224,447	242,519	130,854	
무역수지(A-B)	-8,063	-16,869	-45,705	-35,329	-40,593	-54,659	-40,750	

자료: BEA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주요 對미 수출 품목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컴퓨터, 석유제품 등
- 한국의 '24년도 미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4.0%로 7위 기록
 - '25년 1~6월 누계 기준, 10위로 하락하여 3.7%의 점유율 기록
 - '25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한국산 제품의 對미 수출은 관세율 상승에 따른 수출 비용이 증가
 - 특히 對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 수출품에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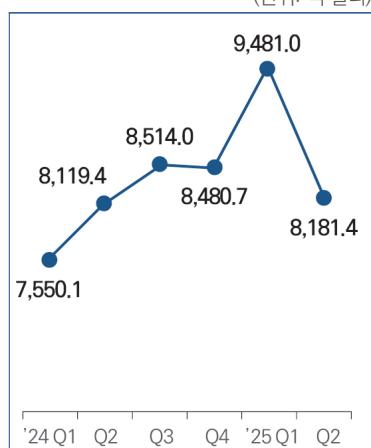
美 10대 수입대상국 점유율 추이

〈美 총 수입액 추이(\$억)〉

(단위: %)

연번	국가명	'24년 Q1	'24년 Q2	'24년 Q3	'24년 Q4	'25년 Q1	'25년 Q2	Q2-Q1
1	멕시코	15.9%	15.9%	15.2%	15.0%	13.8%	16.3%	↑
2	캐나다	13.3%	12.9%	12.1%	12.2%	11.5%	10.9%	↓
3	중국	12.9%	12.4%	14.5%	13.8%	10.8%	7.9%	↓
4	베트남	3.8%	4.0%	4.5%	4.3%	4.2%	5.9%	↑
5	대만	3.0%	3.4%	4.1%	3.5%	3.6%	5.9%	↑
6	독일	5.2%	5.1%	4.8%	4.6%	4.4%	4.6%	↑
7	일본	4.8%	4.5%	4.3%	4.5%	3.9%	4.6%	↑
8	한국	4.3%	4.3%	3.8%	3.7%	3.4%	4.0%	↑
9	아일랜드	2.9%	3.1%	3.3%	3.3%	6.3%	3.8%	↓
10	인도	2.8%	2.9%	2.4%	2.6%	2.9%	3.5%	↑

(단위: 억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통계, KOTRA 제공

□ 주요 경쟁국 동향

- 미국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들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 '24년 기준, 중국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13.4% 차지. 그러나 '25년부터 강화된 미국의 對중 제재와 무역분쟁으로 중국은 '25년 1~6월 누계 기준, 미국 시장점유율 9.5%로 하락
 - 일본의 경우 '24년 시장점유율 4.5%를 기록, '25년 1~6월 누계 기준 4.2% 기록
 - 베트남은 '24년도 미국 시장점유율 4.2% 기록했으나 '25년 1~6월 누계 기준 5.0% 차지. 미국의 對중 제재 및 무역분쟁으로 베트남이 대체 시장으로 부상하며 베트남의 對미 수출은 '25년 1~6월 누계 기준 42.6% 증가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중국	14.0	13.9	13.4	9.5
일본	4.6	4.8	4.5	4.2
한국	3.6	3.8	4.0	3.7
베트남	3.9	3.7	4.2	5.0

자료: Global Trade Atlas

□ 미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제도 적극 활용
 - (철강·알루미늄) '25년 2월 10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 '25년 6월 4일부로 50%로 확대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 *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가전제품 8종(냉장고, 세탁기 등) 대상 추가 지정('25년 6월)
 - (자동차·부품) '25년 3월 26일, 수입 자동차, 경량 트럭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
 - (구리) '25년 8월 1일, 구리(Copper)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
 - (기타) '25년 10월 14일, 목재 10%, 주방찬장, 화장대, 소파 25% 관세 부과
-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가동
 - (디지털 서비스세) '25년 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301조 조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
 - (조선) '25년 4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해양, 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중국 선박의 미국 항구 정박 시 항만세 부과 등이 제안되었으나, '25년 11월 9일자로 USTR은 이 조사의 대응조치를 1년간 일시 정지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및 집행 강화 추진

- '24년 1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제도의 집행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
 - * 비(非)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수출품에 대한 별도 관세율 부과 규정, 가격 조작 우려 방지, 비시장경제국가의 대체국 선택 기준 강화, 상계관세 관련 적정 가격 판단 기준 정비

□ '25년 미국의 對韓 수입 규제 변동 내역('25년 8월 기준)

- 對韓 수입 규제는 총 54건(조사 중 2건)으로, '24년 하반기 대비 1건 증가
 - 유형별 : 반덤핑 38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수출 2건
 - 품목별 : 철강·금속 36건, 화학 5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2건

미국의 대한 수입 규제 현황

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총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 중	조사 중	규제 중	조사 중	규제 중	조사 중	합계
한국	37	1	11	1	2	0	52	2	54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하여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정리('25년 8월 기준)

- 조사 개시 : 반덤핑 1건(화학)
- 최종 판정 : 반덤핑 1건(화학), 상계관세 1건(화학), 우회수출 1건(철강·금속)

'25년 미국의 對韓 수입 규제 내용

연번	구분	품목분류	품목명	HS Code	유형	조치 일자	조치 내용
1	조사 개시	화학	단량체 및 올리고머	2916.12.5050	반덤핑	'25년 4월 16일	• 반덤핑 조사 개시
				2916.14.2050			
				3824.99.2900			
				3907.29.0000			
				3907.30.0000			
				2916.12.1000			
				3824.99.9397			
2	최종 판정	화학	에폭시 수지	3907.30.0000	반덤핑	'25년 5월 19일	• 반덤핑 최종 판정 (ITC 산업피해 긍정 최종 판정)
				3907.29.0000			
				3824.99.9397			
				3214.10.00202910.90.91 00/9000/2000			
				1518.00.4000			
3	최종 판정	화학	에폭시 수지	3907.30.0000	상계관세	-	• 상계관세 최종판정 (ITC 산업피해 긍정 최종 판정)
				3907.29.0000			
				3824.99.9397			
				3214.10.00202910.90.91 00/9000/2000			
				1518.00.4000			

연번	구분	품목분류	품목명	HS Code	유형	조치 일자	조치 내용
4	최종 판정	철강/금속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	8544.42.9090 8544.49.9000	우회수출 (반덤핑/ 상계관세)	'25년 1월 27일	• DOC 우회수출 긍정 판정 * 중국 공급업체가 적용받는 반덤핑/상계관세를對미 수출 한국 기업에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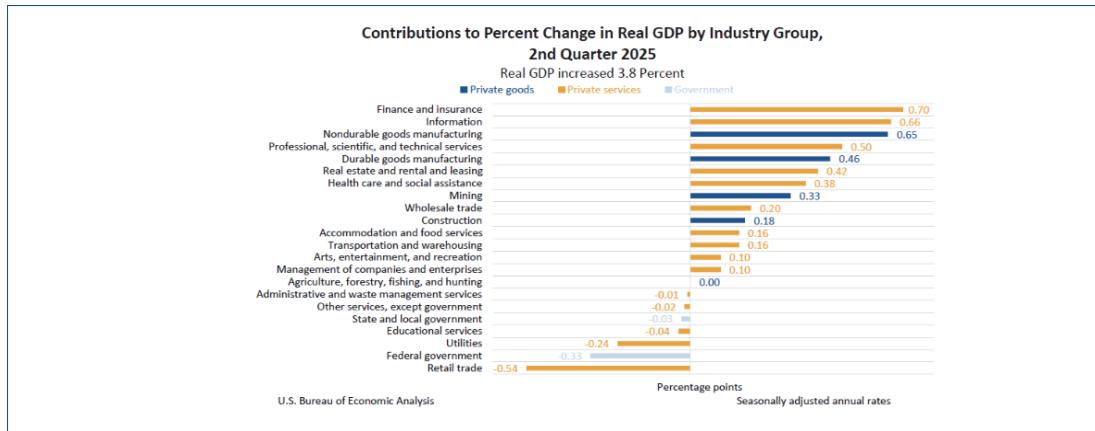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하여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정리('25년 8월 기준)

다. 산업

□ 산업 개요

- '25년 2분기 실질 GDP 3.8% 성장, 수입 감소와 소비 지출 증가에 기인. 실질 GDP는 2차 추정치 대비 0.5%p 상향 조정, 주로 소비 지출 상향 조정 반영
 - 산업 관점에서 실질 GDP 증가는 민간재 생산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10.2% 증가하고 민간 서비스 생산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3.5% 증가

〈산업별 '25년 2분기 GDP 성장 기여도〉



자료: BEA

□ 주요 산업 최근 동향('25년 9월 기준)

- (ISM 제조업 PMI 지수) 소폭 상승, 50 미만으로 여전히 제조업 부문은 위축
- (서비스 PMI) 50 이상이므로 확장세로 해석, 소비 및 고용의 선행지표
- (산업생산지수) 소폭 증가했으나,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76.8%는 가동여력(Capacity Slack)을 시사, 완전 가동 상태는 아님
- (내구재 주문) 향후 설비투자 감소 신호, 수송장비 부분이 주요 하락 요인
- (선행경제지수) 향후 경기 둔화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

'25년 9월 기준, 주요 산업 지수 동향

지표	9월 수치	전월 대비	해석·특징
ISM 제조업 PMI	49.1	+0.4	• 50 미만, 제조업 위축 구간
ISM 비제조업 PMI(서비스 PMI)	50.0	-2.0	•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
산업생산지수(Fed Industrial Production Index, 2017=100)	10.992	+0.1	• 자동차·광업 견인, 유틸리티는 둔화 • 제조업 설비가동률 약 76.8%
내구재 주문 (Durable Goods Orders)	3,120억 1,000만 달러 (8월)	+2.9%	• 운송 장비(Transportation)를 제외하면, 신규 주문은 0.4% 증가 • 국방(Defense)을 제외하면, 신규 주문은 1.9% 증가
선행경제지수 (Conference Board LEI, 2016=100)	98.4	-0.5%	• 6개월간 -2.8% 하락, 경기 하방 리스크 반영

자료: ISM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기준 对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788억 달러로 전년(2,331억 달러) 대비 약 19.6% 증가
 - 전 세계 FDI 유입액 중 약 18.5%를 차지하는 미국은 FDI 최대 유입국

'23~'24년 국가별 FDI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3년	2024년	증감률	비중
1	미국	233,106	278,848	19.6	18.5
2	싱가포르	135,104	143,352	6.1	9.5
3	홍콩	122,947	126,181	2.6	8.4
4	중국(홍콩 제외)	163,253	116,238	-28.8	7.7
5	룩셈부르크	-9,279	105,987	-1,242.2	7.0
6	캐나다	46,525	64,096	37.8	4.2
7	브라질	64,040	59,178	-7.6	3.9
8	호주	30,577	53,454	74.8	3.5
9	이집트	9,841	46,578	373.3	3.1
10	UAE	30,688	45,632	48.7	3.0
21	대한민국	19,042	15,226	-20.0	1.0
전 세계 합계		1,454,976	1,508,803	3.7	100.0

자료: UNCTAD 2025 World Investment Report('25년 7월)

□ 미국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산업별로는 과거 흐름과 유사하게 제조업 부문(42.3%)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융·보험(10.5%), 도매유통(9.1%) 순
 -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정보통신 부문이 8.1%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도매유통은 오히려 전년 대비 3.8% 감소

'23~'24년 산업별 對미 누적 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증감률
1	제조업	1,924,468	2,149,821	2,208,574	2,276,438	2,416,081	6.1
2	기타	738,848	778,844	839,608	887,175	1,011,143	14.0
3	금융 및 보험업	585,749	632,465	562,909	580,198	599,374	3.3
4	도매유통	447,756	455,546	486,332	541,248	520,538	-3.8
5	정보통신	182,913	259,867	238,929	251,717	272,193	8.1
6	과학, 기술, 전문 서비스	206,403	212,236	228,783	241,339	255,566	5.9
7	은행	217,272	217,500	213,778	218,402	231,769	6.1
8	소매유통	141,680	174,528	187,362	198,997	213,172	7.1
9	부동산 및 임대업	168,392	185,612	157,903	180,068	187,884	4.3
합계		4,613,481	5,066,419	5,124,179	5,375,582	5,707,721	6.2

주: Foreign Direct Investment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on a Historical-Cost Basis, 순위는 '24년 투자 규모 기준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5년 7월)

□ 주요국의 미국 현지 투자 유입 동향

'23~'24년 국가별 對미 누적 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증감률
1	일본	632,079	653,548	668,397	699,812	754,069	7.8
2	영국	535,715	627,312	689,806	689,822	742,736	7.7
3	캐나다	487,449	548,030	577,625	685,748	732,910	6.9
4	네덜란드	554,720	705,473	704,154	696,404	726,418	4.3
5	독일	347,509	397,918	411,361	466,499	506,195	8.5
6	스위스	293,461	334,306	337,988	341,279	358,151	4.9
7	아일랜드	249,295	316,937	280,721	290,246	284,406	-2.0
8	프랑스	282,257	227,316	246,538	248,583	259,267	4.3
9	룩셈부르크	316,922	310,397	227,652	225,270	248,067	10.1
10	스웨덴	59,964	78,978	95,039	109,128	121,599	11.4
12	대한민국	60,548	66,141	65,286	79,452	92,050	15.9
20	중국	36,738	31,831	30,545	30,775	33,979	10.4
합계		4,613,481	5,066,419	5,124,179	5,375,582	5,707,721	6.2

주: Foreign Direct Investment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on a Historical-Cost Basis, 순위는 '24년 투자 규모 기준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5년 7월)

- (유럽) '24년 對미 투자 누적액은 3조 6,4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제조업 투자 비중이 약 54%로 과반 차지
 -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24년에도 미국에 제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일본) '24년 對미 투자 누적액은 7,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
 - '24년 전체 對미 투자 누적액 1위를 차지해 對미 투자 입지를 굳건히 유지 중
- (중국) 對미 투자 누적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40억 달러를 기록
 - 규모 자체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42.3%) 제한적 투자 지속 중
- (캐나다) '24년 기준 기타 산업(39.9%), 금융·보험업(20.2%) 순으로 對미 투자가 집중된 양상을 보임

□ 미국의 對韓 투자 현황

- '24년 對한 투자 규모
 - 미국의 對한 투자 규모는 한국의 전체 FDI 유치국 중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해왔으며, '24년에는 52억 4,000만 달러의 투자 신고를 기록(전년 대비 △ 14.6% 감소)하여 전체 투자국 중 3위권을 유지
 - * '24년 국가별 對한국 투자신고금액 : 미국(52억 4,000만 달러, 전년 대비 △ 14.6%, 비중 15.1%), 일본(61억 2,000만 달러, 전년 대비 +375.6%, 비중 17.7%), 중국(57억 9,000만 달러, 전년 대비 +266.1%, 비중 16.7%), EU(51억 달러, 전년 대비 △ 18.1%, 비중 14.8%), 기타 국가(110억 8,000만 달러, 전년 대비 △ 30.5%, 비중 32.1%)
- 업종별 동향
 - 미국의 對한 제조업 투자액은 16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4%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은 3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4% 증가
- 유형별 동향
 - 미국의 對한 그린필드 투자는 46억 9,000만 달러로 19.8% 감소하였으며, M&A(인수합병) 투자는 5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1.3% 급증

국가별 對한국 투자 실적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건수	2022년 금액	2023년 건수	2023년 금액	2024년 건수	2024년 금액
미주지역	633	14,546	520	12,556	555	10,741
미국	526	8,685	390	6,128	441	5,236
캐나다	27	508	32	507	23	567
케이만군도	55	4,424	63	5,590	68	4,897
기타	25	929	35	331	23	42
아주지역	1,980	7,050	2,189	8,621	2,475	16,299
일본	176	1,529	212	1,287	266	6,121
중국	519	1,481	734	1,580	800	5,786
대만	27	20	39	377	68	238
홍콩	145	385	191	1,166	208	1,008
싱가포르	396	3,248	307	2,702	344	2,427
말레이시아	12	13	9	10	17	145
기타	705	374	697	1,499	772	574
EU	295	7,493	336	6,229	279	5,099
독일	60	538	47	207	54	342
프랑스	80	581	98	3,604	48	850
벨기에	36	215	53	1,175	2	0
네덜란드	2	2	5	44	43	883
아일랜드	80	4,922	94	1,102	8	44
기타	37	51	39	97	49	1,542
기타지역	554	1,356	410	5,308	318	2,429
전체	3,462	30,445	3,455	32,714	3,627	34,568

자료: 산업통상부, '24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 한국의 對미 투자 진출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조선업 부활(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반도체·에너지 공급망 강화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의 對미 투자는 항공·조선·방산·에너지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
 - '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주요 기업들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對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산업 협력은 한층 강화
 -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지속, 현대차의 자동차·철강 투자, 한화오션·HD현대의 조선 협력,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한국가스공사·고려아연·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의 에너지·소재·원전 분야 협력이 대표적 사례

한국 기업 對미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금액	32,313	5.3%	31,616	△2.2%	26,143	△17.3%	5,815	△18.5%
신규 법인 설립 건수	734건	9.7%	749건	2.0%	733건	△2.1%	167건	△13.5%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공급망·정책 변화) 기존 글로벌 소싱 → 미국 투자 유도 + 듀얼 소싱

- (글로벌 공급망) 아시아(한국 등) 장거리 소싱 리스크 확대, 소비 시장 근접거리에 공장을 보유한 현지 진출 기업 유리

8개년('17~'25년 1분기) 한국의 신규 해외법인 설립 수와 해외 투자액 비교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한국의 해외법인 설립 수			한국의 해외 투자금액			비고
	① 미국	② 중국	① - ②격차	① 미국	② 중국	① - ②격차	
2017년	553	538	15	15,336	3,226	12,110	
2018년	549	490	59	11,236	4,805	6,431	
2019년	663	468	195	15,763	5,876	9,887	트럼프 1기 행정부
2020년	524	244	280	15,215	5,131	10,084	
2021년	631	262	369	27,931	6,754	21,177	
2022년	698	190	508	29,817	8,538	21,279	
2023년	708	203	505	27,995	1,890	26,105	바이든 행정부
2024년	687	275	412	22,294	1,929	20,365	
2025년 1분기	156	56	100	4,648	540	4,108	트럼프 2기 행정부

자료: KOTRA, 한국수출입은행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조선업 A사, 미국 조선업 부활 정책 대응을 위한 현지 법인 인수

- (기업 정보)
 - H사는 '23년 미국 동부 지역 소재 조선소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하며 미국 조선 산업 진출 기반 확보
 - 기존 군수·상업 선박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MASGA 정책과 연계 추진
- (성공 사례)
 - '25년 50년 만에 미국 발주 LNG선 수주 성사, 한국 본사와 공동 건조 방식 적용
 - 미국 정부의 조선업 재건 전략에 부합하는 대표적 한국-미국 협력 사례로 평가
- (시사점)
 - 对미 투자 시, 정책 타이밍·산업 전략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 미국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진출로 장기적 수주 기반 확보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디지털트윈 기술 기업 A사,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미국 의료시장 특수성(ASC의 활성화, 환자 데이터 전송 의무화 제도)에 최적화된 디지털 트윈 기반 환자용 데이터 전송·시각화 앱 개발
- (성공 사례)
 - B2C, B2B 이중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시장 진입 가속화
 - B2C로는 환자가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앱을 출시, B2B로는 해당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환자 전송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 접속, 의료현장 효율성을 증대하여 보험사 대상으로 마케팅 가능
- (시사점) 미국 의료시장 진출은 환자 데이터 이동 의무화 등 현지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환자 직접 사용(B2C)과 보험·플랫폼 기업 연계(B2B)를 병행하는 이중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성공의 핵심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타이어 제조 기업 N사, 중서부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 이전

- (기업 정보)
 - N사는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로, '05년 캘리포니아주 영업법인 설립 통한 북미 시장 초기 진입
 - '19년, 북미 완성차 3사 공략을 위해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 총액 520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미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20년에는 록본에 유통센터 개소
- (성공 사례)
 - R&D 기술센터를 통해 북미 고객사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유통센터 신설을 통한 리드타임 최적화로 북미 완성차기업 S사 등 중서부 지역 고객 대상 신속한 서비스 제공
 - R&D와 물류까지 단계적 투자로 북미 시장 대응력 강화
- (시사점)
 - R&D 역량을 선점하여 북미 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 거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시장 안착 도모
 - 기술센터와 물류센터 투자 형태는 리드타임 단축, 품질관리 강화에 기반한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견인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전동차 기업 W사, 미국 인프라 사업 진출

- (기업 정보) 철도 및 전동차 생산업체로 '10년도에 설립
- (성공 사례)
 - '11년 로스앤젤레스 법인 설립,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서 해외 기업 제한 규제인 'Buy America' 정책 대응을 위한 현지 생산 기지 구축
 - 워싱턴주 시애틀 경량전철 개량 사업 수주('23년), LA 메트로 전동차 개량 사업 수주('24년 5월), LA 잉글우드시 경전철 사업(ITC) 수주('24년 8월). LA 잉글우드시 경전철 사업 수주 규모는 약 3억 달러로 기대
 - 차량 제작, 시스템 공급, 운영 유지보수까지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며 30년 이상의 장기 운영 계약 확보
- (시사점)
 - 미국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히는 'Buy America' 정책 대응을 위한 현지화 전략 유효
 - 현지 교통국, 건설사, 컨소시엄 등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친환경 전동차 부품과 무인 경전철 시스템 등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개발로 미래 시장 적극 대응 등, 진입장벽이 높은 미국 인프라 사업 시장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둠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이차전지 기업 N사,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N사는 '23년 미국 중서부 지역에 진출한 전기차 배터리 및 수소전지 부품 기업
- (성공 사례)
 - 법인 설립 세부절차, 관할지 투자환경·생활환경 등 시장조사 지원
 - 공장설립 부지 선정을 위한 주정부 및 시정부 연결해 인센티브와 부지 현황 논의
 - '24년 미국 배터리협회 로비스트 발굴 지원하여 주정부 현금 보조금 신청, 30억 원 확보
- (시사점) 주정부 인센티브, 부지 선정, 현지 법인 설립 등 풀패키지 지원을 통해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와 규제환경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이 진출 성공의 핵심 요인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자동차 부품 기업 S사,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 S사는 고무 및 프레스 부품 생산 설비로 팽창 탱크, 소형 엔진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공급망 복원력 강화 추세에 따라 GVC 편입 기회 발굴을 위해 미국 진출 추진
- (성공 사례)
 - 미국 현지화 이후 수출 약 30% 이상 증가, 글로벌 바이어와 거래 논의 활성화
 - 对미 수출 지속 증가 및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협의 등 실질적 수출·투자 성과 도출
 - 해외 공동 물류센터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물류센터 확보, 거점 확보, 지속 확장 기반 마련
- (시사점)
 - 미국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중서부 수출 확대
 - 텍사스 주 등 비용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공장 설립 구체화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법규 준수의 중요성
 -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 규제 외에도 각 주, 지방정부에 따라 노동법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이를 숙지하고 관련 법안 및 규제 준수 필요
 - 특히 연방 및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현지 직원 채용 전에 법인이 진출한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 및 평균 임금 확인 후 임금 책정 필요
 - 이 밖에 직원 채용 절차, 미국 내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 요구
 - * 면접 절차에서도 인종, 나이, 성별, 미혼 여부 등 차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질문은 삼가야 하며 시간외 근로 수당, 퇴근 후 발생한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회식 참여 강요 등에 대한 각 지역별 노동법 및 판결 사례 숙지 필수
- (특정 산업 투자 금지 등 규제)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등 일부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존재하므로 진출 시 유의
 - (통신) 무선통신사업(TV, 라디오 운영 산업 등)은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제로 진출 장벽 존재
 -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제310조(b)(4)에 의거해 미국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참여를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안보 심사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하도록 규정함
 - (에너지) 원자력·수력·지력 발전사업의 라이선스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으로 제한되어 외국 기업의 단독 진출 불가
 -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로 설비에 대한 면허를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발급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해 왔으나, '23년 '미국 에너지 안보 첨단법(ADVANCE Act)' 통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에 대해서는 NRC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원전 지분을 과반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 (운송) 국내 항공 운송업*, 수상·해상 연안 운송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
 - * 미국 항공법은 미국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의결권 지분을 최대 25%까지로 제한하며, 경영과 운영상의 실질적 통제권이 미국 시민에게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 해운 분야의 경우 미국 연안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카보타지(Cabotage) 사업에 외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연안해운법(Jones Act)이 적용됨
 - (국가안전보장) 각종 국방 관련 사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
 - *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발효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국 내 국방시설 또는 정부시설에 인접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시행 중

2. 유망 산업

가. 반도체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24년 6,270억 달러였던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5년 약 6,970억 달러까지 연간 11% 이상 지속 성장 예상
 -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설계, 장비, 팝설비, 소재 및 후공정 등 산업 전체 벤류체인을 선도하며, 관련 기업·기관 대상 민간 부문 투자는 5,000억 달러 이상
 - 반도체 효율화 니즈에 맞춘 글로벌 전력반도체(단일 및 모듈) 시장은 '24년 260억 달러에서 연평균 8~9%로 성장해 '30년까지 433억 달러로 성장 전망

최근 3년간 미국의 반도체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대만	8,154	7,376	11,309	18.2	19.8	27.5	53.3
2	말레이시아	14,119	9,678	9,583	31.5	25.9	23.3	-1.0
3	이스라엘	1,222	2,061	4,164	2.7	5.5	10.1	102.0
4	대한민국	3,115	2,421	2,396	7.0	6.5	5.8	-1.0
5	아일랜드	2,350	1,694	1,913	5.2	4.5	4.6	12.9
6	중국	2,925	2,107	1,654	6.5	5.6	4.0	-21.5
7	멕시코	1,950	1,726	1,538	4.4	4.6	3.7	-10.9
8	베트남	2,314	1,711	1,356	5.2	4.6	3.3	-20.7
9	코스타리카	806	1,093	1,219	1.8	2.9	3.0	11.5
10	일본	1,259	1,253	1,214	2.8	3.4	2.9	-3.1
-	총계	44,787	37,318	41,179	100.0	100.0	100.0	10.3

최근 3년간 미국의 반도체 국가별 수출 동향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멕시코	13,140	12,388	11,714	25.6	28.6	23.5	-5.4
2	중국	9,362	5,023	8,586	18.3	11.6	17.2	70.9
3	말레이시아	4,462	4,327	7,377	8.7	10.0	14.8	70.5
4	대만	5,009	4,513	4,382	9.8	10.4	8.8	-2.9
5	베트남	679	579	2,910	1.3	1.3	5.8	402.6
6	홍콩	2,917	2,434	2,584	5.7	5.6	5.2	6.2
7	대한민국	1,993	2,161	2,490	3.9	5.0	5.0	15.2
8	브라질	1177	1140	1,248	2.3	2.6	2.5	9.5
9	필리핀	1,272	1,466	1,166	2.5	3.4	2.3	-20.5
10	캐나다	1469	1,225	932	2.9	2.8	1.9	-23.9
-	총계	51,287	43,348	49,797	100.0	100.0	100.0	14.9

주: HS Code 854232, 854231, 854239, 854110, 854129, 854130, 854140 기준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World Trade Atlas

- '24년 미국의 반도체 수입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411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대만,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한국은 전년 대비 1.0%p 감소한 23억 9,600만 달러로 수입액 기준 4위
- '24년 미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497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시장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24억 9,000만 달러로 수출액 기준 7위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주요 기업 동향
 - 미국 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CHIPS Act(반도체법)'의 감세 및 인센티브 혜택을 기반으로 대형 파운드리와 메모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가속화
 - 인텔·TSMC·삼성전자·마이크론 등은 제조와 패키징 시설 확장을 통해 첨단 로직 및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
 -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및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확산은 로직·HBM(고대역폭 메모리) 메모리 수요를 견인하며 고성능 반도체 시장 확대
 - 반도체 효율화에 집중한 울프스피드·온세미 등 기업은 SiC(실리콘 카바이드)·GaN(질화갈륨) 전력반도체 내재화 및 생산능력 확대로 차세대 블루오션인 전력소모 최적화 반도체 생산 시장을 이끌고 있음

미국 내 분야별 반도체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TSMC	• 애리조나 4nm 패본격 양산 시작. 미국 내 추가 패 및 패키징 시설·R&D 센터 확대 계획, 對미 투자 약 100억 달러 규모
삼성전자	• 텍사스 테일러 클러스터에 47억 달러 투자 확정, 첨단 로직·패키징·R&D 포함
마이크론	• 아이아호·뉴욕 메모리 패 건설, 최대 64억 달러 투자
인텔	• 애리조나·오하이오·뉴멕시코·오리건 제조 및 패키징에 78억 달러 투자, 정부 신뢰 제조 프로젝트 병행
TI	• 셔먼 300mm 신규 패 가동 준비('25년 생산 예정), 60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엔비디아	• Rubin CPX GPU 발표('25년 9월), Vera Rubin NVL144 CPX 플랫폼 제시. '26년 말 출하 목표
울프스피드	• 200mm SiC 재료 상업 출시. 품질·수율 개선, 전력전자 및 자동차 응용 확대
오픈AI	• 엔비디아, 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 140조 달러 투자 및 오픈AI, AMD에서 6GW GPU 공급 파트너십 체결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첨단 패키징 생태계 확대) 미국 상무부는 첨단 패키징 R&D·파일럿 프로그램에 14억 달러 배정 확정('25년 1월). 미국 내 고부가가치 패키징 산업 조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및 후공정 부문 협력 수요 확대 전망
- (메모리·HBM 현지화) 마이크론의 아이아호, 뉴욕 등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투자 확정. 인텔 등 관련 기업 또한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를 명시하며 HBM 수요 연계 소재·장비 협업 수요 확대 예상
- (파운드리·패키징 거점 확대) TSMC는 총 1,650억 달러(3개의 패, 2개의 첨단 패키징, R&D 시설 포함) 투자 계획 발표. 미국 최대 규모의 패키징 허브 구축을 위한 M사의 20억 달러 투자 확정 등 패키징 수요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 공급망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 수요 증대
- (전력반도체 공급망 고도화) 울프스피드는 200mm SiC 웨이퍼 출시로 대량 양산 선언. 전력반도체 공급망이 향후 200mm로 전환되면서 세라믹 기판, 열관리, 테스트 장비 등 주변 생태계의 동반 수요 발생

□ 기타

-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
 -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Corporation 등 글로벌 장비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과도 밀접히 연계
 - 이들의 2차 공급망(Sub-tier Supplier) 진입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로, 특히 모듈형 부품, 소모성 소재, 검사·계측 관련 기술에서 파트너십 수요 예상

- **파운드리 분야**
 - 미국 내 파운드리 투자가 확산되면서 첨단 로직 생산 및 패키징 클러스터가 애리조나, 텍사스, 오하이오 등지에 구축되는 중
 - 이들 펩은 대부분 신규 설비와 현지 조달망을 필요로 하므로, 한국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가지고 있음. 특히 첨단 패키징(FC-BGA, 유리기판 등), 테스트·검증용 장비와 소재, 공정용 핵심 부품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존재
- **팹리스 분야**
 - 실리콘밸리에 집적된 엔비디아, AMD, 퀄컴, 마벨 등은 설계 전문 기업으로, EDA·IP 협업, 시험·검증, 패키징 최적화 솔루션 분야에서 협업 수요가 존재
 - 한국 기업은 팹리스 기업의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파운드리와 연결되는 교차 협업 모색 가능

나. 인공지능(AI)·IT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AI 산업에 대한 미국의 민간 투자액은 1,091억 달러로 세계 1위이며, 투자액 기준 2위인 중국의 12배, 3위인 영국의 24배 기록('24년)
 - 생성형 AI 산업에 대한 미국의 민간 투자액은 288억 달러로 글로벌 투자액의 85%를 차지, 전년 대비 18.7% 성장하며 미국 내 AI 산업의 성장 견인
 - AI 산업 확대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또한 전년 대비 25% 성장하여 글로벌 투자액이 분기당 1조 달러에 근접, 미국의 3대 하이퍼스캐일러(AWS, Microsoft, Google)의 확장이 두드러짐
 - AI 특화 서버의 출하량은 '25년 20% 이상 성장, 이후에도 유사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데이터 센터 또한 '25년 1분기에만 1,3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 증가
- **최근 수출입 동향**
 - AI 산업에 대한 명확한 수출입 통계는 제공되지 않아 아래의 수출입 동향은 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함

* Telecommunication,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최근 3년간 미국의 정보통신(ICT) 서비스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인도	13,066	13,952	16,849	21.5	21.1	23.2	20.8
2	캐나다	12,223	12,129	11,429	20.1	18.3	15.7	-5.8
3	아일랜드	8,144	8,685	8,619	13.4	13.1	11.9	-0.8
4	영국	4,521	5,369	6,259	7.5	8.1	8.6	16.6
5	일본	1,717	1,776	2,791	2.8	2.7	3.8	57.2
6	독일	1,236	1,686	1,985	2.0	2.6	2.7	17.7
7	네덜란드	1,358	1,709	1,567	2.2	2.6	2.2	-8.3
8	호주	891	1,141	1,368	1.5	1.7	1.9	19.9
9	스위스	1,006	813	1,299	1.7	1.2	1.8	59.8
10	프랑스	722	687	948	1.2	1.0	1.3	38.0
15	대한민국	962	1,138	657	1.6	1.7	0.9	-42.3
-	총계	60,719	66,149	72,634	100.0	100.0	100.0	9.8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최근 3년간 미국의 정보통신(ICT) 서비스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영국	8,920	10,084	11,523	12.5	12.9	12.7	14.3
2	캐나다	8,821	9,337	10,178	12.4	11.9	11.2	9.0
3	독일	4,421	4,725	6,206	6.2	6.0	6.8	31.3
4	일본	4,232	4,861	5,382	5.9	6.2	5.9	10.7
5	스위스	3,254	2,789	4,139	4.6	3.6	4.6	48.4
6	호주	3,115	3,799	3,960	4.4	4.8	4.3	4.2
7	브라질	2,877	3,265	3,636	4.0	4.2	4.0	11.4
8	프랑스	2,299	2,693	3,140	3.2	3.4	3.5	16.6
9	싱가포르	2,238	2,776	3,029	3.1	3.5	3.3	9.1
10	아일랜드	2,636	2,371	2,848	3.7	3.0	3.1	20.1
15	대한민국	1,649	1,776	1,815	2.3	2.3	2.0	2.2
-	총계	71,405	78,484	90,783	100.0	100.0	100.0	15.7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정보통신(ICT)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3개년 모두 수출이 수입보다 큰 무역흑자 산업군
- 수출입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 증가 추세가 가팔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교우위 산업으로 성장 예상
- 산업안보국(BIS)의 AI 관련 對중 수출 제한 강화로, 생성형 AI 기술 및 첨단 AI 칩·서버에 대한 수출은 제한적.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전략적 경쟁국 대상 생성형 AI 모델, 고성능 학습용 프레임워크 및 AI GPU·TPU, ASIC·FPGA 기반 서버 수출 제한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AI 모델·플랫폼 분야
 -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모델 개발 및 플랫폼 기업들이 AI 분야를 주도하며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 중
 - 대부분의 AI 플랫폼이 초기 무상 서비스 제공 방식을 취하며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이 높았으나, 최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AI 서비스 다변화와 수익화 움직임 확대

미국 AI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Open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hatGPT, GPT-4, DALL·E, Codex 등 세계적인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ftBank, Oracle, MGX와 함께 4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Stargate'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텍사스에 10개 데이터센터 건설, 향후 영국, 일본, UAE 등으로 확장 계획 - xAI, Cursor와 같은 AI 코딩 스타트업과 협력, AI 코딩 도구 분야에서 수익화 가능성 모색 중
Anthrop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ude 시리즈를 바탕으로 통해 1만 개 이상 기업에 AI 모델 제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9월 Series F 라운드에서 130억 달러 유치, 기업 가치 총액 1조 8,000억 달러로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oniq Capital,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카타르 투자청 등 참여 - '24년 연간 수익 50억 달러, 30만 명 이상의 기업 고객 확보에 성공하며 점유율 확대 중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mini 시리즈를 바탕으로 AI 모델 성능 향상 및 산업 분야 내 활용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7월 기준 기업 가치는 약 60억 달러로 평가, '24년 23억 달러에서 크게 상승
DeepM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Future Fund, DeepMind 펠로우십 등을 통하여 AI 스타트업, 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대회 및 스타트업,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AI 모델, 클라우드 크레딧 무상 지원 중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Teknovation 등

- AI 분야
 - AI 분야에서는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미국 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경쟁
 - AI 특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며 반도체 인프라와 AI 기술의 통합 확대

미국 AI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Azure) 제공 및 AI 모델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약 1,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데이터센터 확장 및 AI 전용 서버 도입 Trainium2, SageMaker HyperPod 등 AI 모델 학습에 특화된 인스턴스와 솔루션 제공 AI 에이전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Bedrock AgentCore 플랫폼을 AWS 마켓과 통합하여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AI 개발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Microso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최적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자체 AI 모델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8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5개 이상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 중 Microsoft의 자체 설계 칩(Maia 100, Maia 200)을 활용한 고밀도 GPU 클러스터 제공 위스콘신, 텍사스 내 데이터센터 확대,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할인 정책을 통한 시장 확대 중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효율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등에 '25년 총 2,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데이터센터 구축 AI Hypercomputer 등 AI 모델 최적화 리소스 및 자체 생성형 AI 솔루션 제공 '25년 4월 TPU v7 'Ironwood'를 발표하는 등 AI 전용 칩 개발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효율화 및 AI 특화 인프라 제공에 집중
NVI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데이터센터 및 AI 전용 GPU 수요 확대의 최대 수혜자,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데이터센터용 GPU 수요 확대로 9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엔비디아는 폭발적 성장 중 '25년 AI 학습·추론에 최적화된 GPU(Blackwell)를 250만 개 이상 공급하며 매출 견인 로봇 등 물리적 적용이 가능한 엣지 컴퓨팅, 양자 컴퓨팅, 차세대 GPU 설계 등 AI 기술 특화 및 투자를 통한 신규 시장 확대 추진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AlInvest, Bloomberg, Datacenters, Reuters 등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도메인 특화 AI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산업별 데이터 제공을 통해 의료, 제조업 등 특정 분야의 AI 모델 개발 및 적용 협업 기회
 - * 의료 : 한국의 전자의료 차트(EMR)를 통해 수집된 의료 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기반한 AI 모델 개발 및 HIPAA(미국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규정 내 적용 가능 여부 검증
 - * 제조 : 스마트팩토리 데이터셋에 기반한 제조업 특화 AI 솔루션 공동 개발
 - * 기타 : 미국 내 대학·연구소는 실제 산업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해외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탐색 중. 스마트팩토리, 농업, 의료 등 다양한 연구 분야 협력 가능
- 엔비디아 독점 구조 탈피를 위한 AI 특화 반도체 개발 협업 수요
 - * 한국 팹리스 기업과 미국 빅테크·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AI 추론 최적화 칩 생산
 - *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미국 AI 기업 수요에 맞춘 전용 반도체 공급망 진입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협력 관계 구축
- AI 규제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테크(Compliance Tech)에 대한 수요 증가
 - * 미국 내 AI 관련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성 검증 규제 강화에 따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대응 기준이 적용된 AI 솔루션 개발 협력 가능
 - *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EU와 유사한 수준의 AI 규제 확대로 인하여 향후 관련 시장의 확대 예측

□ 기타

- 미국·중국 무역정책, CHIPS Act(반도체법) 등 정책적 영향에 따른 AI 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재편 가속화로 리스크 및 기회요인 확대
 - 고성능 AI 기술 및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정교화됨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 제공·거래 시 관련된 수출 통제에 대한 꼼꼼한 확인 필요
 - AI 특화 수요에 부합하는 반도체 생산 팝·패키징 투자를 통한 인센티브 확보 및 규제 관련 협약 최소화 가능
 - 메모리(HBM), 패키징, 테스팅, 외주 패키징(OSAT) 경쟁력을 살린 협업 확보가 관건
- 미국 내 AI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 요인과 기회 동시 발생
 -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AI 투명성·책임 강조, 딥페이크 제한, 데이터 출처 명시 등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주(州)가 증가하는 추세
 - 이에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제약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에 기반한 AI 개발 분야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

다. 기계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24년 미국 일반기계 산업 규모 약 3,267억 달러로 추산(IBIS World, '25년 4월)
 -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들은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또한 행정부의 'Made in America' 아젠다에 따라 제조업 관련 인프라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 중,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는 '23년에 약 622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13.2%씩 성장하여 '30년에는 1,482억 달러가 될 전망
 - 포드(Ford)는 AI 기반 자동화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3년 만에 생산 효율을 20% 향상, 운영 비용을 15% 절감하는 성과를 거둠
 - 또한 에어버스(Airbus)는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결함률 30% 감소
- * 미국 일반기계 시장 규모 : ('24년) 약 3,267억 달러 → ('28년) 3,489억 달러(연평균 1.7% 성장)
- * 미국 자동화기계 시장 규모 : ('24년) 470억 달러 → ('30년) 연평균 10.5% 성장

미국 일반기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규모	324,600	326,700	331,700	339,300	344,200	348,900	352,500

자료: IBIS월드('25년 8월)

- 최근 수출입 동향

- HS Code 8462.62 기준, '24년 미국의 금속 성형 가공 기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억 7,000만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입국으로는 일본, 한국, 독일 등이 있으며, 이중 한국은 미국의 제2위 수입국으로 점유율 24%, 수입액 2억 3,000만 달러로 나타남

최근 3개년 미국의 금속 성형 가공 기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점유율	2024년 점유율	증감률 (2023년 대비 2024년)
1	일본	4,567	13,592	25,089	18.9	25.7	84.6
2	대한민국	15,754	7,546	23,539	10.5	24.1	212.0
3	독일	11,849	11,529	17,808	16.0	18.2	54.5
4	중국	1,995	1,099	7,688	1.5	7.9	599.7
5	대만	1,224	7,429	6,979	10.3	7.1	-6.1
6	캐나다	20,752	2,047	6,418	2.9	6.6	213.6
7	스위스	744	142	4,117	0.2	4.2	2,789.5
8	튀르키예	10	83	1,933	0.1	2.0	2,225.0
9	이탈리아	1,109	1,689	1,755	2.4	1.8	3.9
10	영국	106	6,502	713	9.0	0.7	-89.0
전체	-	88,344	71,886	97,751	100.0	100.0	36.0

주1: HS Code 8462.62 기준

주2: 증감률은 '23년 대비 '24년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8월)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AI 서버, 데이터센터 등 신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정밀도와 생산 안정성이 중요한 금속 성형 장비 수요가 증가
 - 이에 따라 유압 프레스와 서보 프레스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계식 프레스와 같은 자동화·고정밀 프레스 장비에 주목

미국 제조업체 코마츠 아메리카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코마츠 아메리카 (Komatsu Ame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시설 확대 및 자동화 연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4월, 코마츠 아메리카는 애리조나 주 메사(Mesa)에 2만m² 규모의 최신 판매 및 서비스 시설 건설을 착수 총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광산·중장비 고객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자동화 시스템 적용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25년 8월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 프론토(Pronto)와 협력하여 북미 시장에서 스마트 광산용 자율운반 트럭 솔루션(Smart Quarry Autonomous)을 발표하는 등, 자동화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자료: 코마츠 아메리카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금속 가공 기계는 높은 응력과 마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금형 접촉 부위의 마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고강도 합금 소재와 첨단 윤활 시스템을 적용해 마모를 최소화하는 기술력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요소로 부각
 - 정밀도와 내구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다용도 가공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시장 내 입지 확대 가능
 - 현지 진출 기업에 따르면,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 가격대는 30~50만 달러 수준으로 고가에 속하나, 다방면 가공이 가능한 오축(5축) 장비의 수요 높은 편

□ 기타

- 미국 제조업 및 신산업 성장에 따른 설비 수요 증가할 전망
 - '25년 6월 기준, 미국 데이터센터 착공액은 24억 달러였으며, '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9억 달러 기록(Construct Connect, '25년 8월)
 - 데이터센터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은 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냉각장치, 전력관리 시스템, 금속 샐시·케이스와 같은 산업용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 '25년 6월 기준, 상반기 금속 가공 기계 신규 주문 총액 '24년 상반기 대비 13.7% 증가한 약 2,000만 달러(AMT(The Associa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ogy), '25년 8월)

라. 자동차·부품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자동차) 미국은 세계 2위 규모의 자동차 생산 및 소비 시장으로, '30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생산) 미국 자동차 생산량은 '24년 기준 약 1,056만 대로(OICA, '25년 8월), '31년까지 약 1,100만 대에 이를 전망(Plante Moran, '25년 4월)

미국 자동차 생산 전망

구분	(단위: 백만 대)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생산	10.1	10.4	10.5	10.8	10.9	10.9	11.0	

자료: Plante Moran('25년 4월)

- (판매) 미국 신차 판매는 '24년 1,570만 대를 달성한 뒤, 고금리와 관세 등 불확실성으로 '26년까지 감소하며 이후 '27년 회복세로 전환 예상(BCG, '25년 5월)

미국 자동차 판매 전망

구분	(단위: 백만 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	2026년 (예상)	2027년 (예상)	2028년 (예상)	2029년 (예상)	2030년 (예상)
판매	14.6	15.1	13.9	15.6	15.7	15.1	14.0	15.1	16.0	16.0	15.8

자료: BCG('25년 5월)

- (중고차) 미국 중고차 시장 규모는 '25년 1조 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고금리와 관세 부담에 따른 신차 구매 위축으로 중고차 수요 확대(Mordor Intelligence, '25년 6월)
 - (판매) '25년 8월 판매는 약 155만 대로, 상반기 평균 147만 대 대비 증가세
 - (가격) 평균 소매 가격은 '24년 하반기 상승세 이후 '25년 들어 안정 구간에 진입, 단기 변동성은 축소 국면
 - (재고) 재고 물량은 200~220만 대에서 유지되며, 재고 일수는 평균 40일대로 '19년 팬데믹 이전 평균(약 60일)보다 낮아 공급이 타이트한 상태

미국 중고차 시장 주요 지표

구분	(단위: 천 대, 천 달러, 일)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25년 7월	'25년 8월
매출	2,063	2,181	2,207	2,166	2,180	2,008	2,119	2,204	2,159	2,179	2,160	2,205
판매	1,335	1,384	1,366	1,320	1,338	1,502	1,607	1,511	1,472	1,408	1,481	1,553*
평균 가격	25.3	25.5	25.6	25.8	25.2	25.0	25.2	25.5	25.4	25.5	25.5	25.4
재고 일수	46.3	47.3	48.5	49.2	48.9	40.1	39.6	43.8	44.0	46.4	43.8	42.6

주: * 최근 30일 기간의 판매에 대한 선행치로, 향후 데이터 발표에서 수정될 수 있음

자료: Cox Automotive('25년 9월)

미국 중고차 시장 사례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카맥스 (CARM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차 최대 판매업체인 카맥스(CarMax) '25년 9월 25일, 최근 분기 매출과 이익이 급감 발표 - 이 같은 실적 발표로 주가는 20% 급락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완성차 업체들의 고비용 전기차 전략 재조정으로 압박받는 업계에서 나타난 일련의 불안한 움직임 중 가장 최근 사례

자료: WSJ

- (자동차 부품) 연간 약 700억 달러 규모(매출액 기준) 제조 산업으로, 수입 비중이 45%를 상회(IBIS World, '25년 4월)
 - '24년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매출은 약 703억 달러로, 절반 이상이 완성차 업체(OEM)와 거래에서 발생, '30년까지 1.8% 성장세를 보이며 775억 달러에 이를 전망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 및 전망

구분	(단위: 십억 달러)						
	2024년	2025년 (예상)	2026년 (예상)	2027년 (예상)	2028년 (예상)	2029년 (예상)	2030년 (예상)
연 매출액	70.3	70.8	71.9	73.5	74.8	76.1	77.5

자료: IBIS World('25년 4월)

- (자동차 부품) 외국계 자동차 OEM과 한국 부품사 간의 협력 수요
 - 글로벌 OEM들은 공급망 안정과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지 생산 및 조달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진출 부품사들의 수요 증가 움직임
 - 일부 한국계 부품사는 이미 현대차그룹 외에도 미국·독일·일본계 OEM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음
 - * A사(조지아주, 앨라배마주 진출) : 현대·기아차 외에도 GM, Chrysler 등 미국 OEM에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부품 등을 공급
 - * B사(앨라배마주) : Tesla, BMW, Mitsubishi, Mazda 등 글로벌 OEM에 자동차 부품 공급
 - * C사(조지아주) : GM에 브레이크 제품 납품
 - * D사(조지아주) : GM, Stellantis, Ford에 브레이크 패드 공급

최근 3년간 미국의 자동차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멕시코	111,367,288	129,592,350	137,196,992	33.8	34.1	35.0	5.9
2	일본	45,160,665	50,795,483	51,509,041	13.7	13.4	13.2	1.4
3	캐나다	43,664,235	56,125,127	50,744,586	13.3	14.8	13.0	-9.6
4	대한민국	29,791,045	38,323,161	45,379,098	9.1	10.1	11.6	18.4
5	독일	28,350,123	34,501,186	34,870,251	8.6	9.1	8.9	1.1
6	중국	19,552,408	16,401,740	17,947,090	5.9	4.3	4.6	9.4
7	영국	8,160,214	8,708,074	11,679,268	2.5	2.3	3.0	34.1
8	슬로바키아	4,902,367	6,669,021	6,435,814	1.5	1.8	1.6	-3.5
9	이탈리아	5,217,691	6,725,240	5,500,290	1.6	1.8	1.4	-18.2
10	스웨덴	3,848,048	4,329,321	4,262,593	1.2	1.1	1.1	-1.5
	세계	329,135,855	380,092,712	391,531,231	100.0	100.0	100.0	3.0

주: HS Code 87

자료: Global Trade Atlas

최근 3년간 미국의 자동차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캐나다	56,627,854	58,855,224	56,636,337	40.8	38.3	38.6	-3.8
2	멕시코	22,990,957	28,294,540	28,931,082	16.6	18.4	19.7	2.3
3	독일	8,848,162	10,432,156	9,184,757	6.4	6.8	6.3	-12.0
4	중국	7,328,000	8,134,928	6,389,182	5.3	5.3	4.4	-21.5
5	호주	4,248,260	4,679,122	5,040,647	3.1	3.0	3.4	7.7
6	UAE	3,521,487	4,553,280	4,749,507	2.5	3.0	3.2	4.3
7	대한민국	4,283,241	3,059,431	2,478,895	3.1	2.0	1.7	-19.0
8	벨기에	2,320,054	3,084,652	2,371,013	1.7	2.0	1.6	-23.1
9	사우디아라비아	2,117,092	2,776,677	2,150,161	1.5	1.8	1.4	-22.6
10	일본	1,400,346	1,719,180	1,394,070	1.0	1.1	1.0	-18.9
	세계	138,844,298	153,757,967	146,600,669	100.00	100.00	100.00	-4.7

주: HS Code 87

자료: Global Trade Atlas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 통상질서 개편에 대응해 생산과 조달 거점을 멕시코·캐나다 등 역내로 집중시키고, 미국 내 제조 공정을 확대하는 구조로 전환

미국 자동차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멕시코·캐나다 거점 유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기준 충족으로 관세 부담 30% 절감 목표('25년 5월) (투자) 미시간, 캔자스, 테네시의 3개 공장에 향후 2년간 40억 달러 투자, 연간 200만 대 이상 미국 내 생산 능력 확보 목표('25년 6월)
F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미국 내 조립 비중 확대 및 멕시코 생산 모델의 유통 경로 조정 검토('25년 2월) (투자) 켄터키 루이빌 조립공장에 20억 달러 투자, 신규 전기 플랫폼 생산 라인 구축('25년 8월)
Stellan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 단기 조정, 멕시코 생산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북미 전역 생산 구조를 재편('25년 5월) (투자) 일리노이주 조립공장 재가동 및 디트로이트·토레도·코코모 등 50억 달러 투자로 설비 현대화·차세대 라인 구축('25년 1월)
Hyund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중심 북미 생산 확대, HMGMA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으로 Ioniq 시리즈 등 현지 조립 강화('25년 3월) (투자) '25~'28년 총 210억 달러 투자로 EV 생산능력 확대, 로컬 조달·혁신 기술 협력, 철강 내재화 기반 구축 추진('25년 5월)
Volkswa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멕시코 거점을 유지, 북미 통합 생산 체계로 비용 효율·관세 대응('25년 3월). 또한 북미 수출 의존을 줄이기 위해 Audi 등 일부 브랜드의 미국 내 생산을 신규 검토('25년 5월) (투자) Rivian에 58억 달러 지분 투자, 북미 EV 인프라 확충을 위해 Siemens와 함께 Electrify America에 4억 5,000만 달러 공동 투자('25년 5월)
Toy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멕시코 생산 거점을 유지하며 Tacoma·Corolla 등 USMCA 적용 모델을 중심으로 북미 통합 생산 체계 운영, 장기적 비용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25년 5월) (투자) 미국 버지니아 공장에 8,800만 달러 추가 투자, 총 28억 달러 규모의 하이브리드 트랜스액슬 생산라인 구축('25년 4월)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하이브리드와 저가형 EV 병행 생산) 고수익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기차(EV)를 병행 생산하여 수익성과 시장 대응력 동시 확보

미국 전기차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브리드) 현대차와 협력, 중남미 시장용 SUV·픽업 등 하이브리드 병행 모델 공동 개발('25년 8월). 중국 PHEV 기술 활용, '27년 북미 전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 계획 발표('24년 1월) (EV) '26년 목표로 Chevrolet Bolt 후속 저가형 EV 개발('25년 5월)
F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브리드) Escape·Maverick 중심으로 판매 확대, 픽업 모델까지 적용 범위 확장('25년 3월) (EV) '27년 목표로 3만 달러대 보급형 모델 개발('25년 8월)
Stellan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브리드) Wrangler·Grand Cherokee 4xe 중심 PHEV 라인업 강화, Cherokee 후속 모델까지 확대 적용('24년 11월) (EV) Jeep 브랜드 중심으로 2만 5,000달러대 보급형 EV 출시 계획 발표('25년 5월)
Hyundai·K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브리드) 앨라배마·조지아 공장서 하이브리드 SUV 생산 확대('25년 3월) (EV) 기아 EV3 등 3만 달러대 보급형 EV 모델 미국 내 판매 개시('24년 10월)
Volkswa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브리드) 주요 시장은 유럽 중심, 북미에서는 제한적 운영('25년 3월) (EV) ID.2 기반의 저가형 EV를 미국 시장에 도입 검토 중('24년 11월)
Toy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브리드) RAV4·Camry 등 주력 모델 중심의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25년 4월) (EV) bZ 시리즈 저가형 EV 신모델 미국 시장 투입 검토('25년 6월)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미국 주요 하이브리드 기술 및 부품 내재화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협업 수요 존재
 -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엔진·모터 통합 제어, 회생 제동 제어, 주행 모드 전환 전략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반 통합 제어 기술
 -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셀·모듈·팩 단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배터리 수명 연장과 에너지 최적화를 실현하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력 관리 기술
 - (경량화 및 소재 가공)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탄소·유리 섬유 등 복합 소재적용, NVH* 저감 기술 등 경량화 기반 소재·부품 가공 기술
- *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 소음, 진동, 불쾌감
- (멕시코 소싱)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활용을 위한 멕시코 부품사의 소싱 변화
 - 글로벌 OEM들은 USMCA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일부 부품을 멕시코산으로 대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MexicoNow, '25년 5월 25일)
 - 글로벌 부품사 Valeo는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자사 제품의 90%가 USMCA를 준수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전(Reuters, '25년 4월 29일)

- 다만, 후술되는 멕시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멕시코 생산 역량 및 물류 안정성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소싱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며, 오히려 미국 남동부에 진출한 기업을 통한 현지 직접 납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큼
 - * 멕시코는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50%의 고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멕시코 소재 2·3차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AP News, '25년 9월 10일)
- 멕시코 정부, 비(非)FTA 국가 대상 전기차 등 50% 상한 관세 인상 추진
 - 멕시코 경제부는 중국·한국·인도 등 비(非)FTA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기차 및 1,400여 개 이상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안 발표(9월 11일), 최종 시행은 의회 승인 필요
 - 실행 시 전기차 관세는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되며, 플라스틱, 전자제품, 가구 등 전체 멕시코 수입의 약 8.6%에 해당하는 품목에 영향
 -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의 고율 관세와 유사하게, 저가 수입 공세 차단과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목표로 제시
 - 현지 언론은 중국의 멕시코 자동차 분야 투자 확대 등 중국 이슈가 '26년 7월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검토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 전망

멕시코 수입산 주요 품목에 제안된 관세율

품목	기준(Current %)	변경(Proposed %)
평균	16	34
자동차 부품	0~35	10~50
자동차	15, 20	50
의류	10~35	35, 250
플라스틱	0~35	10~35
철강	0~50	20~50
가전	0~35	35
가구	0~35	35
알루미늄	0~5	35

자료: 경제부(Economy Ministry), 블룸버그 인용

마. 에너지·전력

□ 개요

- 에너지 공급 시장에서 화석연료가 중심축을 이루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전력인프라 투자도 확대되며 관련 기자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오일·가스) '24년 기준 미국 화석연료 산업 전체 규모는 약 1조 9,900억 달러로 추정, '25년 상반기에는 미국 전체 전력 생산의 약 56%를 차지
 - (재생에너지) EIA(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4년 말 465GW 대비 '25년에는 신규 전력 설비 63GW가 추가되어 약 425GW 수준으로 추정, 이 중 태양광과 배터리저장 신규 설비 용량이 81% 차지
 - (전력인프라*) 송·배전망 투자 규모로 측정한 전력인프라 산업 규모는 '23년 277억 달러, 배전망은 509억 달러이며, 10년 전과 대비 각각 300%, 16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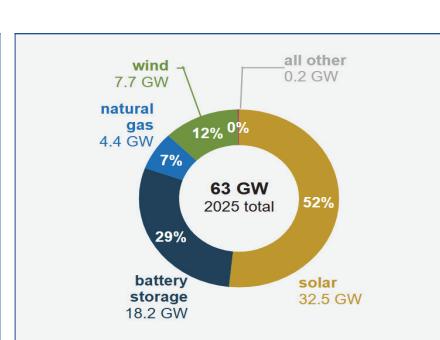
* 시장 규모 : 약 850억 달러, '23년까지 10.2% 성장해 1,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Jackson Industries)

〈전력인프라 투자규모('24년 11월)〉

(단위: 십억 달러)



〈'25년 신규 설비용량 에너지원별 비중〉



자료: EIA

□ 최근 수출입 동향

- (오일·가스) '24년 기준 미국은 에너지 생산의 30%를 수출하는 기록을 세우며, 원유 수출은 일평균 410만 배럴을 넘어 역대 최대치였고, 천연가스(LNG) 수출도 일평균 119억 입방피트(cf) 수출로 LNG 수출량 세계 1위 차지

오일·가스 수입 동향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멕시코	58,754,279	45,909,074	41,153,103	15.2	14.0	12.9	-10.4
2	네덜란드	24,424,621	30,024,820	33,852,227	6.3	9.2	10.6	12.8
3	캐나다	35,359,838	29,996,771	28,097,383	9.2	9.2	8.8	-6.3
4	대한민국	20,405,436	17,545,762	18,668,250	5.3	5.4	5.8	6.4
5	중국	13,545,876	19,823,196	14,606,915	3.5	6.1	4.6	-26.3
6	영국	19,901,598	14,374,689	14,201,297	5.2	4.4	4.5	-1.2
7	인도	16,388,140	11,344,308	12,400,861	4.3	3.5	3.9	9.3
8	일본	13,116,490	12,018,636	11,913,760	3.4	3.7	3.7	-0.9
9	싱가포르	12,114,532	10,036,061	9,338,950	3.1	3.1	2.9	-7.0
10	스페인	11,950,092	9,349,080	8,907,234	3.1	2.9	2.8	-4.7
-	세계	386,009,858	327,831,612	319,475,766	100.0	100.0	100.0	-2.6

주: HS Code 87

자료: Global Trade Atlas

- 반면, 수입은 미국이 정제·가공 후 재수출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제품 수입은 둔화 중임. 이에 중기적으로는 가격·정책 등의 요인으로 시장에서 신규 생산이 증설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수출 능력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성장 여지가 확인됨

최근 3년간 미국의 오일·가스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캐나다	164,415,208	128,968,004	130,565,856	51.1	49.0	51.9	1.2
2	멕시코	26,664,864	25,010,792	16,882,834	8.3	9.5	6.7	-32.5
3	사우디아라비아	21,150,160	14,153,602	10,834,778	6.6	5.4	4.3	-23.5
4	브라질	7,583,951	8,326,898	8,835,744	2.4	3.2	3.5	6.1
5	콜롬비아	9,628,662	7,159,034	7,850,725	3.0	2.7	3.1	9.7
6	이라크	10,303,448	8,862,466	7,770,851	3.2	3.4	3.1	-12.3
7	베네수엘라	2,226	3,467,976	6,043,246	0.0	1.3	2.4	74.3
8	나이지리아	4,396,070	5,371,966	5,466,400	1.4	2.0	2.2	1.8
9	가나	2,677,157	3,098,995	5,313,427	0.8	1.2	2.1	71.5
10	대한민국	5,564,524	4,897,466	5,147,304	1.7	1.9	2.1	5.1
-	세계	322,029,937	263,128,616	251,444,944	100.0	100.0	100.0	-4.4

주: HS Code 27

자료: Global Trade Atlas

- (재생에너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인 태양광 모듈은 '24 EIA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월평균 약 23억 와트인 반면 수출은 월평균 약 9,000만 와트로, 증가하는 태양광 설비 확대에 따른 기자재 수입 비율이 높음
- (전력인프라) 주요 전력기자재인 대형 변압기의 경우 약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리드타임 지연 등으로 수입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Simens 등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전력기자재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 계획도 확인되고 있어 기자재의 미국 내 생산 비율이 늘어날 경우 수입량 감소 가능성 상존

최근 3년간 미국의 변압기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중국	146,011,576	126,740,899	127,041,979	30.7	27.4	26.2	0.2
2	멕시코	78,823,421	84,631,664	87,395,186	16.6	18.3	18.0	3.3
3	베트남	46,755,939	41,793,426	42,542,848	9.8	9.0	8.8	1.8
4	대만	29,692,671	26,983,496	32,447,811	6.2	5.8	6.7	20.3
5	말레이시아	31,119,621	26,372,154	28,370,414	6.5	5.7	5.8	7.6
6	태국	17,303,855	20,739,795	23,094,529	3.6	4.5	4.8	11.4
7	대한민국	23,458,980	19,708,255	20,664,607	4.9	4.3	4.3	4.9
8	일본	20,551,743	19,376,388	19,162,661	4.3	4.2	4.0	-1.1
9	인도	5,993,481	12,056,954	14,373,634	1.3	2.6	3.0	19.2
10	독일	11,120,420	12,401,785	11,982,245	2.3	2.7	2.5	-3.4
-	세계	476,377,639	462,243,065	485,537,473	100.0	100.0	100.0	5.0

주: HS Code 85

자료: Global Trade Atlas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오일·가스) 미국 걸프 LNG 증설과 북미 가스 파이프라인 확대로 미국의 수출 체인은 강화되는 반면, CAPEX 규율·구조 조정으로 비용 효율화 및 비핵심 부문의 포트폴리오 슬림화

미국 오일·가스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Exxon Mob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걸프만 수출 확대에 발맞춰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대서양 분지(가이아나 Yellow Tail 프로젝트) 조기 가동을 통해 신규 공급 물량 확보 • '25년 CAPEX 가이던스를 동결·유지하고 퍼미안, 가이아나 분지 등 핵심축은 투자 확대,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며 포트폴리오 조정 중
Chevr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프로젝트 강화를 위해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기업 Hess 인수와 가이아나 스태브룩 지분 30% 확보로 공급원 확대 • '25년 CAPEX 예산을 전년 대비 20억 달러 축소 발표, 주주 환원에 초점을 맞춘 운영 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면, Hess 인수, 가이아나 스태브룩 지분 확보 등 핵심축은 투자를 확대, 다운스트림 자산 매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중
Cocono Phil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조정 및 CAPEX 규율 강화 : '25년 전체 인원 20~25% 감원 발표로 비용 효율화 및 CAPEX 규율 강화로 수익성 우선, 주주 환원 원칙 강조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로이터

-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AI 수요가 PPA(전력구매계약)·발주 견인, 관련 부품의 미국 현지화 신제품 발표 다수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NextEra Energy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2분기 신규 3.2GW 프로젝트 추가, 향후 진행 예정 프로젝트 용량 약 30GW 확보
First Sol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 용량 '30년까지 64GW 확보, 미국 내 제조 강화를 위해 약 40억 달러 투자 확대 계획
Tesla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9월 유저리티급 배터리 저장장치 Megapack 3와 통합형 그리드 패키지 설비 Megablock 공개, '26년 말 출하를 목표로 텍사스 휴스턴 인근 공장에서 생산 예정이며 1,500명 고용 계획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로이터

- (전력인프라) 전력인프라 송전·변전 병목 해소를 위한 투자 계획이 변압기 등 하드웨어 생산 증설과 그리드 소프트웨어 개발 확대 견인

미국 전력인프라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E Verno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전력계획 소프트웨어 PlanOS 출시, 그리드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 강화 • 풍력 부문 등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그리드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하는 등 사업 영역 조정 중
Simens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의존 및 리드타임 단축 목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지역에 '27년 생산 시작 목표로 대형 변압기 제조시설 구축
Quanter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2분기 기준 프로젝트 잔여 수주금액이 약 358억 달러로 사상 최대 달성을, 그리드 정비, 신규 부하 연계 프로젝트 연속 수주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로이터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및 기회요인
 - (오일·가스) LNG·가스 시추 및 수출터미널 이동 등에 있어 모듈러·패키지형 공정장치 수요가 클 것으로 보여 관련 부품인 열교환기, 계측 시스템, 극저온 탱크 등에 대한 수요와, 기존 시추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파이프라인·가스 압축 장비 등에도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AI 수요 확대로 태양광·에너지 저장시설에 필요한 인버터·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 다만 국산 요건과 FEOC(해외우려 기관) 회피를 위해 미국 내 조립·가공 혹은 개발 수요 높을 것으로 전망
 - (전력인프라) 송배전 확충 수요 증가로 우리 기업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대형 변압기, 케이블, 배전반 등의 협업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그리드 소프트웨어 등의 수요도 증가 전망

바. 한류 콘텐츠

□ 한류 콘텐츠

- 현지 산업 규모
 - 미국 무역부인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는 '24년도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규모를 약 6,490억 달러로 집계, 미국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 형성
 - * '24년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약 2조 8,000억 달러 집계
 - '28년까지 연평균 4.3% 성장, 약 8,08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최근 수출입 동향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하면 '24년도 한국산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의 对미 수출은 약 21억 4,200만 달러로 집계
 - * '24년도 한국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수출 약 151억 8,300만 달러 규모
 - K-팝 분야의 对미 수출은 6,029만 달러로 집계되어 미국은 일본에 이어 K-팝 콘텐츠 소비 2위 시장으로 기록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K-팝, 현지 레이블 및 에이전시와 파트너십 체결로 미국 시장 확대와 전략적 진출 기회 모색
 - BTS, 블랙핑크 등 K-팝 그룹의 빌보드 차트 진입, K-드라마의 넷플릭스 인기에 힘입어 콘서트 투어, 팬미팅, 굿즈 판매 등 수익원 확장 추세
 - K-팝 기획사들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전속 관리하는 구조로 현지 레이블 및 에이전시와 라이선싱·프로모션 중심의 파트너십 계약을 주로 체결, 현지 에이전시는 공연, 광고, 방송 출연 등 연예 활동을 중개하는 역할 제공

- 전문가들은 K-팝이 기술과 문화, 팬덤 공동체의 융합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 '25년 8월,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Demon Hunters'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애니메이션, 영화, 상품, 팬덤 플랫폼을 아우르는 복합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미국 K-팝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창립 30주년 기념 프로젝트 및 소속 아티스트 신규 앨범 발매 준비 중 - 글로벌 오디션 진행 및 미국 포함 5개국 17개 지역에서 인재 발굴 진행 - 해외 거점 제작센터 구축, 투어, MD 상품 사업 확대 -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NCT 위시 등 북미 투어 및 활동 지원 - 메타버스 콘텐츠 사업, 팬 플랫폼 통합 등 사업 다각화
J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법인명, 주소지 변경과 상표권 등록으로 브랜드 재정비 -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국 활동 지원과 글로벌 투어 등 공연 사업 확대 - 스트레이 키즈, 트와이스 신규 앨범 발매 등 지원 - 보유 아이돌 그룹명 등 상표 다수 등록
하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국 내 솔로 및 유닛 활동, 투어 확대 - 글로벌 아이돌 그룹인 BTS의 '26년 봄 컴백 진행 중으로 미국에서 새 앨범 작업 진행 - BTS, '26년 월드 투어 계획 - 신인 그룹 론칭 준비
Y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등 아이돌 그룹 월드 투어 재개 - 블랙핑크의 신곡 'Jump' 발매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Spotify) 글로벌 차트 1위 기록 - 베이비몬스터 북미 투어 및 신규 앨범 발매 계획, 그룹 위너는 일본과 한국 공연으로 글로벌 활동 재개 - 앨범 판매 속도 개선, 다수의 지식재산권 라인업 확보, 굿즈 등 상품 사업 확대 등 미국 내 사업 다각화 추진 중

자료: SM, HYBE, JYP, YG, Billboard Korea 등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K-팝을 선두로 한국 기업들의 K-드라마·웹툰·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라이선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업과 진출 활발
 - K-팝, K-드라마, K-영화 등 K-콘텐츠의 미국 내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국 내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협업, 미국 현지 인재 발굴(A&R)팀 운영, 북미 투어 및 현지 마케팅 강화 활동에 주력
 - 미국 내 디지털 만화 시장과 웹툰 시장도 성장세로 관련 콘텐츠 제작사와 플랫폼 사이의 협업 및 투자 증가
 - K-팝 스타들과의 브랜드 콜라보, K-드라마 제작사와 OTT 플랫폼 간 협력 확대 등이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현지 팬덤과 시장 니즈에 맞춘 특별 콘텐츠와 상품 개발에 주력

글로벌 브랜드들과 K-팝 스타들과의 협업 사례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블랙핑크 × 아사히 수퍼드라이	• '25년 7월, 블랙핑크 아사히 수퍼드라이(Asahi Super Dry) 맥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 동아시아 전역에 대규모 캠페인 론칭
스트레이 키즈 × 토트넘 홋스퍼 F.C.	• '25년 7월, 영국 프로 축구팀인 토트넘 홋스퍼 F.C.(Tottenham Hotspur F.C.)와 한정 유니폼 출시
에스파 × 스트리트 파이터 6	• 비디오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6(Street Fighter 6)의 인기 캐릭터를 에스파 스타일로 꾸밀 수 있도록 아이템 출시 및 공개
트와이스 × 산리오	• 트와이스의 공식 캐릭터 '러블리스(LOVELYS)'와 일본 캐릭터 상품 회사인 산리오(Sanrio)의 캐릭터 협업으로 산리오 캐릭터들이 트와이스 각 멤버들의 러블리스 모습으로 변신한 한정판 디자인의 다양한 굿즈와 상품 출시

자료: SM, HYBE, JYP, YG, Billboard Korea, Business Post 등

□ 기타

- K-팝, K-웹툰, K-푸드, K-뷰티로 확장하며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핵심으로 부상
 - 미국의 OTT 콘텐츠 시장은 '24년, 619억 달러에서 '29년에는 1,127억 달러로 평균 5.9% 성장 전망
 - 미국의 주요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24~'28년까지 4년 동안 TV 시리즈,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 진행
 - K-팝은 BTS, 블랙핑크 등 글로벌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현지 밀착형 이벤트와 글로벌 쇼케이스 투어 등으로 미국의 MZ세대에 인기
 - 미국에서 제작 방영된 애니메이션 'K-pop Demon Hunters'는 작품 속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K-팝 문화를 결합, 깊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방영에서 41개국 1위, 93개국 10위 진입 등 성과 창출
 -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K-pop Demon Hunters'는 팬아트, SNS 챌린지, 굿즈, 코스프레 문화 등 팬덤 주도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 창출
 - 특히 캐릭터 및 로고 디자인의 티셔츠 등 의류와 캐릭터 인형, 키링(Key Ring) 등의 액세서리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며 사운드트랙 앨범과 함께 종합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
 -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적 요소와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결합이 창의적인 복합 콘텐츠로 인정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새로운 성공 신화를 기록함과 동시에 한국 문화와 산업을 알리는 '앰버서더'로 각인

사. 화장품 등 소비재

□ 화장품 등 K-뷰티

- 현지 산업 규모
 - 미국 전체 화장품 제조 산업의 매출 규모 약 4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0.1% 성장 감소했으나 '25년에는 452억 6,000만 달러로 2.4% 성장 예측
 - 전체 시장에서 화장품이 36.2%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크림, 로션, 오일 등 기초 스킨케어 제품은 23.1% 차지. 헤어케어는 18%, 향수 및 화장수 12.6%, 구강관리용품 2.6%, 기타 제품 7.5% 차지

최근 3년간 미국의 화장품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대한민국	587,980	816,297	1,385,577	13.6	17.6	25.6	69.7
2	프랑스	830,445	903,353	976,955	19.3	19.5	18.1	8.2
3	캐나다	696,810	812,633	822,370	16.2	17.5	15.2	1.2
4	이탈리아	320,104	343,768	363,066	7.4	7.4	6.7	5.6
5	중국	243,978	301,695	314,953	5.7	6.5	5.8	4.4
6	영국	237,153	244,067	241,548	5.5	5.3	4.5	-1.0
7	멕시코	158,084	183,878	186,093	3.7	4.0	3.4	1.2
8	스웨덴	235,659	149,154	146,362	5.5	3.2	2.7	-1.9
9	일본	163,616	121,639	139,137	3.8	2.6	2.6	14.4
10	독일	93,309	80,805	111,314	2.2	1.7	2.1	37.8
	세계	4,311,253	4,631,869	5,413,765	100.0	100.0	100.0	16.9

주: HS Code 330499

자료: Global Trade Atlas

- 미국의 '24년도 전체 화장품 수입 규모는 약 54억 1,37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8% 수입 증가
- 미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24년도 기준 약 13억 8,557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7% 증가, 한국산 제품이 수입 1위 기록. 미국의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비중은 25.6% 차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로레알, 유니레버, P&G, 에스티로더 등 세계적 기업들이 대규모 R&D 투자, 글로벌 유통망,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미국 시장 주도

미국 화장품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로레알 (L'Oré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NYX, 랑콤(Lancôme), 메이블린(Maybelline)으로 미국에서도 현지 생산을 통해 제품 공급 '25년 CES에서 Cell BioPrint를 공개, 고도화된 생체 분석(Proteomics) 및 AI 기술을 활용하는 관리 기기로 개인의 피부 나이를 진단하고 피부 고민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기기로 주목을 받음. 주요 기업들은 AI 및 생체분석 기반의 맞춤형 스킨케어, 친환경·지속가능성 소재, 고기능성 프리미엄 라인 등 차별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트렌드 선도
에스티로더 (Estee Lau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 제품 라인 중심으로 세포라(Sephora) 등의 뷰티 전문점과 백화점 중심으로 제품 판매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언론 보도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한국콜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증설 및 현지 자회사 투자 활발
- 특히 한국콜마는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기존 공장에 텍사스 생산 공장을 확장, '25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 및 생산 시작. 현지 브랜들과 신규 ODM 계약을 확장하며 원료 개발부터 마케팅, 유통 채널까지 지원하는 종합 뷰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진행
- 현지 생산 능력 증대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함과 동시에 비건, 클린 등 현지 트렌드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 경쟁력에서도 우위 가능
- 한류와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관심 및 인식 증가 추세로 한류 콘텐츠와 K-뷰티 상품의 협업 수요가 활발, SNS 인플루언서 및 팝업 스토어, 디자인 콜라보 등 다양한 기회 부각
-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더불어 기본적인 피부 건강, 모발 관리는 한류 팬덤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로 진화하며 새로운 협업 수요 창출

□ 기타

- ‘가성비’ 높은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제품에 주목
 - 코스알엑스(COSRX), 조선미녀, 달바(D'alba), 라운드랩(Round Lab), 티르티르(TirTir) 등 인디 브랜드들이 차별화된 성분과 기술로 어필. 코로나 이후 다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인디브랜드 화장품은 가격 대비 뛰어난 제품력으로 ‘가성비’ 제품으로 인정. 특히 선크림, 기초 스킨케어, 기능성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MZ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성장 견인

- 미국 소비자들은 K-뷰티 제품들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와 K-뷰티 선호도 상승으로 MZ세대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수요 증가
-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레딧(Reddit) 등 SNS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한류 콘텐츠가 성장 동력으로 분석되며 디지털 마케팅의 확대가 향후 K-뷰티 제품의 미국 내 경쟁력 강화로 작용 전망
- 그러나 미국 정부의 강화된 화장품 규제(MoCRA) 준수와 불안정한 무역환경 변화에 유연한 공급망 관리가 관건으로 대두
- K-뷰티 유통망의 미국 진출 가속, 소액면세 제도 폐지가 변수
 - CJ올리브영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25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현지 법인 'CJ Olive Young USA'를 설립, 온라인몰의 UX·UI, 결제수단, 상품 노출 방식을 미국 소비자 맞춤형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26년 상반기 첫 오프라인 매장 개장을 목표로 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추진 중
 - 그러나 미국 정부는 '25년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함에 따라, '역직구 판매'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온라인 유통망의 미국 진출에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
- * 소액면세 제도(De Minimis) : 미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일정 금액(8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한국에서 해외 개별 소비자에게 국제 배송되는 B2C 직접 수출(역직구) 모델의 성장 배경이 됨
- K-뷰티는 '25년 상반기까지 아마존 등 미국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5년 2분기 온라인 역직구 뷰티 판매 규모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7,388억 원을 기록, 이 중 미국 시장 비중은 18.7%에 달함
- 소액면세 제도 폐지로 총 상품가치의 15% 관세가 부과되고, MPF(화물처리수수료) 등 수수료가 부과됨에 따라 공급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소비자 가격은 상호관세보다 높게 상승 예상
- 아울러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이에 따라 역직구 기반의 현지 온라인 유통망(올리브영 글로벌, 아모레몰 등)은 15% 관세와 통관 수수료, FDA 검사 강화 내용을 소비자에게 긴급 공지하는 한편, 할인 혜택과 이벤트성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 위축에 대응 중임

소액관세면제에 따른 관세 등 수수료 부과 예시

(단위: 달러)

구분	가격	구분
수입가격	150.00	CIF 가격
수입관세(Duty)(15%)	22.50	15% 예시
상품취급수수료(MPF)	27.23	Merchandise Processing Fee (Min 27.23달러, 0.3464%)
비공식 엔트리 비용(Informal Entry Fee)	2.63	CBP 고정비용
항구관리비용(MPF)	0.00	항구관리비용(항공운송의 경우 → 0달러)
추가비용합계	52.36	0
총 비용(상품가격+비용)	202.36	0

주: 상호관세 전제, 항고운송, 별도 품목관세 등 없음. 항공운임과 보험 등 제외

자료: 해운사, 물류사, CBP 등 KOTRA 종합

- 소액면세 폐지 이후 물류·유통 전략 전환 필요
 - 현지 물류 전문가들은 미국 내 물류 거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 또는 3PL(Third Party Logistics, 제3자 물류 또는 물류 대행) 풀필먼트(Fulfillment) 기반의 위탁 배송 활용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됨
 - 3PL 풀필먼트를 통해 현지 물류 거점 마련 시 관세 비용 절감, 통관 절차 간소화, 배송 리드타임 단축, 현지 재고 관리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 관세를 반영한 수출 조건 변경, 가격 조정, 현지 OEM·ODM 생산 확대, 북미 내 유통 파트너십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됨

아. 제약·바이오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24년 미국의 제약 시장 규모는 6,343억 2,000만 달러로 추산(Grand View Research)
 - 미국의 제약 산업은 치료제 발전과 견고한 파이프라인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 표적 치료제, 바이오 기술, 맞춤형 치료제 분야의 발전이 치료제 모델을 재편했으며, 자가면역질환 분야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산업 성장 주도
 - 미국 제약 산업은 '25~'30년까지 연평균 5.7% 성장해 '30년 시장 규모는 8,839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Grand View Research)
- (최근 수출입 동향)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16위로 수입액은 '24년 39억 7,800만 달러로, '23년 28억 6,300만 달러 대비 41.7% 증가

최근 3년간 미국 의약품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아일랜드	32,462,331	35,590,339	50,221,572	19.7	20.1	23.6	41.1
2	스위스	17,595,509	15,154,872	18,880,685	10.7	8.5	8.9	24.6
3	독일	17,845,162	18,885,176	17,233,742	10.8	10.6	8.1	-8.7
4	싱가포르	4,384,609	9,890,631	15,265,253	2.7	5.6	7.2	54.3
5	인도	9,071,119	10,987,634	12,722,529	5.5	6.2	6.0	15.8
6	벨기에	10,132,028	6,585,659	12,318,946	6.2	3.7	5.8	87.1
7	이탈리아	6,521,702	8,131,262	11,572,167	4.0	4.6	5.4	42.3
8	중국	10,387,341	5,986,834	7,905,849	6.3	3.4	3.7	32.1
9	일본	6,999,047	6,600,972	7,489,975	4.3	3.7	3.5	13.5
10	영국	6,351,750	6,831,401	7,287,395	3.9	3.9	3.4	6.7
16	대한민국	2,863,672	2,807,502	3,978,553	1.7	1.6	1.9	41.7
	세계	164,551,947	177,489,099	212,705,809	100.0	100.0	100.0	19.8

주: HS Code 30

자료: Global Trade Atlas

최근 3년간 미국 의약품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중국	9,275,330	9,893,920	9,465,658	11.2	11.1	10.0	-4.3
2	네덜란드	7,916,203	8,602,269	8,701,444	9.5	9.6	9.2	1.2
3	일본	6,532,411	6,299,416	8,409,270	7.9	7.0	8.9	33.5
4	독일	6,547,289	6,504,267	7,686,998	7.9	7.3	8.1	18.2
5	캐나다	6,992,574	5,887,506	6,975,653	8.4	6.6	7.4	18.5
6	영국	5,566,296	5,487,104	5,604,251	6.7	6.1	5.9	2.1
7	스페인	4,954,676	5,518,614	5,150,055	6.0	6.2	5.5	-6.7
8	벨기에	3,162,284	8,045,800	4,639,688	3.8	9.0	4.9	-42.3
9	아일랜드	3,748,700	4,021,245	4,474,595	4.5	4.5	4.7	11.3
10	멕시코	2,134,436	2,466,659	3,479,184	2.6	2.8	3.7	41.1
16	세계	83,143,822	89,504,726	94,467,599	100.0	100.0	100.0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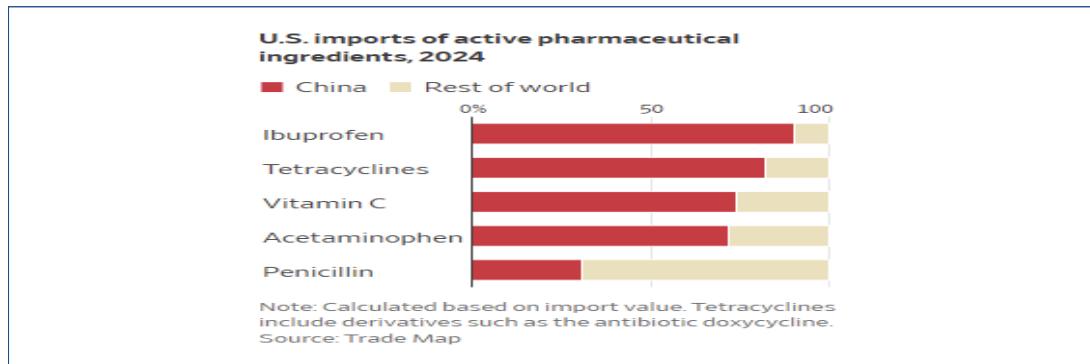
주: HS Code 30

자료: Global Trade Atlas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의약품 특허 만료에 따른 성장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외부에서 혁신 동력을 찾으려는 글로벌 제약사의 수요 증가
 - '30년까지 상위 35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성장 공백 규모는 2,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특히 절벽에 직면한 빅파마들이 M&A(인수합병)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추세
 - AI 스타트업과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 중심의 3상 이전 단계를 타깃으로 한 합리적인 소규모 거래 기조 지속
- 미국의 對중 견제와 의약품 관세 부과 추진 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추진
 - 의약품 원료 수입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료의약품 전략 비축고'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5년 8월)

〈미국의 의약품 원료 수입 현황〉



자료: WSJ

-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예고하였으나 '25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유예
- 이에 따라 화이자를 비롯한 주요 제약사들은 對중 견제 및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당 리스크가 낮은 국가로 공급망을 이전 중이며
-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가격이 타 국가 대비 높은 상황 고려, 해외 대비 인하 정책 시행, 대표적으로 일라이 릴리(Eli Lilly),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합의를 통해 두 회사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이른바 '살 빼는 약') 가격 인하 유도, 가게지출에서 의약품 지출 비중 경감 유도

미국의 주요국 대비 의약품 가격 비교

연번	주요국	미국 대비 의약품 가격 비율
1	미국	100%
2	OECD(미국 제외)	36%
3	일본	29%
4	한국	25%
5	독일	34%

자료: Rand Corporation('22년)

미국 제약 산업 주요 기업 동향

연번	기업명	투자금	투자 계획
1	Johnson & Johnson	57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R&D·기술 투자 확대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공장 건설
2	AstraZeneca	5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및 연구 개발 확대 버지니아·메릴랜드 등 신규 및 생산 거점 확대
3	Genentech(Roche)	5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및 진단·R&D 확충 인디애나·펜실베이니아 등 제조 거점 확충
4	GSK	3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R&D 및 공급망 인프라 확충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5	Eli Lilly	27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뇨·비만 치료제 생산능력 확충 버지니아 신공장 등 총 4곳 신규 설비 착공
6	Novartis	23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연구 개발 확충 및 고용 확대 신규 제조시설 6개 및 연구 거점 확충
7	Sanofi	2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연구 인프라 확충 미국 내 파트너십 통한 생산능력 강화
8	Gilead Sciences	11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캘리포니아에 제약 개발·제조 허브 신설 미국 내 2개 신규 부지 개발 추진
9	AbbVie	1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역·종양 치료제 생산 확대 미국 내 11개 제조시설 확충
10	Merck & Co	9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부지 및 R&D 확장 델라웨어 신공장·노스캐롤라이나 확충

자료: IBIS World, 각 기업 홈페이지, 언론 보도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미국의 對중 견제와 글로벌 제약사의 초기 혁신 기술 확보 수요는 우리 기업의 협력 기회로 포착 가능
 - (글로벌 제약사) 대규모 임상·허가·판매 등 상용화 단계에 강점을 보유, 초기 혁신 기술은 외부 협력을 통해 확보
 - (국제 규제 환경) 미국-중국 갈등에 따른 중국 의존 리스크 분산 필요성 확대
 - * 미국은 수출 통제법, 생물보안법 추진 등 생명공학 장비·서비스의 對중국 제재 강화
 - (국내 기업) 신약의 전달 방식 개선, 제형 혁신, 차세대 유전자 치료 등에서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 관련 경쟁력 확보
 - * 한국은 중국 대비 규제 리스크가 낮고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로 대체 파트너로 부상
- (일라이 릴리(Eli Lilly)) 휴스턴에 65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새로운 경구용 체중 감량 약물을 포함한 의약품 원료(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생산 계획 발표('25년 9월)
 - 동 시설에서 오르포글립론(Orfoglipron)을 생산할 예정. 이는 회사 최초의 경구용 소분자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올해 말까지 비만 치료제로 글로벌 규제 당국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
 - 일라이 릴리와 경쟁 제약사들은 주사제 치료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체중 감량 약물의 경구용 버전 개발을 추진
 - 일라이 릴리가 계획 중인 휴스턴 공장은 향후 5년 내 가동될 예정이며, 올해 미국 내에서 발표할 4개 제조 부지 중 두 번째. 올해 초 회사는 미국 내 의약품 생산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버지니아에 또 다른 생산 시설을 건설 중
- (셀트리온) 미국 현지 실제 가동 중인 바이오의약품 cGMP 시설을 4,600억 원에 인수, 초기 운영비 등 포함 7,000억 원, 추가 증설에 최소 7,000억 원 투자
 - 이미 가동 중인 바이오 원료의약품(DS) cGMP 생산 시설로 신규 건설 대비 시간·비용 대폭 절감, 증설 시 송도 2공장 1.5배 수준 캐파 확장 가능
 - CMO 계약 체결로 즉시 매출 확보, 미국 현지 생산 및 판매 공급망 일원화도 구축

자. 조선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24년 미국 조선업 규모는 약 370억 7,860만 달러로 추산(IBIS World, '25년 4월)
 - 미국 조선업은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상업용 선박 건조 역량은 축소된 상태
 - * '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국으로 평가받으며 50개 이상의 조선소에서 1,0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했으나, 이후 상업 조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 약화와 해외 조선업체 성장으로 상업 분야는 급격히 쇠퇴
 - 현재 미국 조선 산업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 등 고부가가치 방위 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 미국 조선업은 연방정부의 해군력 증강 및 군함 교체 계획과 직결되어 있어, 조선소 규모와 사업 방향이 정부의 방위 산업 계약에 크게 좌우됨
 - 존스법(Jones Act) 적용으로 미국 내 상업 선박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며 점차 쇠퇴, 현재 상업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약 20곳에 불과
 - * 존스법(Merchant Marine Act(1920년 제정), 제27조)은 미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국적을 보유하며, 미국인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
 - * '83년 이후 약 30년간 미국 내 상선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400여 곳에서 대부분 폐업하며 현재 소수만 남아 있음

최근 3년간 미국 조선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베트남	808	794	1,051	11.8	20.9	26.5	32.4
2	캐나다	431	1,034	487	6.3	27.2	12.3	-52.9
3	중국	85	323	428	1.2	8.5	10.8	32.2
4	터키	68	-	311	1.0	-	7.8	-
5	우크라이나	404	542	297	5.9	14.3	7.5	-45.2
6	독일	63	30	290	0.9	0.8	7.3	879.3
7	멕시코	-	178	269	-	4.7	6.8	51.1
8	일본	76	50	242	1.1	1.3	6.1	383.1
9	호주	338	-	121	4.9	-	3.1	-
10	폴란드	-	-	112	-	-	2.8	-
	세계	6,864	3,799	3,972	100.0	100.0	100.0	4.6

주: HS Code 8901

자료: Global Trade Atlas

최근 3년간 미국 조선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이스라엘	-	-	53,643	-	-	55.9	-
2	멕시코	420	14,008	16,767	1.2	17.6	17.5	19.7
3	캐나다	24,186	59,560	13,269	66.4	74.9	13.8	-77.7
4	바하마	3,055	228	2,913	8.4	0.3	3.0	1,174.8
5	나이지리아	803	3,387	2,122	2.2	4.3	2.2	-37.3
6	페루	47	7	1,673	0.1	0.0	1.7	24,798.9
7	일본	52	63	1,300	0.1	0.1	1.4	1,955.0
8	폴란드	6	33	1,158	0.0	0.0	1.2	3,407.7
9	독일	60	73	850	0.2	0.1	0.9	1,065.2
10	스페인	19	-	394	0.1	-	0.4	-
	세계	36,446	79,573	96,053	100.0	100.0	100.0	20.7

자료: Global Trade Atlas

- 존스홉킨스 법규제로 외국산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이 불가능해, 미국 선박 수입 시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주로 부품·소재 중심으로 수입
- 선박 자체의 소규모 수입은 대기업의 수출 물량을 운반하는 자사 소속 선박이나, 초고가 슈퍼요트 등 일부 특수 목적에 한정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조선 패권 재확보를 위한 해양 전략 강화
 - 미국 의회는 세계 무역의 약 80%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상업 선박 제조 경쟁력을 상실한 현실을 지적하며 더 늦기 전에 해양·조선 분야의 패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24년 4월)

* '24년 글로벌 상업 선박 제조 점유율 : 중국 53.3%, 한국 29.1%, 일본 13.1%, 미국 0.1%

* 미국은 중국과 비교할 때 △ 국적 상선 보유 척수, △ 선박 건조 실적, △ 조선업 종사 인력, △ 상선 선원 등 핵심 지표 전반에서 열세

-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조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아울러 '25년 3월 의회 연설에서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조선소 소유·운영 및 구축함 생산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미국 해군이 외국산 비(非)전투 수상함을 구매할 가능성까지 언급

미국 주요 조선소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eneral Dynamics Corp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5위 방위 산업업체, 모체인 일렉트릭 보트(Electric Boat)를 '52년에 설립 • 현재 10여 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전 세계에서 영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군수업체 인수·합병을 통해 항공우주·방위 산업·해양 시스템·전투 시스템 등 방산 분야에서 사업 운영 • 해양 시스템 부분에서 핵 잠수함 조선소 일렉트릭 보트와 이지스 구축함 전문 조선소 아이언 웍스(Iron Works) 자회사 운영 • 경쟁 동향 : '98년 미국 서해안의 유일한 대형 조선소 NASSCO를 인수했으며, 이로 인해 헌팅턴 잉글스(Huntington Ingalls)와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양대 체제 구축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함께 미국 해군 주요 전투함 건조 양대 체제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모함, 이지스함, 수상 전투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고, 함대 지원 및 수리를 하고 있음 •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조선소 및 함대 지원 거점을 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포트뉴스 조선소 : 미국 내 유일의 원자력 항공모함 조선소 - 잉글스 조선소 : 미시시피주 거점으로 구축함, 상륙함, 연안전투함 등 다목적 전투함 건조 • 국방, 사이버, 무인체계, 행 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확장 중이며, 인공지능, 자율 운항, 사이버 보안 등에 투자하고 있음
Hanwha Philly Shipy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 조선소를 인수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 기업 Aker의 소유 기업이었으나 '24년 12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인수 - 한화그룹의 글로벌 방산·조선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미국 내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계획 • 미국 조선업의 방산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상선·군수지원선 중심의 특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LNG 운반선 수주하며, 미국 내 상업 선박 조선업의 부활을 예고('25년 7월) • 시설 증대를 통해 '35년까지 연간 건조 10척이 가능한 조선소로 확대 예정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미국,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적극적 의지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 및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조선 기술을 도입하고, 한국산 선박 구매를 추진할 의사표명
 - '24년 12월, 한화오션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인 필리십야드(Philly Shipyard)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24년 12월)
 - HD현대 또한 미국 내 다수 조선소와 MOU 및 파트너십을 체결
 - 한국 정부는 '한국-미국 조선해양 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 예산 66억 4,400만 원을 '26년 예산 편성
 - 이에 따라 미국과의 조선 협력 관련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對미 투자와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현지 거점 마련
 - 한국은 미국에 선박 설계 실무 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기능장급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조선 관련 용접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예정



한국 기업 현지 조선소 인수 사례

- (조선소 인수) 한화 오션, 미국 진출을 미국 조선소 필리십야드 인수 및 미국 해군 유지보수(MRO) 사업 수주
 - 노르웨이 기업 아케르(Aker)로부터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십야드를 1억 달러에 인수하며 미국 조선업에 진출
 - 필리십야드를 '35년까지 연간 10척 선박 건조 가능한 조선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총 7,000만 달러 투자할 계획
 - 필리십야드를 통해 상선과 군함을 건조하는 한편 해군 유지보수 사업도 수주할 예정
- (미국 조선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HD현대와 삼성중공업, 미국 방산 조선소와 협력을 통해 선박 공동 건조
 - HD현대는 헌팅턴 잉글스(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에디슨 슈웨스트 오프쇼어(Edison Chouest Offshore)와 업무 협력을 통해 기술을 공유 및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으로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기로 합의
 -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Vigor Marine Group)과 MOU를 체결하고, MRO(유지·보수·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기자재 공급과 인력 양성에도 나설 예정
- (시사점) 우리 기업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 의지를 파악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미국 조선업 진출에 적극 추진
 -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 펀드 조성을 약속하고, 미국 조선업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후원할 예정
 - 우리 기업은 정부 후원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조선소 인수 등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선박 수주와 기자재 공급 등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

자료: 백악관

□ (향후 전망) 미국 정부의 협력 의지와 한국–미국 간 협상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분야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조선업은 '25~'30년 동안 연평균 11.8% 성장하여, '30년에는 약 511억3,74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IBIS World, '25년 4월)
- (MASGA 프로젝트)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

※ 조선협력 투자 1,500억 달러 관련

-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Facilitate)
- 이는 2,000억 달러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
- 조선 협력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

자료: 산업통상부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한국은 한미 FTA 등 통상 제도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경쟁력 있는 위치를 기(既) 확보
 - '25년 기준 한국-미국 무역 규모는 2,4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은 단일국가로 미국의 6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
 - 최근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시장 접근 확대와 투자 협력 등 다종적 논의가 진행

□ 상호관세 등 무역협상

- '25년 7월 30일, 미국은 한국의 상호관세를 25% → 15%로 인하, 한국 자동차 관세도 15%로 조정,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보장키로 합의
-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연계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25년 10월 29일) 및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25년 11월 14일)
 - ① 핵심산업 재건 및 확장, ② 외환시장 안정, ③ 상업적 유대 강화, ④ 상호무역 촉진, ⑤ 경제 번영 수호, ⑥ 한·미 동맹 현대화, ⑦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⑧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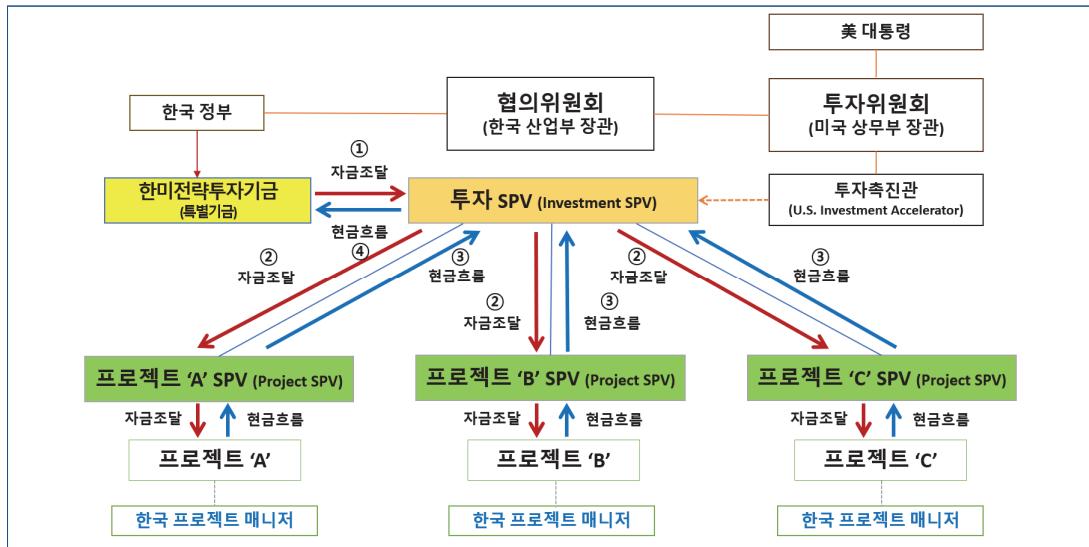
한·미 정상회담('25년 10월 29일) 통한 관세 분야 합의

구분	합의 내용
상호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유지('25년 8월 7일부터 적용 중) • 자동차 부품 : 25%에서 15%로 인하(일본, EU와 동일한 수준) • 원목 및 목재 파생상품 : 15% • 의약품 : 15% • 반도체 : 한국보다 교역량 높은 국가와의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음 •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 무관세
품목관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미부과 •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함

자료: 백악관, 대통령실

- (투자) 총 3,500억 달러로 2,000억 달러는 양국 산업부 장관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
 -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여야 하며,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
- *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2,000억 달러 투자의 자금 조달 및 현금 흐름 구조도〉



자료: 산업통상부

- (외환시장)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로 설정, 외환시장 충격 방지
- (경제 협력)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국 기업들의 총 1,500억 달러對미 직접투자 재확인,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연례 전시회 개최, 미국산 상품의 對한국 수출 촉진
- (해양)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포함 분야에서 협력
- (원자력)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 (비관세 장벽) 한국 시장 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한국 시장 비관세 장벽

구분	합의 내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미국 자동차 수입 상한 폐지 기존에 한미 FTA 따라 브랜드별로 연 5만 대까지 동등성 기준 적용
식품,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 전담 U.S. Desk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육류,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 유지
디지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포함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비차별 보장 정보의 국경 간 이전(위치, 재보험, 개인정보 등) 원활 약속 WTO(세계무역기구)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 절차적 공정성 규정 마련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노동권 보호 보장,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 협력 WTO 수산보조금 협정 충실 이행을 위해 국내 환경법 효과적 집행

자료: 백악관, 대통령실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한국-미국 간 무역·조선업 투자, 첨단산업 협력 등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협력 노력
 - (제조업·조선) 이재명 대통령,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동참 의지 표명,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한국 선박 구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 내 선박 건조 계획 논의 및 미국 조선업 부흥 강조
 - (방산)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미국산 군사 장비 주요 구매자로서, 미국이 B-2 폭격기 등 고도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부각
 - (에너지·첨단산업) 한국·일본과의 에너지 협력을 주요 사안으로 제시, 미국 최대 석유·가스·석탄 자원과 함께 알래스카를 활용한 한국·미국·일본 3국 에너지 협력 강조
 - *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미국 내 첨단 제조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노력
- 조선,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항공·LNG 분야 계약 및 MOU 4건, 우리 기업의 핵심 희소금속 對미 수출을 위한 공급망 분야 MOU 체결 등
- (한국-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한·미 정상회담(25년 8월 25일) 계기,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 광물 등 5개 분야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 체결

MOU·계약 체결 내용(총 11건)

분야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체결 내용	비고
	HD현대, KDB 삼성중공업	Cerberus Capital Vigor Marine	•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펀드 조성 • 미국 해군 지원함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MOU 계약
	대한항공	Boeing	• 보잉 항공기 103대 신규 도입(362억 달러) • 3월 구매분(50대)에 추가, 역대급 규모	계약
		GE Aerospace	•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137억 달러)	계약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X-energy, AWS	•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건설·운영 관련 협력	MOU
	두산에너빌리티	Fermi America	• 텍사스 AI캠퍼스 대형 원전 등 협력	MOU
	한국수력원자력, 삼성물산	Fermi America	• 텍사스 AI캠퍼스 원전·화력·태양광 통합 운영 협력	MOU
	한국수력원자력	Centrus	• 우라늄 농축 공장 설비 구축 지분 투자	MOU
	한국가스공사	Trafigura, Cheniere Total Energies	• '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연 330만 톤 신규 도입	계약 계약
	고려아연	Lockheed Martin	• 우라늄 농축 공장 설비 구축 지분 투자	MOU

자료: 백악관,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25년 10월 29일) 통한 항공·국방 협력

구분	기업 최신 동향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3대를 신규 구매하여 미국 전역에 최대 1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이 신형 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137억 달러 규모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별도 구매
대한민국 공군	• 대한민국 공군은 23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새로운 공중 경보 및 통제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를 선정했으며, 이 거래는 6,000개 이상의 미국인 일자리를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	• 미국의 ReElement Technologies와 POSCO International은 고부가가치 모빌리티 자석에 초점을 맞춘 미국 기반의 수직 통합 희토류 분리·정제 및 자석 생산 단지를 출범시키기 위해 협력

자료: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25년 10월 29일) 통한 한국 에너지 협력

구분	기업 최신 동향
한국가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figura, TotalEnergy 등의 판매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고, Cheniere 등 미국 LNG 생산업체와의 포트폴리오 및 오프레이크 계약을 통해 연간 약 330만 톤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인터내셔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파이오주 피케톤에 있는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용량 확장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
LS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까지 해저 케이블, 전력 장비, 권선 등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 LS전선의 미국 자회사인 LS 그린링크는 베지니아에 6억 8,100만 달러 규모의 제조 시설을 건설

자료: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25년 10월 29일) 통한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

구분	기업 최신 동향
대한민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대한민국은 미국 AI 수출, AI 표준, AI 도입, 연구 보안, 6G, 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에 중점을 두고 양자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번영 협정에 서명
아마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마존은 '31년까지 한국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의 수출 확대와 AI 분야에서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할 예정.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대통령 임기 중 APEC 14개국에 총 40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단행
NASA (미국 항공우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SA의 아르테미스 2호 임무는 아폴로 이후 처음으로 우주인을 달 주위로 데려갈 예정이며, 한국의 위성을 발사해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예정
양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나라는 이러한 광물의 채굴과 정제에 있어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중요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다각화하기로 약속

자료: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25년 10월 29일) 통한 조선해양 협력

구분	기업 최신 동향
한화오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화오션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인력을 강화하고 현재 생산 용량을 10배 이상 늘리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
HD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현대와 세르베루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자율 운항, 디지털화, 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할 예정
삼성중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중공업과 비거마린그룹은 해군 함정의 정비·수리·점검(MRO), 조선소 자동화, 미국 국적 선박의 신규 건조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

자료: 백악관

□ 기타 G2G 채널 : 상호국방조달협정(RDP,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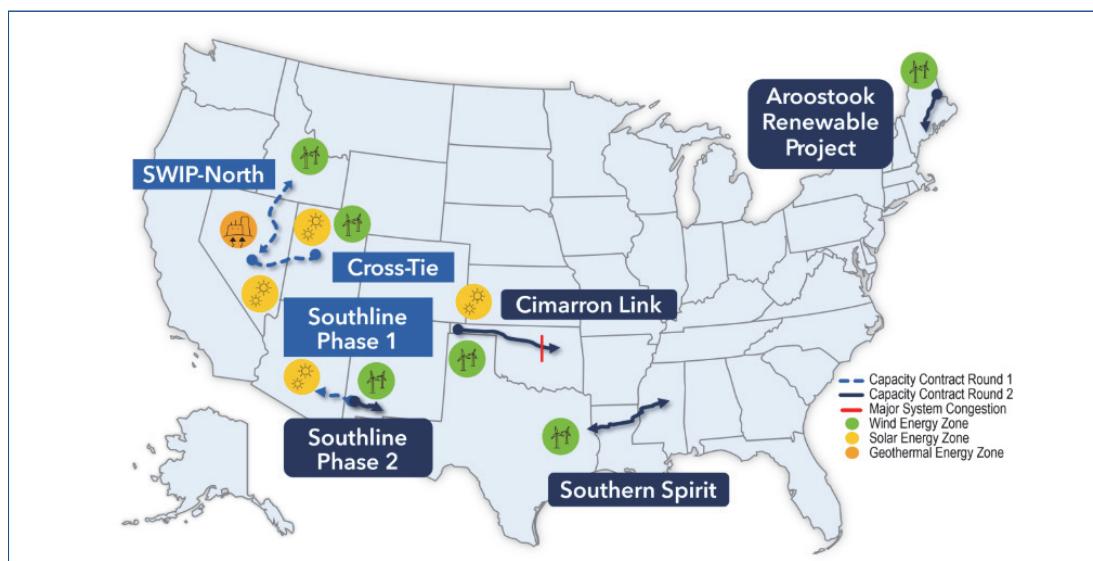
- 한국은 현재까지 미국의 RDP에 공식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은 이미 28개국과 RDP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미국 양국 협의 중
- RDP 협정 체결은 한국 방산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미국의 'Buy America' 정책에 따른 조달 제한을 완화 가능

나.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전력망, Southern Spirit Transmission 프로젝트

- 프로젝트 개요
 - 주관사 : Pattern Energy
 - 목적 : 텍사스의 고립된 전력망 ERCOT를 미국 남동부 전력망과 연결
 - 프로젝트 규모 : 320마일 길이 525kV HVDC(초고압직류송전) 전송선, 3GW 양방향 전력 전송 용량 확보
 - 프로젝트 기간 : '26년 착공, '29년 완공 예정
- 특징 및 의의
 - 연방정부 프로젝트로 미국 에너지부(DOE)의 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 1차 사업에 선정, 3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보조금 확보
 - 프로젝트 본선은 루이지애나 서부에서 종료되며, 텍사스와의 연결을 위해 Garland Power & Light가 약 40마일 길이의 345kV 송전선을 별도로 건설 예정
 - 독립된 ERCOT 전력망을 다른 지역과 연결, 전력 안정성 및 요금 안정화 기대

〈미국 에너지부 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 1차 승인 프로젝트〉



자료: DOE(미국 에너지부), 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 Selections 1st Round('24년 10월)

□ 우리 기업 협력 유망 분야

- Southern Spirit Transmission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부(DOE) 지원을 받는 연방정부 전략 인프라 사업으로, BABA(Buy America, Build America) 요건 충족이 필수적
 - 이에 따라 송전 기자재·EPC(설계·조달·시공)·ICT 기자재 납품 시 한국 기업의 단독 진출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현지 기업과의 합작·파트너십을 통한 참여가 요구됨
 - 따라서 우리 전력 공기업과 미국 주요 EPC 기업 및 기자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G2B 협력 필요



성공 사례 : 한국전력공사(KEPCO)-Burns & McDonnell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 협력

- (개요) 한국전력공사(KEPCO)는 미국 대형 엔지니어링·건설사 Burns & McDonnell과 미국 내 765kV 초고압 송전망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 (내용)
 - KEPCO는 제주 연계선, 국내 대형 송전망 건설 등 HVDC 및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
 - Burns & McDonnell은 미국 내 송전·변전소 EPC 역량, 규제·허가 절차 관련 대응 역량 보유
 - 두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을 결합하여 미국 차세대 송전 인프라 사업에 공동 대응 목적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대표적인 우리 전력 공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력하여 미국 초고압 송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KEPCO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자재 공급 및 EPC 참여 가능성 제고
 - 본 성공 사례를 모델 삼아 Southern Spirit Transmission 프로젝트 주관사인 Pattern Energy와도 협력관계 구축 필요

자료: KOTRA

□ (유망 프로젝트) 2 애비뉴 지하철(Second Avenue Subway) 연장 프로젝트

- 이스트 할렘 지역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2단계 연장 공사 착수
 - '32년 9월 개통을 목표로 맨해튼 이스트 96번가에서 125번가까지 약 2.4km 구간을 연결하며, 106·116·125번가 등 3개 역이 신설될 예정
 - * '17년 1단계 완공을 통해 Q라인을 63번가에서 96번가까지 연장하면서 어퍼 이스트 지역 주민들의 통근 시간이 단축되고, 기존 4·5·6번 지하철 노선의 혼잡 완화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해당 프로젝트는 1단계 완공 후 8년간 중단되었으나,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이사회가 2단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19억 7,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하면서 재개됨
 - 총 69억 9,0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혼잡 완화 구역(Congestion Relief Zone) 통행료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

- 완공 시 일일 이용객은 약 1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스트 할렘 지역의 교통 편의성 개선, 신설 역 주변의 상업·주거 개발 촉진,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성 제고 효과가 기대됨

〈2 애비뉴 지하철 프로젝트 지도〉



자료: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 (유망 프로젝트)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 AI 기반 혁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 '24년 북미 지역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는 총 6,350.1MW 규모로 전년 대비 두 배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수요 충족에는 부족한 상황
- 조지아주 애틀랜타는 저렴한 전력 요금, 안정적인 전력 공급, 풍부한 부지 가용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주요 IT 기업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 '24년 애틀랜타 데이터센터의 순 흡수량(Net Absorption)은 705.8MW로 전미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9배 증가한 수치임. 또한, 현재 애틀랜타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공간은 2,159.3MW 규모로 연간 총량이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CBRE)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의 최근 데이터센터 투자 동향

- AWS(Amazon Web Services,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 : AI 인프라 개발을 위해 조지아에 110억 달러 투자 계획
- Microsoft : 조지아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AI 및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데이터 건설에 '25년 회계 연도에 800억 달러 투자
- Lincoln Property : 조지아주에 소재한 DXC 데이터센터를 인수하여 30MW 규모의 코로케이션* 시설로 재개발
 - * 코로케이션(Colocation) : 데이터센터에서 기업이 자신의 서버와 기타 IT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전력, 냉각,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 KOTRA

□ 우리 기업의 협력 유망 분야

- ESG·친환경 의무 강화 : 글로벌 데이터센터 발주처는 RE100, 탄소중립 목표를 요구. 한국 기업은 태양광, 수소, 배터리, 스마트빌딩 경험을 접목해 차별화

데이터센터 건설 분야별 한국 기업 기회

분야	내용
전력·UPS·발전기·배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압 변전·배전 설비 경험 풍부. 글로벌 전력사와 JV(합작투자)·파트너십 구축 시 경쟁력 ↑
냉각 시스템/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친환경 냉각 솔루션 제공 가능
전기·통신 인프라 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SI기업과 건설사 협업해 통합 설비 시공 가능
무정전 시스템·이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건설·반도체 공장 시공에서 축적된 무정전·클린룸 이중화 설계 노하우를 데이터센터에 적용 가능
정밀 콘크리트·내진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고층빌딩·플랜트 시공 경험(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내진 기준 엄격한 일본·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
BIM·설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BIM, Digital Twin, Smart Construction 적극 도입 중. 발주처 요구 수준 부합

자료: KOTRA



성공 사례 : 한화큐셀, 마이크로소프트의 태양광 패널 공급 계약

- (개요) 한화큐셀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약을 통해 8년간 총 12GW 규모의 미국산 태양광 패널 공급 예정
- (내용) 한화큐셀 제조시설(조지아주 카터스빌)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을 '24년부터 연간 최소 1.5GW 공급
 - 미국 내 태양광 파트너십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모듈 공급 계약으로, 제품 공급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의 설계, 조달, 설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 서비스 제공 계약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미국 내 현지생산 기반 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25억 달러 규모의 첨단 제조시설을 구축해,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기업과의 계약 체결에서 우위를 확보
 -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모델)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모듈 공급업체와 직접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함과 동시에 ESG 목표 달성을 기여
 - ➔ 이는 글로벌 IT 기업이 에너지 구매자로서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와 직접 협력하는 새로운 B2B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ESG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력 가능성 제시

자료: KOTRA

□ (유망 프로젝트) I-94 연결형 자율주행차(CAV) 전용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 Connected Auto Vehicle Corridor Project

- 미시간 교통국(MDOT)과 민간 기업 Cavnue 주도, '세계 최초' CAV 전용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사업으로 앤아버-디트로이트를 잇는 39마일 구간 연결
 - 총 투입 예산 1억 달러 규모로, △ 스마트 센서, △ 통신 인프라, △ 자율주행차 전용 차선, △ 디지털 트윈 구축 등에 집중 투자
- 전체 구간은 3개 구획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시공 착수, 완공 시 자율주행차·전기차·대중교통 전용 차선 조성
 - '25년 5월 연방 환경평가 승인(FONSI, 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을 획득하여, 단계적 확장 기틀을 마련, 향후 50년간 민관 협력 방식으로 개발 운영 예정
 - * 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 '23년부터 3마일 시범 구간 운영을 시작했으며, '25년 12월까지 마무리 후전 구간 확장 예정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구간별 구분 지도〉



자료: 미시간 교통국

□ (유망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전기차 고속 충전소 설립 및 확충 지원 프로젝트

-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EC), ‘Fast Charge California Project’ 지원 발표
 - CEC는 5,500만 달러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주차장, 편의점, 주요소, 소매점, 호텔 등 공공 접근이 가능한 사업장에 전기차(EV) 고속 충전 설치 지원 프로그램인 ‘Fast Charge California Project’ 지원 발표
 - EV 충전 서비스 제공자, 공공 접근이 가능한 주차장 사업자 등 개인 사업자들의 신청이 가능하며 EV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커뮤니티 및 지역의 충전소 사업에 우선권 제공. 이미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유틸리티 설계가 완료되어 즉시 건설이 가능한 ‘Ready-to-Build’ 상태인 시설들에 신청 가능
 - 프로젝트 총 승인 비용의 최대 100%까지 인센티브 지급 또는 충전 포트당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급. 총 승인 비용에는 장비, 설치, 계획, 엔지니어링 비용 등 포함



성공 사례

- (개요) 한국 기업 채비, ‘캘리포니아 전기차 인프라 프로젝트(CALeVIP)’ 운영 및 제조 사업자 선정
- (내용)
 - ’22년부터 미국 법인 설립, CES 참가 등 미국 시장 본격 진출
 - ’23년에 캘리포니아 전기차 인프라 프로젝트의 운영 및 제조사로 선정
 - ’24년, 미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업인 Quick Charger사와 ’25년까지 3,540대 규모의 400KW 초급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급 계약 체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연방 및 주 정부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부 현안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습득
 - 현지 전기차 제조사 및 충전 서비스사와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에 맞는 초급속·급속 인프라 개발
 -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을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진출 성공을 통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현지 경쟁력 확보

자료: KOTRA

□ (유망 프로젝트) Fermi America 'HyperGrid' AI-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 **프로젝트 개요**

- HyperGrid는 텍사스 아마릴로 지역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데이터센터 단지로, 총 부지 규모는 약 5,769에이커에 달함
- 전력 설비 용량은 최대 11GW로 계획되어 있으며, 원자력·가스·태양광·배터리 저장장치가 함께 들어가고, 이 전력을 바로 옆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167만m²)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
-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에 AP1000 원자로 4기(총 4.4GW) 건설 허가 신청을 제출했으며, '26년 착공 및 '31년 가동 목표
- 장기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2.5GW 추가 설치도 검토 중이며, 글로벌 AI 기업과 장기 전력 공급 계약 추진 중

- **미국 정부의 지원 및 제도 환경**

-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규제 간소화 및 신규 원전 건설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 '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기존 100GW에서 400GW로 확대 계획 발표('25년 5월)
- 텍사스 주정부는 하원 법안 14(Relating to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Energy Industry)를 통과시켜,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텍사스 첨단 원자력 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25년 6월)

- **추진 현황**

- '25년 6월, Fermi America는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에 원전 건설·운영 통합허가(COL)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사 절차 개시됨
- '25년 8월, 약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금융 조달을 완료했고, 이어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서 추가 자금 유치에도 성공
- 원자로 설계·시공 분야에서는 현대 E&C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고 있고, 기술 라이선싱은 웨스팅하우스가 맡아 협력 중



성공 사례

- (개요)
 - '25년 7월, 현대 E&C는 Fermi America와 HyperGrid 원전 부문 기획 및 EPC 검토 협력 MOU 체결
 - '25년 8월, 두산에너빌리티는 Fermi America와 대형 원전 및 SMR 기자재 협력 MOU 체결
- (내용)
 - HyperGrid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11GW급 전력·AI 데이터센터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민간 주도 사업으로, 원전 건설·송배전·데이터센터 인프라가 통합된 구조
 - 한국 기업은 원전 핵심 장비와 전력 인프라 기술을 바탕으로 초기 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HyperGrid는 에너지·데이터 인프라 동시 구축 모델로,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차세대 에너지·데이터 인프라 프로젝트에 전략적 파트너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 원전 관련 규제 대응(NRC 인증 등)과 현지 인센티브(JETI 세제 혜택, DOE 보증 프로그램 등) 활용 필요
 - 대형 원전 EPC의 비용·시간상 리스크를 고려할 때 EPC 단독 수주보다는 기자재·전력 인프라·데이터 센터 솔루션 중심으로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분할 참여하는 방식이 현실적

자료: KOTRA

□ (유망 프로젝트)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더 나은 투자를 통한 개발 촉진(BUILD, Better Utilizing Investments to Leverage Development)’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 '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총 4억 8,8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전국 30개 프로젝트에 BUILD 보조금을 지원
 - (목적) 도로 안전 개선, 교통 혼잡 완화, 인프라 현대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 (구성) BUILD 프로그램은 100억 달러 이상을 요청한 800건 이상의 프로젝트 중 경쟁력 있는 30개의 프로젝트 선정, 도시와 농촌 지역에 자금 균등 배분
 - (계획) 배정된 자금의 약 77%는 도로와 교량 확충 및 개선에 투입되고, 약 10%는 통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예정
 - (기타) 수로 관련 프로젝트에 항만 현대화를 위한 3,500만 달러 지원, 철도망 및 다양한 지상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약 300만 달러가 배정

'25년 BUILD Grant 선정 프로젝트 내용 및 예상 지원액

(단위: 백만 달러)

연번	프로젝트 이름	위치	프로젝트 내용	주요 프로젝트 유형		지원액
				프로젝트	유형	
1	운영·유지 시설 건립	앨라배마	버밍햄-제퍼슨 카운티 교통국(Birmingham-Jefferson County Transit Authority, BJCTA) 대중교통 차량 운영·정비 시설 신축			75
2	부두 재건 설계 프로젝트	알래스카	포티지 코브 부두 재건 설계 및 주차·보행 연결성 분석		해운·항만	2.82
3	포트 매켄지 바지선 경사로 건설	알래스카	포트 매켄지에 약 6만ft ² 규모의 바지선 경사로 건설		해운·항만	12.14
4	스프링데일 북부 우회도로 (최종 단계)	아칸소	스프링데일 북부 우회도로 6.63마일 4차선 확장	도로		326.22
5	SR-65~I-80 이동성·안전성 개선	캘리포니아	SR-65 구간 1.4마일 제3차로, 0.8마일 보조 차로 확장	도로		28.1
6	파오니아 안전 보행로 프로젝트	콜로라도	파오니아 5번가~그랜드 애비뉴 교차로 재건 및 보행 안전 설비 설치	도로		2.93
7	오코이-아포프카 도로 개선	플로리다	오코이-아포프카 도로(CR 437A) 2차선 → 4차선으로 확장 및 스마트 조명 설치	도로		21.7
8	올드 앨라배마 도로 교량 교체	조지아	존스크리크·캐터후치 강 지류 교량 교체	도로		20
9	보이시 벤치 접근성 개선	아이다호	보이시 벤치 지역 ADA 보행·자전거 인프라 개선	도로		23.05
10	I-380 흥수 회복력·다중 교통 개선	아이오와	I-380~유니언 퍼시픽 철도 흥수방지·다중 교통 인프라 구축	도로		43.1
11	버턴 카운티 대중교통 접근성 계획	캔자스	버턴·라이스·엘스워스 카운티 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	대중교통		0.24
12	워싱턴 카운티 버스 시설 확충	메릴랜드	헤이거즈타운 신규 버스 운영·정비 시설 설계	대중교통		2.83
13	US 49·MS 13 교차로 개선	미시시피	미시시피 주 심프슨 카운티 내 US 49와 MS 13 교차 교량 교체, 라운드어 바웃 신설, MS 13 도로 하향 공사	도로		21.34
14	US 54 공유 차로 확장	미주리	심프슨 카운티 교차 교량 교체 및 라운드어바웃 신설	도로		26.39
15	브록웨이-서부 도로 재건	몬태나	US 54 약 14마일 2차선 → 4차선으로 확장 및 MO 154 교차로 개선	도로		26.44
16	존 브랜틀리 대로 확장	노스캐롤라이나	몬태나 고속도로 200번 7마일 재건 및 안전 설비 설치	항공		166.57
17	MAGIC(미노트 다중연계 도로, Minot's Accessible, Growth-driving Intermodal Connector)	노스다코타	룰리-더럼 국제공항 전면 도로 2차선 → 4차선으로 확장	도로		4.05

연번	프로젝트 이름	위치	프로젝트 내용	주요 프로젝트 유형		지원액
				도로	철도	
18	앨럼 크릭 드라이브 확장	오하이오	Ward 카운티 미노트 지역 연결도로 설계·환경 평가	도로	61.72	
19	클리블랜드 다중 교통 허브 구상	오하이오	앨럼 크릭 드라이브 2.6마일 3차로 확장 및 교량 교체	철도	1.2	
20	호차타운 보행 안전 개선	오클라호마	클리블랜드 도심 항만·철도 연계 교통 허브 설계	도로	66.26	
21	브리스톨 항만 재개발	펜실베이니아	초크토우 네이션 내 6.25마일 도로 확장·보행 인프라 신설	해운·항만	64.8	
22	US 78 확장 3A 단계	사우스캐롤라이나	브리스톨 항만 신규 도크 건설·철도 연계	도로	81.86	
23	US 85 벨 푸르슈 교량 교체	사우스다코타	US 78 도로 5차선 확장 및 보행·자전거 도로 설치	도로	22.01	
24	미들 테네시 연결성 강화	테네시	벨 푸르슈 강 교량 교체 및 보행로 추가	도로	64.93	
25	위누스키 강 교량 교체	버몬트	SR-265, I-40 신규 교차로 및 도로 재정렬	도로	76.96	
26	스노호미시 철도 야드 개선	워싱턴	위누스키 강 교량 교체 및 보행로 설치	철도	2.5	
27	웨스트버지니아 트럭 주차 확충	웨스트버지니아	스노호미시 카운티 에버렛 철도 야드 신규 선로 설계	도로	35.55	
28	퍼플라인 대중교통 개선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고속도로국(WVDOH, West Virginia Division of Highways) 3개 시설 대중교통 트럭 주차 확충	도로	21.01	
29	베어투스 고속도로 4구간 설계	와이오밍	퍼플라인 버스 정류장 개선·신호 우선권 설치	도로	10	
30	오차드 벤치 도로 재건	와이오밍	베어투스 고속도로 12.5마일 설계	도로	4.53	

자료: KOTRA 카고무역관 종합,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다. 공급망(자원 개발)

□ 트럼프 행정부, 핵심광물·전략소재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내재화 정책 본격화

- 미국은 국가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전략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확대와 동맹국 조달 강화를 병행하는 공급망 내재화 기조 추진
 - 공급망 전략을 경제안보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對중 의존도 축소, △역내·동맹국 기반 생산 확대, △전략물자 비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방생산법(DP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무역확장법(232조) 등 적극 활용
 - △첨단산업(반도체·배터리·AI), △에너지, △철강·알루미늄, △희토류·리튬 등 주요 산업군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세액공제·수출통제·관세 체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주력

□ 유망 산업별 공급망 내재화 정책 기조 및 추진 동향

- (반도체) 對중 수출통제 강화 및 반도체법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중국 내 생산·장비 접근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국내 제조·패키징 생태계 자립화
 - * 미국은 '24년 반도체 수입 비중이 수출보다 2,000억 달러 이상 많은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며, 전체 수입의 약 80%가 중국(25% 이상), 대만(약 20%) 등 5개국에 집중
 - 미국 상무부는 중국 내 주요 파운드리·메모리 공장의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 철회 등 수출통제 강화로 對중 생산능력 확대 및 첨단 장비 제한
 - 미국 상무부와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첨단 패키징 프로그램(NAPMP)에 14억 달러를 배정하고, 추가 공고를 통해 자국 내 고용량 패키징 생태계의 조기 구축 본격 추진
-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관세율 상향과 적용 품목 확대, △ 불공정 수입 차단, △ 전략소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 △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도모
 - 트럼프 행정부는 '25년 2월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관세 재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일괄 50%로 상향 조정하고, 8월에는 함유 제품까지 과세 범위 확대
 - * 미국은 철강의 약 25%, 알루미늄의 약 50%를 수입에 의존, 주요 공급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 반가공 구리 및 일부 파생제품(정련 구리 제외)에 50% 관세를 부과하여, 전략산업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25년 8월)
 - * 미국은 구리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 주요 공급국은 멕시코(22%), 중국(17%), 캐나다(14%) 등
- (자동차·부품) 연 6,400억 달러 규모의 최대 수입 의존 부문을 대상으로 232조 관세(25%) 부과 및 국가별 차등 세율을 통해 역내 조달 확대와 공급망 재편 추진
 - * 미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은 아시아·유럽 주요국에 집중되어 공급망 취약성 상존
 - 자동차·부품은 미국 제조업 공급망 내 최대 수입 의존 부문으로, 행정부는 부품 단가의 일정 비율(차량 가격의 3.75% → 2.5%) 환급을 허용하여 국내 조립공장 활용을 유도하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요건 충족 시 면세 적용
- (에너지) 연방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종료를 통해 정책 기조를 '보급 확대 중심'에서 '안보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전환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략 부문으로 지정하고, 232조 조사 및 반덤핑·상계관세를 활용하여 저가 수입 차단과 국내 제조 역량 확대 추진
 - 미국은 태양광 웨이퍼·셀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국내 셀 생산능력은 설치 규모의 24%에 불과 하며, 풍력 부품은 가치 기준 2/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구조적 공급망 취약성 지속
- (바이오·의약품) 의약품·원료의약품(API)을 전략 핵심 품목으로 지정, 232조 조사 및 국가별 차등 관세를 통해 수입 의존도 축소와 국내 생산 확대 추진

-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 80%, 오리지널 의약품의 50%, 원료 의약품의 88%를 해외에 의존, **對중국·對인도 편중 구조가 주요 리스크로 작용**
 - * 주요 공급국으로 아일랜드(가치 기준), 중국(수입량 44%), 인도(API 32%), EU(20%) 등 포함
- (핵심광물) 232조 관세와 IRA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리튬·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채굴·정련·재활용 전 과정을 국내 및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 추진
 - 미국은 50대 핵심광물 중 12종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28종은 국내 수요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등 구조적 공급망 취약성 상존
 - 주요 공급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16%, 백금·로듐·팔라듐), 캐나다(15%, 우라늄·아연)로, 중국의 전체 비중은 6%에 불과하나 희토류(70%), 비소·안티몬·탄탈륨(50%), 갈륨(글로벌 생산의 90%) 등 특정 품목에서 절대적 영향력 보유
 - 중국의 특정 품목 독점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공급 차질 리스크로 작용, 인허가 지연·환경 규제·인프라 부족도 공급망 자립 지연의 요인

미국 주요 공급망 프로젝트 현황('25년 8월 기준)

분야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반도체	Intel Ohio One (오하이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법(CHIPS Act) 기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 미국 내 제조·패키징·부품 공급망 자립화 촉진
배터리	BlueOval SK Battery Park (켄터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셀 공장 가동 개시, 총 80GWh+ 규모 확장 • 북미 역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통합 체계 구축
태양광	First Solar Ohio Expansion (오하이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모듈 미국 생산라인 증설(연산 14GW 목표) • 중국산 셀·웨이퍼 의존도 완화 및 국산화 기반 확보
원전	Centrus HALEU Demonstration Project(오하이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농축 저준위 우라늄(HALEU) 시범 생산 추진 • 차세대 원자로(AMR·SMR) 핵연료 국내 조달 기반 구축
핵심광물	MP Materials-DoD Rare Earth Supply Chain Project (네바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 채굴·정제·자석 생산 등 전주기 내재화 • 국방생산법(DPA) 기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바이오·의약품	Civica Rx 제네릭 허브 구축 (버지니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네릭 인슐린 등 대량 생산 허브 구축·가동 확대 •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및 해외 의존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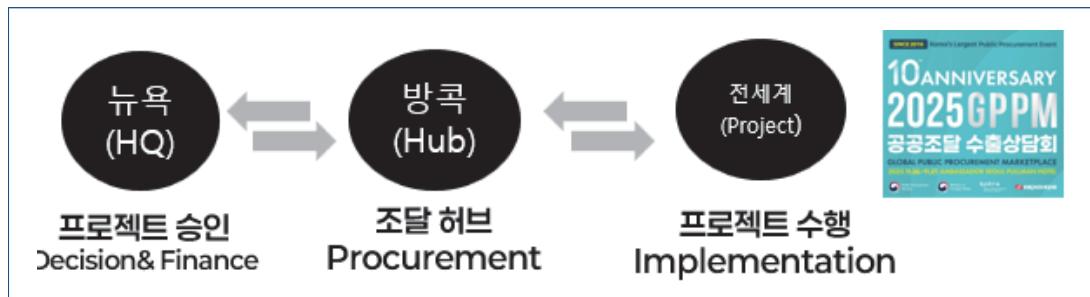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및 현지 언론 보도 종합

라. 기타

□ 미국 소재 국제기구의 글로벌 조달 수요 발굴 및 납품 협업

- 글로벌 개발정책 및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워싱턴, 뉴욕 소재 국제기구(WB(세계은행), UNDP(유엔 개발계획) 등) 협업, 국제 조달 수요 발굴
 - WB :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포럼 개최('25년 10월) 및 MDB 플라자에 기금 및 조달 담당자 초청, 우리 기업 대상 정보·상담기회 제공
 - UNDP : 방콕사무소에서 글로벌 조달(Procurement) 총괄, 뉴욕본부는 재원 등 정책 총괄, 전 세계 구호지역 현장에 필요한 일반 물자 조달 협력

〈국제기구(UNDP) 조달 프로세스〉



자료: KOTRA

- IDB(미주개발은행) : 중남지역 주요 국가 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 진출기회로 연결

□ 자동차 산업 경량화 첨단소재, 폴리아세탈(POM) 공급망 협력 기회 존재

-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지 제조 확대에 따라 경량화 부품 원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POM은 환경 규제로 현지 생산 확대 제약
 - 자동차 한 대당 플라스틱·복합 소재 사용량은 '23년 426lb로 10년 전보다 18% 증가(미국화학 위원회(ACC), '23년 4월)
 - 에너지부(DOE)는 IACM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량 복합 소재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지속 지원 ('23년 4월)
 - * IACMI(Institute for Advanced Composites Manufacturing Innovation, 첨단 복합재료 제조 혁신 연구소)
 - 미국 일부 생산 거점이 존재하지만, 환경과 안전 규제*로 자급률이 낮아 수입 물량에 의존하는 상황
 - * 제조·가공 과정에서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 연방법상 유해대기오염물질(HAP) 규제 대상, 설비 인허가와 증설에 제약

- 한국기업은 유해가스 처리 기술과 제조 안정성 기반, 미국 POM 수입시장에서 주요 공급원 지위 확보
 - '24년 미국의 POM 수입액은 9,880만 달러(전년 대비 +3.2%)를 기록했으며, '25년 6월까지 누적 4,210만 달러
 - 이 중 對한 수입액은 1,640만 달러로 한국은 전체 수입시장의 39%를 차지하며 1위 수입국 차지
 -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확대로 금속 대체재로서, 미국 공급망의 구조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소재

미국의 폴리아세탈(POM)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4년/'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누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누계	
1	대한민국	40.9	41.1	16.4	51.2	42.7	39.0	0.4
2	독일	21.0	21.6	8.4	17.4	22.0	19.9	2.4
3	영국	0.2	4.8	4.7	0.0	0.2	11.2	2272.3
4	말레이시아	8.4	10.1	4.2	9.7	8.8	10.0	20.0
5	태국	4.2	6.5	2.0	4.7	4.4	4.8	52.0
6	일본	7.0	6.4	2.0	4.2	7.3	4.8	-8.8
7	네덜란드	3.6	3.2	1.8	1.8	3.7	4.4	-11.6
8	멕시코	1.9	1.6	0.9	1.7	1.9	2.1	-16.2
9	대만	1.4	1.2	0.6	1.8	1.4	1.4	-14.4
10	이스라엘	0.3	0.1	0.3	0.6	0.3	0.6	-74.2
전체		95.8	98.8	42.1	100.0	100.0	100.0	3.2

주: HS Code 3907.10 기준, 국가 순위는 '25년 6월까지 수입액 기준

자료: U.S. Census Bureau('25년 8월)

□ 리튬

- 미국의 리튬 매장량 1,900만 톤 추정
 - 미국 지질조사국인 USGS(US Geological Survey)의 '24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리튬 자원은 대륙 염수, 점토석, 지역 염수, 헥토라이트, 유전 염수, 페그마타이트 등에서 추출하며 총 1,900만 톤으로 추정
 - * '24년도 전 세계 리튬 자원은 약 1억 1,500만 톤으로 추정
 - 미국의 리튬 수입 규모는 '24년 기준, 약 3,300메트릭 톤으로 예측, 수입국은 칠레 50%, 아르헨티나 47%, 기타 국가가 3% 차지
 - 미국 정부는 '24년도에 25개의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총 30억 달러 자금 지원 발표. 인프라 법안의 일환으로 리튬 및 기타 핵심광물의 추출·가공, 핵심 배터리 부품 제조, 배터리 재활용, 차세대 배터리 제조 지원, 미국 리튬 매장량 증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 등에 지원
- 캘리포니아 솔턴호 리튬 매장량 1,800만 톤으로 약 5,400억 달러 규모
 -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 밸리(Imperial Valley) 지역에 위치한 솔턴호(Salton Se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지 중 하나로 지열 염수에 약 1,800만 톤의 리튬 함유된 것으로 추정
 - EnergySource Mineral, Berkshire Hathaway Energy Renewables, Controlled Thermal Resources 3개사가 솔턴호 리튬 개발 추진 중
 - 솔턴호 리튬 개발 추진 프로젝트 중 하나인 'Hell's Kitchen' 프로젝트는 Controlled Thermal Resources에서 1차 승인 획득, 약 3,400킬로톤 이상의 리튬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이는 약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양으로 Controlled Thermal Resources는 '26년 말부터 지열 에너지 생산과 함께 리튬 채굴 시작 계획
 - 미국 에너지부는 솔턴호 지역의 리튬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솔턴호 지역을 '리튬 밸리(Lithium Valley)'로 육성 계획
 -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GM)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는 솔턴호 리튬 구매 계약 체결 (스텔란티스 '23년, GM '22년)했으며 향후 솔턴호 지역에서 생산된 리튬 공급망 안정화에 기대 상승

□ 對중 반도체 견제 정책 확대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

- 반도체 분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요구 강화
 - 미국은 첨단장비 수출 통제, AI 반도체 기술·제조장비 반출 제한, 국가별 관세 협상에 기반한 미국 내 투자 확대로 중국 반도체 자급 능력 억제 중
 - 미국 내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백, 중국 시장점유율 축소에 따른 매출 타격 및 공급망 단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증대



실패 사례

- (개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 정책 확대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타격 불가피
 - 동맹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통한 우회 공급망 차단 목적으로 무심사 장비 반입(VEU, Validated End User)) 중단
 - 중국 내 제조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생산시설 증설 및 최신 장비 반입 제한 부과
- (내용)
 - '25년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적용하던 무심사 장비 반입(VEU) 혜택 철회
 - NAND 플래시, DRAM 생산을 위한 신규 라인 증설 및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반입 시 개별 승인 필요
 -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고도화 중단 및 글로벌 공급망 전면 재조정 압박 증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무역·비관세 장벽을 통한 미국 공급망 편입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프랜즈쇼어링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전략 필요
 - 또한 비메모리·첨단 AI 반도체로의 전환, 미국·한국·동남아 등 타 지역으로의 생산 거점 다변화 및 R&D 내재화 검토 필요

자료: KOTRA

-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기존의 중국 관련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내 자회사나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들도 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
 - 기존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의 50% 이상 자회사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 도입하여, 기술 우회수출 방지
- 중국 내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Validated End-User) 프로그램 면제 철폐
 - VEU 제도는 일부 외국 반도체 제조시설이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중국 내에서 라이선스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25년 8월 29일 발표에서 과거 이 제도에 속했던 기업들도 모두 개별적인 수출 라이선스를 신청도록 변경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146 |
| 2. 진출전략 | 148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중간선거('26년) 등 정치 이벤트에 따른 통상·환경·이민 정책 방향성 변동
- 경제 안보 기조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강화
- IRA(전기차·재생에너지 세액공제), CHIPS Act(반도체 투자 보조금) 등 산업 지원 정책 변동성 증대에 따른 의회, 행정부 대상 로비 증가
- USMCA 2026 개정 시기 도래 및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로 역내화 압박 강화
- 뉴욕 시장 및 베지니아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 선거 등 전국선거에서 민주당 약진



경제(Economic)

- GDP : 1.4~2.0% 성장 전망('25년), 2% 초반 전망('26년)
- 물가 : 더딘 물가 하락
- 금리 : 연준(Fed) 금리 인하 3.75~4.00%
- 고용 : 팬데믹 이후 과열된 노동시장이 완만히 둔화
- 무역수지 : 적자 지속
- 재정 적자 : 국가부채와 이자 부담 증가, 정부 지출 조정 압력 상승
- 상호관세 :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
- 품목관세 : 철강·자동차 부품 관세로 가격 경쟁 격화, 반도체·의약품 수요 구조적 증가



사회문화(Social)

- 고령화·헬스케어 지출 증가
- ESG·윤리 요구 강화, 가격 민감 소비자 확대, K-컬처로 프리미엄 시장 창출
- 소비 트렌드 변화 : 가성비(저가형)와 프리미엄 양극화
- 온라인·구독 서비스 소비 확대
- 친환경·ESG 중시 : RE100, 탄소중립, 윤리적 소비 등 ESG 기반 구매 기준 강화
- 다문화 사회 : 히스패닉·아시아계 인구 증가 → 새로운 소비시장 형성
- 고령화 & 건강 관심 : 고령층 소비 증가, 헬스케어·바이오 수요 확대
- 사회적 갈등 : 정치적 양극화, 인종·이민 갈등



기술(Technological)

- 첨단기술 투자 :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바이오테크 등 세계 선도
- 디지털 전환 가속 : 전자상거래·핀테크·메타버스·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 AI 투자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수요 확대
- R&D 생태계 : 실리콘밸리·보스턴·텍사스 등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보유
- 사이버 보안·데이터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CPA 등), AI 규제 논의 확산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이차전지·조선·원전 초격차 기술력 • K-컬처 확산, 프리미엄 이미지 • 한-미 FTA 및 글로벌 생산·수출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생산·조립 인프라 부족 • 미국 내 유통망·브랜딩 역량 부족 • 규제·ESG 대응 인력 취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수입 대체 수요 • 对미 투자펀드 활용, 우리 기업 진출 도모 • 디지털, AI 활용 공정 자동화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 예고 품목 확대 • 대만·일본·EU 등 주요 기업과 경쟁 심화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반도체·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 산업 정책 연계
- 한류·프리미엄 이미지 활용한 현지 브랜딩 강화
- 미국 공급망 재편 → 아시아 구매 오피스 수요 발굴

관세 위기 품목
애로 해소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첨단기술 우위, 고부가 품목 위주 품목 대체
- 对미 투자펀드 활용, 우리 기업 진출 모색
- 한미 FTA 등 통상 협력채널 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요 대응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인프라 부족 → 미국 주정부 협력 강화
- 마케팅 역량 부족 → K-컬처 브랜딩
- 중국 의존도 축소 → 수입 대체 수요 발굴

제조업 부흥 정책
활용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해외 진출공장發 수출로 구조 전환
- ESG·규제 대응 역량 제고
- 자동화 설비 등 현지 진출 방식 고도화

첨단 디지털 혁신
산업 협력

한류 열풍 활용
브랜딩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관세 품목 수출 애로

글로벌 기업 공급망 재편, 글로벌하게 대응

현지 진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제조업 부흥과 손잡기

디지털 혁신 산업 협력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마케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 현지화 및 고부가가치화, 고객과 지속적 신뢰 관계 구축
- CBP 사전심사 및 관세 대응 컨설팅 활용, 리스크 축소

- 아시아 구매오피스, 중국 → 동남아로 이전·확대됨에 따라 중국 제품 수입 대체 수요 대응
- 한국발 수출 외 해외 공장 생산 → 수출시장 다각화 및 미국향 수출 동시 도모

- 생산지와 시장 근접 필요 → 미국 주정부, 경제개발청 투자 진출 협력 아웃리치 강화 및 미국 국내 이슈 활용 접근
- 对미 투자펀드, 우리 기업 진출 기회로 활용

- 제조업 부흥 정책 추진에 따른 기계 등 수요증가 대응
-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 협력체계 구축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대응 및 첨단산업 인력·투자·협력
-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솔루션 통한 바이어 쉽게 찾기

- 한류 활용, 식품·제품 등 라이프스타일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 유통망 공동 진출 통한 인증, 물류, 브랜드, 마케팅 동시 해결

전략-유망 산업-유망 품목

주요 이슈	산업	현지 동향	유망 품목
① 관세	자동차·부품	고율 관세, USMCA RVC 강화, 북미 공급망 재편 가속 및 경량화 수요	알루미늄 구조 부품, 정밀 가공 부품, 자율주행 전자부품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파생상품 대상 추가 접수 중	
②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공구류	탈(脫)중국 공급망, 아시아 소싱 확대	지붕재, 제빙기
	부품소재		소재부품 전반
③ 현지 진출	자동차·부품	OEM 현지화 요구	알루미늄 휠, ECU·V2X 모듈
	제약·바이오	빅파마 M&A 확대, 현지 R&D·제조 투자 확대	플랫폼 기술
④ 제조업 부흥	반도체	EV·AI 데이터센터 고전압화, GaN 위성·방산 확산	세라믹 기판, 고온 MLCC·인덕터
		200mm SiC 전환, 결함·수율 리스크 병존	200mm SiC 웨이퍼, 후방공정 장비·소재
⑤ 디지털 혁신	기계	EV·데이터센터 수요 기반 금속가공 설비 주문 급증	기계식 프레스
	조선	MASGA 협력	기자재, MRO, 인력 양성
	에너지·전력	Buy America·현지 조달 요건 강화	배터리셀·소재, 변압기, 배전반, 전력 케이블
⑥ 한류	AI·IT	생성형 AI 확산, 데이터센터 투자 급증 B2B·B2C 솔루션 발달, 디지털 마케팅 수요 증가	GPU·AI칩·서버, 산업별 AI SW 디지털 플랫폼·솔루션 활용
	반도체	빅데크 기술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첨단산업 인재 및 투자 유치	드론제어 등, 탈중국 공급망 수요 반도체 등
⑦ 혁신	소비재·한류	한류 → 라이프스타일 확산 De Minimis 폐지, 통관·물류 변화	K-뷰티, K-푸드, 굿즈, 건강 간식
		체중관리·웰니스 소비 증가	프리미엄 건강식, 말차 음료, 전통문화 굿즈

자료: KOTRA

전략 ①

관세부과 위기 품목,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및 사전컨설팅



전략 수립 배경

- 특정 품목(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관세 예고) 수출 애로 확대
-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 USMCA RVC 강화,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 가속

□ 현지 동향

- (애프터마켓 시장 확대) 통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차 가격 상승 압력과 차량 평균 수명 연장 추세가 결합되어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 상승세 견인
 - '24년 약 2,600억 달러 규모로 '32년까지 3,4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GMI Research, '25년 3월)
- (하이브리드·저가형 EV(전기차) 병행 전략) 비용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 직면, 완성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와 보급형 EV 중심의 이중 전략을 강화
 - 하이브리드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전함과 동시에, EV 세액공제 소멸과 판매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가형 EV 모델 개발 박차
- (SDV 전환 기점) △ OEM 수익 구조 다변화, △ 규제 완화, △ AI 기술 진보

□ 유망 품목

- (경량화 및 구조 부품) ICE 연비 및 EV 주행거리 개선을 위한 차량 경량화 요구에 따라 알루미늄 기반 구조 부품 수요 확대
 - 차체, 샐시, 브라켓류 등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은 내구성과 경량 특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EV와 내연기관차 모두에서 적용 확대
 - 서브프레임, 크로스멤버 등 구조용 알루미늄 부품은 충돌 안전성과 강성 확보를 동시에 충족하는 고부가가치 품목, EV·SUV 등 중대형 차량 중심 증가
 - 알루미늄 휠은 경량화와 디자인 차별성이 결합된 품목으로, EV의 주행 효율 개선과 브랜드 차별화 요소로 활용 확대
- (정밀 가공 부품) 자동차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에 따른 AS 부품 수요 확대
 - 통상 규제에 따른 신차 구매 수요 위축으로 북미 중고차 시장 확대, 애프터마켓 중심으로 안정세 지속 전망
 - 오일·워터 펌프, 실린더 헤드 등 내연기관차 유지·보수 수요에 기반한 지속적 수요 확보
 - 고정밀 가공 기술이 요구되어 한국 기업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 (전자·자율주행 부품) 자율주행·스마트 인프라 확산에 따른 미래차 핵심 성장 분야
 - 카메라 모듈, 라이다(LiDAR),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은 SAE(미국자동차기술학회) L2+~L3* 단계 확산에 따라 수요 확대
 - * SAE L2+~L3 : 부분 자율주행(운전자 보조 수준)에서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까지를 의미
 - 차량 간 통신(V2X), ECU(Electronic Control Unit), 5G 기반 통신 칩셋 등은 스마트시티·자율주행 인프라와 연계되어 중장기 성장 잠재력 보유
 - 센서 융합(Fusion) 및 소프트웨어 연계 기술 역량이 시장 진입 차별화의 핵심
- (폐차(ELV) 재활용 기술) 통상 불확실성, 차량 고부가가치 증대로 ELV 틈새시장 공략
 -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재활용 자원 수요 상승할 것으로 전망(Resource-Recycling, '25년 2월)
 - 또한, SDV 확산으로 전자부품, PCB 모듈까지 회수 범위 확대 예상, 고효율 해체·선별 기술 등으로 고부가가치 부품 재활용 선점 통한 차별화 전략 전개

□ 진출전략

- (기술 경쟁력 및 제안 역량 강화) OEM은 단순 납품사가 아닌 문제 해결 파트너를 요구하며, 가격 경쟁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술력·품질·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기술 제안(Value Engineering) 역량 확보가 중요
 - 설계 단계부터 공동 개발 참여와 기술 제안을 통해 비용 절감과 성능 개선을 동시에 제시하는 전략 필요
 - 가격이나 과거 거래 실적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기술로 귀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적극적 솔루션 마케팅(Solutions Marketing)이 경쟁 우위 확보의 핵심
- (고객 유지) 가격 인상 및 관세 전가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 일부 감소하더라도, 바이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상대적 경쟁환경 변화 모니터링 지속
 - 완성차·철강 분야, 부품 및 파생상품 고객 이탈 시 영업이익 손해는 물론 매출도 감소,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기반 상실
- (사전 컨설팅)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50% 품목관세 부과 중인 품목을 25% 관세율인 자동차 부품으로 품목 분류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

-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컨설팅 사례

자동차 부품으로 HS Code 변경 가능 여부 법률 검토

Q. 현재 수출품목 HS Code : 7318.16(너트), 7318.22(와셔), 7326.90(기타) 등 HS Code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50% 관세 부과 대상. 동 HS Code를 자동차 부품(Chapter 87)으로 재분류 가능 여부

A. 7318.16(너트) 및 7318.22(와셔)에 해당하는 품목을 HTSUS 제87장(철도·전차용 차량 이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7326.90(기타)로 분류된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제87장 '부분품' 또는 '부분품 및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존재

자료: KOTRA

-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전용 지원 프로그램(<https://www.kotra.or.kr/subList/41000065001>)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전용지원 프로그램

- 미국 현지 변호사·관세사 1:1 온라인 상담
 - (지원 사항) 통관절차, 서류 작성법, 검증 대응, 원산지 판정 등
- 미국 현지 전문가 상시 컨설팅 지원
 - (지원 사항) 해상법, 현지 통관절차 안내, 통관 서류 작성, 원산지 판정 등
- 미국 관세 대응 119 헬프데스크
 -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를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KOTRA 현지 전담 직원, 로펌 및 회계법인 활용, 관세·노무 등 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 미국 경제통상협력데스크
 - 통상전문 로펌 및 회계법인 활용, 관세정책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세미나 개최 등對미 아웃리치 협력 지원

자료: KOTRA

성공 사례로 보는 진출전략 : 트랜스미션 부품 제조 기업 A사, 8년간의 오랜 공들임 끝에 북미 모빌리티 시장 진입

- 제품의 비교우위 : 고농도 침탄 열처리 기술 개발로, 트랜스미션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고하중과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필수 인증 : IATF 16949
- 성약 소요기간 : 성약은 바이어와 첫 미팅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8년간의 북미 시장 개척 노력과 지속적 교류의 결실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은 다년간 북미 자동차 부품 바이어를 꾸준히 발굴·관리해왔으며, 이러한 네트워킹의 성과로 기존 고객사 측에서 '한국 협력사의 날' 개최를 제안.
 - 동 행사에 국내 기업 A사가 참가하였고, 이를 통해 관심을 보인 바이어와 미팅 주선 성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북미 자동차 부품 업계는 긴 호흡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입지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
 - * 본 사례의 국내 기업은 디트로이트무역관 지사화 8년차 기업으로, 무역관 개최 상담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무역관 담당자와 북미 자동차 부품 시장 문을 두드린 끝에 Tier-1과 초도 물량 계약 통한 첫 진입 성공
 - 바이어 상담 시, 국내 기업은 단순 제품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지 엔지니어 및 구매 담당자와 심도 있는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사 신뢰도를 측면해야 함
 - * 국내 기업은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고객사 제품 도면 수정 단계까지 기술적 제언으로 관여, 설계 개선을 주도하며 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입증

자료: KOTRA



성공 사례로 보는 미국 진출전략 : 전기차 부품 제조 기업 A사(현지 B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기어박스, 모터·감속기 케이스 등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 필수 인증
 - 글로벌 자동차 QMS(IATF 16949 등) 보유.
 - '16년 B사 협력사 등록 후, 통상 12~15개월 소요되는 개발을 약 4개월(양산 준비 122일)로 단축
- 성약 소요기간 : 협력사 등록 후 약 3~4년에 만에 모델 3과 Y 기어박스 수주
- 바이어 발굴경로 :
 - 협력사 등록 이후 품질·납기 대응과 개발기간 단축을 통해 수주로 연결.
 - 정부의 사업 재편·R&D 지원 전환·상용화에 기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미래차 전환기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한 것이 성공의 단초를 제공
 - 품질·속도를 겸비한 기술력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의 관건

자료: KOTRA

미국 관세 대응 헬프데스크 상담 유형

카테고리	비중	주요 내용	컨설팅 세부 내용
수출 거래 구조	20.7%	Incoterms·무역 거래 구조 등 수출입 거래 설계와 관련된 전략 및 실무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DDP vs FOB 거래 구조 비교 및 수입자 책임 FirstSaleRule 적용 가능 여부 및 실무 리스크 Relatedcompany로 수입할 경우 리스크·장단점 Deminimis 종료 후 B2C 수출구조 변경 시 고려사항 미국지사와 본사 간 거래 시 서류 준비사항 거래가격 정의 및 산정 방식(특수관계자 거래 포함) Incoterms 변경 시 구조상 고려 요소
관세 절감 전략	29.3%	품목분류·FTA·IEEPA·Section 232 등 관련한 관세 부담 최소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assification 변경 가능성 검토 Section232 철강·알루미늄 적용 여부 Section232 정책 동향 및 적용 변화 안내 IEEPA 관세 적용 여부 Substantial Transformation 및 원산지 판정 전략 Deminimis 종료 후 관세 절감 대안 FTA 적용 가능성 및 요건 검토 FirstSaleRule을 활용한 관세 절감 실익 거래가격 정의 및 산정 방식
통관 및 세관 대응	19.0%	CBP 및 FDA 신고·심사·조사 대응 관련 실무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P Request for Information 대응 절차 및 자료 준비 Form7501 신고내역 검토 CI 작성 시 유의사항 Deminimis 종료 후 세관수입 신고 방법 세관조사 리스크, 자료 제공 시 유의사항
제품별 규제	8.6%	화장품·식품 등 제품군별 미국 규제 대응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화장품 수출 시 FDA 규정 준수 사항 화장품 수입 시 MoCRA, OTC 규정 및 라벨링 준수 TTB 수입자 승인 관련 안내 FDANoticeofSeizure 대응 절차 및 서류 검토
수출통제 및 BIS 관련	6.9%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된 BIS 제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S Approved IC Designer 신청 요건 및 서류 작성 MassMarketClassification 신청 및 절차 BISClassificationRequest 절차 및 요건
법인 설립 및 투자·인력 구조	10.3%	미국 내 법인 설립·투자 유치·주재원 파견 관련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현지 법인 설립 현지 인력 파견(E-1/E-2 비자 요건)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분 구조 법인 이전 시 절차 및 고려사항 세금 및 초기 운용비용 관련 자문
자식재산권 및 상표	3.4%	미국 내 상표 분쟁 및 권리 주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유사 상표 등록에 대한 반박 가능성 검토 선사용주의 기반한 권리 여부
현지 유통	1.7%	미국 현지 유통 과정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품 유통 계약 관련 검토 및 유의사항

자료: KOTRA

전략 ②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 아시아구매오피스(APO) 글로벌 소싱 수요 발굴, 해외 공장 수출 확대 및 수입대체 수요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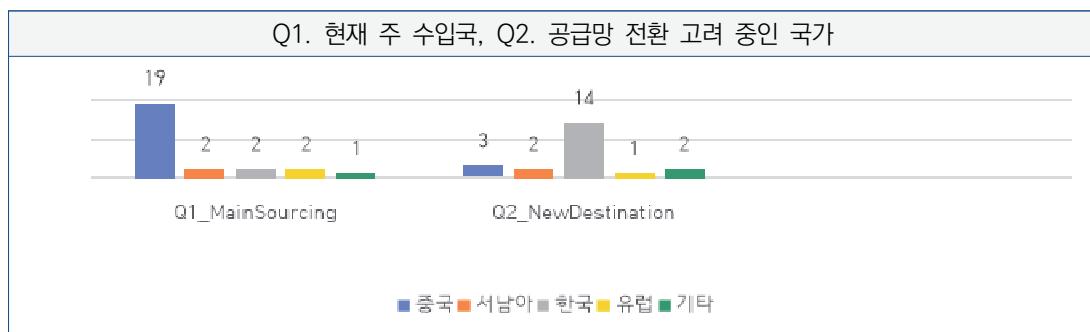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미국 글로벌 유통 및 제조 기업 한국산 제품 관심 증가
- 한국의 기술력 바탕과 저렴한 임금으로 생산 가능한 동남아 진출 한국 기업 중 구매 수요 확대

□ 현지 동향

- (제조업) '25년 GP USA Chicago 행사('25년 9월)에 참여한 미국 소재 글로벌 부품소재, 이차전지, 자동차, 기계 분야 구매자들은 대부분 현재 중국에서 구매 중이나 추후 한국으로 공급선 전환 의사 표명
 - 주요 공급망 이동은 중국에서 일부 있었으며, 특히 전체 22건 중에서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음
 - 그 외 지역에서도 소규모 이동이 있었는데, 기존 국가에서 멕시코로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 2건 포함

(GP USA in Chicago 2025 참가 바이어 설문조사('25년 9월 15일))



자료: KOTRA

(GP USA in Chicago 2025 참가 바이어 설문조사('25년 9월 15일))



자료: KOTRA

- (유통업) 미국 공구류 대형 유통망, 종합 소비재 대형 유통망 등은 중국 구매 물량 축소, 아시아 구매본부 베트남으로 이전 통해 한국산 조달 확대 고려
- 글로벌 소비재 유통 기업 글로벌 소싱 담당임원 인터뷰('25년 10월)



한국에서 제품 조달 희망 사유

-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관세율이 타 국가 대비 유리. 화장품 외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관심
- 현재 잘 팔리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1개 공급업체에만 의존은 위험, 공급자 다각화
- 기존 중국 선전 중심 소싱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 등으로 공급업체 발굴 다각화
- 상품 등록 결정(Merchandising)은 홍콩에서 하는데, 소싱(Sourcing)에서 이를 지원하여 공급업체 발굴
- 소싱팀은 K-뷰티 분야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Market Place팀은 전자제품 분야를 한국으로부터 발굴 희망

자료: KOTRA

□ 유망 품목

- (부품소재) GP Chicago 2025 행사 참여 기업 수요 제품
 - 양극재, 배터리 재활용, EV(전기차) 소재·부품·장비, 냉난방 시스템, 금형 및 사출, 배터리팩, 모터, 센서, 배선 장치, 서킷 브레이커, 변속기, 자동화 관련 기자재, 변압기 및 스위치, 이차전지 소재, 전략 기자재, 물류 자동화 부품 등
- (배터리팩용 금속 가공 부품) 공급망 탈중국화 준비 중이나, 품목 및 사양이 자사 제품에 특화되어 있고, 물량이 많지 않아 납품 가능한 비(非)중국 제조업체 발굴 애로
- (열교환기) 공급망 탈중국화 준비 중이나, 품목 및 사양이 자사 제품에 특화되어 있고, 물량이 많지 않아 납품 가능한 비중국 제조업체 발굴 희망
- (공구류) 지붕재, 제빙기(모터-콘덴서-컴프레셔-펌프) 등 주택 산업 연관 품목으로 금리 하락 시 모기지 금리도 하락, 주택경기 상향 전망

탈중국 공급망 전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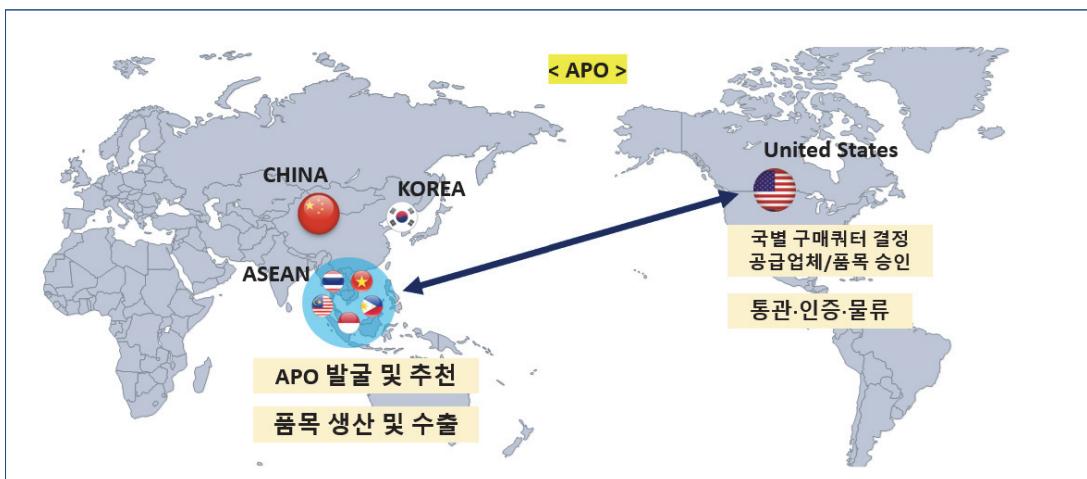
기업	수요
A사(배터리팩용 금속 가공용품, 실리콘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가공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C 정밀 가공(CNC Machining) - 샌드 주조(Sand Casting) - 압출(Extrusion) • 공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토타입 전문 금속 가공 업체 - 소량 생산 및 신속한 납기 대응이 가능해야 함
B사(열교환기, 실리콘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 :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후 엔지니어링 도면 공유 가능 •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디자인을 변경 없이 제조해야 함 - 공급업체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공해야 함 - 재료 : 알루미늄 6,061만 가능(경량화가 중요하며 다른 재료는 고려 대상 아님)
C사(메탈케이블, 시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급업체는 대량 수량 위주로 다루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맞출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밝힘 •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매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PPM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함. • 중국 업체는 보안 문제로 협력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관세 문제도 있어 한국 업체가 더 적합해 보인다고 언급
D사(공구류, 상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유통망 아시아 구매본부 • 지붕재, 제빙기(모터-콘덴서-컴프레셔-펌프) 등 주택 산업 연관 품목 한국산 수요
E사(화장품,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유통망, 아시아 소싱본부 베트남으로 이전 • 한국산 화장품 이니셔티브 추진
F사(의류,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의류 관세로 수입 곤란,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수입 관심

자료: KOTRA

□ 진출전략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상담기회 참여
 - GP USA in Chicago, 실리콘밸리 IT 지원센터 사업 등 미국 글로벌 공급망 수요 발굴 사업 참여
- 아세안 진출 공장 생산, 미국 수출 혹은 상호관세율 고려 한국 공장에서 생산 병행
 - 한국 상호관세율 15%와 아세안 주요국 19% 상호관세율 및 생산원가 등 종합적 고려하여 대응
- APO(아시아생산성기구) 구매 수요 발굴 및 대응
 - 글로벌 유통망은 아시아에 구매오피스를 운영 중이라 하더라고 아시아 구매오피스는 신규 공급업체 발굴 및 추진, 미국 본사에서 최종 구매 결정
 - KOTRA 미국 무역관이 글로벌 소싱 헤드쿼터 수요 발굴, 아세안 공장에서 수출 시 KOTRA 아세안 무역관이 수출 선적 지원, KOTRA 미국 무역관은 현지 통관, 물류 인증 등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 추진

〈글로벌 기업 APO 구매결정 과정〉



자료: KOTRA

미국 주요 유통망 및 소비재 브랜드 아시아 소싱 현황

유통망 및 브랜드	비중	내용	비고
Walmart	60%		'18년 80%에서 축소 중
Target	50%	인도 6%, 인도네시아 3%, 캄보디아 3%	
NIKE	18%	베트남 50%, 캄보디아 15%	의류 기준
LULULEMON ATHLETICA		베트남 42%, 인도네시아 10%, 캄보디아 16%	
ADIDAS	16%	베트남 27%, 인도네시아 19%	
PUMA	28%	베트남 26%, 캄보디아 16%, 방글라데시 11%	
ABERCROMBIE & FITCH		베트남 34%, 캄보디아 19%, 인도 12%	

자료: 로이터

- 신규 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최소구매수량(MOQ) 보장 등 유통망과 협상 및 현지 3PL(제3자 물류 또는 물류 대행) 물류체계 구축



성공 사례로 보는 미국 진출전략 : 중국산 부품 전환 수요

- 바이어가 활동 중인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시장은 오랫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대만산 제품이 주도해왔으나, 미국의 對중국 정책 강화에 따라 NexaMotion 내부에서도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활발해짐. 이에 바이어는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부품으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
- 변속기용 애프터마켓 부품(마찰판 및 강판) 품목 공급

자료: KOTRA

전략 ③ 현지 진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전략 수립 배경

- 관세장벽, Chips Act 등 보조금, Buy America 압박 심화, 북미 내 생산·투자 확대
- 우리 기업 23개 기업 공장 건설 중, 현지 진출 지원 필요
- 제약·바이오를 안보 산업으로 규정, 관세부과 예고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현지 생산 투자 확대를 유도

□ 현지 동향

- (자동차 부품) OEM 현지화 압박, 현지 공장 필요성 증가
 - 고율 관세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기준 요건 강화 등 현지화 압박 강화로 미국 내 생산·조달 확대 가속화
 - 스웨덴 자동차 메이커 볼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CX60 SUV 생산 공장 투자계획 발표('25년 9월)
 - 지역 부가가치 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요건* 충족 요구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하위 공급망으로 확산되며, 현지 생산 확대가 구조화
 - * USMCA는 차량 핵심 부품의 RVC 기준(75%),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중(70%), 고임금 노동(LVC, 40~45%)을 핵심 원산지 요건으로 규정
 - 멕시코·캐나다는 단기적 보완 거점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조달 확대가 핵심축으로 전환



주요 부품사 구매 전략 동향(바이어 인터뷰)

- (하위 공급망 관리 압박) Tier-1 N사의 바이어는 “최근 완성차 기업들의 ‘Tier-N Resilience’* 요구로 인해 북미 특히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한 공급업체를 우선 검토한다”라고 언급('25년 8월)
 - * 1차 공급사들에 Tier-2 이하 공급망의 현지화 수준과 조달 구조를 관리하도록 요구
- (미국 생산 가능 기업 중심) OEM G사와 Tier-1 S사의 바이어는 “현재 구매 전략은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신규 협력사 추가 발굴 계획은 당분간 없다”라고 밝언 ('25년 8월)
- 미국 자동차 OEM, 북미에서는 Localization이 가장 중요('25년 9월)

자료: KOTRA

- (제약·바이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리더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강화로 공급망 전환 가속화
 - ‘제약·바이오=안보’ 인식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빠르게 추격해 오는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 트럼프 행정부는 △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 최혜국(MFN) 수준의 약가 인하, △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내건 자국 중심의 제조·공급망 재편 추진
 - *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미국 내 처방 약 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25년 7월)
 - * 미국 내 필수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API) 전략 비축고(SAPIR)’를 신설하고 핵심 26종 내외 의약품을 지정, 해당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API 최소 6개월 치 비축·관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 ('25년 8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투자 발표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연번	기업명	투자금	투자 계획
1	Johnson & Johnson	57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R&D·기술 투자 확대 •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공장 건설
2	AstraZeneca	5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및 연구개발 확대 • 버지니아·메릴랜드 등 신규 및 생산 거점 확대
3	Genentech(Roche)	5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및 진단·R&D 확충 • 인디애나·펜실베이니아 등 제조 거점 확충
4	GSK	3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R&D 및 공급망 인프라 확충 •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5	Eli Lilly	27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비만 치료제 생산능력 확충 • 버지니아 신공장 등 총 4곳 신규 설비 착공
6	Novartis	23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연구 개발 확충 및 고용 확대 • 신규 제조시설 6개 및 연구 거점 확충
7	Sanofi	2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연구 인프라 확충 • 미국 내 파트너십 통한 생산능력 강화
8	Gilead Sciences	11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에 제약 개발·제조 허브 신설 • 미국 내 2개 신규 부지 개발 추진
9	AbbVie	1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종양 치료제 생산 확대 • 미국 내 11개 제조시설 확충
10	Merck & Co	9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부지 및 R&D 확장 • 델라웨어 신공장·노스캐롤라이나 확충

자료: 각 기업 보도자료, KOTRA 정리

□ 유망 품목

-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가 부가 중이나, 상대적으로 그간 한미 FTA로 경쟁우위에서 발굴한 외국계 자동차 OEM과 한국 부품사 간의 협력 수요 공략
 - 글로벌 OEM들은 공급망 안정과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지 생산 및 조달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진출 부품사들의 수요 증가
 - 일부 한국계 부품사는 이미 현대차그룹 외에도 미국·독일·일본계 OEM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음
 - * A사(조지아주, 앨라배마주 진출) : 현대·기아차 외에도 GM, Chrysler 등 미국 OEM에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부품 등을 공급
 - * B사(앨라배마주) : Tesla, BMW, Mitsubishi, Mazda 등 글로벌 OEM에 자동차 부품 공급
 - * C사(조지아주) : GM에 브레이크 제품 납품
 - * D사(조지아주) : GM, Stellantis, Ford에 브레이크 패드 공급
- (제약·바이오) 플랫폼 기술
 - 신약 개발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인 '플랫폼'은 다양한 후보 물질이나 치료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확장성과 재활용성을 높이는 기술을 의미
 - 기술 활용 범위가 넓어 다양한 신약 개발에 기술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기술 이전 수요도 광범위
 - 항체-약물 접합체(ADC), 방사성의약품과 같은 고부가 플랫폼은 종종 암과 같은 미충족 수요가 큰 영역에서 지불 의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한국 기업 플랫폼 기술 수출 주요 사례

한국 기업	해외 기업	기술 분야	계약 규모 (억 원)	체결 일자
올릭스(OliX)	Eli Lilly(미국)	RNA 기반 치료 플랫폼	9,000	'25년 2월 10일
ABL바이오	GSK(영국)	BBB 통과 신약 전달 플랫폼	41,000	'25년 4월 6일
알지노믹스(Rznomics)	Eli Lilly(미국)	RNA 기반 치료 플랫폼	16,900	'25년 5월 15일
알테오젠(Alteogen)	AstraZeneca(영국)	제형 전환(정맥 → 피하)	13,000	'25년 3월 17일
	Daiichi Sankyo(일본)	제형 전환(정맥 → 피하)	3,900	'24년 11월 10일
레고켐바이오	Janssen·J&J(미국)	항체-약물 접합체(ADC)	22,100	'23년 12월 22일
오름테라퓨틱스(Orum)	Vertex(미국)	단백질 분해 기반 플랫폼	4,030	'24년 7월 16일
	BMS(미국)	단백질 분해 기반 플랫폼	2,340	'23년 11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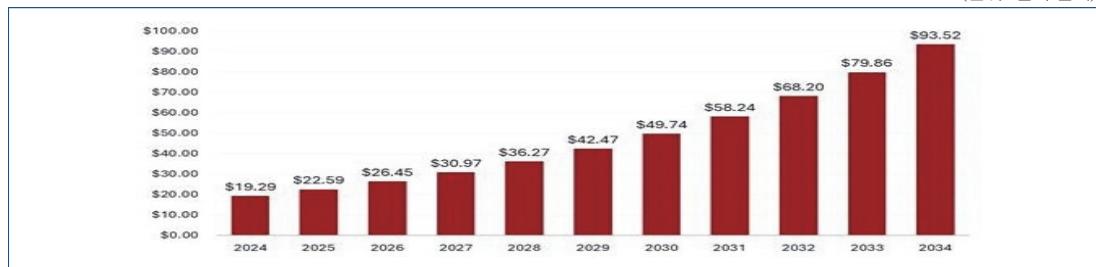
자료: KOTRA 정리

- 바이오시밀러와 복합 제네릭

- 약가 인하를 압박하고, 관련 지출 축소를 추진하는 미국 정부 정책으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와 복합 제네릭 수요 상승 전망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도 동 시장의 기회로 작용
 - * '25년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935억 2,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오는 '34년까지 연평균 17.1% 성장할 것으로 전망(Statifacts, '25년 2월)

<'24~'34년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tatifacts

□ 진출전략

- (현지화 역량 강화)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통한 로컬소싱 기반 구축이 핵심 요건, 다만 아직 생산 거점이 없는 기업은 단계별 현지화 로드맵을 제시해 OEM 신뢰 확보 필요
 - 부피·중량이 크거나 고부가가치 부품은 미국 현지 생산·공급 체계를 통한 조달 요구가 강화되는 품목 중심
 - 주요 OEM들의 투자·생산 계획에 맞춰, 동일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현지화 계획(공장 설립, 생산 품목, 규모)을 제시하는 전략 수립 필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 조언(Big 3의 바이어 인터뷰)

- (현지 지원 체계 구축) “현지 지원(Local Support) 체계가 최우선 과제이며, 현지에서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감수해야 할 리스크(Must-take Risk)’이다”('25년 5월)
- (단계적 현지화 전략) “전체 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어렵다면, 반조립(SKD) 형태로 반입 후 현지 조립·후공정을 통해 HS Code 변경과 USMCA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금형의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유지하되, 일부 공정을 미국 내에서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25년 6월)

자료: KOTRA



성공 사례로 보는 북미 진출전략 : S사(현지 바이어 F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S사는 50여 년간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전문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강도, 내열성, 내화학성 등 품질 경쟁력을 확보
 - 선박, 자동차, 건축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품 공급 능력 보유
- 필수 인증 : UN1866 – Class 3, IMDG Code, EPA TSCA, SDS
- 성약 소요 기간 : 7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애틀랜타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F사를 유망 바이어로 발굴
 - 약 3개월간 무응답이 있었으나, 무역관 후속 접촉과 기업 자료 제공으로 '24년 12월 교신 재개
 - 무역관이 F사 의사결정권자(CEO)와 S사 담당자를 직접 연결하여 초기 상담 주선
 - 이후 미팅 및 샘플 테스트 논의 진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미국 대형 전문 유통업체(Distributor)와 약 13만 달러 납품 계약 성사로 북미 시장 내 레퍼런스 확보
 - 초도 납품 이후, 장기 거래 계약 체결로 안정적 거래선 확보
 - 기존 원료사 선호도가 높아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미국 시장 구조 속에서도, 지사화 사업을 통한 장기간 협력 관계 기반으로 거래 성사 사례 창출

자료: KOTRA

- (인적 네트워크 관리) 미국 자동차 업계는 추천(Referral) 중심 문화가 강하며, 인적 네트워크가 거래 성사에 직접적 영향
 - 현지 바이어·협회(MEMA 등)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전시회·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계 형성 필요
 - 엔지니어·구매 담당자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교류가 장기적 공급망 진입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기반



성공 사례

- (개요) 한국 A사(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북미 OEM 대상 합리적 원가 설계 기반 기술 제안과 현지 엔지니어링 지원으로 신규 프로젝트 수주
 - OEM의 초기 가격 인하 요구에 단순 할인 대신 구조 단순화·소재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유지하면서 제조원가 절감안을 제시
 - 부품 오버스펙 조정과 공정 단축으로 생산성을 높였으며, 설계 엔지니어(DRE, Design Release Engineer)와 직접 협력해 개선안을 검증, 기술 기반 파트너로 신뢰 확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북미 시장은 가격이 아닌 기술적 합리성으로 비용 절감 솔루션을 제시하는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 DRE를 핵심 설득 대상으로 삼고, 기술·설계 지원을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전략이 효과적

자료: KOTRA

- (USMCA) 미국 소재 기업과 멕시코 부품사로부터의 소싱
 - 글로벌 OEM들은 USMCA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일부 부품을 멕시코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MexicoNow, '25년 5월 25일)
 - * 글로벌 부품사 Valeo는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자사 제품의 90%가 USMCA를 준수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전(Reuters, '25년 4월 29일)
 - 다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멕시코 생산 역량 및 물류 안정성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소싱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며, 오히려 미국 남동부에 진출한 기업을 통한 현지 직접 납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큼
 - * 멕시코는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50%의 고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멕시코 소재 2·3차 협력사들에 영향 예상(AP News, '25년 9월 10일)
- (对미 투자펀드) 2,000억 달러 투자사업 시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한국 업체를 우선하기로 양국 MOU 체결
 -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 현지 진출 기회로 활용 모색
- (제약·바이오) 현지 인수합병으로 그린필드 투자 대비 현지 진출 가속화, 현지 인력풀 및 판매 공급망 확보, 물류비 절감



성공 사례

- (개요) 셀트리온, 현지 공장 인수합병
 - 미국 현지 실제 가동 중인 바이오의약품 cGMP 시설 4,600억 원에 인수. 초기 운영비 등 포함 7,000억 원, 추가 증설에 최소 7,000억 원 투자
 - 신규 건설 대비 시간과 비용 절감, 증설 시 송도 2공장 1.5배 수준 캐파 확장 가능 및 뉴저지주 바이오 인재풀 적극 이용
 -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의약품 생산 전주기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 시장 내 구축 및 물류비 절감

자료: KOTRA

- 주요 제약사와의 협업을 위해서는 니즈(Needs) 파악과 함께 꾸준히 접점을 늘리는 노력 필요
 - 해외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홍보
 -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니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 필요
 - 복잡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각자료, 동영상, 데모 등을 준비해 잠재 고객, 파트너,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현지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가가 제안하는 트럼프 2기 시대 진출전략



전문가 인터뷰

- 공급 보안을 핵심으로 한 자국 중심 보호 기조가 강화되고 응급·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인식
 -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중국과 인도 등 특정 국가에 원료 및 완제품 공급이 집중되어 있어 공급 차질이 미국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시 '품목'에 주목한 전략 필요
 - * 미국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부족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약물 모니터링
 - * 시장이 성장 중인 적응증 내에서 함께 처방되는 약물들의 제형 및 함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함
 - * GLP-1 계열처럼 특정 치료제가 급성장할 때 동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공급 보안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자료: KOTRA

- 현지 주정부, 경제개발청 아웃리치 강화
 - 한국 방한 투자설명회 및 투자환경조사단, Select USA 참가 등 연방정부, 주정부 인센티브, 노무, 세무 등 여건 파악 및 관계자 파악, 네트워킹 필요

전략 ④**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 대응, 첨단 및 전략사업 협력 강화****전략 수립 배경**

- 제조업 부흥 정책 및 AI 활용 증가에 따른 전기차의 고전압화(800V),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화, 200mm SiC 전환 등으로 전략 반도체 및 전략 기자재 수요가 빠르게 확대
- 공장 건설 증가에 따른 산업용 기계 수요 증가
- 조선업 등 미국 전략산업 협력 요청에 따른 우리 기업 현지 조선소 투자 등 산업 협력 수요 증가
 - 미국 내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 SHIPS Act를 발의하며, 해양 패권을 가져오려는 노력

□ 현지 동향**① 전력반도체**

- 추론, 대형언어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반도체가 필요, 따라서 반도체 성능을 제고하기 위해 반도체 자체가 소요하는 전력을 줄이는 방향과 같은 전력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필요
 - 전기차 전력 아키텍처 고전압 확산, 미국 전기차 시장은 400V 체계에서 800V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전압 플랫폼 도입이 확대 추세
 - *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800V 플랫폼 채택, GM Hummer EV·Sierra EV도 800V 초급속 충전지원. 포드 역시 차세대 모델에 800V 전환을 검토 중
 - 이에 따라 1.2kV급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모듈과 고신뢰 패키징 수요가 빠르게 증가
-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800V 직류(DC) 전력 인프라 도입이 가속화
 -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과 집적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구조로, SiC와 GaN(질화갈륨) 적용이 본격화 될 전망
- 200mm SiC 전환과 산업 리스크
 - 글로벌 전력반도체 업계는 생산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0mm SiC 웨이퍼 전환을 추진 중이나, 결함 밀도와 낮은 수율이 주요 과제
 - 최근 일부 선도 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재무 부담으로 파산보호 절차에 돌입하는 등 산업 성장세 속에서도 원가·수율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위성·방산 특수시장에서 GaN 사용 확대
 - 전력반도체 용도가 민수용을 넘어 위성통신·방산 분야로 확장
 - 최근 저궤도(LEO) 위성 통신 장비와 군사용 고주파 장치에 GaN-on-SiC 전력 증폭기가 적용되면서, 특수시장 중심의 신규 수요가 빠르게 증가

미국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대표 기업들의 사업 확대 사례

기업명	대표 사례
Onse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는 AI 학습·추론용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400V 시스템에서 800V 직류(DC) 전력 인프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세미는 이 과정에서 SiC·GaN 기반 전력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 • 본 협력은 단순히 전력 반도체 칩의 거래에 그치지 않고, 서버 파워액·PSU(전원공급장치) 수준에서의 인프라 혁신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는 미국 전력반도체 산업이 고전압화·고효율화 요구와 글로벌 IT 기업의 대규모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응용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Texas Instr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는 650V 3상 GaN IPM(DRV7308)과 GaN 전력 스테이지 제품군을 출시하며, 이를 산업용 모터·HVAC 시스템·EV 온보드 충전기(OBC)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설계안을 함께 제공 • 이는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모듈·시스템 통합 수준에서의 솔루션 제공으로 고객의 설계 부담을 줄이고 채택 속도를 높이는 전략 • 해당 사례는 미국 전력반도체 기업들이 칩에서 모듈, 나아가 응용 시스템 레벨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의 응용 다변화와 상용화 가속화라는 시장 변화를 잘 드러냄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② 에너지

- (오일·가스) LNG 수출 고점 기조 지속이나 신규 시추 프로젝트 투자는 정체
 - 원유·정제제품·LNG의 수출기조가 이어지나, 저점 가격 회복 필요 등 시장원리로 대형 신규 투자 보다 가동률 제고·기존 설비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에 초점
 - LNG 수출능력 증설(터미널 단계적 확장)과 가스 허브·파이프라인 병목 해소가 중기 과제이며 ESG 기조를 반영 안전·신뢰성·환경 투자도 동반 확대
-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주도 수요 지속 및 기자재 현지화 가속
 - 데이터센터·AI 부하가 태양광과 저장(ESS(에너지저장시스템)) 발주를 견인, 태양광 패널, 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관련 기자재 수요가 빠르게 확대
 - 국산 요건·FEOC(해외우려기관) 회피 등 정책 신호로 미국 내 조립·가공과 원산·비용 문서화 역량이 수주 필수 요건으로 부상
- (전력기기자재) 그리드 확충·안정화 투자 및 운영 고도화 수요 확대
 - 변압기(LPT 포함)·배전반·전력케이블·계통 안정화 관련 기자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며, 납기 지연 등이 프로젝트 진행의 병목으로 남아 주요 기자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조립 확대
 - AAR·DLR, 전력조류제어 등 전력 운영의 안정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전력 제어 통합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수요 증가
- (원전) NEA의 'SMR Dashboard 2판(2024)'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종의 SMR (소형모듈원자로) 등 선진 원자로 노형을 개발 중이며, 이 중 상당수는 미국 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 미국 정부는 3+세대 SMR 상업 배치를 위한 정책(First Mover·Fast Follower) 운영, Price-Anderson 법 연장 등을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미국이 개발 중인 SMR 등 선진 원자로〉

		원자로 구분	개발사	모델명	출력	
					MWe	MWth
SMR 등 선진 원자로	경수형	가압경수로 (PWR)	NuScale	NPM	77	250
			Westinghouse	AP300	330	990
			Holtec	SMR-300	300	1,050
		비등경수로 (BWR)	GE Hitachi	BWRX-300	300	870
	비경수형	소듐냉각고속로 (SFR)	TerraPower	Natrium	345	840
		고온가스냉각로 (HTGR)	X-energy	Xe-100	80	200
		불화염냉각고온로 (FHR)	Kairos Power	KP-FHR	150 (75×2)	320
				(시험로) Hermes 1	-	35
				Hermes 2	20 (10×2)	70 (35×2)
	초소형	히트파이프 냉각 (Heat Pipe)	Westinghouse	eVinci	5	15
		액체금속냉각고속로 (Liquid Metal Cooled)	Oklo	Aurora Powerhouse	15~50	50~150
		고온가스냉각로 (HTGR)	NANO	KRONOS MMR	3.5~15	10~45
			Radiant	Kaleidos	1.2	1.9
	실증로	美 국방부 & BWXT	Project Pele	1~5	정보 없음	
			TerraPower	MCRE	-	0.3
		용융염원자로 (MSR)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MSRR	-	1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③ 산업용 기계

- 미국 금속가공 설비 신규 주문(USMTO, U.S. Manufacturing Technology Orders)이 빠르게 회복 중
 - 미국 제조업기술협회에 따르면, '25년 3월 금속 가공 기계 신규 주문액은 약 5억 1,580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3년 3월 이후 월간 최고치 기록(AMT, The Associa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ogy)
 - 전기차(EV)와 자율주행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초박판 전기강판·하이텐강 성형 수요 증가에 따라 고속·고정밀 프레스 장비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또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확산으로 전자·통신 부품 케이스, 히트싱크, 셜시 등 금속가공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설비 투자 확대 견인
-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스마트 솔루션 수요 확대
 - 글로벌 불안정성 심화, 리쇼어링·니어쇼어링 등 공급망 복잡성이 심화되며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수요 확대
 - 미국 스마트 제조시장 규모는 약 869억 달러로, '30년까지 약 13.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Grand View Research)

- 생산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생산 공정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수요 가속화

④ 조선

- 미국 의회 및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부흥 전략과 한국과의 협력
 - '24년 12월, 미국 의회는 조선업 역량 강화, 인프라 재건, 선박 조달 안정성 확보,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경쟁국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SHIPS for America Act(SHIPS Act)를 발의
 - *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 : SHIPS Act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 현재 93척 규모의 미국 상선을 '34년까지 250척으로 확대하고, '29년까지는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한시적으로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와 조선업 협력국의 제조 역량을 고려할 때,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가장 현실적·타당한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으로 평가됨
 - (현황) 미국의 조선업은 강력한 보호법(존스법,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과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
 - * 존스법(Jones Act)은 내항 상선의 경우 미국에서 건조된 것이 아니면 운항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고, 번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서는 타국에서는 미국 해군 군함의 건조와 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
 - * 미국우선구매법(BuyAmerican Act)은 해군, 해안경비대, 상선 프로젝트 참여 시 핵심 기자재 75%를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백악관 내 조선사무국을 신설했으며,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조선업 전반에 2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
 - '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배를 아주 잘 만든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
 - *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 '25년 8월 한국–미국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제안한 협력 구상으로,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내 조선소 건설·현대화,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하는 방안
- 한국 3대 조선사의 미국 진출 현황
 - '24년 12월 한화그룹은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의 필리십야드(Philly Shipyard)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 이후 미국 해운 법인 한화_shipping(Hanwha Shipping)을 설립해 수주를 추진하고, 필리십야드와 거제 한화오션 간 협력을 통해 선박을 제조 계획
 - HD현대는 '25년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겔스, 에디슨 슈웨스트 오프쇼어와 파트너십 (MOU)을 체결
 - * HD현대는 양국 조선업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서울대 및 미국 미시간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진 40여 명이 참여한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25년 6월 한국에서 첫 포럼을 개최하였음('25년 6월)

- 삼성중공업은 선박 정비 및 현대화 전문 기업인 비거마린그룹과 MOU를 체결
 - * 비거마린그룹은 미국 전역에서 선박 건조·정비·현대화를 수행하며, 국방·상업용 선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종합 조선·해양 서비스 기업

한국 3대 조선사의 미국 투자협력 현황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한화	한화오션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인력을 강화하고 현재 생산 용량을 10배 이상 늘리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
HD현대	HD현대와 세르베루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자율 운항, 디지털화, 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할 예정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과 비거마린그룹은 해군 함정의 정비, 수리 및 점검(MRO), 조선소 자동화, 미국 국적 선박의 신규 건조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

자료: 백악관

□ 유망 품목

① 전력반도체

• 세라믹 기판

- 전기차 및 데이터센터 전력모듈은 고열·고전압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라믹 기판이 필수적으로 사용됨
 - 디스플레이·반도체 후공정 소재 산업에서 쓰이는 세라믹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열전도·고내구성 기판을 상용화해온 경험이 있어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
- * KCC는 파워모듈 반도체 기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알루미나(Al2O3)와 질화알루미늄(AlN), 실리콘나이트라이드(Si3N4)를 원료로 한 DCB, AMB 기판 등 다양한 세라믹 기판 기술 보유

• 고온 신뢰성 수동소자(인덕터·고전압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 SiC·GaN 전력반도체는 고주파·고전압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덕터·MLCC 같은 수동소자를 함께 사용
 - 인덕터는 스위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류 리플과 노이즈를 억제하고, MLCC는 DC-Link 전압 저장과 서지 억제 역할 담당, 전력모듈 전체의 안정성과 수명 좌우
 - 전기차 인버터, 온보드 충전기(OBC), AI 데이터센터 전원공급장치, 산업용 전력변환기 등 다양한 응용에서 이러한 수동소자의 품질은 곧 전력반도체 시스템의 신뢰성과 직결
 - 한국은 전장 전자·서버·ICT 기기 수요를 바탕으로 고온·고전압 대응 수동소자분야 양산 경험을 축적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규격(AEC-Q 등)과 같은 신뢰성 평가에 대응한 경험 보유
- * 한국의 대기업은 '25년 AEC-Q200, 165°C 파워 인덕터 모델 0806, 전기차용 1,000V X7R 100nF MLCC를 출시하며 해당 분야 선도

- 200mm SiC 웨이퍼 및 후방공정 소재·장비

- 차세대 SiC 산업은 200mm 전환의 핵심 과제이나, 결함밀도·수율 확보라는 기술적 병목을 동시에 안고 있음
-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을 통해 축적한 정밀 가공·계측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CMP 슬러리, 검사 장비, 에피 성장용 소재 같은 후방공정 분야에서 실질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
- 이러한 기반은 미국 내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맞물려 기회로 연결 가능
 - * SK Siltron CSS는 미국 미시간 SiC 웨이퍼 증설 관련,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LPO)로부터 5억 4,400만 달러 대출 승인('24~'25년), 북미 현지 공급능력 확대를 공식화

② 에너지

- 오일·가스 : 수출 터미널 가동률 상승과 기존 시추설비의 개보수·디보틀네킹*이 맞물리며, 시추 케이싱·밸브·철강관·열교환기 등 핵심 기자재 수요는 견조
 - * 디보틀네킹 : 기존 설비의 병목 공정(열교환·압축·배관·제어 등)을 최소 신규 투자로 해소해 전체 처리량과 가동률을 높이는 개보수·개선 활동

미국의 오일·가스 기자재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시추 케이싱, 배관 (730629)	1	한국	258	42.7	밸브 (848180)	1	멕시코	1,073	20.2
	2	캐나다	120	19.9		2	중국	879	16.5
	3	대만	118	19.5		3	일본	426	8.0
	4	UAE	23	3.8		8	한국	206	3.9
	총 수입액		765	100		총 수입액		8,688	100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철강관 (730619)	1	한국	152	65.7	열교환기 (848150)	1	멕시코	182	17.6
	2	튀르키예	25	10.7		2	중국	140	13.6
	3	멕시코	15	6.4		3	한국	100	9.7
	4	독일	11	5.0		4	프랑스	69	6.7
	총 수입액		231	100		총 수입액		1,032	100

자료: Census Bureau('25년 9월), '25년 상반기 수입액 기준

- 신재생에너지 : PPA 수요가 가장 큰 태양광·전력 저장 분야에서 태양광 패널, ESS 인버터, 배터리셀이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는 한편,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으나 송전 연계 개선과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풍력터빈(타워 포함)은 여전히 핵심 품목으로 자리하며, 교체·O&M(유지보수·운영) 수요까지 감안하면 안정적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태양광 패널 (8541)	1	인도네시아	1,093	14.2	풍력터빈 타워 (730890)	1	멕시코	679	24.7
	2	라오스	1,042	13.5		2	캐나다	405	14.7
	3	말레이시아	949	12.3		3	중국	281	10.2
	8	한국	330	4.3		5	한국	146	5.3
	총 수입액		7,712	100		총 수입액		2,755	100
ESS 인버터 (850440)	1	중국	2,691	14.0	배터리셀 (850760)	1	중국	6,336	62.1
	2	태국	1,240	13.1		2	일본	1,169	11.5
	3	멕시코	1,163	11.1		3	한국	1,169	11.5
	14	한국	149	1.7		4	캐나다	231	2.3
	총 수입액		8,856	100		총 수입액		10,206	100

자료: Census Bureau('25년 9월), '25년 상반기 수입액 기준

- 전력인프라 : 그리드 확충과 안정화 투자에 힘입어 배전반·전력케이블·변압기(고압·중저압) 등 핵심 기자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 전망

미국의 전력기자재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배전반 (853710)	1	멕시코	4,221	43.3	케이블 (854460)	1	멕시코	171	18.5
	2	캐나다	937	9.6		2	한국	147	15.9
	3	중국	587	6.0		3	폴란드	125	13.5
	5	한국	338	3.5		4	중국	122	13.2
	총 수입액		9,745	100		총 수입액		927	100
변압기 (650Kva 이하) (850421)	1	한국	229	32.3	변압기 (1만Kva 초과) (850423)	1	멕시코	383	19.3
	2	멕시코	192	27.1		2	한국	343	17.3
	3	캐나다	79	11.2		3	브라질	277	14.0
	4	브라질	65	9.2		4	오스트리아	186	9.4
	총 수입액		707	100		총 수입액		1,982	100

자료: Census Bureau('25년 9월), '25년 상반기 수입액 기준

③ 산업용 기계

- 미국 기계식 프레스(HS Code 8462.62)는 자동차·항공우주·전자 등 전략산업의 핵심 설비로, 금속 스템핑·딥 드로잉 등 고정밀 대량 생산 공정에 필수
 - (시장 규모) '23년 금속 스템핑 시장 규모 474억 달러로 연평균 4%씩 성장하여 '30년에는 약 627억 달러가 될 전망
 - (품목) 기계식 프레스는 전체 프레스 시장 점유율 47% 이상으로 유압식 대비 효율성이 좋아 대량 생산에 적합함
 - 최근에는 고강도 프레임 구조를 적용해 고속 가공 시에도 진동과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첨단 자동화 기술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해 정밀도와 생산 효율을 동시에 높인 장비가 주목
 - HS Code 8462.62 기준, '24년 미국의 금속 성형 가공 기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억 7,000만을 기록, 한국의 수출도 2배 이상 증가

최근 3개년 미국의 금속 성형 가공 기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점유율	2024년 점유율	증감률 ('23년/'24년)
1	일본	4,567	13,592	25,089	18.9	25.7	84.6
2	대한민국	15,754	7,546	23,539	10.5	24.1	212.0
3	독일	11,849	11,529	17,808	16.0	18.2	54.5
4	중국	1,995	1,099	7,688	1.5	7.9	599.7
5	대만	1,224	7,429	6,979	10.3	7.1	-6.1
6	캐나다	20,752	2,047	6,418	2.9	6.6	213.6
7	스위스	744	142	4,117	0.2	4.2	2,789.5
8	튀르키예	10	83	1,933	0.1	2.0	2,225.0
9	이탈리아	1,109	1,689	1,755	2.4	1.8	3.9
10	영국	106	6,502	713	9.0	0.7	-89.0
전체	-	88,344	71,886	97,751	100.0	100.0	36.0

주: HS Code 8462.62 기준, 증감률은 '23년 대비 '24년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8월)

④ 조선

- 미국 에너지 생산·수출 확대에 따른 LNG선·VLCC(초대형 원유 수송선) 수요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National Energy Emergency)를 선포, 석유·가스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 이를 통해 '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한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
 - * 미국은 세계적 천연가스 수요 급증과 걸프만 지역 3개 LNG 터미널 건설에 따른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LNG 생산이 '25년 20%, '26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미국 에너지정보국, '25년 3월 단기 에너지 전망)
 - * 한국은 '25년 8월 협의를 통해 '28년까지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합의('25년 8월)
 - 이와 같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 확대와 수출 증가로 한국·일본·유럽 등 주요 수입국을 향한 글로벌 LNG 및 원유 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LNG선과 VLCC 건조 역량이 높은 한국 조선소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
 - * SHIPS Act에 따라 '29년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도 전략 상선단에 편입할 수 있어, 미국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에 선박 발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해군 함정 증강에 따른 MRO(유지보수·수리·운영) 시장 확대와 한국 조선소 진출 기회

- 미국 해군은 현재 296척 규모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54년까지 이를 381척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평균 약 3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미국 의회예산국, '25년 1월)
- 함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 MRO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함정 1척당 수리 및 무기체계 업그레이드에는 평균 6~12개월 소요
- 그러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미국 내 조선소는 제한적이어서, 한국 등 우방국 조선소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

□ 진출전략

① 전력반도체

• 세라믹 기판

- 미국의 완성차와 데이터센터 기업은 전력모듈의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현지 고객과의 공동 시험이나 검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
- 동시에 국제 인증(UL, AEC-Q 등)을 확보하면 글로벌 벤더 리스트 등록이 가능해지고, 공급처 확대에도 도움이 됨
-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모두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응용 분야별로 차별화된 공급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고온 신뢰성 수동소자(인덕터·고전압 MLCC)
 - SiC·GaN 전력반도체는 고주파·고전압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수동소자의 품질이 곧 시스템의 신뢰성을 좌우. 따라서 미국 완성차 업체나 서버 장비 기업과는 초기 단계부터 공동 시험을 진행해 신뢰성을 확보 중요
 - 단순히 부품만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 맞춤형 설계 지원(Design-in 서비스)을 제공한다면 현지 기업의 채택 속도를 높일 수 있음
- 200mm SiC 후방공정 소재·장비
 - 미국 전력반도체 기업들이 추진 중인 200mm 전환 과정에서는 여전히 결함 관리와 수율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음
 - 검사 장비, 연마 소재, 에피 성장 소재와 같은 후방공정 부품·장비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 잡는 것이 진출의 관건
 - 현지 정부와 기업 모두 공급망 안정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 내 소규모 R&D나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에너지

- 에너지·전력 산업 관련 기자재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각 산업별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입증된 주요 유망 품목의 전망은 긍정적이나 미국 수입관세, Buy America 정책 등으로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화 대응이 필수
 - (오일·가스) 압축기, 열교환기, 계측·안전(SIS·FGS), 배관을 모듈로 통합해 공장 사전 조립을 끝낸 뒤 반입해 현장 변수 최소화 및 휴스턴 등 주요 거점에 현지 수리가 가능한 영업소를 두고, 현장 대응력 확대 필요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초기에 모듈, PCS·인버터, BESS, MV 스위치기어, 케이블을 단일 설계·단일 인터페이스로 제시 및 각종 인증 및 AS 대응 체계를 현지 조건에 맞춰 구축하여 파트너사의 요구사항 사전 충족 필요
 - (전력인프라)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를 변전소 단위로 묶어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시험한 뒤 납품하는 계획 및 전력망 운영 소프트웨어와 SI(시스템 통합) 역량을 결합한 통합 패키지로 제안
 - 그리드의 설치-시운전-운영을 일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파트너십 제안,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설치·운영과 정책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는 바이어에 신뢰도 제고
- (원전) SMR 수요 등이 존재하나 한국 기자재 기업 단독 납품보다 대·중·소 업체 동반 진출 필요
 - 에너지 업계 보수성으로 기존 대형 원전의 경우 현지 공급망을 대체하는 것이 어렵고, SMR 개발사의 경우에도 부품 납품권을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여력이 없는 소형 업체의 경우 아직 SMR 개발사로의 직납품 기회 발굴은 성숙되지 않은 상황

- 두산중공업 등 파운드리 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관련 전시회 참가 시 대기업과 동반 진출 필요
- 많은 SMR 디자인이 기존 대형 원전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 기술적 호환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한국 기업에 유리할 전망
- 하지만 미국의 경우 납품에 있어 'N stamp'를 비롯한 ASME(미국기계학회)의 인증을 받는 것이 시작점인데, 인증을 받는 것도 까다롭거나와 인증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장애물로 작용

③ 산업용 기계

- 기술 경쟁력, 현지 네트워크 및 공급망 최적화로 통합형 현지화 전략
 - 현지 중장비 바이어 Y사 인터뷰에 따르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중국 제품이 한국산보다 여전히 2배 이상 저렴하므로, 가격보다 품질·기술 차별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
 - 북미 최대 판금·성형 전시회인 FABTECH(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를 비롯한 주요 산업 전시회에 적극 참여, 현지 기업들 파트너링 모색
 - 통상정책 등으로 인한 급작스런 공급 지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 업체가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제조하는 방식도 고려하되, 재정적 지원에 있어 연방 및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 진출해 비용 효율화 필요

④ 조선

-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 조선소 인수 및 파트너십 전략
 -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시장 진입 모색 필요
 -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비용 및 시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공정을 한국 조선소에서 수행하고, 최종 조립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분업형 생산 구조 활용 고려 가능
 - * 한화는 미국 법인 한화쉬핑(Hanwha Shipping)을 통해 선박을 수주한 뒤, 미국 한화필리십야드에서 최종 조립을 수행하고, 일부 제작 공정은 한국 거제의 한화오션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력 구조를 운영 중
 - 우리 조선소는 미국 주요 조선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자재 공급망에 참여하고, 핵심 부품·소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지 조선업과의 협력
 - * HD현대는 미국의 헌팅턴 잉글스(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에디슨 슈웨스트 오프쇼어(Edison Chouest Offshore)와 MOU를 체결하고, 기술 공유를 통해 컨테이너선 및 LNG 운반선을 공동 건조하기로 협의

- 글로벌 선사 및 미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수송선 및 MRO 수주 기회
 - 우리 기업은 미국 전략 상선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미국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에 속한 글로벌 선사(Maersk, MSC, APL 등)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LNG선 및 VLCC 수주 기회 적극 포착 필요
 -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입항세 부과를 추진 중으로, 중국산 선박의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선박 수주 확대 전망
 - 한국-미국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증가하는 MR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태평양에서 다수 함정을 운용하는 미국 해군의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정정비협약 (MSRA) 등 수행 자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고려 가능
 - * 현재 미국 내 조선소의 MRO 비용은 높고 효율성도 낮아, 그동안 일본 조선소에서 일부 MRO가 수행되어 왔으나, 향후 미국 해군 함정 수 증가에 따라 MRO 수요 크게 확대 전망
- 존스 법 대응
 - 한국 방위사업청은 한국이 미국에서 건조하는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나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가서 조립할 수도 있는 방안도 언급(CSIS 포럼, '25년 9월 17일)하는 등 제도 개선 및 협력 방안 모색 중
- 조선업 인력 양성 협력
 - 한국-미국 조선해양 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 추진, 마스터스 아카데미는 미국에 선박 설계 실무 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기능장급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조선 관련 용접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
 - 미국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미국 조선업 제조능력 향상, 우리 기업 조선기자재 수출 기회도 장기적으로 확보
- 우리 업계의 니즈를 미국 국내 이슈로 연결하여 아웃리치 전개
 - 미국 워싱턴 D.C.의 대형 로펌의 한 로비스트는 한국 기업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아웃리치(접촉) 방안에 대해 “(기업의) 자기 이슈를 미국 국내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
 - 미국 하원은 매 2년, 상원은 6년으로 지역구의 이해관계와 우리 기업의 니즈가 일치하도록 미국 의회 설득 필요

전략 ⑤

디지털 혁신 산업 협력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전략 수립 배경

-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관련 시장 및 인프라·기술의 확대 기대
 - 미국의 AI 시장은 향후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금융·의료·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적용 가능성과 수익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블루오션으로 분류
 - AI 수요를 바탕으로 AI 특화 데이터센터, 차세대 반도체, 엣지 컴퓨팅 등 유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AI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파트너십 기회 확대, 현지 인재와 투자 유치 협력 수요 발굴
- 빅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발굴 매칭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미국 시장 공략

□ 현지 동향

- AI 산업에 대한 높은 성장률 및 수익화에 대한 기대 확산
 - '25년 미국의 AI 시장은 약 740억 달러 규모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OpenAI, Databricks, Anthropic 등 AI 전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AI 모델 전문화·수익화 초점
 - 금융, 의료·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적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산업 특화 AI에 대한 관심 확대
- AI 산업의 성장이 기반 인프라·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견인
 - Google, Meta, Amazon, Microsoft 등 빅테크가 AI 데이터센터 및 인프라 확대·신설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6년에는 투자 합계 금액이 4,0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측
 -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성능 반도체(GPU·TPU), 서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엣지·양자 컴퓨팅, 차세대 GPU 설계에 대한 투자 확대
 - AI 특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프로세서와 가속기 개발 본격화
- AI 산업 대상 규제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추세
 -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AI 투명성·책임성 강조,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강화, 딥페이크 규제 등 관련 법안 제정
 -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 식별 도구 무료 공개, △ 명시적 표시 옵션 제공, △ 개발에 사용된 원천 데이터 정보 공개 등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강화
 - 연방정부 기준의 통일된 정책 부재로 주(州) 단위 정책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서비스 복잡성 및 리스크 관리 부담 증대

- 글로벌 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속
 - 기술 변화 속도 가속화 : AI, 반도체, 클라우드, 퀀텀, 로보틱스, 헬스테크 등 분야에서 기술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체 개발만으로는 경쟁 유지가 어려움
 - 리스크 분산 및 비용 절감 : 내부 R&D 투자 부담을 줄이고, 스타트업·대학 연구성과를 신속히 흡수 하려는 목적
 - 신흥국 및 특화 분야 스타트업과의 협력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
- 디지털 플랫폼 사용
 - Sprout Social에 의하면 링크드인 사용 인구 미국 내 약 3,000만 명으로 B2B 마케터 중 링크드인 사용 비율 약 89%, 링크드인에서 관심 수요인 Lead를 발굴하는 경우 약 62%로 밝혀짐
 - B2B 연락처를 제공하는 ZoomInfo의 경우 2만 4,215개 라이브 웹사이트에서 ZoomInfo를 사용 중이며, Rocket Reach의 경우 개인 이메일 주소, 직통 전화번호, 연락처 조회 등에 강점을 둔 연락처 검색 중심 툴임

B2B 연락처 제공 플랫폼

항목	ZoomInfo	RocketReach
강점	완전한 B2B 인텔리전스 플랫폼 (기업+연락처+인텔리전스)	연락처 중심 (직통 이메일·전화번호 조회)
데이터 범위	기업 정보+조직 구조 등 다양	연락처 중심, 일부 부가 기업 정보 포함
통합성	CRM·마케팅 자동화와의 통합 강점 있음	일부 통합 기능 있으나 전체 플랫폼 수준은 낮음

자료: KOTRA

□ 유망 품목

- AI 인프라 및 하드웨어(GPU, AI칩, 서버)
 - AI 산업의 중점은 거대언어모델(LLM) 및 생성형 AI로 초고속 연산 성능이 필수적. 때문에 AI 산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GPU, AI 전용칩, 고성능 서버의 수요 확대로 귀결
 - * 생성형 AI에 대한 미국의 민간 투자액은 288억 달러로 글로벌 투자액의 85%를 차지, 전년 대비 18.7% 성장하며 미국 내 AI 산업의 성장 견인
 - '25년 현재도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확장·신축에 따른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되며 고대 역폭 메모리, 고성능 GPU에 대한 지속적 공급 가능
 - 장기적으로는 AI 효율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반도체 및 컴퓨팅 기술에 대한 개발·협력 확대 예상
- 산업 맞춤형 AI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 미국 시장 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제조·물류·의료·금융 분야에 대한 AI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구축 시 미국 시장 진입에 유리

- 제조업, 의료 등은 미국 내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난항으로, 원천 데이터를 보유한 우리 기업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 AWS 등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제공을 통하여 더 넓은 사용자층 확보 및 B2B 협력 사례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진출 가능
-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 AI 기술
 - 미국 내 AI 관련 규제 확대로 인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설명 가능성(XAI), 윤리성 검증 솔루션 수요 확대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PIPA) 기반 기술 적용·협업을 통한 규제 대응 솔루션 시장 진출 가능
 - 빅테크 위주의 시장이 형성된 미국 AI 생태계에서 컴플라이언스 테크*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블루오션

* 컴플라이언스 테크 : 법제도 규제 적용에 따른 기업·사용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여주는 규제 대응 자동화 기술
- 글로벌 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속
 - 기술 변화 속도 가속화 : AI, 반도체, 클라우드, 퀀텀, 로보틱스, 헬스테크 등 분야에서 기술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체 개발만으로는 경쟁 유지가 어려움
 - 리스크 분산 및 비용 절감 : 내부 R&D 투자 부담을 줄이고, 스타트업·대학 연구성과를 신속히 흡수 하려는 목적
 - 신흥국 및 특화 분야 스타트업과의 협력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
 - 자율주행, 드론 등 AI 활용 기술 수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예시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제어 부문 : 조종의 용이성, 비행 경로 설계 및 제어 기능(관련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 가능한 경우 우대) • 카메라 성능 및 예외 상황 대응 능력(특히 직사광을 마주보는 복잡한 시각 환경에서의 대응력) • GPS 공간 해상도(예시 : Differential GPS 기술 활용 여부) • 성능 대비 가격 :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높은 비용 효율성을 갖춘 제품 우대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 초소형 전기차 제조사 • 속도 제한이 있으며 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한국산 초소형 전기차(중국산 제외)·자동차 텔레매틱스 기업 • 앱을 통한 차량 제어(문 열림·잠금, 시동), 위치 추적, 배터리 모니터링 등 차량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자료: KOTRA

□ 진출전략

- (오픈이노베이션 기술 협력)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발굴 및 대응
- (인재 유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첨단산업 종사 고급인재 유치 기회로 K-Tech Pass 등 정책 활용 및 인재채용설명회 참여, 헤드헌팅 등 활용
- (투자 유치) 국내 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미국 반도체장비 글로벌 기업의 국내 공급망 편입 수요 발굴
- (디지털 플랫폼 활용) 디지털 기술 활용 바이어 쉽게 찾기
 - 디지털 마케팅 : Linkedin 활용 B2B 바이어 관심사 발굴(Lead), 광고 설정 → 타깃 설정 → 키워드 또는 직업군 또는 업무 → 수신자 관심반응(Lead) → Lead 회신자 대상 세부 수요 파악 및 마케팅 진행
 - Linkedin의 Inmail을 통한 유력바이어 접촉 및 ZOOMINFO, RocketReach 등의 바이어 연락처 찾기 기능 활용

〈바이어 연락처 찾아주는 디지털 솔루션 예시〉

rocket reach

The screenshot shows the RocketReach softwar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search bar with the URL "linkedin.com/in/ysouha-karim-8527926".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ctions for "Saved Searches (2)", "Search Filters", and "Clear All". The main area displays a single result: "1 result found". The result is for "Sr. Sourcing Manager" at "Target". It includes a thumbnail of the LinkedIn profile, the target company logo, and the email address "target.com@gmail.com". At the bottom, there's a section titled "Other Contact Options" with a note about "Skills".

ZOOMINFO

The screenshot shows the ZOOMINFO software interface. It displays three search results for LinkedIn profiles. Each result card includes a thumbnail, the target company logo, and the email address. The first result is for "Global Director, Insuring. Global Insuring" at "Target". The second result is for "Global Purchasing" at "Target". The third result is for "Strategic Senior Manager, Global Procurement" at "Target". Each result card also has a "HO M" button.

자료: KOTRA

전략 ⑥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마케팅으로 연결하라



전략 수립 배경

- 한류는 K-팝, K-드라마, K-영화 등 콘텐츠를 넘어 복합적 문화 현상과 라이프스타일로 성장
 - K-뷰티, K-푸드, K-패션, K-굿즈 등 다양한 소비재에서 한류 관련 소비 증가
 - 기존 팬덤과 신규 팬덤 유입으로 40~50대 중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확대 성장 중
- 한국의 전통문화에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 깊은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복합 콘텐츠로 성장
 - 안정적인 공급망 및 물류 환경을 위해서는 전문적 물류 서비스를 이용한 종합적 물류 전략 뒷받침 필요

□ 현지 동향

- 한류 강세로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소비재 수요 창출
 - 단순한 문화 유행을 넘어 라이프스타일로 미국 소비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과 식품 분야의 수출 증가로 확대
 - 미국 내 한류 콘텐츠 소비는 MZ세대가 주도하고 있으나 40~50대의 중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한류 관련 소비 증가
 -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성공은 K-팝 등 한류에 생소했던 신규 팬층까지 유입시키며 한류 콘텐츠가 더 이상 드라마나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문화 현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
 - 미국 내 한류 콘텐츠는 유튜브, 넷플릭스, 헐루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주로 소비. K-팝, K-뷰티, K-푸드 등 한류 관련 콘텐츠와 상품이 MZ세대를 핵심축으로 지속 성장 중
- 미국 소비시장에서 웰니스(Wellness)·건강 중시 트렌드 확산 지속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웰니스·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꾸준히 강화되며, 식습관·운동·체중 관리 전반에 걸친 수요 확대
 - 최근 말차(Matcha) 열풍이 미국 주요 도시 카페 및 리테일 채널에서 확산되며, 음료 분야에서도 항산화·저카페인 콘셉트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
 - 체중 관리·영양 보충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K-푸드도 웰니스 지향 제품군으로의 확장 가능성 증가

□ 유망 품목

- 패션, 뷰티, 게임 및 메타버스, 굿즈 등 다양한 소비재로 확대
 - 대표적인 K-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시즌 1~3,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K-팝에서 시작된 관심은 대중화되어 문화적인 교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패션, 뷰티, 게임 및 메타버스와 굿즈 등 다양한 소비재로 구매 확대
 - ‘오징어 게임’에서 유행했던 달고나 뽕기 게임처럼,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목받은 한국 전통 갓,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 등 굿즈가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통 굿즈 판매는 ’25년 상반기 기준, 11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한류 콘텐츠의 인기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K-굿즈 활성화에 큰 기여
 - K-팝 아이돌 스타일을 반영한 뷰티 상품, 패션과 액세서리에 대한 반응이 뜨거우며 웹툰, 게임,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문화상품도 복합형 소비재로 성장 중. NFT(대체 불가능 토큰) 굿즈, 팬덤 기반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에도 주목
- 단백질 식품 및 건강 간식류의 부상
 - 최근 미국 내 ‘위고비(Wegovy)’ 등 GLP-1 기반 다이어트 열풍과 맞물려 단백질 강화 식품, 저칼로리 간식, 대체식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성장
 - 기존 한식 간편식, 라면·스낵 중심 제품에서 벗어나 영양 균형 및 체중 관리를 강조한 프리미엄 건강식 카테고리로 확장 유망

□ 진출전략

- 문화적 스토리텔링 및 브랜드 스토리 확장 전략으로 소비자 어필
 - 한류 콘텐츠를 기반한 미국 소비재 시장 진출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소는 SNS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소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전략 중요. 기존 한류 콘텐츠 팬덤 외에도 신규 소비자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마케팅 전략이 핵심
 - 온라인·오프라인을 융합한 옴니채널 유통망 구축으로 한류 콘텐츠나 온라인 마케팅에 소개된 제품을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하여 구매로 연결되도록 기회 확대 필요
- 건강·웰니스 트렌드와 연계한 제품 포지셔닝 강화
 - 건강·웰니스 중심 라이프스타일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류 소비재도 단순한 문화상품을 넘어 웰니스 지향 제품군으로 자리매김 필요
 - 단백질 식품, 저칼로리 간식, 말차 음료 등 트렌드를 반영하여 ‘건강관리 + K-라이프스타일’ 스토리 텔링을 강화하여 한류 소비재를 단순 트렌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확장 가능



성공 사례로 보는 K-뷰티 진출전략 : 화장품 T사(현지 U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크며, 다양한 피부 톤을 고려한 제품군으로 미국 소비자 니즈를 충족
 - 합리적인 가격 대비 고품질, 그리고 한류 콘텐츠와 결합한 브랜드 스토리로 경쟁우위 확보
- 필수 인증
 - 미국 FDA 화장품 안전성 기준 준수
 - 일부 제품은 피부 저자극 테스트 및 비건·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인증 확보
- 성약 소요기간 : 미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이커머스)로 초기 반응 확보 후, 약 1~2년 내 오프라인 대형 리테일 체인 입점 성사
- 바이어 발굴경로 : SNS에서 화제가 된 쿠션 파운데이션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확산, 이후 온라인 판매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 소비자 수요가 확인되면서, 뷰티 체인 U사와 오프라인 입점 계약 성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K-뷰티 제품은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및 한류 결합 마케팅으로 차별화 가능
 - 미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는 SNS, 인플루언서, 틈새시장 타깃이 효과적이며, 이후 대형 유통망 확장으로 규모 확대 가능

자료: KOTRA



성공 사례로 보는 미국 진출전략 : 화장품 기업 A사(현지 U사 입점 계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아마존 '주름 개선 및 노화 방지 기기(Wrinkle & Anti-Aging Devices)' 부분, 판매 2위 기록(판매 1위는 괄사)
- 필수 인증 : 미국 식약청, US FDA 의료기기 등록 및 라벨링 규정 준수 필수
- 성약 소요기간 : 1~2년
- 바이어 발굴경로 : 온라인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미국 주요 오프라인 뷰티숍과 입점 진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들과의 소통 확대, 옥외 전광판 광고, 팝업 스토어(Pop-Up Store) 운영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현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정체성 확립에 집중한 것이 성과로 반영
 -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B2C 판매를 확대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전문 뷰티숍 입점 성공. 고객 접근성 개선, 고객 충성도 강화와 함께 온·오프라인 판매 확대의 단계별 성장·마케팅 전략이 밀거름 역할

자료: KOTRA

- 물류창고 및 3PL(제3자 물류 또는 물류 대행) 활용을 통한 유통망 구축 필수 전략화
 - 그간 한국 기업들의對미 온라인 B2C 판매는 De Minimis(미국 내 800달러 이하 무관세) 혜택을 기반으로 역직구 방식이 주류였으나 De Minimis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비자 직접배송 방식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유지 곤란

- 관세 외에도 MPF(미국 수입 시 물품취급수수료), Entry Fee 등 가격의 전방·후방 전가에 따른 수출업체 애로 및 소비자 가격 상승
- 이에 따라 현지 물류창고를 통한 재고 확보와 3PL·풀필먼트 서비스를 활용한 유통망 운영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 물류창고 거점을 확보하면 배송 시간 단축, 관세 부담 완화, 반품·AS 관리 등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 가능
- 특히 3PL(Third Party Logistics)은 통관·보관·포장·배송 등 B2C 기업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을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4PL(Fourth Party Logistics)은 IT 데이터 기반으로 물류 전반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공급망 불안정을 최소화
- 또한 De Minimis 폐지로 인한 비용 상승과 가격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역직구 판매에서 벗어나, 현지화된 물류 인프라와 전문 물류 서비스(3PL·풀필먼트)를 결합한 유통망 확장이 필수적
- 건별로 B2C 배송보다는 현지 물류창고 확대 또는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을 통해, 현지 재고 보유 후 현지 배송체계 구축 고려 필요



성공 사례로 보는 농산물 진출전략 : 한국산 딸기 생산업체 F사(현지 H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AI 기반 디지털 스피드 브리딩 기술을 적용한 자체 재배 키트는 현지 노지 재배 품목 대비 맛·당도·외관 등 품질 경쟁력이 높아 프리미엄 시장 진입에 적합하며, 일본산 ‘Oishii’와 비교할 경우 가격 대비 품질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
- 필수 인증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미국 내 수입자가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에 신청
 -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수출국 검역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APQA)이 화물별 검역을 실시하여 병해충 및 검역 병해가 없을 경우에 한해 발급되며, 미국 통관 시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
- 성약 소요기간 : KOTRA 지사화사업 가입('23년 9월) 후 약 4개월 만인 '24년 1월 첫 수출 성약 달성
- 바이어 발굴경로 : 바이어 발굴 경로는 △ DMV(DC·VA·MD) 권역의 창고·유통망 및 자체 리테일 매장을 보유한 H사를 통한 오프라인 채널 확보와 △ 한국산 프리미엄 농산물 전문 온라인 플랫폼 W사의 선(先) 오더 기반 D2C 택배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채널 활용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신선 농산물은 통관·검역 절차가 까다롭고 지연 시 상품 가치가 하락하므로, 사전 필수 인증 요건 및 물류 계획 마련 필요
 - 안정적 유통을 위해서는 현지 물류·창고·리테일망을 보유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초기 진출 단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선 오더·D2C 방식 활용이 효과적으로 판단됨
 -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판촉·마케팅 활동과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등 현지 생산 연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KOTRA

- 전략을 통해 단기적 판매 감소 리스크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미국 내 소비자 기반을 확보 가능

수출물류단계

구분	국내 물류					국제 운송		해외(현지) 물류					수출 형태	
	수출자	수출 통관	국내 운송	보세 입고 (CY)	수출항 적재	해운	항공	도착항 하역	보세 입고 (CY)	수입 통관	보세 반출	현지 운송		
EXW	Ex Works													
FCA	Free Carrier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CFR	Cost & Freight													
CIF	Cost, Insurance & Freight													
CPT	Cost Paid To													
CIP	Carrier & Insurance Paid To													
DAP	Delivered At Place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DP	Delivered Duty Paid												B2C/ D2C	
협업 파트너	국내 플랫폼	관세법인	국내 물류사	선사/ 물류사	항공사/ 특송사	현지 물류사					해외 플랫폼 풀필먼트	B2B 바이어/ 소비자		
						국내외 물류사, 특송사								
지원 수요	SNS 마케팅	FTA· 수출 통관	국내 핍업 비용 지원	LCL CFS 우선 적재	운임 인하 선복 확보	우선 하역	해외 보세창고	상표권·인증· 관세·세무· 결제·수입 통관	4PL CS (반품)	CS				

자료: KOTRA



차량용 카메라 모듈

- 선정사유**
- 전 세계 자동차 카메라 모듈 시장은 '24년 약 98억 달러에서'33년 80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6.3% 성장 전망(Global Growth Insights)
 - 북미 시장은 신규 차량의 약 72%가 후방 카메라, 53%가 전방 카메라를 채택, 상용차 부문은 다중 카메라 시스템 확대
 - 후방 카메라 의무화, 자동 비상제동(AEB) 단계적 의무화 등 안전 규제 강화가 카메라 탑재의 최소 기준으로 작용
 - Tesla FSD Beta v12 도입 이후 카메라 기반 End-to-end 학습 확산과 GM·Ford의 카메라 중심 센서 융합에 따른 고해상도 외부 카메라 수요 확대
- 경쟁동향**
- 북미 시장은 Bosch, Continental, Aptiv, Magna, Valeo, ZF, Hyundai Mobis 등 주요 Tier-1 부품사주도 구조(Allied Market Research)
 -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Onsemi(미국), Sony(일본), OmniVision(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높은 기술력 확보(Maximize Market Research)
 - 시장 구조는 다수 글로벌 공급자가 경쟁하며, 상위 기업 간 점유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Allied Market Research)
- 진출방안**
- 정밀 광학 및 센서 패키징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정밀 모듈 + 비용 최적화' 차별화 추진
 - SAE(미국자동차기술학회) 자율주행 단계별 성능 요건 대응 및 북미 OEM이 추진하는 차량 전방위 시야 확보(360° 카메라 융합) 수요에 맞춘 멀티 카메라 패키지 공동 개발 제안

차량용 레이더(밀리미터파) 센서

- 선정사유**
- ACC(Adaptive Cruise Control), 전방 충돌 방지 등 핵심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 구현에 필수 센서로, 카메라와 함께 복합 센서 구성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따라 중장기적 수요 증가 예상(Mordor Intelligence)
 - 미국 자동차 레이더 시장 규모는 '24년 약 18억 달러에서'30년 42억 달러로 성장 전망, '25~'30년 연평균성장을 18.2% 기록 예상(MarkNtel Advisors)
 - '29년까지 승용차·경상용차에 레이더 기반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필수 탑재 예정, 규제 기반 수요 확대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국(FMCSA)이 AEB 장착 의무화 규정 발표('24년 4월)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Tier-1 부품사 Bosch, Continental, ZF, Aptiv, Denso, Valeo가 시장을 주도하고, 반도체 공급사는 NXP, Texas Instruments, Infineon, Renesas 등으로 구성(Research and Markets) 77GHz를 중심으로 하는 7X-GHz 레이더가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200m 이상 장거리 감지와 고해상도 이미징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및 ADAS용 핵심 기술(MarkNtel Advisors) 차세대 4D 이미징 레이더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Continental, Bosch, Arbe Robotics 등이 다중 주파수·고해상도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추세(Driving Vision News)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U 통합 및 안테나 일체형 패키징 기반 차별화 제안, 플랫폼 단가 최적화와 경량화 대응 전략 북미 현지 FAE(Field Application Engineer)와 실도로(필드) 테스트 체계 확보를 통한 OEM 신뢰성 검증 및 수주 기반 마련 4D 레이더와 소형화·단일 칩 CMOS 기반 센서 등 차세대 응용 분야 겨냥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

첨단 전장 부품(Advanced Automotive Electronics)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전장 부품은 전자제어 장치(ECU),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자동 긴급제동 장치(AEB) 등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 요소로, 미국의 자율주행차 보급 확산으로 수요 증가 추세 미국의 ADAS 시장은 '24년 약 97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향후 10년간 연 15.4% 성장 전망 (Claight)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모든 신차에 AEB 의무화를 확정했으며, '26년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NCAP)에도 ADAS 적용 여부를 포함해 첨단 전장 부품 수요 견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슬라, GM, 포드 등의 완성차 업체가 독자 개발하거나, 현지 또는 외국 부품사와 협력해 ADAS 전장 부품을 내재화하는 추세 부품사로는 Bosch, Continental, Valeo, Denso, Hitachi 등이 완성차 업체와 협업하며 미국 내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 기업은 ADAS 기술 개발 및 부품 공급으로 미국 시장 진입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GM, 포드, 테슬라를 비롯한 구글 웨이모, 애플 카프로젝트 등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의 파트너십 모색 소형화·고성능 센서처럼 기술적 강점을 활용한 차별성 확보 자동차 클러스터 지역(조지아, 미시간, 텍사스 등)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및 조달 거점 구축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 선정사유**
- 미국의 생물의약품(Biologics)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2.5% 성장해왔고, 전체 의약품 지출의 약 46%를 차지(IQVIA)
 -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시장 경쟁 진입 가능성이 높음
 - IQVIA는 '27년까지 바이오시밀러 관련 누적 판매액(Cumulative Sales)이 약 1,2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보다 비용이 낮아 의료보험·의료 시스템 측의 부담이 줄고 환자 접근성은 높음
- 경쟁동향**
- 현재 개발 중이거나 승인된 바이오시밀러 분자의 상당 부분(약 79%)이 소규모 업체(Small Manufacturers)에 의해 개발 중
 - 이러한 업체들은 특히 만료 제품 중심, 기술적 도전이 덜하거나 허가 경로(Regulatory Pathway)가 명확한 제품 타깃
- 진출방안**
- 미국 FDA 허가 절차, 상호대체(Interchangeability) 요건, Switching Study, Comparability 자료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필수
 - 미국 관세 정책과 공급망 구축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내 GMP 인증된 생산거점 또는 CMO/CMO 계약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필요

세라믹 기판

- 선정사유**
- 전기차 인버터와 AI 데이터센터용 전력모듈은 고온·고전압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세라믹 기판은 열전도성과 기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소재로 사용
 - 글로벌 시장에서 SiC(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GaN(질화갈륨) 채택이 늘어남에 따라 세라믹 기판 수요도 동반 성장
- 경쟁동향**
- 일본(미쓰이, 쇼와덴코), 유럽(루살트론), 대만 등 주요 기업이 세라믹 기판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력모듈 전용 Si_3N_4 -AMB 제품군 확대
 - 미국 내에서는 전력반도체 기업들이 자사 모듈용 기판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모듈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고열전도·저결함 기판 수요가 증가
- 진출방안**
-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을 통해 고품질 세라믹 가공·박막 증착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력모듈용 Si_3N_4 -AlN 기판 양산 경험 축적
 - 미국 시장에서는 국제 인증(AEC-Q, UL) 확보와 현지 모듈업체와의 공동 검증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벤더 리스트에 조기 진입하는 전략이 효과적

고전압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V급 전기차가 인버터, 온보드 충전기(OBC), AI 데이터센터 전원공급장치(PSU) 등에서는 고전압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1,000~2,000V급 MLCC가 필수적으로 사용• 글로벌 MLCC 수요가 모바일 중심에서 전장·산업용으로 이동하면서, 고전압·고신뢰성 제품 시장 성장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무라타가 전장용 MLCC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TDK-Taiyo Yuden 등도 고전압 제품군 확대• 한국 기업 역시 세계 2위권 점유율을 유지하며, 최근 2,000V급·AEC-Q 규격 대응 제품을 연이어 출시해 경쟁력을 강화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완성차·데이터센터 기업과의 공동 신뢰성 시험 및 현지 인증 획득을 통해 벤더 리스트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차세대 전기차(EV)용 800V 플랫폼과 AI 서버용 전원장치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고전압·고온 대응 라인업을 확장하는 전략 필요 |

기계식 프레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식 프레스는 자동차·항공우주·전자 등 전략산업의 대량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설비• 제조업 자동화·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정밀 금속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기계식 프레스의 수요도 확대 전망• '24년 기준, 미국 수입액 9억 4,000만 달러, 전년 대비 30.6% 증가했으며, 한국산 수출은 2억 3,000만 달러(전년 대비 +228.6%)로 급성장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시장 주요 경쟁사는 Komatsu America, AIDA-America, Macrodyne, Schuler 등• 기술적으로는 일본과 독일산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에는 자동화 라인과 결합된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보 프레스 및 하이브리드 프레스(유압+기계식)가 각광받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전시회(FABTECH, IMTS 등)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와 고객사 네트워킹• 고강도 합금 소재와 첨단 윤활 기술을 적용해 정밀도와 내구성을 강화함으로써 품질 차별화 마련•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 및 대형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 체결 병행 |

중저압 케이블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전력망 현대화(IIJA, GRIP 등)와 분산형 전원 확대로 배전망 보강 수요 급증 • 중저압 케이블은 지역 유틸리티·산업단지·데이터센터 배전용으로 꾸준한 수요 • 한국 중소기업이 생산 가능한 기술 수준이며, BABA(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규정에 따라 현지 조달 파트너십 필요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uthwire, Encore Wire, General Cable 등 지역 기반 업체가 강세 • Prysmian(이탈리아), Nexans(프랑스) 등의 유럽 기업도 북미에 생산공장 보유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파트너십, 인증 사전 확보, 현지화 생산 고려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후공정 장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는 고온 안정성, 고전압, 저전력 등의 강점을 가진 전력반도체의 핵심 소재 • 전기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EV),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 적용 산업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추세 • 미국 에너지부(DOE)가 SK실트론 CSS의 200mm SiC 웨이퍼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 대출을 승인하는 등 미국의 중요 과제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웨이퍼를 칩으로 자르고 패키징하는 후공정 장비는 정밀도와 생산성, 고객사를 위한 기술 지원 능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 • 특히, 웨이퍼를 칩으로 분리하고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기술이 후공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해당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는 K&S(Kulicke&Soffa),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Applied Materials) 등이 존재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들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에, 기존 기술력으로 활용하여 SiC 반도체에 특화된 장비 개발에 유리 • 한국의 웨이퍼링 기술과 미국의 SiC 잉곳 제조 기술을 결합하는 파트너십 구축, 미국 공급망 내재화 흐름과 시너지 창출 • 반도체 전시회(SEMICON West 등) 참여, 기술 데모 및 현지 업체와 네트워킹 강화

열교환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발전소·LNG·정유·화학 플랜트 전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기기자재• 노후 설비 교체 수요와 함께 데이터센터 냉각·ESS(에너지저장시스템) 열관리 등 신수요 창출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fa Laval(스웨덴), Kelvion(독일), Tranter(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강세• 산업용 로컬 중소기업 다수 존재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수출 후 완제품 현지 조립• EPC(설계·조달·시공)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형 진출 |

전력 케이블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및 제조 시설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전망 확충과 송전 인프라를 위한 전력 케이블 수요 확대될 전망• 미국의 수명 40년 이상된 노후 배전·송전망 교체 시기에 따른 수요 발생• 트럼프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및 민간 주도의 전력망 현대화와 데이터센터·산업단지 전력 수요는 지속될 전망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ysmian, Nexans, Southwire, LS전선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고관세 정책으로 원자재(구리, 알루미늄) 가격 변동성에 따른 경쟁이 치열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인프라 건설에 'Buy America' 조항 등 현지 조달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현지 생산 및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통한 진출 필요• 주요 유틸리티 업체 및 EPC(설계·조달·시공)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미국 내 수요가 높은 중전압케이블(MV),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용 케이블, EGS에 대응한 친환경 절연재 케이블 등 차별화• 품질인증(UL, IEEE, ICEA 등) 사전 획득으로 수출 기반 마련 |

GLP-1 친화적 단백질 식품

- 선정사유**
-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체중 감량 치료제 오젬피(Ozempic)과 위고비(Wegovy) 열풍으로 음식 섭취 후 글로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 인기
 - GLP-1 친화적 단백질 섭취를 통해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당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미국 식품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로 급부상
 - '22~'24년까지의 일반 스낵류 성장률은 연평균 3%로 집계되었으나 단백질 간식은 연평균 9% 성장을 기록
 - 미국의 '24년도 GLP-1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은 약 99억 5,000만 달러의 매출 기록. '30년까지 372억 8,000만 달러로 성장 전망
- 경쟁동향**
- 촘스(Chomps) 브랜드는 고단백·저당 육포 제품, 슈퍼컷(Supercut) GLP-1 부스터 출시.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인 네슬레(Nestle)는 Vital Pursuit를 출시하여 고단백·저칼로리·고섬유질 스낵 제품들로 혈당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 퀘스트(Quest) 브랜드는 단백질 칩(Chips)을 출시했으며 GLP-1 친화 식단을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이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스낵 제품으로 인기
- 진출방안**
- 탄수화물 중심의 한식 메뉴(김밥, 떡볶이 등)에서 벗어나 단백질 함량을 높이거나 두부, 콩 등의 고단백 재료를 사용한 메뉴 개발 중요
 - 동물성 단백질 메뉴 개발도 중요하지만 광범위한 채식 및 식물성 메뉴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 채식 메뉴도 중요 고려 요소
 - 식사 대용의 간편식, 스낵, 음료, 베이커리 등 다양한 카테고리 개발과 제품 기획 필요
 -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색소 사용 배제, 주요 알레르기 유발 재료 확인, 불필요한 조미료나 첨가물 사용 배제, 건강한 비건(Vegan) 및 클린(Clean) 제품들이 최신 트렌드로 부상. 지구 열대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포장, 라벨링 등 원재료 수급에도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는 제품들에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이 높음

헤어케어 제품

- 선정사유**
- 헤어케어의 스킨케어화, 개인 라이프스타일과 모발, 두피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제품 선택 가능성, 유해 화학 성분이 없는 식물성 성분 및 친환경 포장에 대한 제품 수요 빠른 증가
 -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전문 살롱에서 받는 고가의 관리 대신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추세. 화학적 성분에 대한 불신으로 친환경, 자연 유래 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세
 - '24년도 미국의 헤어케어 소매 판매 규모는 약 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 '23년에 이어 고급화 트렌드가 지속되며 스킨케어에 준하는 스킨케어화(Skinification) 추세와 살롱급 품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성장 원인으로 분석
- 경쟁동향**
- 모로칸오일(Moroccan Oil) 브랜드의 아르간 오일(Argan Oil) 기반의 고급 헤어 트리트먼트, Redken & Pureology의 전문 살롱 라인 제품, 자연주의 화장품 전문 브랜드인 아베다(Aveda), 글로벌 브랜드인 Unilever의 Dove Scalp + Hair Therapy 등 인기
- 진출방안**
-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전성을 맞이한 K-뷰티의 강점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되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들을 고려한 제품 개발 및 출시 필요.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미국 시장에 맞추어 두피, 모발 유형, 컬러 트렌드 등 다양성을 고려한 제품 구성 필수
 -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클린 뷰티'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미국 소비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연성 있는 진출전략 필요

냉동김밥

- 선정사유**
- 한류 열풍으로 미국 내 냉동김밥 인기는 지속적으로 상승
 - 냉동 방식으로 보관과 섭취가 간편하며, 김과 밥을 기본으로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양 균형이 잘 잡힌 한끼 식사로 여겨져 수요 지속 전망
- 경쟁동향**
- 미국 냉동김밥 시장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주도
- 진출방안**
- 김밥에 들어가는 동물성 식재료는 대체육 등 식물성 재료로 대체해 비관세 장벽을 극복
 - 미국 내 채식 열풍을 지렛대 삼아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가능
 - 최근 미국에서 유행에 성공한 K-콘텐츠와 협업을 통한 마케팅도 고려할 수 있음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AI 기반 피부 노화방지 헬스케어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은 고령화와 외모 관리 수요 확산에 따라 피부 노화 예방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실시간 피부 분석과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선호가 뚜렷AI 기반 피부 관리 서비스는 단순 미용을 넘어 예방 중심 헬스케어 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로레알(Modiface), 퍼펙트코프, 뉴트로지나(360 스킨 스캐너) 등 글로벌 기업은 AI 기반 피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제품·관리 솔루션을 제시하고, 병원 연계 진단 및 구독 모델을 활용해 수익 구조 다변화 추진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장 진입 시 AI 분석 정확성·안전성을 강조하고, 피부과 전문의 자문·FDA 등록·임상자료 등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실시간 분석, 건강 점수화, 제품 추천 등 개인화 콘텐츠와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네트워크 제휴를 통해 차별화 시도 및 신뢰도 상승 가능 |

맞춤형 유아용 장난감 정기 구독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에서는 밀레니얼·Z세대 부모를 중심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제공 받는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맞벌이 확대와 ESG 소비 확산으로 구매보다는 편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맞춤형 구독 선호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Lovevery, KiwiCo, Hoppi Box 등이 대표적이며, 연령별·발달단계별 장난감을 전문가가 선별해 배송Lovevery는 몬테소리 기반 놀이 콘텐츠를, KiwiCo는 STEM 학습 키트를 제공주요 경쟁 요소는 브랜드 신뢰도·서비스 유연성·반납 시스템·안전성 검증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SNS·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확보가 효과적이며, 친환경 소재·반납·재사용이 가능한 순환형 서비스로 신뢰 제고 가능AI 기반 맞춤 추천, 앱 구독 관리, 부모 대상 놀이 가이드 등 기능을 고도화하고, 현지 육아 플랫폼·키즈 콘텐츠 채널과 제휴해 차별화와 초기 시장 진입 |

디지털 재활 치료(Telerehabilitation) 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은 고령화, 수술 부상 후 재활, 근골격계 질환 증가로 재활 치료 수요가 확대의료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격 재활 서비스가 주목받으며, AI·센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맞춤 피드백 서비스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춰 성장 잠재력이 큼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Hinge Health, Sword Health, Kaia Health 등이 AI·웨어러블 앱을 결합해 개인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보험사·고용주 제휴, 원격 상담, 임상 근거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HIPAA(미국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규제 준수, FDA 인증·임상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현지 의료진 네트워크 제휴, 다국어 지원, 문화 적합성 반영이 필요실시간 분석, 진행 리포트, 게임화 기능으로 차별화하고, 보험사·헬스케어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확대 가능

AI 기반 금융 자산 관리 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AI 산업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금융 분야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및 관련 수요 증가 추세AI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의 재정 상황, 목표, 위험 성향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음시장 변화나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보다 고객의 개입이 적은 편이며 저렴한 수수료와 모바일 앱, 웹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전통적인 금융서비스보다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MZ세대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4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8억 3,900만 달러며, 연평균 30.3%씩 성장해 '32년 69억 3,2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Betterment, Wealthfront 등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진출해 있음Betterment는 은퇴 주택 구매 등 고객의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투명한 수수료 체계로 복잡한 금융 지식이 없어도 쉽게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됨Wealthfront는 AI 기반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와 고금리 저축 계좌,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며,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객에게 미국 투자환경(규제, 세금, 투자 성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하고 현지화된 포트폴리오 및 UI·UX를 제공현지 금융사(은행, 증권사, 핀테크 플랫폼)와 협업하여, 초기 시장 진입 비용 절감소액·마이크로 투자 기능을 통해 젊은 세대 유입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MZ세대 타깃팅

예지보전 시스템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수요 급증 대비 노후화된 전력망으로 사전 예방 유지보수 수요 증가 • 스마트 그리드·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정책 지원 多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 Digital, Siemens, ABB 등 글로벌 대기업 • SparkCognition, Uptake 등 미국 스타트업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와 예지보전 시스템을 결합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로 공급 • EPC 및 유틸리티社와의 파트너링을 통한 실증사업 실행 |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ntelligence Transportation Systems)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S)은 교통 인프라와 차량, 이용자, 데이터 기술을 연결해 교통 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미국 정부의 교통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 주요 도시의 스마트 시티 구축, 자율주행차 도입 가속 등에 따라 ITS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5년 기준 초당적 인프라법(BIS)에 따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배정된 금액은 620억 달러이며, 미국 교통부(DOT) 예산은 2,9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상승 •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5년 미국 ITS 시장 규모는 약 416~425억 달러 규모이며, 연 5.4~6.6%로 성장 전망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주요 ITS 기업으로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과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Simens Mobility, 전자 요금 시스템과 교통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Kapsch TrafficCom, 교통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ubic Corporation 등이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의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공공조달 시스템 참여를 모색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현지 인프라 기업, 기술 기업, 정부기관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입이 필요(기술 제공,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협력 모델 확보 등) • 미국 교통 인프라와 환경에 적합한 기술 현지화 및 교통 관련 표준 준수 • ITS World Congress(애틀랜타 개최) 등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기술 홍보와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산업

- 선정사유**
- 미국은 매년 약 1,200만 대의 차량이 폐차 처리되며, 이에 따른 폐차 차량 재활용 산업 수요 존재
 - 북미 폐차(ELV) 시장은 '24년 264억 달러에서 '32년 63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성장 초기 단계에서 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Verified Market Research)
 - 고효율 해체, 선별 기술과 품질 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내 기존 기업이 충족하지 못하는 고부가 가치 부품 재활용 수요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자체 인터뷰, '25년 8월)
- 경쟁동향**
- 북미에서는 Lkq Corporation 및 Schnitzer steel 社가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하여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산업을 주도
 - 일부 지역 기반 중소업체는 주별 폐차장이나 보험사와 협력하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틈새시장 공략 전개(Verified Market Research)
- 진출방안**
- (기술 차별화) 자사가 보유한 정밀 해체, 부품 선별 기술을 앞세워 현지 기업 대비 회수율 및 효율성 강화
 - (B2B 파트너십 확보) 보험사,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등 다량의 폐차 발생 채널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
 - (정책·규제 대응 전략) 주정부 친환경 규제 충족과 인센티브 활용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리스크 감소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Supply Chain Visibility Platforms)

- 선정사유**
-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이란 해상·항공·철도·트럭 등 다양한 운송 모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 기업이 제품의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관세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해상운송 차질)으로 인해 실시간 추적 및 예측 관리 솔루션 수요 증가
 - 글로벌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 시장 규모는 '25년에 약 31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13%씩 성장하여 '35년에는 104억 달러가 될 전망
 -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을 도입한 글로벌 온라인 소매업체는 잘못된 배송을 70% 줄이고, 관리에 필요 인력을 5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Wiliot)
 - '25년 기준, 글로벌 제조업체의 76%가 여전히 공급망 가시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평판 손실과 규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가시성 확보가 필수로 인식됨(Deloitte)
- 경쟁동향**
- Amazon, UPS, FedEx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드론 배송, 자율주행 트럭, 자동화 물류센터 기술 개발 선도
 - 미국 시장은 시카고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프로젝트44(project44), 포카이츠(FourKites) 등이 점유
- 진출방안**
- 미국 고객사가 선호하는 실시간 추적, 예측 분석, 배송 효율화 솔루션을 현지화해 제공 필요
 - 시카고를 거점으로 북미 내륙 물류망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신뢰 확보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미국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행사명	시기
수출지원	拉斯베이거스 소비재 전자제품 전시회(CES)	1월 6~9일
수출지원	북미 미래차 밸류체인 진입지원	1~2분기
투자유치	JPM 연계 한국 스타트업 투자유치 IR	1월
수출지원	2026 PGA Show 한국관	1월 20~23일
수출지원	올랜도 건축산업 전시회(IBS)	2월 17~19일
수출지원	미 공군 LA기지 한국제품 전용 상설매장 입점 사업	2월 19~8월 18일
정보조사	Select USA 참가	2분기
해외취업	2026 K-Move Job Fair	2분기
수출지원	실리콘밸리 피지컬 AI 수퍼커넥트	2분기
수출지원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	2분기
수출지원	FORD - Korean Suppliers Day	2분기
수출지원	북미 유통망 플랫폼(RangeMe) 입점지원사업	2분기
수출지원	Coterie New York 전시회	2월
수출지원	拉斯ベ이거스 보안기기 전시회(ISC WEST)	3월 23~27일
수출지원	애너하임 유기동 전시회(NPEW)	3월 3~6일
수출지원	拉斯베이거스 건설기계, 콘크리트 및 광산기계 전시회(CONEXPO-CON/AGG)	3월 3~7일
투자진출	2026 미국 동남부 Auto Tech Plaza	3분기
투자유치	인천국제공항공사 투자유치 사절단	3월
수출지원	拉斯베이거스 국제방송장비전시회(NAB Show)	4월 19~22일
수출지원	미 육군박람회(AUSA) 한국관 참가	4분기
수출지원	북미 자동차 전략 상담회	4분기
수출지원	정보보안 전시회(RSAC) 한국관 운영	4월
수출지원	실리콘밸리 미래 모빌리티 수퍼커넥트	4월
수출지원	2026 미국 시카고 레스토랑 전시회	5월
수출지원	OTC 연계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상담회	5월 4~7일
수출지원	솔트레이크시티 하계 아웃도어용품 전시회 (OR & ODI Summer)	6월 23~25일

구분	행사명	시기
수출지원	BIO USA 한국관	6월
수출지원	한국-미국 글로벌 바이오 파트너십(KBTP)	6월
수출지원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WHXMiami) 한국관	6월
수출지원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 (WHXMiami)한국관	6월 17~19일
수출지원	拉斯베이거스 미용 전시회(CPNA)	7월 13~15일
수출지원	拉斯베이거스 반려동물 전시회(Superzoo)	8월 12~14일
수출지원	덴버 스마트홈 음향기기 전시회(CEDIA)	9월 1~4일
수출지원	2026 GP USA	9·10월
수출지원, 투자유치	Edge AI+Vision 로드쇼 @ 실리콘밸리	9월
수출지원	2026 미국 시카고 공작기계 전시회	9월
수출지원	전력기자재 수출상담회	9월
수출지원	LA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사업	상반기
수출지원	2026 실리콘밸리 K-Lifestyle 팝업 페스타	상반기
정보조사	경제통상협력데스크 운영	연중
수출지원	반도체 전시회(Semicon West) 한국관 운영	10월
수출지원, 투자유치	스타트업 전시회(TechCrunch Disrupt) 한국관 운영	10월
수출지원	拉斯베이거스 자동차부품 전시회(AAPEX)	11월 3~5일
수출지원	뉴욕 치과 전시회(GNYDM) 한국관	11월
수출지원	2026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11월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	1월~2월	워싱턴 D.C.
2026년 미국 중간선거	11월 3일	
G20 정상회의	11월	미국 개최 장소 미정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미 행정부 예산안 발표	2월 초	
무역대표부(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발표	3월 말	
의회 회계연도 시작/예산 마감	10월 1일	
2026년 연준/FOMC 정기회의	연중 8회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6 미국 워싱턴 D.C. 위성 통신 전시회(SATSHOW)	3월 23~26일	우주, 위성, 통신
2026 미국 메릴랜드 해양항공우주 전시회 (Sea Air Space)	4월 19~22일	미 해군 주최
2026 데이터센터 월드(Data Center World)	4월 20~23일	IT
2026 셀렉트 USA 투자 회담 (Select USA Investment Summit)	5월 3~6일	투자유치 포럼
SFA 썸머 팬시 푸드 쇼(Summer Fancy Food Show)	6월 28~30일	미 식음료 협회 주최
2026 미국 파워젠 인터내셔널 전시회 (Powergen International 2026, 샌안토니오)	1월 20~22일	전력
2026 미국 디스트리뷰테크 전시회	2월 2~5일	전력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DISTRIBUTECH 2026, 샌디에고)		
2026 버티콘 전시회(2026 Verticon, 애틀랜타)	3월 9~12일	항공
2026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전시회 (SXSW 2026, 오스틴)	3월 12~18일	ICT, 첨단기술, 콘텐츠
2026 해양 기술 전시회(OTC2026, 휴스턴)	5월 4~7일	해양 플랜트, 에너지
2026 국제 워크보트쇼 (International Work Boat Show 2026, 뉴올리언스)	12월(미정)	선박
뉴욕 소매유통업 전시회(NRF Retail's Big Show)	1월 11~13일	소매유통업
뉴욕 프레미에르비숑 섬유 전시회 (Première Vision New York)	1월 13~14일	섬유
뉴욕 텍스월드(Texworld New York City)	1월 20~22일	섬유
マイ애미 북미 뷰티 트레이드 쇼 (COSMOPROF North America Miami)	1월 27~29일	화장품, 향수, 미용 제품, 액세서리
뉴욕 춘계 패션 코테리 전시회(Coterie New York)	2월 24~26일	섬유·의류
북미 식품 장비 제조협회 쇼(NAFEM)	3월 2~5일	식품 장비 및 기술
뉴욕 인터내셔널 뷰티 쇼 (IBS New York(International Beauty Show))	3월 8~10일	화장품
미국 뉴욕 레스토랑 쇼(New York Restaurant Show)	3월 8~10일	레스토랑
미국 가정용품 전시회 (International Housewares Association)	3월 10~12일	가정용품
미국 국제 식음료 엑스포(IFOB 2026)	3월 18~21일	미 식음료 협회 주최
미국 레스토랑 전시회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5월 16~19일	레스토랑
미국 뉴욕 팬시 푸드 쇼(Summer Fancy Food Show)	6월 28~30일	식품
뉴욕 기능성 섬유 전시회(Functional Fabric Fair)	7월 7~9일	섬유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FIME)	6월 17~19일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식품
2026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 (2026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7월 22~25일	의료·제약
뉴욕 추계 패션 코테리 전시회(Coterie New York)	9월 8~10일	섬유·의류
2026 뉴욕 치과 전시회(GNYDM)	11월 27일~12월 2일	의료·제약
미국 디트로이트 배터리 전시회 (The Battery Show North America)	10월 중	이차전지, 제조기기
2026 미국 워싱턴 D.C. 육군 전시회(AUSA)	10월 12~14일	미 육군 주최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미국 시카고 레스토랑 전시회 (National Restaurant Show)	5월 16~19일	
미국 자동차 로봇 전시회(Automate Show)	6월 22~25일	
미국 공작기계 전시회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9월 14~19일	
미국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11월 29일~12월 3일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홍용택	부장	워싱턴 D.C.무역관	+1-202-857-7919	yonGlobal Trade Atlaskhong@kotra.or.kr
2	문영주	대리	북미지역본부	+1-202-857-7919	yjmoonktr@kotra.or.kr
3	정연호	차장	워싱턴 D.C.무역관	1-202-857-7919	ycheong@kotra.or.kr
4	김동그라미	과장	뉴욕무역관	+1-212-826-9000	dgkim@kotra.or.kr
5	김범수	과장	뉴욕무역관	+1-212-826-9000	bskim@kotra.or.kr
6	정진수	대리	뉴욕무역관	+1-212-826-9000	chinsoo.c@kotra.or.kr
7	신지혜	과장	달라스무역관	+1-940-666-4680	wisdom@kotra.or.kr
8	이상미	과장	애틀랜타무역관	+1-470-682-3953	esangmi@kotra.or.kr
9	손재동	과장	디트로이트무역관	+1-248-619-1601	jaeson0123@kotra.or.kr
10	송소영	과장	디트로이트무역관	+1-248-619-1601	j_song@kotra.or.kr
11	김서원	과장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내선번호 108	+1-323-954-9500,	swonkim@kotra.or.kr
12	Joyce Choi Manager	로스앤젤레스무역관		+1-323-954-9500, 내선번호 125	jchoi107@kotra.or.kr
13	조민주	과장	시카고무역관	+1-312-644-4323	minju.jo@kotra.or.kr
14	이영주	사원	시카고무역관	+1-312-644-4323	yjulee1122@kotra.or.kr
15	박예지	과장	실리콘밸리무역관	+1 408-432-5005	parkyj@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미국
진출전략



ISBN : 979-11-402-1493-8 (95320)